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539-01

## 제 출 문

###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국립국어원장 귀하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 책임자: 정 승 철

참여 연구진

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정승철(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공동 연구원	양민호(성결대 일어일문학과)
공동 연구원	임석규(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공동 연구원	조태린(대구대 국제한국어교육과)
공동 연구원	한성우(인하대 한국어문학과)
연구 보조원	김수영(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김경혜(인하대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맹혜선(인하대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보조원	김동은(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임홍연(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김고은(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국문 초록>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이 연구는 방언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방언에 관한 시범 조사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사회방언 조사·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장에서는 먼저 기존의 방언 조사·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사·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사회방언을 새로운 조사·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한국은 물론이고 서양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사회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소통하는 행복한 한국 사회의 구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배려와 치유를 위한 바람직한 언어문화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언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중장기 계획은 모두 8가지인데, 이를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방언 자료의 수집 및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된 계획

1.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언어문화의 변화 양상 조사·연구
2.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 연구
3.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의 접촉 양상 연구
4. 문학 작품 속의 방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프로그램 구축
5.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방언 관련 교육/행사 콘텐츠 구축
6. 소멸 위기의 한국어 방언 조사·연구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된 계획

7. 한국 방언 지도 구축을 위한 정밀 조사·연구
8. 한국어 음성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사회방언 시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회방언 조사·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시범 조사에서는 음운, 어휘, 문법 등의 전통적인 조사 항목 외에도 담화와 언어 인식에 관한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총 92개의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의 다양한 사회적 변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변인은 연령이었다. 분석 결과에서도 연령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세대 구분을 해 보면 35세 이하의 젊은층, 36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장년층, 66세 이상의 노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범 조사는 100명이라는 작은 규모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사회방언 조사에서는 제보자의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 조사 항목과 지역별 조사 항목을 이원화 하는 등의 질문지 체계화, 관찰자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사 방법의 훈련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방언, 조사, 활용, 중장기 계획, 대도시, 언어문화, 변화, 말하기 방식, 접촉, 문학, 소멸 위기, 방언 지도, 음성데이터베이스, 평택, 사회방언, 시범 조사, 변인, 연령, 세대, 성별

<abstract>

## Establishment of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dialect survey and it's utilization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not only to establish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dialect survey and it's utilization but also to take a pilot survey of social dialect(sociolect), finally in order to seek the methodology of full-scale survey and research on social dialect(sociolect).

With the purpose of achieving this objective, firstly in chapter 2, this research looks for several new directions in the dialect survey and research on the basis of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earlier surveys and researches. Specially in this chapter, are reviewed the existing researches on social dialect(sociolect) in the West and in Japan as well as in Korea, thereby social dialect(sociolect) is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objects in novel surveys and researches.

And then in chapter 3, this research suggests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dialect survey and it's utilization, whose ultimate goal is to realize the well-communicated and happy society in Korea, that are capable of contributing to foundation of a desirable linguistic culture for the sake of solicitude and healing. In this chapter, are suggested a total of eight plans which are divided largely into two categories as follows.

- Plans concerning collection of novel dialect data and it's utilization
  1. Survey and research on change of Korean linguistic culture focused on metropolis
  2. Research on regional or social difference of Korean conversation method
  3. Research on aspect of contact among standard language and dialects in Korea
  4. Construction of database and searching program on dialects in the literature
  5. Construction of content for education and event concerning dialect as a resource of regional culture
  6. Survey and research on endangered dialects in Korea
- Plans concerning utilization of results of regional dialect survey by NIKL
  7. Detailed survey and research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n dialect atlas
  8.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Korean voice database

Finally in chapter 4, this research takes a pilot survey of social dialect(sociolect) targeting 100 men and women over 16 years old who dwell in Pyeongtaek-si, Gyeonggi-do, and in accordance with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ults of pilot survey, suggests the methodology of full-scale survey and research on social dialect(sociolect). In the pilot survey, are inquired about a total of 92 questions which include the survey items concerning discourse and linguistic consciousness as well as traditional survey items like phoneme, vocabulary, grammar, etc. The pilot study considers ag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various social factors like sex/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al background, etc. Age factor appear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lso in the result of analysis. This research ascertains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young generation under 35 years old, the middle-aged generation over 36 and under 65 years old, and the elderly

generation over 66 years old.

However, the pilot survey was taken on a small scale, that is to say targeting 100 men and women, so that it is difficult to figure out certain tendency. This research therefore suggests some countermeasure for the full-scale survey and research on social dialect(sociolect) like the augmentation of number of informants, the systematization of questionnaire whose items are dualized for the whole country and for the regions, and the training of natural survey method which mitigates the paradox of observer, etc.

**Keywords:** dialect, survey, utilization, medium and long term plan, metropolis, linguistic culture, change, conversation method, contact, literature, endangered, dialect atlas, voice database, Pyeongtaek, social dialect(sociolect), pilot survey, factor(parameter), age, generation, sex/gender

Project Director: Jung, Seung-chul(Seoul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제1장 연구 개요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의 내용	1

###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2.1. 서양의 조사·연구	2
2.1.1. 자료의 수집 - 문헌 자료를 이용한 사회언어학 연구	2
2.1.2. 자료의 분석 - 실험 음성학적 연구 방법의 활용	3
2.1.3. 언어 변이의 사회적 변인들	4
2.2. 일본의 조사·연구	6
2.2.1.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6
2.2.2. 주요 논문	10
2.3. 한국의 조사·연구	15
2.3.1. 음운·형태	15
2.3.2. 어휘	37
2.3.3. 문법	43
2.3.4. 담화·화용	45
2.3.5. 기타	45

### 제3장 방언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3.1. 추진 전략 및 절차	48
3.1.1. 추진 배경	48
3.1.2. 추진 전략	50
3.1.3. 추진 절차	51
3.1.4.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53
3.2. 주요 사업 계획	55
3.2.1.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언어문화의 변화 양상 조사·연구	55
3.2.2. 소멸 위기의 한국어 방언 조사연구	63
3.2.3.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 연구	66
3.2.4. 지역간 상호이해를 위한 한국 방언 지도 제작	70
3.2.5.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의 접촉 양상 연구	78

## 목 차

3.2.6.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방언 관련 교육/행사 콘텐츠 구축	83
3.2.7. 한국어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86
3.2.8. 문학 작품 속의 방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프로그램 구축	90

### 제4장 사회방언 시범 조사 및 연구 방법론 제안

4.1. 시범 조사 개요	93
4.1.1. 조사 대상	93
4.1.2. 조사 방법	93
4.1.3. 조사 과정	98
4.1.4. 조사 결과	98
4.2. 시범 조사 결과 분석	99
4.2.1. 기초 분석	99
4.2.1.1. 조사 대상	99
4.2.1.2. 문항 분석	103
4.2.1.3. 변인별 분석	107
4.2.2. 상세 분석	115
4.2.2.1. 음운	115
4.2.2.2. 어휘	148
4.2.2.3. 문법	174
4.2.2.4. 담화	191
4.2.2.5. 방언 의식	200
4.3. 사회방언 조사 연구 방법론 제안	204
4.3.1. 시범 조사 결과의 종합적 분석	204
4.3.2. 향후 사회방언 조사 연구를 위한 제안	207

### 제5장 결론

5.1. 연구의 의의	208
5.2. 기대 효과	209

### 참고 문헌

<부록> 사회 방언 시범 조사 질문지	218
----------------------	-----

## 〈그림 목 차〉

〈그림 1〉 방언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추진 전략	50
〈그림 2〉 대도시의 언어문화 조사 · 연구	56
〈그림 3〉 질문지 중 제보자 인식사항 기록란	57
〈그림 4〉 조사 지점(대도시)	58
〈그림 5〉 언어생활에 대한 조사	59
〈그림 6〉 추적 조사의 기대 효과	61
〈그림 7〉 조사 지역의 선정	63
〈그림 8〉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방언 지도	70
〈그림 9〉 일본 NHK의 방언 이미지 조사 결과	75
〈그림 10〉 접촉 방언 조사 지점	79
〈그림 11〉 방언 교육/행사 관련 콘텐츠 구축	84
〈그림 12〉 문학작품 속의 방언 검색 프로그램 구축	91
〈그림 13〉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	99
〈그림 14〉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	100
〈그림 15〉 조사 대상자의 출생지 분포	100
〈그림 16〉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 분포	101
〈그림 17〉 조사 대상자의 외지 생활 경험 분포	101
〈그림 18〉 조사 대상자의 직업 분포	102
〈그림 19〉 조사 대상자의 학력별 분포	102
〈그림 20〉 ‘때(e/E)’의 사용 비율	115
〈그림 21〉 ‘때(ɛ/E)’의 사용 비율	115
〈그림 22〉 ‘때(e/E)’의 연령별 사용 비율	116
〈그림 23〉 ‘때(ɛ/E)’의 연령별 사용 비율	116
〈그림 24〉 ‘죄(ö/we/e)’의 사용 비율	117
〈그림 25〉 ‘취(ü/wi/i)’의 사용 비율	117
〈그림 26〉 ‘죄(ö/we/e)’의 연령별 사용 비율	118
〈그림 27〉 ‘취(ü/wi/i)’의 연령별 사용 비율	118
〈그림 28〉 ‘외삼촌(ö/we/e)’의 사용 비율	119
〈그림 29〉 ‘외삼촌’ (ö/we/e)의 연령별 사용 비율	119
〈그림 30〉 ‘의(iy/ui/i)’의 사용 비율	120
〈그림 31〉 ‘의(iy/ui/i)’의 연령별 사용 비율	120
〈그림 32〉 ‘우리의 소원(iy/ui/i/e)’의 사용 비율	121
〈그림 33〉 ‘우리의 소원(iy/ui/i/e)’의 연령별 사용 비율	121
〈그림 34〉 ‘어디로(o/u)’의 사용 비율	122

## 〈그림 목 차〉

〈그림 35〉 ‘어디로(o/u)’의 연령별 사용 비율	122
〈그림 36〉 ‘외삼촌(o/u)’의 사용 비율	123
〈그림 37〉 ‘외삼촌(o/u)’의 연령별 사용 비율	123
〈그림 38〉 ‘밥하고(o/u)’의 사용 비율	124
〈그림 39〉 ‘밥하고(o/u)’의 사용 비율	124
〈그림 40〉 ‘더럽다(a/i)’의 사용 비율	125
〈그림 41〉 ‘더럽다(a/i)’의 연령별 사용 비율	125
〈그림 42〉 ‘장음의 사용 비율(‘더럽-’)	126
〈그림 43〉 장음의 연령별 사용 비율(‘더럽-’)	126
〈그림 44〉 장음의 사용 비율(‘말’)	127
〈그림 45〉 장음의 연령별 사용 비율(‘말’)	127
〈그림 46〉 ‘작다(c/c)’의 사용 비율	128
〈그림 47〉 ‘작다(c/c)’의 연령별 사용 비율	128
〈그림 48〉 ‘효과(k/k)’의 사용 비율	129
〈그림 49〉 ‘효과(k/k)’의 연령별 사용 비율	129
〈그림 50〉 ‘효과(wa/a)’의 사용 비율	130
〈그림 51〉 ‘효과(wa/a)’의 연령별 사용 비율	130
〈그림 52〉 ‘못 잊어(t/n)’의 사용 비율	131
〈그림 53〉 ‘못 잊어(t/n)’의 연령별 사용 비율	131
〈그림 54〉 ‘지팡이(a/e)’의 사용 비율	132
〈그림 55〉 ‘지팡이(a/e)’의 연령별 사용 비율	132
〈그림 56〉 ‘말기다(a/e)’의 사용 비율	133
〈그림 57〉 ‘말기다(a/e)’의 연령별 사용 비율	133
〈그림 58〉 ‘밥하고(ph/p)’의 사용 비율	134
〈그림 59〉 ‘밥하고(ph/p)’의 연령별 사용 비율	134
〈그림 60〉 ‘원룸(nl/ll/nn)’의 사용 비율	135
〈그림 61〉 ‘원룸(nl/ll/nn)’의 연령별 사용 비율	135
〈그림 62〉 ‘잡아라(a/a)’의 사용 비율	136
〈그림 63〉 ‘잡아라(a/a)’의 연령별 사용 비율	136
〈그림 64〉 ‘뺨어라(a/a)’의 사용 비율	137
〈그림 65〉 ‘뺨어라(a/a)’의 연령별 사용 비율	137
〈그림 66〉 ‘맑다(lkt/lt/kt)’의 사용 비율	138
〈그림 67〉 ‘맑다(lkt/lt/kt)’의 연령별 사용 비율	138
〈그림 68〉 ‘쫄다(lpt/lt/pt)’의 사용 비율	139

## 〈그림 목 차〉

〈그림 69〉 ‘짧다(lpt/lt/pt)’의 연령별 사용 비율	139
〈그림 70〉 ‘퍼-(yǎ/i)’의 사용 비율	140
〈그림 71〉 ‘퍼(yǎ/i)’의 연령별 사용 비율	140
〈그림 72〉 ‘발이(ch/s)’의 사용 비율	141
〈그림 73〉 ‘발이(ch/s)’의 연령별 사용 비율	141
〈그림 74〉 ‘꽃이(ch/s)’의 사용 비율	142
〈그림 75〉 ‘꽃이(ch/s)’의 연령별 사용 비율	142
〈그림 76〉 ‘값(ps/p)’의 사용 비율	143
〈그림 77〉 ‘값(ps/p)’의 연령별 사용 비율	143
〈그림 78〉 ‘여덟이(lp/l)’의 사용 비율	144
〈그림 79〉 ‘여덟이(lp/l)’의 연령별 사용 비율	144
〈그림 80〉 ‘흙이(lk/k)’의 사용 비율	145
〈그림 81〉 ‘흙이(lk/k)’의 연령별 사용 비율	145
〈그림 82〉 ‘읽이(ph/p)’의 사용 비율	146
〈그림 83〉 ‘읽이(ph/p)’의 연령별 사용 비율	146
〈그림 84〉 ‘부엌이(kh/k)’의 사용 비율	147
〈그림 85〉 ‘부엌이(kh/k)’의 연령별 사용 비율	147
〈그림 86〉 ‘벗/친구’의 사용 비율	148
〈그림 87〉 ‘벗/친구’의 연령별 사용 비율	148
〈그림 88〉 ‘쇠다’의 인지 비율	149
〈그림 89〉 ‘쇠다’의 연령별 인지 비율	149
〈그림 90〉 ‘서리’의 인지 비율	150
〈그림 91〉 ‘서리’의 연령별 인지 비율	150
〈그림 92〉 ‘서리’의 대상 선택 빈도	151
〈그림 93〉 ‘뜬금없다/느닷없다’의 사용 비율	152
〈그림 94〉 ‘뜬금없다/느닷없다’의 연령별 사용 비율	152
〈그림 95〉 ‘다르다/틀리다’의 사용 비율	153
〈그림 96〉 ‘다르다/틀리다’의 연령별 사용 비율	153
〈그림 97〉 ‘울갱이/다슬기’의 사용 비율	154
〈그림 98〉 ‘울갱이/다슬기’의 연령별 사용 비율	154
〈그림 99〉 ‘부추’의 사용 비율	155
〈그림 100〉 ‘부추’의 연령별 사용 비율	155
〈그림 101〉 ‘비번/비밀번호’의 사용 비율	156
〈그림 102〉 ‘비번/비밀번호’의 연령별 사용 비율	156

## 〈그림 목 차〉

〈그림 103〉 ‘휴대폰/핸드폰’의 사용 비율	157
〈그림 104〉 ‘휴대폰/핸드폰’의 연령별 사용 비율	157
〈그림 105〉 ‘왕따/집단따돌림’의 사용 비율	158
〈그림 106〉 ‘왕따/집단따돌림’의 연령별 사용 비율	158
〈그림 107〉 ‘트레이닝복/운동복/추리닝’의 사용 비율	159
〈그림 108〉 ‘트레이닝복/운동복/추리닝’의 연령별 사용 비율	159
〈그림 109〉 ‘소시지/소세지’의 사용 비율	160
〈그림 110〉 ‘소시지/소세지’의 연령별 사용 비율	160
〈그림 111〉 ‘텔레비전/텔레비/티비’의 사용 비율	161
〈그림 112〉 ‘텔레비전/텔레비/티비’의 연령별 사용 비율	161
〈그림 113〉 ‘단무지/다꾸앙’의 사용 비율	162
〈그림 114〉 ‘단무지/다꾸앙’의 연령별 사용 비율	162
〈그림 115〉 ‘아빠/아버지’의 사용 비율	163
〈그림 116〉 ‘아빠/아버지’의 연령별 사용 비율	163
〈그림 117〉 ‘엄마/어머니’의 사용 비율	164
〈그림 118〉 ‘엄마/어머니’의 연령별 사용 비율	164
〈그림 119〉 ‘형(오빠)/선배’의 사용 비율	165
〈그림 120〉 ‘형(오빠)/선배’의 연령별 사용 비율	165
〈그림 121〉 ‘여보’의 사용 비율(아내→남편)	166
〈그림 122〉 ‘여보’의 연령별 사용 비율(아내→남편)	166
〈그림 123〉 ‘여보’의 사용 비율(남편→아내)	167
〈그림 124〉 ‘여보’의 연령별 사용 비율(남편→아내)	167
〈그림 125〉 ‘아비(아별)’의 연령별 사용 비율	168
〈그림 126〉 ‘아비(아별)’의 연령별 사용 비율	168
〈그림 127〉 ‘집사람/부인’의 사용 비율	169
〈그림 128〉 ‘집사람/부인’의 연령별 사용 비율	169
〈그림 129〉 ‘사장님’의 사용 비율	170
〈그림 130〉 ‘사장님’의 연령별 사용 비율	170
〈그림 131〉 ‘언니/이모’의 사용 비율	171
〈그림 132〉 ‘언니/이모’의 연령별 사용 비율	171
〈그림 133〉 ‘가는 날이 장날’의 용법	172
〈그림 134〉 ‘가는 날이 장날’의 연령별 용법	172
〈그림 135〉 ‘약방에 감초’의 용법	173
〈그림 136〉 ‘약방에 감초’의 연령별 용법	173

## 〈그림 목 차〉

〈그림 137〉 ‘달라고/주라고’의 사용 비율	174
〈그림 138〉 ‘달라고/주라고’의 연령별 사용 비율	174
〈그림 139〉 ‘달라고’의 수용 비율	175
〈그림 140〉 ‘주라고’의 수용 비율	175
〈그림 141〉 ‘안 공부하다/공부 안 하다’의 사용 비율	176
〈그림 142〉 ‘안 공부하다’의 인지 비율	176
〈그림 143〉 ‘안 공부하다’의 수용 비율	177
〈그림 144〉 ‘안 같아요/같잖아요/달라요’의 사용 비율	177
〈그림 145〉 ‘안 같아요’의 인지 비율	178
〈그림 146〉 ‘안 같아요’의 수용 비율	178
〈그림 147〉 ‘식 장/세 장’의 사용 비율	179
〈그림 148〉 ‘식 장/세 장’의 연령별 사용 비율	179
〈그림 149〉 ‘삼천 원입니다/삼천 원이세요’의 사용 비율	180
〈그림 150〉 ‘삼천 원입니다/삼천 원이세요’의 인지 비율	180
〈그림 151〉 ‘삼천 원이세요’의 수용 비율	181
〈그림 152〉 ‘안녕하세요/안녕하십니까’의 사용 비율	181
〈그림 153〉 ‘안녕하세요/안녕하십니까’의 연령별 사용 비율	182
〈그림 154〉 ‘주세요/주십시오’의 사용 비율	182
〈그림 155〉 ‘주세요/주십시오’의 연령별 사용 비율	183
〈그림 156〉 ‘안녕하십니까’의 연령별 수용 비율	183
〈그림 157〉 ‘주십시오’의 연령별 수용 비율	184
〈그림 158〉 ‘해/해라/하게’의 사용 비율	184
〈그림 159〉 ‘해/해라/하게’의 연령별 사용 비율	185
〈그림 160〉 ‘하게’의 수용 비율	185
〈그림 161〉 ‘가니/가나/가냐’의 사용 비율	186
〈그림 162〉 ‘가니’의 사용 비율	187
〈그림 163〉 ‘가니’의 연령별 사용 비율	187
〈그림 164〉 ‘가나’의 사용 비율	188
〈그림 165〉 ‘가나’의 연령별 사용 비율	188
〈그림 166〉 ‘가냐’의 사용 비율	189
〈그림 167〉 ‘가냐’의 연령별 사용 비율	189
〈그림 168〉 ‘가니/가나/가’의 공손성	190
〈그림 169〉 ‘가니/가나/가’의 연령별 공손성	190
〈그림 170〉 ‘감사하다/고맙다’의 사용 비율	191

## 〈그림 목 차〉

〈그림 171〉 ‘감사하다/고맙다’의 연령별 사용 비율	192
〈그림 172〉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의 사용 비율	192
〈그림 173〉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의 연령별 사용 비율	193
〈그림 174〉 ‘감사합니다’에 대한 응답형 비율	194
〈그림 175〉 ‘감사합니다’에 대한 연령별 응답형 비율	194
〈그림 176〉 ‘미안합니다’에 대한 응답형 비율	195
〈그림 177〉 ‘와/야’의 사용 비율	196
〈그림 178〉 ‘와/야’의 연령별 사용 비율	197
〈그림 179〉 ‘것 같아요’의 연령별 인지 비율	197
〈그림 180〉 ‘-것 같아요’의 연령별 사용 비율	197
〈그림 181〉 ‘-것 같아요’연령별 수용 비율	198
〈그림 182〉 칭찬에 대한 응답형 비율	199
〈그림 183〉 칭찬에 대한 연령별 응답형 비율	199
〈그림 184〉 표준어 사용 비율	200
〈그림 185〉 표준어 연령별 사용 비율	200
〈그림 186〉 표준어와 방언의 구별 비율	201
〈그림 187〉 방언에 대한 호감	202
〈그림 188〉 표준어에 대한 호감	203
〈그림 189〉 ‘형/오빠’의 성별 사용 비율	205
〈그림 190〉 ‘형/오빠’의 성별 수용 비율	205

## 제1장 연구 개요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오늘날은, 한국 방언에 대한 조사연구 및 그 결과물의 활용을 통해 언어의 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소통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

○ 표준어가 널리 보급되고 한국 사회가 현대화하면서 각 지역의 전통 방언이 급속히 사라짐.

○ 여러 방언 화자들이 도시에 모여 섞여 살면서 새로운 언어 변종들이 속속 생겨남.

○ 이에 따라 언어의 면에서 지역 차는 현저히 줄었지만 세대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시기에 다음과 같은 작업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

▷ 새로운 언어 변종에 대해 조사하고 활용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

▷ 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통 방언 및 그것의 새로운 변종들을 조사분석하여 한국어가 변해 가는 양상을 거시적으로 추적하는 작업

### 1.2.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포함한다.

#### (1) 방언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 이미 수집된 자료의 정리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 지난 10년 간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 <지역어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함.
- 해당 자료를 가공하고 정리하는 계획을 수립함.

▷ 새로운 방언 자료의 수집 및 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 그동안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도시 등) 또는 사람의 말이나 새로운 언어 변종들을 조사함.
- 다수의 제보자를 필요로 하는 언어 변종에 대해 조사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함.

#### (2) 사회 방언에 관한 시범 조사 실시 및 사회 방언 조사연구 방법론 모색

▷ 사회 방언 자료 구축을 위한 시범 조사

- 연령을 고려한, 수도권 지역 출신의 100명 이상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실시함.
-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연령 등의 사회적 변인에 따른 변이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방언 자료를 구축함.

▷ 사회 방언에 대한 조사·연구 방법론 모색

-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사회적 변인이 사회의 분화에 관여하는지 조사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론을 모색함.

##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 2.1. 서양의 조사 · 연구

국내에서 사회언어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서양의 경우에도 언어학의 여러 하위 분야들 중 사회언어학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연구가 시작되었다. 사회적 요인들이 언어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언어학자들도 인식하고 있었지만(Saussure 1916, Bloomfield 1933, Firth 1937)<sup>1)</sup> 본격적인 연구는 Labov(1963)에서야 시작되었다. 이 글은 50여 년 동안의 서양 사회언어학에서 이루어진 업적 중 국내의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개괄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려 한다.

#### 2.1.1. 자료의 수집 - 문헌 자료를 이용한 사회언어학 연구

사회언어학 연구는 정형화되지 않은 언어 본연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그에 맞는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회언어학자들은 실제 사용되는 언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인구가 밀집된 도시로 나와 조사를 진행한다. 기존에 지역 언어를 조사할 때 타 지역에서 유입된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지역어를 수집하려 노력했던 모습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언어 변이(variation)에 관한 자료를 얻으려 노력한다.

변이는 시작은 음성 층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음성 층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변이가 진행되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음소 층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변이를 포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발화를 녹음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에 따라서는 구어의 녹음 자료가 남아있기 이전 시기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가 문제가 된다. 가령 중세국어 혹은 근대국어로 일어난 언어 변이 현상을 연구하고자 하여도 실제로 그 시기 화자의 발화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문헌 자료뿐이다.

문헌 자료를 통해 당시의 발화를 추론해볼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자료가 아닌 이차적 자료이므로 녹음 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Schneider(2002)는 문헌 자료에 기댄 언어 변이 혹은 변화 연구를 진행할 때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문헌 자료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문헌 자료를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Schneider(2002)에서는 언어 변이를 연구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텍스트가 지녀야 할 기본 조건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능한 한 발화, 특히 문헌이 작성된 지역의 지역어 스타일의 발화와 가깝게 작성된 문헌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작성된 문헌보다는 사적인 목적에 의해 작성된 편지 같은 자료가 언어 변이를 연구하는 데에 더욱 적합하다. 다음으로 사회 계층, 연령, 성별 등의 서로 다른 기원의 문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언어 외적인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포착할 수 있다. 셋째로 언어적 변형(linguistic variable)의

1) Saussure(1916: 8): "speech has both an individual and a social side, and we cannot conceive of one without the other."

Bloomfield(1933: 42): "All the so-called higher activities of man - our specifically human activities - spring from the close adjustment among individuals which we call society, and this adjustment, in turn, is based upon language."

Firth(1937: 53): "speech is social magic. You learn your languages in stages as conditions of gradual incorporation into your social organization... The approach to speech must consequently be sociological."



사용처럼 반드시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변이형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요소에 대한 충분한 수의 토큰(token)을 제공해야 한다. 일정한 양 이상의 토큰이 제공되었을 때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변이형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문헌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발화와의 근접성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Schneider(2002)는 이를 다섯 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발화와 가까운 문헌인 녹음(Recorded)부터 회상(Recalled), 상상(Imagined), 관찰(Observed), 창조(Invented) 순으로 발화와 점차 멀어진다. 녹음에 해당하는 문헌의 예로는 전사 자료가 있고, 회상의 예는 발화가 일어난 이후에 메모 혹은 기억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문헌을 들었다. 상상에는 편지나 그 외의 자필 기록들이 포함된다. 특히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인 없는 사람이 글을 작성한 경우 문법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평소 발화의 특징이 반영되어 좋은 연구 자료가 된다. 관찰은 기록자가 발화자의 발언 중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발화를 기록한 것이다. 기록자의 인식과 평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걸쭉된 자료라는 점에서 보다 추상적인 문헌 유형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이 발화와 가장 떨어진 창조에 속하는 문헌이다. 실제로 발화되지 않은 허구의 발화라는 측면에서 실제 발화를 연구하는 데 쓰일 만한 자료인지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Trudgill(1999)의 연구 결과 문학 작품이 해당 시기의 언어 변이를 반영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문헌 자료를 통한 연구는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유효성(Validity)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 중 대표성은 비단 문헌 자료를 통한 연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술 자료를 조사할 때에도 몇 명의 제보자를 대상 조사를 진행해야만 그 자료가 일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가 고민거리이다. 더군다나 문헌 자료는 집필자의 언어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여 한 가지 문헌을 통한 연구 결과는 집필자 한 명의 언어 구조를 연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언어를 그 시기 전체의 언어 구조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꼴이다. 실제로 Montgomery(1997)에서는 대표성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 연구들을 지적한 바 있다.

유효성은 발화를 문자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가장 발화에 근접한 전사의 경우에도 발화된 음성을 집필자가 인식한 음소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유효성은 발화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기나 집필자의 임의적인 판단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Scheneider(1989), Maynor(1988) 등의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유효성에 대하여 논의한 연구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양의 다양한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2.1.2. 자료의 분석 - 실험 음성학적 연구 방법의 활용

앞 장에서 문헌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언어 변이를 연구하는 데에는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상황의 실제 발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발화는 수많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투영하기 때문에 사회언어학자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자유로운 발화를 분석하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이다. 연구자가 원하는 대답을 실험자가 해줄지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음소 이하의 단위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이들을 포착해내는 일은 훈련된 연구자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국어 화자의 ‘ㄱ’과 ‘ㄲ’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할 때 발화될 수 있는 ‘ㄱ’과 ‘ㄲ’ 사이의 수많은 음성 층위 이음들을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때 실험 음성학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이 음성적 차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연구자들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Roberts(1966)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녹음된 자료를 들려준 뒤 실험자들이 백인의 목소리와 흑인의 목소리

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실험자들은 그 둘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지만 이때까지는 어떤 음성적 특징이 둘을 식별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후 거듭된 연구를 통하여 특정 모음의 조음 위치(Graff 1986), 녹음된 발화의 기본 주파수(Hawkins 1992) 등의 음성적 특징이 제시되었다.

Labov(1972)는 사회언어학 연구에 실험음성학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대중화시킨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모음의 F1, F2값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 방언의 모음 추이를 설명하였고,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포먼트 값의 차이에 의해 모음의 변별이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Di Paolo 1992) 모음의 길이와 같은 모음이 가지는 다른 속성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Feagin 1987, Thomas 1995).

초기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은 모음의 절대적인 측정 수치가 화자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일 모음을 발화한다고 하더라도 발성 기관의 모양에 따라 그 값 역시 달라진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해당 음성이 어떠한 모음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한다. 모음 포먼트의 수치만으로는 이러한 인간의 인식 작용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Labov 1994, Syrdal and Gopal 1986). 이 중에서 Syrdal and Gopal(1986)은 모음의 인식에 F1값에서 F0값을 뺀 차이, F3값에서 F2값을 뺀 차이 등 포먼트 간의 거리가 모음의 정규화(vowel normalization)에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사회적 요인 중 하나인 인식(perception)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도 실험 음성학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homas(2000)은 동일한 모음을 미국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백인들과 텍사스에 거주하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에게 들려주는 실험을 통해 실험자들이 해당 모음을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관련하여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이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Niedzielski(1999)의 디트로이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사람들은 동일한 모음이라도 미리 들려준 사전 지식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음성 단위의 요소들도 실험 음성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가 가능하다. 진행중인 변이 과정에 관심을 두는 사회언어학 분야에게는 매력적인 연구 방법일 수밖에 없다. 세밀한 음성학적 관찰 없이 변이를 연구한다면 그 연구의 결과는 음성 층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이 과정을 놓칠 확률이 높다.

## 2.1.3. 언어 변이의 사회적 변인들

사회언어학자들은 언어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언어 내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들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가정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을 의사소통이라고 할 때 언어의 사용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와 그에 따른 여러 사회적 변인들의 간섭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이에 대해 Bybee(2003)은 언어의 구조가 언어의 사용에 의해 생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요소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계층(social class)은 연구자들에게 일찍부터 사회적 변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요인이다. Labov(1972)에서 이루어진 뉴욕 내 백화점 직원들의 발화 연구는 계층에 따라 특정 변이형의 사용 빈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 유명한 연구이다. 이처럼 계층에 따라 특정 변이형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은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는데, Macaulay(1977)에서는 영국 글래스고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계층에 따라 음소 /r/의 변이형으로 성문 폐쇄음을 사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이 보고되었

다. Macaulay는 이러한 실험 결과가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적합한 성문 폐쇄음의 사용 빈도에 대한 암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성별(gender)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회적 변인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비표준형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Labov 1972, Romaine 1978, Eckert 1989, Chambers 1992). 이러한 경향은 비단 음운론적 요소에서만 아니라 문법적 요소에서도 나타난다. Shuy(1969)는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언어차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다중 부정형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Wolfram(1969)에서는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다중부정형 외에도 세 개의 통사적 변수와 네 개의 음운론적 변수가 성별과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여성의 표준형 선호 경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왜 여성과 남성 간의 언어 사용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Chambers(2002)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 차이가 언어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계층에서도 둘의 언어 차이는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겨두고 있다.

언어 변화는 시간과 떨어뜨려 설명할 수 없다. 시간과 관련된 사회적 변인으로는 연령(age)을 들 수 있다. Hoenigswald(1960)에서 역사적 진술은 적어도 두 개의 공시적 진술을 포함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언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둘 이상의 별개의 시간을 비교하는 방식이었다(Bloomfield 1933, Hockett 1958). 이러한 연구 방식의 한계는 시기 차이 외의 나머지 변인들이 동일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행되는 변이 과정을 살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령이라는 사회적 변인을 활용하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Chambers(2002)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와 퀘벡 지역을 대상으로 ‘wh’ 변수에 대한 변이음 [w]의 사용 양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w]로 발음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wh’의 실현 발음이 현재 변이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별 사용 빈도 분석을 통해 80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w] 실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70세 이하부터 점차 발견되어 변화의 시작 시기를 추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연구에 실재시(real time)가 아닌 현상시(apparent time)를 이용하는 것이다. Labov(1963)에서 현상시를 적용하여 언어의 변이 과정을 설명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진행중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현상시를 연구에 도입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상시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개인의 언어가 일생 동안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상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기에 습득한 언어가 평생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연령대 언어의 비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당 시기의 언어의 추론이 가능해진다. 만약 개인의 언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면 현상시를 사용한 방법은 실제의 언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Cukor(2000)은 개인어의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미국 텍사스의 시골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가지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10여 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험자들은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체로 변함없이 개인어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10대-20대 초반 실험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변수들의 실현 양상이 변화하여 그들의 언어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개인어는 성인이 이후 안정되기 때문에 현상시 자료가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지만 성인이 이전 연령의 자료는 현상시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

다음 문제는 연령 단계(age-grading)에 대한 것이다. 개인의 발화가 특정 시기에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발화 규범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보고된다. Chambers(1995)의 조사가 전형적인 연령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이다. 영국 글래스고 지역 주민들을 세 가지 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연령별로 10세, 15세, 성인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의 성문 폐쇄음 발음을 조사한 결과, 상위 두

계층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발음으로 발화하였으나 유독 하위 계층은 10세 그룹의 발음이 나머지 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실험 결과에 연령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현상시 가설을 적용한다면 마치 최근에 급격한 언어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Chambers는 해당 변수가 글래스고 지역 사람들에게 각 계층의 발화를 구분해 주는 변수로 강하게 인식된 것임을 고려할 때 10세 그룹의 발화가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해당 계층의 표준형으로 빠르게 적응한 연령 단계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연령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상시 연구를 진행할 경우 항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은 분명하다.

## 2.2. 일본의 조사 · 연구

### 2.2.1.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의 현재 진행형의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함으로써 현재 한국 현재 상황에 맞는 지역 방언 또는 사회방언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로 사회방언과 지역방언과 같이 변이를 보이는 항목 중심으로 그 프로젝트의 연구 개요 요약과 상세 계획 등을 덧붙여 설명한다.

#### (1) John Whitman(2012), 일본열도와 주변 여러 언어의 유형론적 · 비교역사언어학적 연구

① 연구 개요 : 일본어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여러 언어(아이누어, 통구스어족, 한국/조선어, 니브호어, 몽골어족, 투르크어족, 유카기르어 등)는 유형론적 특징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프로젝트는 유형론적 연구를 출발점으로, 공시적·기술적 연구에 통시적 측면을 더해 이들 언어가 하나의 언어 지역(동북아시아 지역)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그 연구 성과를 세계에 널리 소개하였다. 형태통사론 분과와 음운론 분과 둘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② 연구 계획 및 방법 : ‘형태통사론’ 분과에서는 ‘명사화와 명사 수식’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특히 일본어의 연체형에 중점을 두고 연체형의 의미론적·통사론적 기능과 그 변천에 대해 다른 언어와 대조 연구를 실시하였다. ‘음운론’ 분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어족을 대상으로 역사적 재구를 시도하였다. 동북아시아 언어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를 재검토하고 최근의 음운론 연구 성과를 덧붙였다. 특히 일본어와 오키나와 방언에 대한 역사적 재구를 시도하였다.

#### (2) 오니시 타쿠이치로(2009), 방언 형성 과정 해명을 위한 전국 방언 조사

①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일본어의 방언 분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 방언 연구자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수집·공유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 방언학에서의 언어 지리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방언의 분포를 설명하는 기본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언과 그 분포 변화의 해명에 도전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역동적인 연구를 지향한다. 이 연구는 방언 형성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 (a) 언어 변화와 지리적 공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함. - 분포 추적 비교
- (b) 지역 특성과 언어와의 관계를 해명함.
- (c)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방언 분포를 발견하고 해명함.

## ② 연구 계획 및 방법

- (a) 예비 조사(2009년도) : 이미 발간된 약 30,000개의 언어지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400 항목을 선정하여 전국 40개 지점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함.
- (b) 사전 연구(2009년도) :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조사 방법을 검토함.
- (c) 조사 기반 구축(2010년도) : 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 계획을 작성함.
- (d) 조사 실시(2010년도부터) : 조사 지점 수를 각 연도로 분할하여 조사를 실시함.
- (e) 데이터베이스화(2011년도부터) : 조사 결과는 신속히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동 연구원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연구 종료 후에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함.
- (f) 분석연구(2010년도부터) : 연구 목적과 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함. 특히 분포 분석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기 위해 GIS 활용을 위한 강습회를 개최함. 분석연구 성과는 각종 연구회나 국내외 학회에 적극적으로 발표하였으며 학회지·기관지 등에 논문으로 수록함.
- (g) 심포지엄·포럼 등 개최(2010년도부터) : 연구자를 위한 심포지엄, 일반 대중을 위한 포럼을 개최함. 소식지 발행도 검토함.

## (3) 기배 노부코(2009), 소멸 위기 방언 조사와 보존을 위한 종합적 연구

- ① 연구 개요 : 소멸 위기 방언은 다른 방언에서는 이미 사라진 고대 일본어의 특징과 다른 방언과는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한 지역의 방언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언어학, 일반 언어학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방언은 작은 마을마다 방언이 다른 경우가 많고, 변종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조사 경험이 있는 전국의 연구자를 모아 이들 소멸 위기의 방언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밝힘과 동시에 언어의 다양성 형성 과정과 언어의 일반적 특성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보존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 ② 연구 계획 및 방법 : 연구의 토대는 미야오카를 대표로 하는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의 특정 영역 연구〈환태평양의 ‘소멸위기 언어’에 관한 긴급 조사 연구〉(1999년도 ~ 2003년도)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마미, 오키나와 방언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를 참여시키고 신진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공동연구원들이 각자 각 지점에서 조사하는 것, 그리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공동조사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 (4) 사코다 쿠미코(2010-현재), 다문화 공생 사회의 일본어 교육연구

- ① 연구 개요 :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2언어 습득 연구,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 심리 언어학, 코퍼스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 공생 사회에서 제2언어로서의 일본어 교육·학습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 ② 연구 계획 및 방법 : 본 프로젝트는 5개의 하위 분과로 구성되었다.

- (a) 학습자의 언어 환경과 일본어 습득 과정에 관한 연구 : 기존 또는 새로 수집한 일본어 학습자의 발화나 작문 데이터를 자료로 외부 언어 환경이 다른 일본어 학습자의 습득 과정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힘.
- (b) <생활을 위한 일본어>의 내용에 관한 연구 : 일본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을 위한 일본어>를 체계화하여 교육에서 활용(교재나 테스트 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 (c) 사회에서 상호 행위로서의 평가 연구 : ‘평가’를 ‘사회에서의 상호 행위’로 보고 일본인과 외국인의 접촉 장면에서 일어나는 ‘평가’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함.
- (d) 일본어의 기본 어휘에 관한 연구 : <일본어 기초 어휘 사전-초급 500단어>를 개정하고, 그에 이어 1500단어를 기본어로 선정한 어휘사전 작성 방안을 연구함.
- (e)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와 교육 연구 : 일본어를 외국어로 배운 화자가, 일본어로 언어활동을 할 때에 어떤 기술(技術)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밝힘.

## (5) 구마가이 야스오(2009-2012), 대규모 방언 데이터의 다각적 분석

- ① 연구 개요 : 이 연구는 계량적 방언 연구, 언어 지리학, 일본어사, 담화 연구 등 전문 분야를 달리하는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전국 규모의 언어 지도와 방언 담화 자료 등 대규모 방언 데이터의 수집·정리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방언 분포와 형성, 방언 담화에서 본 지역차 등에 관한 새로운 관점 및 연구 방법 개발을 목표로 함.

- ② 연구계획 및 방법 : <일본 언어지도>(LAJ) 데이터베이스(LAJDB)는 언어지도 데이터와 조사 답변을 수기로 기록한 원 카드의 이미지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 LAJDB를 활용하여 방언의 분포 유형, 방언 구획과 전파 모양 등에 대한 자세한 해명, 문헌학적 방법에 의한 단어 분포와 역사 연구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54만장 정도의 원 카드를 거의 90%(2009.9 기준)를 입력,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 (6) 이노우에 후미코(2010-2013), 방언담화의 지역 차와 세대 차에 관한 연구

- ① 연구 개요 : 출신지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어휘나 억양이 아니라 이야기 진행 방식 자체에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오사카 사람의 말투가 독특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야기의 진행 방식은 지역 특유의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누구나 막연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언에 따라 화제 전개 방법에 어떤 지역차가 있는지, 담화 전개 방법에 일정한 유형이 있는지 등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보다 큰 단위인 담화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하고 실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난 담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지의 방언 담화를 수집하고 담화 전개의 담화 표지로 기능하는 접속 표현이나 간투사 표현에 초점을 두고 방언 담화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에 대해 기술분석하였다. 또한 각 지역·세대의 방언 담화를 비교·대조하였다. 이를 통해 방언 담화의 실태와 지역·세대차를 해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a) 방언 담화의 수집·분석을 통해 문법 연구 및 담화분석의 관점에서 실제 맥락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사용 실태와 기능을 파악함.

- (b)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고, 방언 담화의 유형을 기술함.
- (c) 세대 간 차이를 비교를 하고, 그 변화의 방향을 밝힘.

## ② 연구 계획 및 방법

- (a) 기존의 방언 담화 자료를 기초 데이터로 하여 방언 담화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설명·분석함.
- (b) 데이터 수집을 위한 방언 담화 조사를 기획함. 기초 데이터 기술·분석을 바탕으로 수록 조사를 실시해야 할 중점 지역을 선정한다. 담화 자료가 지역차인지 개인차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 지역의 방언 담화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함. 또한 담화의 종류(자연 대화, 인터뷰, 설화, 장면 설정 대화 등)나 담화 참여자의 조합(성별, 연령, 친소 등), 화제 등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여 조건을 통일함.
- (c) 선정된 각각의 지역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 여러 세대(노년층 60~70대, 젊은층 20~30대 각 2~3명)의 자연 발화를 수록함. 방언 담화의 음성 녹음과 함께 담화 데이터를 분석 할 때 비언어 행동의 중요성도 높기 때문에 담화 장면을 녹화함.
- (d) 수집한 담화는 음성의 텍스트화, 그리고 공동어로의 역주 작업을 함.
- (e) 수록 담화의 간투 표현과 접속 표현을 정리하고 담화 구조와 담화 표지 등을 관찰하며 실제 맥락에서의 운용이나 기능에 대해 기술·분석함.
- (f) 지역 간, 세대 간, 장면을 비교하여 담화 패턴이나 변화 양상에 대해 고찰함.
- (g) 연구 발표회, 심포지엄을 개최함.

## (7) 이노우에 후미오(2012-현재), 일본어 대규모 추적조사에 관한 종합적 연구

- ① 연구 개요 :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쓰루오카·오카자키·후라노 등에서 대규모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들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현대 일본 지역 사회의 언어 사용 및 언어 의식의 실태를 기술하는 동시에 언어의 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 ② 연구 계획 및 방법

- (a) 전체 연구회 : 패널 샘플(동일인의 추적 조사) 데이터가 약 50년 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여 나이의 변화나 생애 발달이 언어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함.
- (b) 분과회 : 데이터베이스화 검토회, 추적 변화 연구회 등의 활동을 함.

## (8) 아사히 요시유키(2009-2012), 접속 방언학에 의한 ‘언어변용 유형론’의 구축

- ① 연구 개요 : 접속에 의해 생기는 현상으로 사회 구조(예: 도시 사회, 농촌 사회 등)에 주목하여 언어와 사회 구조와의 관계를 탐구함. 이 프로젝트는 접속 방언학에 의한 ‘언어 변화의 유형론’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② 연구 계획 및 방법 : 이 프로젝트는 6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 (a) 총괄 : 전체 프로젝트 총괄, 연구 계획 파악
- (b) 하와이 : 하와이 대학 소장 구어 데이터를 활용한 언어 변화 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 (c) 홋카이도 분과 : 삿포로, 구시로, 후라노 지역의 언어 변화 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 (d) 지방 도시 분과 : 가고시마, 후쿠오카, 오카자키의 언어 변화 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 (e) 신도시 분과 : 세이신 뉴타운, Milton Keynes 등 이주민의 언어 변화 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 (f) 고립 사회 분과 : 고립된 지역 사회의 언어 변화 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 (g) 이론 구축 분과 : 사회 언어학, 접속 언어학, 언어 유형학의 연구 동향에서 관련 정보 수집을 하고 이론 구축 정비를 실시함.

## (9) 사나다 신지(2009-2013), 일본어 변종과 크리올 형성 과정

- ① 연구 개요 :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지역(대만, 팔라우, 마리아나 제도, 사할린, 중국 동북부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일본어 변종 및 크리올을 기술·기록하고 그러한 언어 변종의 형성 과정 및 관련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 (a) 다양한 일본어 변종의 조사를 통해 언어 접속론(=접속 일본어학)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함.
- (b) 제2 언어 유지라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확립함.
- (c) 일본어에 기반한 크리올에 대해 연구함.

## ② 연구 계획 및 방법 : 국내외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 2.2.2. 주요 논문

### 2.2.2.1. 음운·형태

- (1) 南部智史·朝日祥之·相澤正夫(2014), *가행* 비음의 쇠퇴 과정과 그 요인에 대해 : 삿포로시와 후라노시 언어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의 결과, 도쿄에서와 마찬가지로 삿포로시와 후라노시에서도 *가행* 비음 사용율의 감소가 보였다. 또한 *가행* 비음의 사용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연대적(chronological)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 요인의 제약을 따르면서 *가행* 비음이 쇠퇴해가는 과정이 관찰되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했는데 하나는 *가행* 비음의 잉여적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로 보는 것(아래로부터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위신을 위해 비(非)비음 *가행*음의 획득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위로부터의 변화)이다.

### 2.2.2.2. 문법

- (1) 渋谷勝己(2011), 야마가타시 방언의 인용·전문(伝聞) 형식 *テ*와 *ト*,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9,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13.

이 연구에서는 야마가타시 방언의 인용·전문 형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 야마가타시 방언에는 인용·전문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테*계 형식과 *토*의 두 종류가 있다. (b) 야마가타시 방언의 기본적인 인용

표지는 テ이다. (c) 해당 방언에는 テ를 그 속에 포함한 テウ・ッタ라는 관용적인 인용 형식이 있다. (d) ド는 동사 オモウ가 주절의 술어인 경우 외에도 평서문뿐만 아니라 명령문과 권유문, 의문문에도 접속하여 사용되지만,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사고 내용, 또는 제3자의 정보나 발화 행위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 또는 수용한 뒤에 청자에게 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渋谷勝己(2012), 야마가타시 방언의 문말표현 ヤ : 크와 대비해서,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0,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78-88.

이 연구에서는 의문문 뒤에 접속하는 야마가타시 방언의 문말표현 ヤ를 크와 비교하면서 그 분포와 의미, 용법을 설명하였다. (a) 문말표현 ヤ는 Yes-No 의문문, WH 의문문 확인 요청문 뒤에 접속하며 다른 문장 유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b) ヤ는 Yes-No 의문문에는 반드시 가와 결합하여 접속하는 제약 이외에는 다양한 유형의 의문문과 의심 절에 접속한다. 반면에, 크는 ノ로 끝나는 WH 의문문에는 접속하지 않는 등의 제약이 있다. (c) Yes-No 의문문의 경우 문말표현 ヤ와 크는 발화 속에서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바꿔 넣어도 거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말표현 ヤ는 화자가 대화 상대에게 명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촉구함을 나타내며, 문말표현 크는 화자가 상대의 정보(명제 내용)를 반려하여 재확인 및 수정을 촉구하는, 상대의 정보를 부정하는 정도가 높은 형식이다.

(3) 森勇太・塚雄亮・中村光(2012), 젊은 층의 명령형 사용범위: 릿토시 방언, 후쿠오카시 방언, 고사이시 방언의 대조,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0,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17.

시가현 릿토시 방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방언, 시즈오카현 고사이시 방언을 대상으로 젊은층의 명령형에 해당하는 행위 지시 표현과 그 운용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적했다. (a) 3지점 모두 3계열의 명령형에 해당하는 형식을 가진다. 테형 명령과 명령형 명령은 3지점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릿토시 방언과 후쿠오카시 방언은 그 외에도 연용형의 명령이 있다. 고사이시 방언은 연용형 명령은 없지만, 린형 명령이 있다. (b) 행위 지시 표현의 운용에 대해 3지점 모두, 기본적으로 테형 명령은 화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 지시, 연용형 명령과 린형 명령은 청자 이익의 행위 지시에서 사용한다. 특히 화자 이익의 행위 지시는 명령형에 해당하는 형식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테형을 사용한다. (c) 권위적인 명령으로 테형 명령과 연용형 명령이 혼재하는 것도 3지점에서 공통된다. 릿토시 방언과 고사이시 방언에서는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나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연용형 명령과 린형 명령을 사용하며 거리가 먼 인물에 대해서는 명령형 명령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나 후쿠오카시 방언에서는 명령형 명령의 사용 범위가 넓고 권위적 명령과 청자 이익 명령에 사용한다.

### 2.2.2.3. 담화·화용

(1) 野間純平(2013), 고치현 시만토시 니시사토 방언의 역접 표현,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11,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5-27, 2013-03

고치현 시만토시 니시사토 방언의 역접 표현에 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 ノニ에 상응하는 형식에는 ニ `ガニ `ガジャニ `ガヤニ `ノニ가 있다. 명확히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가니는 문말에서 사용되기 쉬우며 가야니는 화자의 화자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b) テモ,

タツテ에 상응하는 형식에는 타치 `치 `ジャチ `テモ가 있다. 타치 `치 `ジャチ는 각각 접속이 다르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거나, 혹은 그것이 화석화되었을지도 모른다.

(2) 野間純平(2011), 오사카 방언의 문말표현 デ와 ワ,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9,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30-45.

이 연구에서는 오사카 방언의 문말표현 デ와 ワ의 의미에 대해 기술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 デ와 ワ는 명제의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대조적인 특징을 가진다. デ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ワ는 화자가 발화 시 생각난 것을 전하는 형식이다. (b) 청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デ와 ワ는 대조적인 특징을 가진다. デ는 청자의 반응이 있을 것 같은 발화를 청자에게 전한다. 한편, ワ는 청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화자가 일방적으로 청자에게 전한다. (c) デ와 ワ의 공통점으로는 평서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내러티브에서 상황 설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3) 井川 暁(2011), 와카야마현 가미톤다 마을 방언의 문말 표현 ニ,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9,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46-54.

이 연구에서는 가미톤다 마을 방언 'ニ'의 의미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문말 표현 'ニ'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가미톤다 마을 방언의 'ニ'는 문장 안에 의문사가 존재하며 술어가 추측의 'ヤロウ', 또는 동사의 의지형인 경우에만 사용된다. (b) 'ニ'는 화자가 불확실한 요소 (의문사) 때문에 판단과 의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일 때 판단 형성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청자에게 요구하는 문말 표현이다. (c) 'ニ'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코멘트를 요구하지만 어디까지나 판단을 하는 것은 화자이며, 청자에게 판단과 의지의 결정권이 있는 경우에는 'ニ'를 사용하지 않는다.

(4) Kavanagh Barry(2010), 보통체와 정중체의 사용법에 대한 고찰, 青森県立保健大学雑誌 11, 青森県立保健大学研究推進・知的財産センター研究開発科雑誌編集専門部会 `87-92.

일본어의 정중체, 이른바 'です, ます'로 끝나는 문체는 격식을 차린 말투로서 사용되는 한편, 보통체 이른바 'だ, である'로 끝나는 문체는 허물없는 말투로 사용된다. 이는 거의 모든 일본어 교과서에서 일치된 의견이다(Matsumoto & Okamoto 2003). 그러나 자연 발화에서 보통체와 정중체를 혼합한 말투를 사용해도 사회언어학적 표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심적 거리, 화용론적 표현으로 다양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드라마와 온라인 웹 블로그에서 사용된 정중체와 보통체의 사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5) 吉岡泰夫・辛昭静(2009), 환자-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 적절화를 위한 의료 폴라이트니스 전략<특집> 일본사회의 변용과 언어문제, 社会言語科学 13(1), 社会言語科学会, 35-47.

이 연구는 의사의 진료 작업 검토 및 환자와 의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 환자-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 적절화에 기여하는 의료 폴라이트니스 전략을 추출하여 의료 현장 및 의학 교육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Brown & Levinson이 제시하고 있는 15개의 positive politeness strategy 및 10개의 negative politeness strategy를 의료 커뮤니케이션 적절화의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7명의 지도의(指導医)가 지금까지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했다. 지도의의 외래 진료 작업 리뷰 및 참여 관찰로 수록한 환자-의사 간의 상호 작용을 화용론의 방법으로 분석했다. 사회언어학조사의 분석결과도 참고하여, 의료 커뮤니케이션 적절화에 효과적인 positive politeness strategy 16개와 negative politeness strategy 7개를 추출하였다.

(6) 牧野由紀子(2008), 오사카 방언의 명령형의 사용범위: セエ, シ, シテ를 둘러싸고,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8,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55-74.

오사카 방언의 명령형에는 명령형 명령 ‘セエ’, 연용형 명령 ‘シ’, 테형 명령 ‘シテ’의 3가지 형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3가지 형식을 대상으로 지시 상대(청자), 발화 기능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사용 범위를 밝힌다. 오사카시 주변에서 태어나 자란 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지시 상대와 발화 기능에 따라 형식을 선택한다. ‘의뢰’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상대에 관계없이 ‘シテ’가 사용되지만, ‘청자 비(非)이익 명령’이나 ‘청자 이익 명령’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족의 SH(청자가 연하인 상황)에서는 ‘セエ’ (남성만) 또는 ‘シ’가, 그 이외의 사람에게는 ‘シテ’가 無標형식으로 사용되며 그 사용 상황은 상보 분포를 이룬다. (b) ‘シ’가 ‘청자 이익 명령’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positive politeness 전략, 또는 정중함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사용 범위가 외부의 약간 친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한다. (c) ‘シテ’는 가족의 SH 이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청자 비(非)이익 명령’, ‘청자 이익 명령’, ‘의뢰’ 등 모든 발화 기능으로 사용된다.

(7) 王子田笑子(2008), 가고시마 방언의 새로운 맞장구 표현: ‘ダヨー’와 ‘ダカラヨー’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8,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75-88.

가고시마시 방언에는 최근 사용되게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맞장구 표현 ‘ダヨー’와 ‘ダカラヨー’가 있다. 그 의미와 용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ダヨー’의 기본적인 기능은 화자(맞장구를 치는 사람)가 해당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과 의견에 대해 승인을 해주기 위한 것인데 양자의 정보량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a) 화자에게 정보적 우위가 있는 경우, ‘ダヨー’는 단순한 협정(肯定)이 된다. (b) 화자와 상대의 정보량이 동등한 경우, ‘ダヨー’는 상대에 대한 공감을 전면에 내미는 맞장구 표현이다. (c) 상대에게 정보 우위가 있는 경우, ‘ダヨー’는 재발견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ダカラヨー’는 화자와 상대의 정보량이 동등하고, 그 내용이 양자 간 공유된다는 점이 사용의 조건이다. ‘ダヨー’보다 공감성이 강하고 “지금 바로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 2.2.2.4. 기타

(1) ハインリッヒ パトリック(2011), 류큐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특집>류큐어를 본다/류큐어로 본다, 日本語の研究 7(4), 日本語学会, 112-118.

일본어 연구의 일환이 아니라 독자적인 분야로서의 류큐언어학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류큐사회언어학의 시작도 늦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연구 대상은 주로 언어 위기도 측정, 언어 변화 및 류큐 제도의 언어 편제의 변화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중요한 분야가 다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류큐어의 보존과 부흥을 위해서는 류큐 사회언어학의 새로운 전개가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언어학과 언어 보존 운동이 더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2) LONG Daniel(2011), 언어교류, colonial · rag, 그리고 남태평양제도 방언의 일본어, 小笠原研究 -(38), 首都大学東京小笠原研究委員会, 17-29.

이 연구에서는 오가사와라 제도 및 마리아나 제도와 팔라우 일본어 방언에 보이는 언어적 공통점을 지적한 뒤에 일본어의 방언 구획에 ‘남태평양 제도 방언’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colonial · rag’ (식민지 지연)이라고 불리는 사회 언어학적 현상도 보인다. 즉 ‘본국’에서 지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분리된(구)식민지는 ‘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언어적 특징이 보인다는 것이다.

(3) 金鼎京(2011), 제2언어의 마모연구 조류,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9,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96-115.

이 연구는 언어의 마모에 대해 다른 연구의 흐름을 개관하고 성과를 정리하여 이 분야의 미래에 대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언어의 마모에 대한 연구 분야는 1970년대에 성립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며, 일본에서는 영어권 귀국 자녀의 영어 유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을 다른 분야에서 원용한 가설 검증 및 사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하여 마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모가 일어난 때 사용되는 전략 등을 구명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으로 처음에는 L1 영어에 의한 FL 스페인어 마모 등 서양 언어 사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일본어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4) 野瀬昌彦(2008), 크리올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Tok Pisin과 Bislama의 상황, 麗澤大学紀要 87, 麗澤大学, 91-113.

태평양 멜라네시아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크리올은 지역에 따라 파푸아 뉴기니의 Tok Pisin, 바누아투의 Bislama, 그리고 솔로몬 제도 Pidgin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Tok Pisin과 Bislama 두 언어의 사회 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 가능성에 대해 고찰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Tok Pisin은 시골마을에서도 모두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바누아투에서는 수도 포트빌라에서는 Bislama가 사용되지만, 시골마을에서는 오스트로네시아 계 현지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5) 井上史雄(2008), 경어의 사회학과 경제학<특집> 경어연구의 최전선, 社会言語科学 11(1), 社会言語科学会, 51-63.

이 연구에서는 경어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사회 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중언어 구사, Diglossia의 개념, High-Low 스케일이 사회 언어학의 여러 영역에 공통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언어 유형론과 경제 발전론의 관점에서 세계의 경어를 논하면서 경어의 길이와 존경의 정도를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밝혔다. 아울러 경어의 감소의 법칙과 플라이트니스 이론에 대해서도 논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직업과 경어는 관련성 나아가 경어와 경제의 관계를 논했다. 언어 외의 조건에도 High-Low 스케일을 고려하였다.

(6) 朝日祥之松田謙次郎(2008), 경어 연구와 실시간적 언어 변화 연구와의 접점을 찾아서 (<특집> 경어 연구의 최전선), 社会言語科学 11(1), 社会言語科学会.

이 연구는 변이 이론에 근거한 실시간적 언어 변화 연구가 경어 연구에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어의 연구 상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 문법적 접근, (2) 사회심리학적 접근, (3) 사회언어학적 접근 (4) 언어사회학적 접근의 네 가지 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변화 예측을 포함한 경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을 통합한 관점으로 실시간적 경어 변화 연구에 대해 고찰했다. 그 결과, 국립국어연구소가 아이치현 오카자키시에서 과거 2회 실시한 경어 조사(오카자키 조사)가 통합 관점에서 다른 유일한 실시간적 경어 변화 연구임을 지적하였다.

(7) 카터 バーバラ·白坂千里·韓娥凜(2013), 고치현 시만토시 니시토사의 스타일 전환 : foreigner talk의 관점에서,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1,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42-56.

이 연구는 니시토사 지역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어떻게 스타일 전환을 하는지에 대해 foreigner talk 관점에서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외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외견에서 외국인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스타일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그 결과 이들이 언어 행동이나 언어 형식의 전환 모두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밝혔다.

## 2.3. 한국의 조사·연구

### 2.3.1. 음운·형태

(1) 강희숙(1992), 음장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30.

강희숙(1992)에서는 전남방언, 특히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음장의 실현 정도에 대한 말씨 스타일별 분포를 세대별, 성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음장의 변별적 기능의 소멸이 시작되고 있는 연령층, 즉 청소년층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을 위해 우선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낱말들 중 모음의 길이에 의해 대립 관계를 이루는 40개의 변별쌍을 선정하고 이를 가지고 만든 문장들을 각 세대별로 10명씩, 모두 40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각의 세대는 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양분되었다. 조사의 자료는 언어적 변수인 말씨의 형태를 고려하여 단어 읽기, 문장 읽기, 평상적 말투 등으로 구별하여 설문지 형식으로 피실험자에게 제시되었다.

강희숙(1992)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말의 경우 30대 이하 세대가, 전북방언의 경우 60대 이하 세대가 음장에 대한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전남방언에서는 전 세대에 걸쳐 음장에 대한 의식 및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뚜렷했다. 이것은 전남방언의 고유한 악센트 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음장의 실현 정도가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세대별로 급격한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음장의 차이는 오히려 강희숙(1992)에 따르면 개인어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남방언에서도 일부 청소년 세대, 특히 여성들의 평상적인 말씨에서 음장의 변별력이 약화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음장의

중화라는 언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청소년층의 언어, 특히 여학생들의 평상적인 말투에서 음장의 실현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최소대립쌍을 갖지 않아서 모음의 장단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휘들에서 그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또한 언어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서 젊은 세대에 속할수록 음장의 중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결과로 미루어보건대 음장의 소멸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강희숙(1993), 장흥지역어의 불규칙활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p, t, s 불규칙 활용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5.

강희숙(1993)에서는 장흥 지역어를 중심으로 불규칙 용언들이 어떠한 어간 교체형을 갖고 그러한 교체형들은 사회언어학적 변형과 관련하여 어떤 음운론적인 시사점을 주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위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규칙 활용 가운데 자음체계의 변화에 따른 어간의 재구조화로 생긴 p-, s-, t-불규칙 활용이다. 자료조사를 위해 각 세대별 10명씩 총 40명의 자료제공자가 선정되었다. 세대 집단은 20세 미만의 청소년층, 20세-40세 장년층 41세-60세 중년층 61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구분되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언어학적인 변형으로서 화자의 사회경제적 계층을 고려했는데, 자료 제공자의 세대주의 직업과 본인의 교육수준 및 가족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주택과 같은 변수를 사용한 계량화 작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계층을 중상류층, 중류층, 중하류층, 하류층으로 성층화하였다.

강희숙(1993)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p-, s-, t- 불규칙 용언들은 이 지역어에서 하나의 단일한 교체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 따라 또는 어휘에 따라 다양한 어간 교체 변이형들을 보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이형들의 존재는 강희숙(1993)에 따르면 국어의 불규칙 활용의 본질과 관련되는 사실로서, 국어화자들이 불규칙 동사의 교체형에 대해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휘부에 존재하는 어휘화된 교체형을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어간 교체 변이형들의 존재는 화자의 사회언어학적 신분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젊은층 화자일수록 화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화자일수록 단일 어간 재구조화형보다는 교육에 의한 표기법의 영향에서 비롯된 불규칙 활용형의 실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이는 언어변화의 방향이 표준변이형인 불규칙 활용형의 사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강희숙(1994), 음운변이와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 전남 장흥 방언을 중심으로,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강희숙(1994)에서는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라는 언어 공동체를 대상으로 개별화자들의 언어가 실제 언어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관찰함으로써 국어의 음운론적 변이와 그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음운현상에서 나타나는 언어내적 변이의 음운론적 제약과 조건을 확인하고, 그러한 변이형들이 사회언어학적 변형들과 어떠한 체계적 공동변이를 형성하게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강희숙(1994)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자음군 단순화에 있어서는 자음군 단순화 형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간 재구조화형이 변이형으로서 공존하고 있었다. ② p-, s-, t-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는 불규칙활용에 의해 도출된 지저어간이 형태와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어간 재구조화형들이 변이형으로서 공존하고 있다. ③ 유기음화에 있어서는 /h/ % [-son, -ten]의 음성연결에서 축약에 의해 일어나는 유기음화형 외에 비유기음화형이 변이형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④ 체언 어간말 자음으로 ‘스, 스, 트’를 가지고

있는 어휘들의 곡용에서 나타나는 마찰음화에 있어서는 ‘구개음화 → 구개음화를 바탕으로 한 유추적 평준화 → 마찰음화’라는 마찰음화의 통시적 과정이 공식적 변이형의 분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⑤ 움라우트에 있어서는 이 지역어가 움라우트의 전원지로부터의 거리로 인하여 파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남 방언권 내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움라우트의 확대적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고동호(2008), 제주 방언 ‘·’의 세대별 변화 양상, 《한국언어문학》 65.

고동호(2008)의 목적은 제주 방언의 ‘·’의 세대별 변화 모습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 거주하는 피실험자 3 명-20대, 50대, 70대-에게 약식 질문에 따른 간접 질문을 통하여 ‘·’의 세대별 음향 조사를 진행하였다.

고동호(2008)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70대의 제1음절의 ‘·’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제2음절 이하에서는 원칙적으로 ‘ㅡ’와 대응되지만, 제1음절에 ‘·’가 있으면 제2음절 이하의 ‘\*·’는 그대로 남아 있거나 ‘ㄱ’과 ‘ㄴ’로 바뀌고 있다. 다음으로 50대는 ‘\*·’가 제1음절에서는 ‘ㄴ’로 바뀌고 있고 제2음절에서는 ‘ㄱ’로 바뀌고 있다. 마지막으로 20대 피실험자의 발화에서는 ‘\*’의 흔적을 제1음절의 ‘ㄴ’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5) 권경근(2001), 현대국어에서의 모음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 젊은 세대의 말을 대상으로, 《언어학》 30.

권경근(2001)에서는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의 비교를 통해 현대 서울말의 모음체계를 파악하고 모음체계상의 변화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모음의 장단과 /ㄱ/와/ㄴ/의 이중모음화 현상, /ㄱ/와/ㄴ/의 구별 문제, /ㄱ/의 음가 등과 같은 세대 간 모음의 차이를 그 체계와 관련하여 파악했다.

권경근(2001)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모음 길이의 대립이 소멸되어 /ㄱ/와/ㄴ/의 합류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ㄱ/는 후설 저모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권경근(2001)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모음의 체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음운론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했다. 먼저 길이의 대립이 없어진 것을 권경근(2001)에서는 어두음절 강화현상과 연결했다. 어두음절 강화에 의해서 길이의 대립이 비교적 안정된 세대의 말에서도 길이의 기능이 이미 어두음절로만 줄어들어 젊은 세대에서는 모든 위치에서 길이의 음운론적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 또한 /ㄱ/와/ㄴ/가 이중모음으로 되면서 전설모음의 수가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후설모음이 많아져 모음체계가 불균형한 상태가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ㅏ/는 전설저모음으로, /ㅓ/는 중설모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위 연구는 앞으로의 한국어 모음체계가 조사 당시의 젊은 세대의 7모음체계로 굳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6) 권순미(2008), 현대국어 ㄴ-ㄹ 연쇄의 변이 현상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권순미(2008)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태어나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제보자들의 발음을 조사하여 단어 내부 ㄴ-ㄹ 연쇄에서 어떤 규칙을 선택하는지와 사회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제보자의 연령과 성, 학력, 발화 스타일 등 사회적 요인을 설정하여 조사하고자 했다.

권순미(2008)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 발화에 가까운 간접 질문 조사에서는 물론이고 이야기 읽기 조사, 단어 목록 읽기 조사에서 3음절 한자어 1음절 종성과 2음절 초성에서의 ㄴ-ㄹ 연쇄에서는 모든

세대에서 역행적 유음화 규칙의 실현율이 높았다. ‘공권력, 상견례, 신선로’와 같은 3음절 한자어의 2음절 종성과 3음절 초성에서의 ㄴ-ㄹ 연쇄에 나타나는 규칙 실현의 양상은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노년층에서는 역행적 유음화가 높은 실현율을 보인 반면 청년층에서는 /ㄹ/의 비음화 실현율이 높았다. 외래어와 조사자가 임의로 만든 단어를 통해서 역행적 유음화 규칙이 공식적인 규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근래 유입된 외래어는 모든 세대에서 /ㄹ/의 비음화 규칙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경우에는 발화 스타일의 격식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노년층의 경우 발화 스타일의 격식성이 커질수록 /ㄹ/의 비음화 실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역행적 유음화와 /ㄹ/의 비음화 규칙의 선택 양상이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의 최종 학력별 규칙 선택 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 간접 질문 조사에서만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력 변인의 작용 뒤에 연령 변인의 제약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7) 기세관(1996), 여수방언의 음운론적 특성, 《선청어문》 24(1).

기세관(1996)에서는 여수방언의 음운론적 특성을 음소 체계, 모음 축약과 장음화, 모음조화, 어두 경음화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세대차에 따른 언어 변화상도 살펴보고자 했다.

기세관(1996)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음 음소는 노년층에서는 전설과 후설의 4쌍의 고모음과 중모음이 원순성을 상관 표지로 된, 평으로 대립되어 매우 균형 잡힌 9개의 3서열 4계열 3각 체계를 이루고 있고 젊은층에서는 후설만이 원·평으로 분화된 7개의 3서열 3계열 3각 체계를 이루고 있다. 용언 어간 발음 ‘ㄴ’에 ‘-아’가 이어지면 노년층에서는 ‘ㄴ’가 ‘w’로 활음화하여 축약되고 젊은층에서는 ‘ㄴ’가 탈락-축약에 이어 ‘w’가 다시 탈락한다. 이 방언에서 용언이 활음화할 때 보여주는 모음조화는 대체로 어간의 음절 구조, 즉 어간 모음의 종류와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결정되며 양성모음화라는 통시적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수방언에서는 노년층과 젊은층의 언어 차이가 두드러진다. 양층위에서는 모음 음소의 수, 모음의 축약, 모음조화, 어두 경음화 등에서 차이가 있어 세대차에 따른 언어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8) 김규남(1998), 전북 정읍시 정해마을 언어사회의 음운변이 연구,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김규남(1998)에서는 전라북도 정읍시 정해 마을 화자들의 발화를 통해 비표준적인 변이형들과 사회적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 관찰 방법을 통하여 화자들의 일상적인 발화를 일차적으로 관찰하였다. 조사한 자료는 IPA로 전사 후 컴퓨터에 옮겨 형태소 검색 프로그램으로 검색된 자료를 수치화했다. 이를 통해 정해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화자들의 일상적 발화에 나타나는 변이 현상을 통해 언어 변화와 화자 변화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김규남(1998)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자들의 일상적 발화에서 나타난 변이형들을 모두 추출하여 이를 전산화하고 그 결과를 화자 개개인의 백분율과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 결과를 성별, 연령, 학력 등의 변화와 연결하여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해 마을 언어 사회 내에서 유기음화는 연령에 따라 빈도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h,k’ 구개음화나 이주모음의 단모음화형들은 사용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어휘화된 채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Xyo)의 변이음 [Xɔ]는 노동자 농민 계층의 남성 화자들과 60대 이상의 여성 화자들에서만 유지되고 있으며 자영농층 남성 화자들과 50대 이하의 여성층에서는 소멸되었음이 드러났다. (i), (ii)의 변이음 [E], [i]는 5.60대 여성 화자들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40대 화자들에게서 표준적 변이음 [wE], [wi]로 되어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잖아’ 형은 40대 여자들의 발화 스타일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때로는 다른 화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사회 계층 간에 발화 스타일을 차용하는 태도가 달랐는데, 60대 자영농층 화자들은 이러한 변이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이형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50대 후반의 노동자 농민층 화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성장을 드러내는 한 수단으로 여성 화자들이 차용하고 있는 표준어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였다. 김규남(1998)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언어 변형과 화자 변형의 상호 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는데, 연령, 성, 사회적 교류망을 화자 변형으로 선정하여 언어 변형과 연령 변형 사이의 상호 작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령 변형과 언어 변형 사이를 보면 구개음화형, 이중모음의 단모음화형, [Xδ]형의 사용 빈도가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특히 [Xδ]의 사용이 40대에서는 전혀 없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고 했다. 성별 변형과 언어 변형을 살펴보면 (δ), (u)의 변이음 [E], [i]가 여성의 발화 특성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층 가운데 50, 60, 70대 화자들은 상투적인 방언형을 남성 화자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40대 여성들은 상당히 표준어 지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사회계층과 언어 변형 간의 사이를 살펴보면 남성 화자들은 계층 구분이 분명하다는 데 특이점이 있다. 자영농층에 속하는 화자집단과 노동자 농민계층에 속한 화자들은 교류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후자는 결속력이 강한 교류망을 가지는 데 반해 전자는 이와 반대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언어 사용은 서로 대조적이다.

(9) 김선철 외(2004), 서울말 장단의 연령별 변이, 《말소리》 50.

김선철 외(2004)에서는 20대부터 60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제보자 350명을 선정하여 40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장음과 단음만을 구별해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김선철 외(2004)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60대로 갈수록 많은 단어를 장음으로 발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60대층은 기저 단음에 있어서도 장음으로 발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기저형에 상관없이 많은 어휘를 장음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0) 김원보 외(2007),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이중모음의 음향분석과 이중모음체계, 《음성과학》 14(4).

김원보 외(2007)에서는 20대, 50대, 70대의 세대별로 제주방언의 이중모음체계를 음향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제주방언의 이중모음인 [의(iy), 유(yu), 예(ye), 여(yə), 요(yo), 애(ye), 야(ya), 위(wi), 외(we), 워(wa), 웨(we), 와(wa), 으(yo)]가 포함된 어휘목록을 녹음하여 음향적으로 분석한 다음 기본 주파수와 포먼트 주파수의 값의 변화를 살펴보는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원보 외(2007)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방언의 이중모음체계는 세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 전반적으로 70 대의 이중모음체계는 단모음체계에서 구별되는 단모음의 이중모음들이 충실하게 구분되어 발음되고 있다. 그래서 단모음 체계에서 서로 구별되는 /e/와 /ɛ/, /o/와 /ɔ/가 그 음들의 이중모음인 /we/와 /weɪ/, /yo/와 /yoɔ/도 서로 구별하여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ye]와 [yeɪ]는 고저의 차이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조음위치의 전후의 차이로 발음함으로써 그 두음의 구별이 상당히 둔화되어서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중모음 /iy/은 제주방언의 70대 화자의 경우 남자는 [i]로 여자는 [i]로 발음하여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50대의 이중모음체계는 한마디로 ‘변화 중’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의 발음은 70대의 이중모음체계를 닮았으면서도 이중모음들 사이의 구별은 70대만큼 뚜렷하지 않고, 또 일부는 20대의 이중모음체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대는

70대와는 다른 이중모음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we/와 /weɪ/를 구별하여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있으며, /yo/와 /yoɔ/의 경우도 조음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져 있어서 얼마 없으면 구별하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리고 [iy]를 이중모음으로 뚜렷이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 표준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20대에서는 [yo]의 사용빈도가 극히 줄어들었고 그 모음들을 전혀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11) 김원보 외(2014 ㄱ), 제주방언 화자의 세대별(20대/50대/70대) 어두 파열음의 VOT, F0 및 파열장도(burst energy) 변이양상, 《탐라문화》 44.

김원보 외(2014 ㄱ)에서는 북제주군의 4개 시·군 지역에서 각 시나 군별로 4개 마을에 거주하는 남녀 각 1명씩 8명(남녀 각4명)을 선정하여 20대, 50대, 70대 이후의 세대별로 제주방언의 단모음체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제주방언 화자들로 이루어진 피실험자들은 각 모음별 녹음할 어휘목록 카드를 읽는 형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다.

김원보 외(2014 ㄱ)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방언의 70대 화자에서는 9모음체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50대에서는 /ɛ/와 /ɛɪ/의 구별은 대체적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20대의 경우는 /ɛ/와 /ɛɪ/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결론이 나왔다. 70대 화자는 /ɔ/와 /ɔɪ/ 또는 /ɔ/ 등으로 ‘·’를 구별하여 발음하였다. 하지만 20대의 경우는 /ɔ/음을 독립된 음으로 다른 음과 구별하지 못했고 50대의 경우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단어 중간에서는 /ɔ/음을 /ɔ/와 /ɪ/와 같은 다른 음과는 구별되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제주방언에는 세대별로 세 개의 모음 체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70대에는 9모음체계가, 50대의 경우는 8모음 체계가 20대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7모음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밝혔다.

(12) 김원보 외(2014 ㄴ), 제주방언 화자의 세대별(20대/50대/70대) 단모음의 음향분석과 모음체계, 《언어과학 연구》 39.

김원보(2014 ㄴ)에서는 제주방언 화자의 20대, 50대 70대 이후 세대별 어두 무성파열음인 평음 경음 격음의 발화에서 어떤 음향음성학적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무성음에서의 평음과 격음 경음의 삼원적 대립은 특이하게 여겨져 왔고 발성 유형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기존에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제주방언의 무성파열음의 삼원적 대립체계를 분석하고 세대에 따른 제주방언 어두 무성파열음의 특징은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조사는 /ɪ/음을 선행하는 어두파열음을 포함한 9개의 무의미한 음절이나 단어를 피실험자에게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발화할 것을 요구한 후 음향 분석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김원보(2014 ㄴ)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VOT 값(ms)은 세대에 관계없이 경음<평음<격음 순이었고, 후행하는 모음의 F0 값(Hz)은 평음<경음<격음, 파열장도 값(dB)은 경음<평음<격음 순이었다. 이런 분석 결과는 먼저 50대와 70대 제주방언 화자들이 어두 무성파열음의 삼원적 대립인 평음, 경음, 격음을 구별하기 위해 VOT를 주요 음향적 단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두 무성파열음의 VOT 값이 감소해서 삼원적 대립을 좀더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 VOT에 더해 F0 값을 음향적 단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0대와 70대의 제주방언 화자들은 VOT에 더해 F0와 파열장도를 어두 무성파열음의 평음 경음 격음을 구별하기 위한 보조적 음향단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13) 김유권(2004),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겨레어문학》 32.

김유권(2004)에서는 경음화 현상이 실제 사회 속에서의 출현하는 빈도와 사용 양상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경음화 현상이 국어 어휘와 음운 차원에서 언어 변화 요인임을 밝히고자 했다. 조사 자료로는 일상적인 발화 현상에서 음운론적 상황과는 관련 없이 화자의 심리, 상황, 태도 등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며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만을 포함했다. 또한 자료의 가공성을 배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 시내 전역을 조사 장소로 삼아 엿듣기 방식이나 간접 제보 방식 혹은 매체 전사 방식 등을 통해 얻은 자연스러운 발화를 자료로 삼았다. 조사 대상에는 남녀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연령은 어린이부터 60대까지로 하였는데, 20대에서 40대까지가 가장 많았고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노년층도 가끔 있었다.

김유권(2004)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음화 현상은 음절구조상 첫음절에서 거의 모든 경음화 현상이 이루어지며, 명사>동사>형용사>부사>관형사의 순서로 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고유명사에 많은 경음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한 어휘에 대한 줄임이나 변형된 형태까지 경음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며 그 경음화도 다양한 형태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 끝으로 한자에 비해 고유어에서 경음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한국어의 경음화 현상은 대부분 10대, 20대, 30대 등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0대에서는 급진적으로, 20대에서는 가장 높은 분포로 경음화가 실현되고 있었다. 또한 경음화 현상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이 실현하고 있었다. 김유권(2004)은 앞으로 한국어 변화의 방향은 경음화가 가속화되고 많은 음절의 첫소리가 경음화로 발음되는 어휘들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14) 박경래(1984), 괴산방언의 음운에 대한 세대별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박경래(1984)에서는 충북 괴산 연풍 지역 방언의 두 세대 - 노년층과 청년층 - 간에 나타나는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8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전국 방언 조사 연구를 위해 만든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를 바탕으로 움라우트 현상, 모음체계 등을 보충 조사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했다.

박경래(1984)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풍 방언의 자음체계는 세대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모음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이 10모음체계, 40대가 9모음체계, 30대 이하는 7모음체계를 가지는 체계상의 대립을 보이며, 세대의 경계를 50세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장음은 노년층에서는 강한 변별력을 가지며 운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만, 청년층에서는 그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운율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 움라우트 현상은 노년층에서는 공식적 움라우트가 생산적이나 청년층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 표준어의 간섭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음화는 노년층에서는 제한적이나 청년층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세대 간 음운 변화는 규칙의 상실이나 첨가, 제배열 등에 의한 단순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15) 박경래(1989), 괴산지역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국어국문학》 101.

박경래(1989)에서는 괴산지역어의 사회언어학적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괴산지역의 사회방언학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39개 어휘 항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이 가운데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12개의 항목이 연구에 이용되었다. 이 12개 항목들은 일상적인 말투, 격식적인 말투, 문장읽기 유형, 단어 목록 읽기 유형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다음으로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양상이 논의되었다. 여기에는 나이, 성별, 학력 및 말투들이 방언 분화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살펴보았다.

박경래(1989)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괴산 지역의 이중모음은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에 보이는 단모음체계의 차이에 따라 노년층이 13개 /ye, ye, ya, ya, yu, yo/와 /uy, iy/ 및 /wi, we, we, wa, wa/인 데 비해 청소년층은 10개 /yE, ya, ya, yu, yo/와 /iy/ 및 /wi, wE, wa, wa/로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정서법상 이중모음을 가지는 것들의 단모음화도 세대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strid] 자질을 가지는 자음 아래에서는 y계 상향이중모음이 세대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단모음화했다. 그런데 노년층에서는 y계 상향이중모음에 선행하는 h와 k계 자음 구개음화로 이 위치에서의 단모음화가 매우 폭넓게 관찰되었으나 청소년층에서는 정서법교육 등으로 인하여 구개음화한 어형들을 거부함으로써 대부분의 것들이 다시 이중모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세대 간에 관찰되는 이러한 현상은 [+grave]자음을 선행시키는 y계 상향이중모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또한 청장년층에서보다 노년층에서 방언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방언분화는 연령층에 따른 분화와 차이를 보여 청소년층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방언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장년층 이상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특히 장년층의 남자들이 방언형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와도 관련된다고 보았고 청소년층의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방언형을 덜 사용하는데, 학력을 고려했을 때의 방언분화는 남녀 모두 연령층에 무관하게 학력이 낮을수록 방언형을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방언형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학력이 높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은 것과 관련. 남자들은 청소년층이 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방언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방언형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박경래(1993), 충북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박경래(1993)에서는 충주방언의 음운에 대해 사회언어학적인 고찰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충주 방언의 음장, 단모음 ‘외, 위’, ‘에, 에’,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움라우트 현상 등을 나이, 성별, 학력, 말투 등의 사회적인 요인들과 관련지어 논의함으로써 언어 사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언어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료 조사는 직접 면접 방법만을 이용했고, 최저 10살에서부터 최고 87살까지 89명을 선정하였고, 나이, 성별, 학력 등 각각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가급적 균형을 이루도록 조사하였다.

박경래(1993)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장은 60세를 분기점으로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음운론적인 기능인 변별적 기능을 상실하지만 음성적인 기능인 구별적 기능은 20세 이하가 되어야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음장을 더 잘 유지하고 있고,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더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에 따라 단모음의 숫자가 달라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10모음체계, 50대의 연령층은 8모음체계, 4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7모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모음 체계도 연령별 차이를 보여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13개, 50대 연령층은 12개, 40대 이하의 연령층은 10개의 이중모음을 가지고 있다. 80대 이상은 공식적인 움라우트 규칙을 가지고 있으나 70대와 60대의 연령층은 약화되는 과도기를 거쳐 5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상실되고 통시적인 움라우트만 보여주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움라우트된 어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교육 정도, 사회적 역할 등 언어 외적 요인이나 언어 태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음운 체계에 관련된 것들은 성별이나 학력과 뚜렷한 상관성을 찾지 어렵지만, 음운 현상에 관련된 것들은 성별이나 학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운 체계의 분화는 무조건 변화인데 비해 음운 현상의 분화는 조건 변화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충주 방언의 변화의 기점은 60세가 된다.

(17) 박경래(1994), 충주 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개신어문연구》 10.

박경래(1994)에서는 충주 방언의 음운 중 움라우트 현상과 사회언어학적 변이현상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충주 출신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이상의 연령층에 속하는 남녀 844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의 언어 태도와 조사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방언조사를 위한 설문이 진행되었다. 조사 항목에 대한 설문은 일상적인 말투와 격식적인 말투, 질문지에 적힌 단어 목록을 읽고 구절을 읽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박경래 (1994)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움라우트 현상은 나이나 성별 학력 말투 등에 따라 분화에 패턴을 보이는데 그 내용은 연령층이 낮고 학력이 높은 여자들일수록, 말에 주의를 많이 기울일수록 움라우트형 대신 표준어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박경래(1994)는 이러한 연구가 국어학계에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나는 개별방언이 가지고 있는 언어 사실들을 좀 더 실체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개별방언이 보여주는 언어 사실들에 근거하여 국어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18) 박경래(2000), 단양 방언의 음운에 대한 세대별 비교 고찰, 《개신어문연구》 17.

박경래(2000)에서는 단양 지역을 대상으로 방언자료를 수집한 후 실제 언어 상황에서 나타나는 언어 변이 양상과 동일 지역 내에서 세대를 달리하며 나타나는 새로운 방언 사용 양상이나 언어 변화의 양상 및 그 기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충북 단양 어상천 방언의 노년층 세대와 장년층 세대 간 나타나는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에서 발견되는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

박경래(2000)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양 방언의 음운은 노년층에서는 음성적이거나 음운론적으로 변별적 기능을 하는 데 반해 장년층 세대에서는 수의적으로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박경래(2000)에서는 단양 방언의 자음이 음성 실현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노년층 세대에서는 /o/이 단어의 끝에서부터 두 번째 음절에 놓이고 마지막 음절이 /이/이면 비모음화하거나 약화되는 특징이 있는 데 반해 장년층 세대에서는 잘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단양 방언의 세대 간에는 상이한 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즉 노년층의 경우 모음체계가 4계열 3서열 10모음 체계인 데 반해, 장년층 세대는 전설모음 계열의 원순모음 ‘ㅛ, ㅜ’가 없고 ‘ㅟ, ㅡ’가 중화되어 7모음 체계를 가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움라우트 또한 세대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형태소 내부 환경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은 노년층에서보다 장년층에서 활발하며 이 연령층에서는 움라우트형과 표준어형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 방언의 경음화는 세대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명사 말 자음 교체는 젊은층으로 갈수록 단일화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명사 말 자음 /ㅅ, ㅈ, ㅌ/ 등이 형태소소론적인 교체에서 /ㅍ/으로 실현되는 변화 방향을 보이는데, 이는 단양 방언의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이 세대 간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박경래(2000)에서는 동시대에 동일한 지역의 화자들 간에 보이는 언어분화를 긴 시간의 맥락 속에서 파악한다면 하나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방향은 단순화 추구라는 거시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요인으로 보면 그 역방향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19) 박순형(2011), 실험음성학적 방법에 의한 경남 방언의 성조 변화 연구,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순형(2011)에서는 경남 방언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성조에 대하여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을 통해 세대 간 성조가 어떻게 다른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하였다. 세대에 의한 성조 변화 연구에 있어 직관적인 방법에 의한 기술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통해 성조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했다. 실험 대상자로는 전형적인 경남 방언 화자를 세대별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선정하였으며 세대에 의한 성조 변화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 간의 세대별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박순형(2011)에서는 경남 방언 사용자인 50대 여성 화자와 20대 여성 화자의 1음절어, 2음절어, 3음절어에서의 성조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 및 분석을 토대로 성조 변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박순형(2011)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들은 1음절 경남 방언에서 대부분 3성조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음절의 경우 50대 화자에 비해 20대 화자에서는 저조의 출현 빈도가 낮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3성조형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음절의 경우 50대 남성 화자의 경우 성조의 상승과 하강이 나타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대 남성 화자의 경우 성조가 대체적으로 올라가 있었다. 한편 1음절 단어의 경우 50대 20대 여자 화자 모두 3성조형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음절에서는 50대 여성 화자의 경우 3성조형이 모두 드러나지만 20대 여성 화자의 경우에는 고조와 중조 2성조형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음절의 경우, 50대 여성 화자는 3성조형이 모두 나타났지만 20대 여성 화자에는 저조가 사라진 2성조형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박순형(2011)은 경남 방언의 성조가 변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고, 20대 여성 화자의 경우 표준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경남 방언의 소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20) 박영순(1985), 한국어 복자음 발음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어문논집》 24(1).

박영순(1985)에서는 한국어 복자음 발음의 다양성을 주로 지역 요인과 연령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는 884명의 피실험자를 무작위로 뽑아 설문을 통한 발음조사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피조사자들의 발음은 주로 통계적으로 처리되었다.

박영순(1985)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복자음은 출신 지역이나 연령, 교육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발음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뚜렷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자음규칙 또는 설측음 규칙 중 어느 한 가지 현상으로 파악하거나 언어공동체를 완전히 동질적인 것으로 본 선행연구들의 논의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 박정자(2007), 국어 음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박정자(2007)에서는 초등학교 화자들의 국어 발음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변이와 사회적 변수인 말투, 성별, 연령, 사회 계층과의 상관관계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어 교육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생들의 일상적인 발화를 대상으로 음운 현상에서 나타나는 변이현상의 실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단순히 오류로 처리하였던 비표준 변이형의 유형에 대한 국어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어의 자음 관련 음운 현상인 어두 경음화, 유기음화, 위치 동화, /ㄷ/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ㅎ/탈락 등에서 발견되는 언어 내적

변이의 음운론적 조건을 확인하는 한편 언어 외적 변이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박정자(2007)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두 경음화는 수의적인 현상으로서 화자의 심리적인 면이 작용한 결과라 보았다. 이는 학년이 높고 남학생 화자일수록,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자주 일어났다. 특히, 6학년 남학생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 집단에 수용되고자 하는 유대감, 혹은 남자답게 보이려는 남성다움의 표현이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기음화는 말투와 크게 관계없이 골고루 높은 실현율을 보였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남학생 화자보다는 여학생 화자에게서,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조금 더 높은 실현율을 보였다. 위치 동화는 수의적인 동화로서 격식성의 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 단어 읽기 말투와 일상적인 말투에서 보이는 실현율의 차이가 매우 컸으며 일상적인 말투에 가까울수록 높은 실현율을 보였다. 또 학년이 낮을수록, 남학생에게서 실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ㄷ/ 구개음화에서는 구개음화, 마찰음화, 말음 중화 등의 여러 규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변이의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구개음화 실현율이 높았다.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일상적인 말투에 가까울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아주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남학생 화자에게서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 계층별로는 어휘에따라 실현율이 높거나 낮은 계층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ㅎ/ 탈락에서 /ㅎ/의 수의적 탈락은 화자의 말투가 일상적인 말투에 가까울수록, 남학생 화자에게서 탈락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은 높을수록 낮은 탈락률을 보임으로써, 교육에 의해 교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박정자(2007)은 음운 변이형들의 실현 양상을 볼 때, 대체로 일상적인 말투에 가까울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여학생 화자보다는 남학생 화자가,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비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연령, 성별, 사회 계층이라는 사회적 변수가 언어 외적 요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 박종덕(2000), 안동 지역어의 훌훌소리 체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말연구》 7.

박종덕(2000)에서는 경상북도 안동시를 조사 지점으로 하여 현재 국어에서 진행되고 있는 훌훌소리 체계변화 양상을 사회언어학적인 방법론에 의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식적으로 관찰 가능한 이 지역의 훌훌소리와 관련한 자료를 연령층별로 수집하여 각 연령층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말을 비교함으로써 훌훌소리 체계의 변화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또한 연령이라는 사회적 변수 외에 성, 학력, 말투 등도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은 다양한 연령층의 살마들을 연구할 수 있는, 비교적 시가지에 속하는 안동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박종덕(2000)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훌훌소리는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90대 /i, E, y, ø, i, ə, a, u, o/의 9훌훌소리 체계임에 반해 80-60대는 /i, E, y, ø, i, ə, a, u, o/의 9훌훌소리 체계와 /i, E, i, ə, a, u, o/ 7훌훌소리 체계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50대 이하는 /i, E, i, ə, a, u, o/ 7훌훌소리였다. 또한 /-ㄴ/, /-ㄹ/는 80-60대에서는 [wi], [we]로 50-30대에서는 [wi], [we], [i], [e]로 10-20대에서는 [i], [e], [ɥi]로 실현되고 있었으며 /-와/와 /-이/는 이 지역어에서 독립된 음소로 확립되고 있었고, [e]와 [ɛ]의 경우 모두 남아 있으나, 음성적 실현에도 불구하고 음소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특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박종덕(2000)에 따르면 이 지역어의 변이 및 변화의 외적 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연령이며, 다음은 학력이고 성별과 말투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 박주경(1987), 현대 한국어의 장단음에 관한 연구, 《말소리》 11.

박주경(1987)에서는 장단음에 대한 인식 및 인식의 정도와 실제로 장단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변화 추세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3대 이상 서울에서 출생·교육을 받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각 연령층당 5명씩 6개 연령층 30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크게 자라나는 세대(30대 이하)와 안정된 세대(40대 이상)로 구분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자료는 빈도가 높은 낱말 400개를 인용형으로서와 문맥 속에서의 차이를 관찰하고, 또한 더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가지고 문장 277개를 만들어 질문지법과 녹음·면담법을 병용하여 조사하였다.

박주경(1987)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정된 세대에서 장단은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강세, 리듬, 억양, 열린 연결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낱말의 뜻을 강조하거나 느낌을 살리는 표현적 자질이 되기도 한다. 자라나는 세대에서 장단은 음운으로서의 기능이 약화 내지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표현적 자질로 쓰이는 경우에도 장모음보다는 끝자음을 길게 한 경우가 압도적이며, 강세와의 결합 유형상의 변동, 즉 강세를 받아 앞모음이 짧게 나면서 끝자음이 길게 나는 현상이 보인다. 그런데 장자음 사용도 된소리 되기 현상에 의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엿보이며, 모음 장단에 대한 의식의 약화로 전체 리듬 패턴상 변동이 일어나 낱말의 끝음절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장단을 끝내 음운 목록에 남겨둘지의 여부는 재고되어야 한다.

(24) 박지운(2011), 서울 지역 세대 간 /ㄱ/와 /ㄴ/ 모음의 포먼트 측정 - 조음음성학적 특징과 스펙트로그램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8.

박지운(2011)에서는 서울 지역의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에 나타나는 단모음 /ㄱ/와 /ㄴ/의 차이를 음향음성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3대 이상 거주하는 60-70대 화자 4명과 10-20대 화자 4명을 피실험자로 삼았다. 성별 또한 각각 남녀 2명으로 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박지운(2011)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 지역의 세대 간 단모음 /ㄱ/와 /ㄴ/의 포먼트를 측정하여 음성의 조음음성학적인 특성과 스펙트로그램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 노년 세대는 /ㄱ/와 /ㄴ/을 변별적으로 조음하고 있는 반면 10-20대 서울 지역 화자는 변별적으로 조음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5) 배혜진 외(2010), 대구 지역 어두경음화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民族文化論叢》 46.

배혜진 외(2010)에서는 어두경음화가 가장 활발한 남부지방 중에서도 대구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삼아 세대별, 성별, 사회계층별, 말투별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보자 선정에 있어 판정 추출법을 이용하여 대구지역에서 출생해 성장한 사람을 대상으로 총 72명을 선정했다.

배혜진 외(2010)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 지역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실현율을 보였지만, 특정한 어휘에서는 오히려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실현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 대구 지역의 어두경음화 현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형식적인 말투보다는 일상적인 말투에서 높은 실현율을 보였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어두경음화가 높은 실현율을 보이는 것이 특이한데 이를 통해 대구 지역 어두경음화 현상이 다양한 사회계층에 걸쳐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26) 서성원(2002), 순천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서성원(2002)에서는 순천 월등 지역어를 대상으로 세대에 따른 모음체계와 자음체계를 세대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 논문에서는 학교 교육의 영향을 갖아 많이 받고 있는 10대를 청소년층

(G4),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20세부터 39세까지는 장년층(G3),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인 40세부터 59세까지를 중년층(G2), 사회적 활동 폭이 다시 좁아지는 60세 이상을 노인층(G1)으로 구분했다.

서성원(2002)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음체계는 자음체계와는 달리 노인층과 젊은층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노인층과 중년층에서는 성의 구별 없이 /e/와 /ɛ/, /u/와 /o/ 등이 음성적으로 잘 구별되어 음소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장년층·청소년층에서는 급격한 통합 현상을 보이면서 /e/와 /ɛ/의 합류음 [E]로 실현되며, /u/와 /o/는 각각 이중모음 [wi]와 [wE]로 또는 단모음 [i]와 [E]로 실현된다. 따라서 순천지역어의 단모음은 노인층과 중년층에서는 /i/, /e/, /ɛ/, /u/, /o/, /i/, /a/, /a/, /u/, /o/ 등 10개로, 장년층과 청소년층에서는 /i/, /E/, /i/, /a/, /a/, /u/, /o/의 7개로 설정된다. 한편 음장은 이제는 소멸 직전 단계에 놓여 있다. 남부방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통합적 음운현상인 움라우트가 순천지역어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 움라우트 현상은 노인층에서 가장 높게 실현되며 중년층에서 동요되기 시작하여 장년층에서는 급감한다. 그리고 청소년층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실현비율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노인층의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중년층 이하에서는 남성다움과 사회적인 유대감 및 개인적인 동질성을 중시하는 심리적 발로와 유관한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어두경음화는 이 지역어에서 젊은층보다는 노인층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성별에 있어서는 노인층에서는 여성에게서, 중년층 이하에서는 반대로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순천지역어에서 /k/계, /h/계 구개음화는 노인층과 중년층 50대에서는 실현되지만 40대에서는 심하게 동요를 보이면서 청소년층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구개음화는 노인층에서는 여성에게서, 중년층과 장년층에서는 남성에게서 높게 실현되며, 청소년층 여성에게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순천지역 어휘를 각 세대별로 제시해 그 친숙도를 알아본 결과 40대를 기점으로 소멸의 징조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성원(2002)은 순천 지역어에서의 어휘변화 분기점은 장년층 40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주장하였다.

(27) 오세내(2006), 현대 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오세내(2006)에서는 20세기 수도권 지역 출신 거주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의적인 음운 현상으로 치부되었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고유어 사잇소리 환경에서의 어중 경음화 현상, 한자어 내부에서 유성음과 무성음 연쇄의 어중 경음화 현상, 고유어와 한자어에서의 ㄴ삽입 현상,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에서의 유음화 또는 비음화 현상-들을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를 사회언어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구축된 자료-국립국어원에서 2002년 펴낸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 수록되어 있는 일반 어휘 58,438개와 고유명사 16,856개 가운데 두 개 이상의 변이형이 존재하는 발음이 두 가지 이상으로 쓰이고 있는 고빈도 어휘 256개에 용언의 활용형 9개를 더하여 총 265개의 어휘 발음을 양적 연구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를 사회언어학적 언어 변이 이론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양적-질적 연구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세내(2006)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세기 수도권 지역의 어중경음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음형 또는 평음형으로 다수형이 통일되는 평준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이형 평준화를 이끌어가는 사회집단은 부모 세대부터 서울에 진입하였거나 서울에 생활의 기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람들, 고학력 여성들,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청장년층으로 판단된다. 이들 사회 집단의 특징은 언어 행동에서 강한 동조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수도권 지역 출신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과 관련이 있는 언어 외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보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최종 학력이 높아질수록 어중경음화 현상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차로 드러난 어중 경음화 현상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 실현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어중경음화가 아래로부터의 변화이며 현재 변화를 겪고 있는 진행 중인 음운 변화로 여성이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에서 어중경음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서울 지역 출신 제보자들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들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차이를 언어 외적으로 해석하면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언어 행동과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언어 내적으로 해석하자면 복합어 환경의 어중경음화의 변이형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언어 사회에 따라 어휘 개별적으로 변이형을 실현하는 데 상이한 내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ㄴ삽입현상은 어휘 개별적으로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을 지역적인 요인으로 한정하자면 서울 지역 제보자들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지역 제보자의 경우 연령이나 최종학력과는 무관하게 ㄴ삽입 현상을 실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음화와 비음화의 경우 조사 지역 전체 응답자의 성향으로 보아 비음화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음화에서 비음화의 방향으로 변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이후 출생자와 서울 출신, 최종 학력이 대졸자인 사람들이 어중 경음화와 ㄴ삽입, 한자어 ㄴㄹ연쇄의 변이형 실현에서 대체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 지역의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 집단별 언어사용의 동조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단기간의 인구집중과 도시화, 사회구조의 변화가 세대별 언어 차이와 변이형 사용의 동일화를 일으켰으며 사회행동에서 동조성이 강한 집단이 이 지역의 언어 변화를 주도한다고 해석하였다.

(28) 윤경희(2009),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수의적 음운변동 현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윤경희(2009)에서는 수의적인 음운변동 현상을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른 환경을 가진 두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타시도 이동이 없었던 지역 화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부모세대의 교육정도가 고학력군이면서 외적인 환경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집단은 HW, 그 반대의 경우는 LP로 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윤경희(2009)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두 경음화는 HW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LP 집단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언중에게 자신의 의도를 강하게 표현하려는 심리의 반영으로 이해되며 LP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높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ㄴ’ 삽입의 경우에서는 각 단어에 따라 환경적 차이가 크게 변별되지는 않았으나, LP집단에서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경우의 비율이 HW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학습자의 질 좋은 외·내적 생활환경과 화자의 올바른 발음 사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주장하였다. 비음화와 유음화의 선택적 사용 양상을 보면 LP집단과 HW집단 모두에서 비음화보다는 유음화된 발음을 사용하는 예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확한 발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LP집단에서 중요성 인식의 정도가 낮았고, 학교의 발음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도 HW집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수혜 받지 못한 계층일수록 언어 사용과 발음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양상을 보면 어두경음화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 어두 경음화를 실현시켜 발음을 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ㄴ삽입의 경우, 이 역시 단어별로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올바른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음화와 유음화의 선택적 적용에서는 남녀 모두 비음화보다는 유음화된 ‘ㄹ, ㄴ’ 연쇄 발음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비율이 더 높았다. 이것은 부드럽고 가벼운 어조를 띠는 발음을 여성들이 선호한다는 측면이라 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장 올바른 발음의 화자가 많이 분포하는 정도와 발음교육에 대한 인식의 긍정성 정도, 그리고 올바른 발음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긍정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집단은 HW집단

의 여학생이고, 반대로 가장 낮은 비율과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집단은 LP집단의 남학생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29) 윤명숙(1996), 청주지역 중·고등학생의 발음에 대한 조사 연구 - 장단음, ㅅ와 ㅆ, ㄴ의 사회적 변이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15(1)

윤명숙(1996)에서는 중학교 600명 고등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현대 국어에서 발음상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ㄱ/와 /ㄴ/의 발음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청주지역의 중-고등학생의 발음을 조사하였다. 실험은 최소대립어의 변별 유무로 진행되었는데, ‘해:해’ ‘배:배’, ‘애:애’, ‘개:개’의 네 쌍의 최소대립어를 발음상 구별하는지의 여부를 각 개인의 직관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윤명숙(1996)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결과 40%학생들이 잘못된 발음을 하고 있다. 남녀의 성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중·고별로는 중학생이 12%나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중학생이 5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된 발음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지도 받은 까닭이라고 유추했다. 중학생의 학년 별 변별 정도는 1학년>2학년>3학년의 순서로 드러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자연계 학생이 더 잘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지별로 보면 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면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 활동의 유무에 있어서는 종교 활동을 하는 쪽이 2%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ㄱ/와 /ㄴ/의 사회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상인 학생들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ㄱ/와 /ㄴ/의 변별에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아버지의 직업은 상업·서비스업<농업<공무원·교원·회사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형제의 수를 보면 형제자매가 1명 이하인 경우가 2명 이상인 쪽보다 높게 나타났다.

(30) 이길재(1991), 남원지역 방언의 음운변화에 대한 연령별 연구,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이길재(1991)에서는 남원군의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의 공식적 체계를 기술하고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밝히 고자 이야기 구술자료와 《한국 구비문학대계 5-1》를 대상으로 매개변수 지역과 연령에 따른 음운 변화를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남원지역에서 모음체계가 연령 및 지역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 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논문에서는 모음체계가 실현되는 양상에 따라 세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 다.

이길재(1991)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모음체계(/i/, /ü/, /i/, /u/, /e/, /ø/, /a/, /o/, /e/, /a/)는 대체적으로 ‘가a’ 지역의 60대 이상과 ‘가b’ 지역, ‘나’ 지역 ‘다’ 지역의 50대 이상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9모음체계(/i/, /ü/, /i/, /u/, /e/, /a/, /o/, /e/, /a/)는 ‘나’ 지역의 40-50세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8모음체계는 ‘가a’ 지역(/i/, /e/, /ü/, /i/, /a/, /a/, /u/, /o/)의 50-60세, ‘가b’ 지역의 40-50세, ‘다’ 지역(/i/, /e/, /e/, /i/, /a/, /a/, /u/, /o/)의 40-50세에서 실현된다. 7모음체계(/i/, /e/, /i/, /a/, /a/, /u/ /o/)는 ‘가a’ 지역의 50대 미만, ‘가b’, ‘나’, ‘다’ 지역의 40대 미만에서 실현되고 있다. 구개음화와 마찰음화는 지역, 연령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마찰음화는 그 규칙을 설정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지역에서 매개변수 지역과 연령에 대하여 모두 차이를 갖는 변인은 음라우트, 전설모음화, 경음화이고 연령에 대해서만 차이를 갖는 변인은 원순모음화로 드러났다. 또한 연령과 지역 모두에 아무런 차이를 갖지 않는 변인으로서는 구개음화 와 마찰음화라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구개음화와 마찰음화는 남원지역에서 매개변수 지역과 연령에 대하 여 변인으로 설정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31) 이길재(2004), 곡용과 활용의 어간재구조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나주 지역어를 중심으로, 《사 회언어학》 12(1).

이길재(2004)에서는 사회적 성층에 따른 언어변이의 공식적 분포를 통하여 나주 지역어의 몇몇 곡용과 활용 어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어간재구조화의 방향성과 사회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나주 지역어의 어간 말음 ‘스, ㅅ, ㅌ’를 갖는 체언과 ‘ㅅ, ㅌ’를 갖는 용언의 곡용과 활용 패러다임의 사회적 성층에 따른 분포와 실현 빈도를 통해 나주지역어의 어간재구조화의 양상과 방향성,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길재(2004)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년층의 경우 ‘X스, ㅅ, ㅌ’는 ‘Xㅅ’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이며, 중장년층의 경우 청장년층의 영향으로 ‘스, ㅅ, ㅌ’가 어간 말음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파찰 음 ‘스, ㅅ, ㅌ’의 확산은 어휘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언어내적인 질서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으며, 화자들이 문자규범에 맞추어 발음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년층과 청장년 층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도 그 실현율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Xㅅ’의 실현율이 높다. 이는 여성화자들이 마찰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높은 ‘ㅅ’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탈투가 ‘거칠다’ 혹은 ‘거세다’라는 평가를 회피하고, 여성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일련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보았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곡용 어미와의 결합과정에서 표준어형 ‘X스, ㅅ, ㅌ’로의 교체는 청장년층의 남성화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청장년층의 여성화자, 중장년층의 남성화자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어간 말음 ‘스, ㅅ, ㅌ’를 갖는 어휘들의 곡용 패러다임의 유형화를 통해 이 지역의 청장년층에서 보여주는 어간재구조화와 노년층에서 보여주는 어간재구조화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 다. 청장년층의 언어 개신은 표준규범의 수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연령층(특히, 남성화자)에서는 지역사회 언어규범과의 조정과정 없이 표준규범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층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곡용 패러다임은 이 지역에서 중장년층의 언어적 위치를 말해 주고 있다. 어간 말음 ‘ㅌ’를 갖는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의 사회적 성층에 따른 분포와 실현빈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년층에서 ‘듣-’을 제외한 모든 어휘들이 ‘X\* -’이나 ‘Xㄷㅌ’으로 재구조화 되었다. ‘견-’의 경우 중장년층과 청장년층에서는 ‘Xㄷ’로 재구조화된다. ‘Xㅅ-’과 마찬가지로 ㅌ-변칙 활용이 청장년 층에서 중장년층, 노년층 남성화자로 그 세력이 확산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는 청장년층의 표준규범의 수용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2) 이미재(1989), 어두 경음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 언어 변화의 측면에서, 《수원대학교 논문집》 7.

이미재(1989)에서는 경기도 화성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언어 내적 요인이 없는 어두 경음화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세까지를 청소년층, 21-35세까지를 장년층, 36-55세까지를 중년층, 그리고 56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분류하여 세대별 경음화 정도를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이 실험은 자신이 발화한 경음화된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얼마나 인식하는지와 실제 표준 발음의 경음화 비율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미재(1989)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결과 어두경음화에서 분명한 추이는 어휘확산적 측면에서 개별 어휘의 경음화 정도 달랐지만,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강해졌다는 것이다. 말씨의 형태와 경음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평상적인 말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대답 유도형 질문에 대한 답에서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이 구절 읽기, 문장 읽기, 단어 읽기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즉 제보자가 무의식적인 순간에 경음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청소년층이 말씨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가장 높았고 가장 자연스런 말씨인 평상적인 말씨에서 세대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높은 경음화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평상적인 말씨에서는 모두가 어두경음화의 경향이 짙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류층의 장년층 이상은 40% 이하의 경음화가 보이는 반면 하류층의 장년층은 80% 보이고 있었다. 중류층의 장년 이상은 양반이라는 자신의 출신 성분 때문에 경음화하지 않은 점잖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중년층과 노년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경우에는 경음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사회 계층과 세대 및 남녀별로 분석해 보면, 중하층과 하류층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는데, 중류층의 장년 및 중·노년층 여성은 남자보다 경음화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두경음화의 경향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양반인 중류층보다는 하류 노동자층에서, 공식적 형태의 말씨보다는 일상적 말씨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 이상녀(2005), 강원도 영동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상녀(2005)에서는 강원도 영동 방언의 하위 방언인 강릉, 삼척, 영월, 정선, 평창 지역어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인 고찰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영서 방언에 속해 있지만 음운적 특징은 영동 방언과 언어적으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 사회 언어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변이의 사회적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했다. 현장 시간 방법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영동 방언의 음운 변이를 미시적 언어학적 관점과 계량 사회 언어학의 방법으로 사회적 변수를 연령별, 성별, 학력별, 말투별로 나누어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이상녀(2005)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와 단모음 ‘에’와 ‘애’의 통합에서 10-20대 연령층의 단모음 ‘에’ 실현은 음성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단모음 [e]를 [E]로 실현시킨다. 30-40대 연령층은 어두 환경에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정도가 높다. 이것은 비어두 음운 환경에서 일종의 분절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들이 선행하여 그 의미를 제보자마다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다른데, 제한된 인원의 제보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방언의 대표성을 부여하였다. 10-20대는 변이된 언어 습득 및 새로운 문화를 접촉 수용하는 시기, 30-40대는 방언을 중심으로 타 언어에 배타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문화에 동화되는 시기, 50-60대와 70대까지는 방언의 고착화시기로 타 언어를 더 이상 배척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시기로 규정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경제 활동과 활동 영역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다른 언어 수용에 배타적이다. 그러나 감성이 발달한 여성은 타 언어 습득 기간은 짧아서 빨리 받아들이는 성별 특징을 지녔다. 학력별 특징으로는 학교 교육과 방송 매체의 발달로 학력이 높으면 표준어 지향적이고 학력이 낮으면 방언 지향적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34) 이은선(2011), 전주 지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은선(2011)에서는 전주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와 ‘성별’ 그리고 ‘학력’을 사회적 요인으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구비문학대계-전주시편》을 통해 1차적으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어휘 200개를 추출하였다. 2차적으로는 《전북방언자료집》에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어휘 200개를 추출하였고 3차로는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에서 어두에서 평음형과 경음형이 함께 나타나는 어휘 100개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총 600개의 어휘를 분석하게 되었다. 전주에서 출생하여 전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화자라는 조건으로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뽑힌 제보자는 세대별 남녀 각5명씩 총 70명을 통해

실험은 진행이 되었다. 어휘 조사는 기본적으로 간접 질문 방식을 택했다.

이은선(2011)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두 경음화 현상을 ‘세대’라는 요인과 관련지어 살펴본 결과 전주 지역에서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70대 이상(61.4%)> 60대(58.9%)> 50대(52%)> 40대(50.5%)> 30대(48.9%)> 20대(45.3%)> 10대(41.7%)순으로, 세대가 낮아질수록 경음화 실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어두 경음화 현상을 ‘성별’이라는 요인과 관련지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남성의 경음화 실현율은 45.7%, 여성의 경음화 실현율은 53.3%로 여성에게서 경음화 실현율이 7.6% 더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전주 지역어의 경우 여성에게서 경음화 현상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두 자음별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어두 자음이 /k/로 실현되는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경음화 실현율 차이가 크게 나는데 반면 다른 자음들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두 경음화 현상을 ‘학력’이라는 요인과 관련지어 살펴본 결과 전주 지역에서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초졸 이하(59%)> 중졸·고졸(56.4%)> 대졸(44.1%)순으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두 자음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초졸자와 중졸·고졸자의 경음화 실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초졸자와 대졸자는 상당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력은 같으나 직업에 따라서도 경음화 실현율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이 연구에 따르면 전주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으로 ‘세대, 성별, 학력’을 언급할 수 있으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세대> 학력> 성별순으로 말할 수 있다.

(35) 이현복(1977), 서울말과 표준말의 음성학적 비교연구, 《언어학》 2.

이현복(1977)에서는 30대 전반 이전의 세대를 청소년 세대로 규정하고, 30대 후반 이후의 세대를 장노년 세대로 나눠 음성학적으로 서울말의 세대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현복(1977)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노년 세대는 서울말에서 잘 지켜지는 모음의 길이, 즉 음운론적으로 긴 모음이 청소년 세대의 서울말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짧게 나는 경향이 심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세대의 말에서는 모음의 장단으로 대립되는 말/말, 화:장/화장, 화:재/화재, 사:장/시장 따위의 말들이 혼동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36) 장승두(2005), 울산공단 지역어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대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장승두(2005)에서는 울산공단 지역의 언어 공동체를 대상으로 국어 음운론적 현상이 사회언어학적 변인에 의해 변이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요인에 의해 사용률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동남 방언의 음운체계설정에 있어 이견을 보여 온 ‘ㅅ’과 ‘ㅆ’, ‘ㅈ’와 ‘ㅊ’, ‘ㅡ’와 ‘ㅣ’의 대립과 이 지역어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단모음화 현상, 경음화 현상, 약음화 현상 등 음운론적인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보자는 이 지역의 토박이 80명을 나이에 따라 청소년층(20세 이하), 장년층(21-35세), 중년층(36-55세), 노년층(56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공단 지역의 환경적 차이에 따라 지역을 나누고 각 지역에서 계층 문화의 가장 큰 변인인 직군을 일반직, 사무직, 현장직으로 구별하여 조사하였고 성별도 나누어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실현되는 음운적 양상을 통해 두 변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장승두(2005)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ㅅ’과 ‘ㅆ’은 청소년층은 변별이 가능하고, 장년층은 혼재된 상태, 중년층과 노년층에서는 변별되지 않는다. 직군에 따라서는 일반·사무직군에서 변별 정도가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화자들이 더 변별적으로 나타났다. ‘ㅈ’과 ‘ㅊ’의 실현 양상을 보면, 장년층은 어두에서 [ㅈ] 어형이 주류를 이루고, 청소년층은 ‘ㅈ’과 ‘ㅊ’가 중화된 [E] 어형과 [e]가 혼재 양상을



보인다. 비어두 1음절과 2음절 이하에서는 모든 세대에서 [E]로 발음되고 있다. 단모음 ‘ε’는 장년층의 어두에서만 [ɛ]가 주류를 이루고, 청소년층에서는 [E]와 혼재 양상을 보인다. 비어두 1음절과 2음절 이하에서는 모두 [E]로 발음된다. ‘一’와 ‘ㅏ’의 변별 양상을 보면, 청소년층, 장년층, 중년층은 ‘一’와 ‘ㅏ’의 변별에 혼재 양상을 보이고 노년층은 비변별 세대로 분류된다. 단모음화 현상은 노년층에서 주류를 이루는데 비해 장년층과 중년층에서는 혼재 양상을 보이고, 청소년층에서는 이중모음으로 실현된다. 경음화 현상은 사회적 변인에 상관없이 적극적인 반면에 약음화 현상은 생략형과 표준어형이 혼재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청소년층에서 모음보다 자음의 생략 현상이 적극적으로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37) 장승혜(2011), 어두경음화 현상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장승혜(2011)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언어에 대한 ‘태도’ 혹은 ‘선호’에 따라 그 발화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언어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Section A)’과 ‘주의를 기울인 발화 상황(Section B)’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화자의 어두 경음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Section C를 설정하였다. 각 상황별로 어떠한 지역적·사회적 변수들이 어두 경음화 실현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자와 조사 대상자가 1:1로 만나 진행하는 ‘1:1 녹음 대화 면접’과 ‘설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장승혜(2011)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분석에서 지역은 어두 경음화 실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는 학력과 연령 등의 사회적인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학력이 Section A와 Section B-2에서 모두 어두 경음화 실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자의 언어에 대한, 혹은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태도는 화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규범 혹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서울보다 일반적인, 다시 말해 어두 경음화 현상을 보이는 단어의 수가 더 많은 부산이나 광주에서는 어두 경음화에 대한 태도가 서울보다 열려 있게 된다. 이에 화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지역적인 변수가 ‘자기 보고’를 하는 Section C에서는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극대화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38) 장혜진(2013), 대구 방언 어두 폐쇄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단서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차이, 《언어과 학연구》 65.

장혜진(2013)에서는 대구 방언 사용자인 50대 화자를 대상으로 어두 폐쇄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단서를 고찰하고 대구 방언 어두 폐쇄음의 음향적 특성 및 이를 지각하는 단계에서 드러나는 세대 간 차이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대구 방언 50대 화자의 폐쇄음에 대한 산출 및 지각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20대 화자와 비교하여 대구 방언 폐쇄음의 세대 간 차이를 관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장혜진(2013)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 방언 폐쇄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단서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차이가 서울 방언 폐쇄음의 세대 간 차이와 대체로 유사한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즉 대구 방언 20대 화자는 평음과 격음이 더 유사한 VOT를 가지는 반면, 50대 화자는 이와 반대로 평음과 평음이 더 유사한 VOT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0대 화자에 비해 20대 화자가 경음의 VOT가 짧아지고 평음의 VOT가 길어져 평음과 평음의 VOT차이가 커지고, 평음의 VOT가 길어지고 격음의 VOT가 짧아져 평음과 격음의 VOT차이는 작아진 것으로, 서울 방언에서 보고된 VOT 변화의 방향과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기본주파수가 평음과 나머지 부류의 발생 유형 구별에 기여하는 정도가 50대 화자에 비해 20대 화자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음향적 특성에서 세대 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데 반해, 지각 단서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흥미롭다고 얘기한다. 즉 가장 두드러졌던 세대 간 차이로 경음의 지각에서 기본주파수의 영향이 20대 화자가 50대 화자에 비해 다소 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대 화자가 50대 화자에 비해 기본주파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0대 화자는 더 높은 기본주파수까지 평음으로 지각하고, 격음으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본주파수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39) 정명숙 외(2000), 국어 한자어의 장단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어문논집》 42(1).

정명숙 외(2000)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한자어의 장단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장단음의 구별이 현대 국어 음운 체계 내에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음장의 실현 양상이 세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에는 서울과 서울 근교 지역에서 출생한 화자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세대별로 남녀 각 2명씩 선정하였다. 다음 2음절 한자어 중 모음의 길이에 의해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어휘 총 48개를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상 어휘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여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발화하도록 하였다.

정명숙 외(2000)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 국어의 장단 구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은 장단의 구별이 사라지는 양상이 장음이 일괄적으로 단음으로 중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장단이 중화되는 어휘의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점이다. 또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장단 표시와 현실음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발견됐다.

(40) 정영주(1987), 경상남도 창녕지역 방언의 세대차에 의한 음운 현상: 창녕지역의 낱말을 중심으로, 《거레어문학》 11.

정영주(1987)에서는 창녕지역의 노년층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창녕지역 방언의 세대차에 의한 음운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보자는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교육을 받지 않은 70대의 토박이 6명과 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3명을 대상으로 삼아 1000개 어휘 항목으로 구성된 격식질문지에 명명식 질문법이 사용되었고, 보조방식으로는 약식질문지와 역질문법을 사용하였다.

정영주(1987)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닿소리의 된소리되기는 젊은 세대에 가서는 현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겹홀소리되기는 그 실현이 적으며 젊은 세대에서 서서히 줄어들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앞홀소리되기, 뒤홀소리되기, 으뜸소리되기, 안등근홀소리되기, 등근홀소리되기 와 줄임 현상 등은 젊은 세대에서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41) 정일진(1997), 표준어 단순모음의 세대간 차이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연구, 《말소리》 33/34.

정일진(1997)에서는 국어의 표준어인 서울말에서 50대 이후 세대와 20대 세대 간의 모음체계를 분석하여 표준어의 모음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어 단순모음의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음향 정보인 제1, 제2 포먼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정일진(1997)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어 단순모음의 세대 간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전설모음 중에서 /ɛ/ 모음과 /ɐ/ 모음이라는 사실이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50대 피실험자들은 비교적 /ɛ/, /ɐ/ 사이를 규칙적으로 구별하였으나, 20대 피실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한경호 외(2002), 여수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과학과 교육》 10.

한경호 외(2002)에서는 여수지역어를 대상으로 이 지역에 나타나는 음운상의 특징, 특히 율라우트와 어두경음화가 언어변화의 사회적 요인 가운데 세대, 성별, 학력들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들 사회적 요인 각각이 언어변화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 질문지를 통한 통계적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보자를 2대 이상 여수에서 살고 있으며 태어나서 20세 정도까지는 여천지역을 뺀 여수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고, 세대간에 언어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세대의 개념을 도입하여 G1(70세 이상), G2(50-60대), G3(30-40대), G4(10-20대)의 넷으로 구분하였다. 그밖에 성별, 학력 등도 균형을 이루도록 제보자를 고루 선정하였다.

한경호 외(2002)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율라우트는 G1세대에서 가장 활발하며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점진적으로 그 실현비율이 감소하다가 G3세대인 40대에 이르러 급감하기 시작해 G4세대에 이르러는 거의 제한적으로 실현된다. G1세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실현 비율이 높다. 학력별로는 율라우트가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실현 비율이 높으며 학력이 같더라도 표준어에 민감한 G4세대에서보다 집단의 결속력과 동질성을 중시하는 G1세대에서 그 실현 비율이 높다. 다음으로 어두경음화 현상은 대체로 G1, G2, G3세대에서 조사 대상 어휘 모두에서 고르고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에 비해 G4세대에서는 어휘에 따라 그 실현 여부가 다르다. 곧 조사 대상 어휘 모두에서 경음화가 실현되기보다는 어휘에 따라서는 경음화하지 않은 표준어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휘들에서는 경음화를 뚜렷이 실현시키기도 한다. 어두경음화의 실현비율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곧 G1-G4세대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그 실현율이 낮게 나타난다. 어두경음화는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학력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난다. 다만 표준어에 민감하고 대중 매체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인 G4세대에서는 학력이 낮아도 낮게 나타난다.

(43) 한명숙(2011),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한명숙(2011)에서는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현대 서울말의 어두 경음화 실태와 지역 방언의 어두 경음화 실태를 파악하고 통시적으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두 경음화의 변화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특히 현대 서울말의 어두 경음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 남녀 균형을 고려하여 24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조사 방법은 대면 조사 방법으로 피실험자에게 직접 설문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피실험자의 선입관을 배제하기 위해 설문 조사 목적은 알리지 않고 시행하였다.

한명숙(2011)에서 현대 서울말의 어두 경음화 실태와 관련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0개 조사 항목에 대한 어두 경음화 비율은 33.3%로 나타났다. 어두 경음화 비율이 가장 높은 단어는 ‘수세미’로 경음 실현율이 95.8%였고 어두 경음화 비율이 가장 낮은 단어는 ‘작다’로 경음 실현율이 5.0%였다. 어두 경음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변항으로 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음 실현율이 높았고 젊은 10-20대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활발히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두 경음화 현상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4) 한준일(2014), 서울 지역 화자를 대상으로 한 단모음 음장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한준일(2014)에서는 서울 지역 화자에게서 고유어 및 한자어의 장단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장단음의 구별이 오늘날 서울 지역 화자들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실현 양상이 모음별, 어종별, 세대별,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실험은 표준발음법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개의 단모음별 단어를 선정하여 문장의 첫 머리에 오는 경우, 중간에 오는 경우로 각각 문장을 구성하여 20대 화자와 50대 화자 총 20명에게 각각 2번씩 낭독하게 하였다. 녹음한 자료는 컴퓨터 편집을 거쳐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로 분석하여 처리하였다.

한준일(2014)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어의 장단음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짧은 층으로 갈수록 약화되고 점차 모호해져가고 있다고 대부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표본이 협소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한준일(2014)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대 남녀 각 5명과 50대 남녀 각 5명 총 20명을 피실험자로 선별하여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낱말을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어 10개의 단음 가운데 /ㅏ/와 /ㅓ/를 제외한 8개 모음 중 장단음이 존재하는 동철이의어를 한 개씩 선정하였다. 단어의 품사가 다를 경우 문장 내에서의 위치를 동일하게 통제할 수 없으므로 단어는 모두 명사로 한정하여 총 52개의 문장을 만들었다. 녹음된 문장은 Praat을 통해 스펙트로그램 상의 모음의 길이를 측정하여 그 상대적인 길이의 차이를 보았다. 그 결과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의 음운론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대별로 차이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문장 내에서의 발화 위치는 장단음의 발화 차이의 변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문맥 속에서 장단음은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보인다는 가설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연령대에 따른 발화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발화 길이 차이가 없었다. 모든 실험의 결과 국어 장단음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바탕으로 장단음이 점차 사라져가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비단 젊은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 상당히 많이 진전됐음을 알 수 있었다.

(45) 홍미주(2003), 체언 어간말 (ㅅ), (ㄷ)의 실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11(1).

홍미주(2003)에서는 대구 지역의 언어를 대상으로 체언 어간말 유기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연결될 때 사회적 요인인 세대와 학력에 따라 어떻게 실현되는지 조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장시간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음운변화를 살펴보았다. 조사는 직접 면담과 설문지 조사에 의해 진행되었고 질문지에는 조사 대상의 표준발음을 물어보는 항목과 비표준발음에 대한 태도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보자 선정은 무작위 표본추출과 판단 표본추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시 20대 이상-30대 미만의 집단(G1), 30대 이상-60대 미만의 집단(G2), 60대 이상의 집단(G3)으로 각각 11명의 인원으로 나뉘었다. G1은 대부분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다.

홍미주(2003)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행 중인 음운 변화에 대한 언어 태도를 보면, 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표준발음과는 상관없이 발음하기 편한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표준발음을 알고 있는 정도가 높았고 어간말 자음별로 살펴보면 ‘ㅌ’의 대격형의 표준발음을 알고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체언 어간말 유기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연결되어 공용할 때 실현되는 변이음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ㅅ->ㅅ, ㅌ->ㅅ, ㅌ->ㅅ(대격, 처격형)의 실현이 세대가 낮아질수록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ㅅ->ㅌ은 세대가 낮아질수록 그 실현이 감소한다. 학력을 변수로 해서 살펴보면 ㅅ->ㅅ, ㅌ->ㅅ, ㅌ->ㅅ(대격, 처격형)의 실현이 학력 정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ㅅ->ㅌ은 학력 정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연령이 낮아질수록 ‘ㅅ’과 ‘ㅌ’을 [ㅅ]으로 ‘ㅌ’을 [ㅌ](대격형, 처격형)으로 실현하는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공식적으로 볼 때, [ㅅ, ㅌ]으로의 변화가 대구 지역어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았다. 이런 방향으로 음운 변화가 진행된다면 다른 외부적 압력이 강력하지 않는 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본다. ‘ㅅ’, ‘ㅌ’이 [ㅅ]으로 실현되는 것은 변화 단계상 초기인 것으로 보이고 ‘ㅌ’이 대격, 처격조사와 결합할 때 실현되는 [ㅌ]은 대격에서 유추적 평준화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46) 윤용옥(1993), 강화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윤용옥(1993)에서는 강화 방언의 음운, 실질 형태소, 문법 형태소를 대상으로 어떻게 변이하고, 어떠한 경우에 변이하며, 그러한 변이형을 어떠한 제보자가 사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사 지역인 강화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언어 자료를 채집하고 분석하였다.

윤용옥(1993)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강화의 언어 공동체에서는 변이형들이 옛날 어형에서 새 어형으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반대로 옛 어형이 계속 유지되는 현상도 많이 있다. 이로써 각 어형들의 개신파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이형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강화 방언이 단순히 중부 지역의 하위 방언이 아니라 북부와 남부 지역의 전이 지대라는 것을 밝혔다. 특히 서해안이라는 해상 교통을 매개로 북부 지역의 평안도와 황해도, 그리고 개성 지역의 변이형들이 전파되어 왔고, 그리고 충청도나 전라도 일대의 남부 지역의 변이형들이 다른 중부 지역보다 더 많이 강화에 진출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표준어의 형상으로 고어형들이 사라지고 있는 반면, 강화 공동체 내부에서의 방언형 개신파에 의해 고어형이 계속 유지되는 어형들도 발견된다.

(47) 이미재(1988), 언어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 경기도 화성 방언을 중심으로,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이미재(1988)에서는 경기도 화성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말에서 눈에 띄게 진행 중인 변화를 반영하는 언어 현상들(경음화, /ㄴ/ 첨가, 모음의 장단, /ㄱ/와 /ㄴ/의 합류, 이중모음 /의/의 단모음화, ‘하다’ 동사의 어간제구조화)을 사회언어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 토박이만을 대상으로 사회 계층별 분류뿐 아니라 성별 분류와 세대별 분류도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60세 이후의 노인층에는 ‘해-’ 변이형은 나타나지 않고, ‘하-/허-’가 교체되고 있었다. 도시 생활을 하다 싫증을 느끼고 돌아와 농업 후계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해-’를 사용했다. 경음화는 전 세대에 걸쳐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중류층의 중년 이상의 부인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ㄴ/ 첨가는 청소년 세대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반면 중류층의 중년 이상의 부인들은 이에 대해 저항감을 나타냈다. 모음의 장단은 중류층의 경우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사 대상 어휘에서 정확한 변별력을 보여 주었다. 중하류층과 하류층에서는 순우리말 단음절 명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장단의 변별성이 상실되었다. /ㄱ/와 /ㄴ/의 합류 현상의 경우는 대부분 잘 구별했지만 청소년 세대가 혼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모음 /의/의 단모음화 현상의 경우, 자음과 /의/가 결합된 다른 모든 형태는 이미 50년 전에 단모음화되었고, 그 잔류형인 /회/는 현재 조사 지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만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었다. 명사의 일부로서의 /의/는 전라도와 경상도 방언의 영향으로 /으/ 또는 /이/로 발음되는 경향이 청소년 층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이중모음으로의 발음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

나 조사로서의 /의/는 /에/와 /의/로 발음되고 있고 /으/ 또는 /이/도 빈도수는 약하지만 청소년층에서 나타났다.

## 2.3.2. 어휘

(1) 강희숙(2001), 대학생들의 특수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9(1).

강희숙(2001)은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학 사회에서 발견되는 특수어의 유형을 의미 영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특수어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러한 단어들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연령과 성별이라는 사회적 변수와 관련지어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선대학교 480명을 대상으로 특수어의 수집을 위해 고안한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10개의 단과대학별로 배포되어 변인의 다양성을 높였다. 조사는 총 두 차례의 조사를 걸쳐 시행되었다. 특수어의 유형과 특성은 크게 명사류와 동사·형용사·부사 등의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명사류에 대해서는 의미 범주별로 인물 관련 어휘, 학업 관련 어휘, 기호 식품 관련 어휘, 미팅 관련 어휘들로 나누어 그 특성을 분석하였고, 동사·형용사·부사의 범주에 속하는 특수어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학년별, 성별로 나누어 그 사용 양상에 대한 정보와 함께 확산의 양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수어의 사용은 학년과는 무관하게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보다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주로 2, 3학년에 의해, 성별로는 주로 남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대학 문화에 적응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2, 3학년의 남학생들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언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개신자의 사회언어학적 신분을 밝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강희숙 외(2009), 전남방언 여성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변이와 변화에 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 44.

강희숙 외(2009)에서는 전남 방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 호칭어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총 749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령대로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했으나 노령층이 가장 많았고 직업은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실험은 조사가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행해졌고, 수집한 언어 자료를 통해 여성호칭어의 유형과 형태론적 구성 방식을 분석하였다. 수집과 분석에 포함된 여성호칭어는 크게 세 가지, 접미사형, 명사형, 대명사형으로 드러났는데, 접미사형은 종자명 호칭에 속하는 ‘-떡’형, ‘자식의 이름+네’형, 종자명 호칭이 일반적인 ‘-네’형, 반상에 대한 신분적 계층의식이 강한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실’형이 있다. 명사형으로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친족어, 의사친족어, 또한 직함을 사용하는 유형 등이 있으며 ‘자네’라는 대명사 표현이 있었다. 그 다음 사회언어학적 변인별 분포의 특성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접미사형 가운데 떡호 혹은 종지명제 호칭에 속하는 ‘-떡’형은 신분의식이 매우 강한 집성촌에서 많이 쓰였고, 이 지역에서 ‘-네’형이나 ‘자식의 이름+네’형식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신분을 반영하는 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형은 반상의 신분의식이 강한 지역에 한정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전통적인 반촌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전남 방언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유형의 여성호칭어들의 전통적인 방언형들은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표준형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접미사형에서 ‘종자명 호칭’으로의 점진적인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니, 이모’ 등 의사친족어들은 종자명 호칭과 함께 그 적용역이 확장되고 있다. ‘자네’의 분포는 성별의 요인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반적

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자네’를 더 자주 사용한다. 연령 또한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네’라는 호칭은 30대가 넘어야 일반적인 호칭으로 선택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40대 정도가 되어야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친척이나 이웃 간을 제외하면 60대 이상의 여성들 경우 ‘자네’ 호칭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좀더 높은 비중으로 드러나 있었다. 한편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빈도로 ‘자네’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자네’의 사용 빈도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좀 더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3) 임철성(1997), 연령층별 성별 어휘 사용의 계량적 고찰 - 방송극 일출의 대사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54.

임철성(1997)에서는 텔레비전 방송극 《일출》의 주요 등장인물을 성별, 연령층별로 구분하여 이들의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연령층과 성에 따른 국어의 구어 사용 양상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100회분까지의 대사 분석 통해서 연령층과 성별로 나누어 어휘 사용의 양상을 살펴 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발화는 아니지만,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사를 통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은 사회적인 변인과 언어적인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임철성(1997)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고유어 사용 비율이 약간 높았고, 중년과 젊은 남자의 한자말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층별로 보면 장년층이 젊은층보다 그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20대와 40대의 비교에서 보듯이 이들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자어 사용 비율은 어린 시절에는 적지만 20대 정도에 이르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자어와 국어의 혼합표현도 연령층별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외래어 사용은 젊은층이 장년층보다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와 한국어의 혼합 형태에서도 젊은층이 높았고, 사회 활동력이 적은 여자가 사회 활동력이 많은 남자보다 명사 사용 비율이 약간 높았다. 수사 사용률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가 높았고, 동사의 경우에는 남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과 성씨 사용은 남자가 여자보다, 장년층이 젊은층보다, 40대가 20대보다 더 높았다. 친족 용어의 사용은 40대가 20대보다 높고 가정 주부가 직장인보다 높았다. 상호나 지명은 20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칭 대명사는 20대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성씨만을 위주로 부르는 경우는 나이든 남자일수록 확연히 높다.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경우는 20대 여자 경우가 높았고 여자의 경우가 높았다. 이름만 부르는 경우는 20대 여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감정형용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힘이 약할수록 비율이 높았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젊은층이 장년층보다, 20대보다 40대가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 의태어는 젊은층이 장년층에 비해, 40대가 20대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전지은(2014), 핵심어 분석을 통한 성별, 연령별 발화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22(1).

전지은(2014)에서는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 성별, 연령별 사회적 변인에 따라 핵심어, 핵심 어휘다발을 추출하여 남성과 여성 20대와 30대 이후의 발화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전지은(2014)에서는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 성별, 연령별 사회적 변인에 따라 핵심어, 핵심 어휘다발을 추출하여 남성과 여성의 20대와 30대 이후의 발화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했다.

전지은(2014)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사적 상황에서 성별 핵심어가 연령별 핵심어에 비해 더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 핵심어는 사적인 상황에서 더 잘 드러나는 반면에, 연령별 핵심어는 공적인 상황에서 비교적 잘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의 발화 차이는 사적인 상황에서 더 잘 드러나고,

20대와 30대 이후의 발화차이는 공적인 상황에서 더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별, 연령별 핵심 어휘다발을 살펴 본 결과, 남성과 여성, 20대와 30대 이후에서 ‘-어/아 가지고’, ‘-(으)ㄴ/는 것이다’ ‘-(으)2- 수 있다’ 등의 어구가 주로 추출되었는데, 동일 어구라도 변인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고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성별 핵심어와 연령별 핵심어는 서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20대와 여성은 비격식적(비형식적) 표현을 30대 이후와 남성은 격식적(형식적) 표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연령별 핵심 어휘다발 분석은 핵심어 분석에 비해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구 차원의 성별 연령별 발화 차이를 어느 정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핵심어로 추출된 어휘가 핵심 어휘다발의 요소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핵심어와 핵심 어휘다발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지은(2014)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공적/사적 성별 연령별 발화의 특성을 핵심 어휘 차원뿐 아니라, 품사까지 고려한 통사 차원, 그리고 핵심 어휘 다발을 통해 어구의 화용적인 차원까지 종합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분석 방법이 사회언어학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5) 황보나영(1993), 현대국어 호칭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 서울지역 대학생 사회의 용법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황보나영(1993)에서는 사회적 요인이 언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제로서 ‘호칭’을 선택하고, ‘서울 지역 대학생 집단’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그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6개 대학의 대학생·대학원생 147명을 제보자로 선정하여 제보자가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을 조사하였다.

황보나영(1993)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호칭이 선택되는 것은 상황, 참여자 등의 사회언어학적 변수에 따라서는이다. 상황 변수 중에서는 아는 사이인지의 여부와 격식성, 친밀도 등이, 참여자 변수 중에서는 성, 나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관련됨에 따라 호칭뿐만 아니라 상대경어법 종결어미의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하위체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현대 국어의 경어법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하위체계가 실현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그 체계가 간소화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오히려 사회의 복잡화에 따라 언어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도 다양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6) 남경란(2004), 동해안 어촌 지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영덕, 울진, 삼척, 강릉을 중심으로, 《한국말글학》 21.

남경란(2004)에서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강릉, 삼척)과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영덕, 울진)에서 조사한 언어를 바탕으로 이를 각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나누어 사회언어학적인 차원에서 어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어촌 지역과 관련한 경제 생활 어휘 항목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조사 질문지」를 비롯하여 방언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는데 지역별, 연령별(10-20대, 30-40대, 60대 이상)로 피실험자를 선별했는데, 노년층과 장년층은 3대 이상 지속적으로 살아온 자들을 우선 선정하였고 장년층은 그 지역 출생이 아니더라도 20년 이상 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들도 다수 포함하였다. 청소년층 역시 3대 이상이 조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온 사람 가운데서 성별로 분석표를 만들어 면접과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남경란(2004)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 어휘 항목의 인지능력은 영덕과 삼척이 울진과 강릉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경제적이고 교육적인 환경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

다. 어휘의 표준항목과 일치되게 실현되는 연령은 10-20대로 표준어휘 구사능력이 다른 연령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50대 이상의 연령과 30-40대 연령은 방언형을 실현하는 능력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질문 어휘항목의 인지능력은 10-20대가 50대 이상이나 30-40대 인지능력보다 2배 이상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나이대가 높은 연령대는 경제 활동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측했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남성과 여성의 표준항목 사용능력을 비교해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표준항목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김성현(1997), 언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관한 고찰, 《사회언어학》 5(2).

김성현(1997)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여학생들이 남자 선배를 부를 때 사용하고있는 ‘형’, ‘오빠’, ‘선배’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해 1993년 조사와 1998년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언어 변화의 추이를 언어 내적/외적 요인, 심리적 태도 및 예절의 요인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김성현(1997)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격변의 시기를 거쳤던 1980년대의 대학가에서는 여학생들이 남자 선배를 ‘형’ 이라고 호칭하던 것이 1993년 제1차 설문 조사에서는 ‘오빠’ 라는 용어로 자연스럽게 호칭되어 감을 알 수 있었으며, 1998년의 제2차 설문 조사에서는 ‘오빠’ 와 ‘선배’ 가 공용되면서도 점차 ‘선배’ 가 더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학 내에서의 언어 사용의 변이 현상 요인으로는 사회 변화에 따른 TV 등의 매스컴을 통한 많은 언어 외적인 요인과 언어 내적 요인을 들 수 있으며, 아울러 호칭을 자연스럽게 하려는 심리적인 태도/예절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8) 민현식(1995),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34.

민현식(1995)에서는 ‘국어 여성 대상어’, ‘국어 여성 발화어’ 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어 대사전(금성출판1991)》와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1991)》에 나오는 여성 어휘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분석했고, 여성 발화어는 서구 사회언어학의 이론적인 논의를 소개하면서 국어 여성어의 경우와 비교했다. 비교의 실증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 조사 역시 진행하였는데, 방송 대화를 녹음 분석하거나 일상 언어 관찰을 통해 언어 자료를 뽑았다. 남녀 언중의 심리조사는 설문 조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민현식(1995)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음운적으로 상승억양이며 표준어 지향적이다. 또한 의문문을 많이 쓰며 ‘-해요’ 체를 사용한다. 부사와 감탄사를 적극 사용하며 욕설과 금기어를 사용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남녀 간에는 관심어에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가사나 육아, 요리 등이 대화에 만형 등장한다. 또한 남성에 비해 다변적이고 협동적이며 맞장구를 잘 치고 애매한 화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9) 민현식(1997),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5(2).

민현식(1997)에서는 국어사전을 통한 어휘 조사, 신문·소설·교과서 등의 글말 자료 조사, 실제 발화나 방송의 입말 채록과 같은 입말 자료 조사, 남녀의 언어 태도, 언어 심리에 대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민현식(1997)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언어의 성별에 따른 사회언어학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언어를 대상어와 발화어의 차원으로 나눴다. 대상어는 다시 남녀 대상에 쓰이는 전용성 여부에 따라 절대 여성어, 상대여성어, 통성어, 절대 남성어, 상대남성어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발화어에서는 접속문과 평서

문에서는 남성이 주로 하강조를 쓰지만 여성은 상승조를 쓰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남성은 ‘-함쇼’ 체 여성은 ‘-해요’ 체를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해요’ 체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간에 서법이 애매하고 억양 변화를 통한 서법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여성 어법에서 발달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 언어는 독특한 형용사나 부사, 감탄사와 같은 감성 어휘 사용이 많아 점차 발달했고 욕설이나 금기어 사용이 적다. 남녀 대화를 인식하는 설문 조사 결과 역시 현격한 대비를 보이는데, 남성은 정보적, 경쟁적 대화를 추구하고 여성은 친교적이고 협동을 추구한다. 또한 여성은 공손어법의 결과로 애매한 어법이나 감성어법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10) 김선희(1993), 여성어에 관한 고찰, 《목원대 논문집》 19.

김선희(1993)에서는 기존의 문헌 고찰을 통해 여성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을 힘과 격식성보다는 친화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그런 다음 여성들이 주로 쓰는 언어를 자료 대상으로 하여 여성어에 나타난 특성인 ‘간접적 표현’ 과 ‘감정이입을 위한 표현’ , 그리고 ‘유표적 표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김선희(1993)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의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간접적인 표현인데, 이는 화자가 힘으로부터의 회피 전략의 하나로써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이 전략에 속하는 것은 명령이나 단언의 내용을 부가의문법으로 변형하는 방법이라든지, 겸손격률의 한 방법인 모호한 표현의 사용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좀, 제발, 뭐, -어 주다, 어 보다’ 등의 공손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감정이입을 위한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에는 확인과 동의를 요청하는 방법이나 가족적인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친화력을 높이는 전략, 긍정적인 반응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자신을 스스로 더 드러내기 위하여 유표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인데, 강조나 상승어조 등이 이에 속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여성어 특성이 친화력을 나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적인 언어 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표본조사가 아닌 이론적인 설명에 그친다는 데 한계가 있다.

(11) 김선희 외(1992), 남성어 여성어에 관한 연구, 《어문학연구》 2(1).

김선희 외(1992)에서는 남성어와 여성어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어에 나타나는 성선택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이론을 통해 남성어와 여성어가 가지는 일반적 차이점을 살펴본 후, 언어에 반영된 남녀차별현상을 밝히고, 유표어로서의 여성어가 갖는 담화적 특징과 이에 관한 인식을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어와 여성어의 일반적 차이점을 음성적, 문법적, 어휘적 차이로 나누어 살펴봤는데, 음성적인 면에서는 발생기관, 주파수, 억양, 발음 등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났다. 여성이 사용하는 말에는 정확한 발음과 품위있는 어조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위를 말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와 겸양의 사용이나 ‘ㄹ 첨가’ 등을 통해 작고 귀여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두 가지의 경향이 말하는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문법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에 따른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같은 상황에서 문장을 선택할 때 남성은 서술문, 명령문을 더 선호하지만, 여성은 의문문이나 청유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미의 선택은 남성은 주로 격식체와 거친 말을 선택하고, 여성은 비격식체와 친밀감을 나타내는 형태를 선택했으며 감탄문이나 감탄사는 여성이 훨씬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어휘의 사용에 있어 남성의 언어는 무표적인 데 반해 여성의 어휘는 작고 귀여움을 나타내는 어휘를 선택하거

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어의 담화적 특성을 친화력을 나타내는 간접적 표현과 감정이입이라는 특성으로 보고 이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표본 조사를 해본 바 간접적 표현으로서 대응어 부가의문법과 모호한 표현은 여성어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감정이입 표현으로 확인과 동의 요청을 나타내는 부가의문법은 친화력과 담화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여성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어가 자기중심적이고 거친 반면 유표적인 여성어의 특성은 대부분 공손함이나 상대를 배려하는 여성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3.3. 문법

(1) 강현석(2011), 해요체-합쇼체의 변이에 대한 계량사회언어학적 연구 - 성별어적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9(2).

강현석(2011)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 대본을 바탕으로 해요체와 합쇼체 사용에 나타나는 성차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문장의 종결어미 사용에 있어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 간의 차이를 점검하고 이러한 화자의 성별이 연령이나 친밀함의 정도, 발화 환경의 성격 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각각의 중요성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변인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제한적 자료를 토대로 ‘성’이라는 변인에 대해 단일변인적 분석을 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여러 변인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해요-합쇼체의 변이를 다중변인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강현석(2011)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화자의 성은 발화의 의례성, 발화 장면, 문형과 더불어 해요체와 합쇼체의 변이적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남성과 여성은 해요체와 합쇼체의 사용에 있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두 성 그룹의 차이는 다른 변인들(친밀 정도 연령 관계, 위계 관계, 발화 장면)과의 교차 분석에서 나타났듯 상당히 견고하고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요체의 특성은 ‘비형식적’ 이고 청자와의 ‘유대감’ 을 강조하는 것인데 반해 합쇼체는 ‘형식적’ 이고 청자와의 ‘거리’ 를 좁히기 보다는 청자의 ‘힘’ 을 존중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 한국의 남성 화자들이 여성 화자들보다 격식체인 합쇼체를 더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현상은 이러한 성차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여성어적 표현으로 제안했던 해요체와 관련한 문장 종결어미와 표현들은 ‘-더라고요’ 와 흔히 쓰이지 않아서 계량적 점검이 어려운 ‘-셔요’, ‘-거 있쥬’ 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의 대본 자료에서 여성 인물이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요체와 관련하여 특히 여성어에 흔히 쓰인다고 본 연구에서 분석된 종결어미와 표현들은 ‘-는(ㄴ)가요’, ‘-나요’, ‘-잖아요’, ‘-네요’, ‘-거 같아요’ 이다. 이들 중 처음 세 가지는 의문형 종결어미를 가지고 있고, 뒤의 둘은 서술형 어미를 갖고 있다. 이는 여성 화자들이 상대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의문형으로 물어보거나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김재민(1998), 경어법 사용의 세대간 차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언어학》 6(2).

김재민(1998)에서는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세대 차이에 따른 경어법 사용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개월 동안 남녀 각각 15명씩을 각 세대별로 선정하여 총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세대 간 차이를 연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50대의 부모를 갖은 20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대는 20세-27세 사이에 있고(평균 22.3세), 50대는 49세부터 58세 사이에 있다(평균 58.2.세). 20대는 교육 받은 젊은 층이나 50대의 교육 정도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김재민(1998)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대와 50대의 경어법 체계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는데, 화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합쇼체는 20대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을 권위주의적인 한국 사회에서 나이와 사회적 지위가 힘의 요소가 경어법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아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20대에는 경어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기성세대와 비해 친숙도가 중요한 요소임이 드러났고, 사회적 지위가 친숙도나 나이보다 낮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경어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단순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은 문헌 자료와의 비교로도 드러나는데 1978년도의 경어법 자료와 비교해 보면 합쇼체의 점차적인 소멸과 경어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단순화를 엿볼 수 있다.

(3) 김정호(2007), 1970년대 “합쇼체”의 남성어적 성격에 관하여 -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25.

김정호(2007)에서는 1970년대에 발행된 42개 소설의 대화 지문을 바탕으로 사회적 변인에 따른 종결어미 사용 차이를 계량적으로 연구하였다. 성별과 화자-청자 간의 관계 영역 및 사회적 지위를 변인으로 하여 통계적 기법으로 빈도와 백분율에 기반을 둔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김정호(2007)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화자는 관계 영역과 지위에 관계없이 ‘-합쇼’ 체를 여성 화자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해요’ 체는 평균적으로 여성 화자들이 더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지만, 사적 관계 영역에서 화자와 청자 간의 지위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오’ 체 사용에서는 남성 화자의 사용 빈도가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았다. 남성 화자들이 여성 화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합쇼’ 체 어미를 사용하는 현상을 두고 1970년대의 정치·사회적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즉 군에서 흔히 쓰이는 ‘-합쇼’ 체가 군인들이 참여한 군사 정권과 민간 사회로 퍼져서 ‘-합쇼’ 체 사용 영역이 확장된 것이라 보고 있다.

(4) 박경래(1999), 청원 방언의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 청자대우법에서의 힘과 유대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16.

박경래(1999)에서는 충북 청원 방언의 경어법 사용 양상과 경어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 집단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경어법을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의 세대, 성별, 나이, 친소관계, 혈연관계 등 사회적인 요인 및 대화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 본 다음 무엇 때문에 경어법 사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했는데, 언어 요소에 주된 관심을 두고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분석 방법과 사회적인 요인에 주된 관심을 두고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분석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 청원군 미원면 수산리를 중심으로 두 가지 방법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자연 발화를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조사 방법이었다.

박경래(1999)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화참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경어법의 체계는 달라졌는데, 이웃 사람에 대한 청자대우법은 노년층의 경우 청자의 나이가 많으면 해유체를 쓰고 청년과 동년배일 때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이성이면 해유체 동성이면 해체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중장년층의 경어법 사용 태도는

좀더 복잡하게 나타났는데, 청자의 나이가 많으면 해유체를 쓰는 데 비해 동년배이면 이성에게는 해유체를 쓰고 동성에게는 해체를 t고 있었다. 또한 청자의 나이가 어리고 동성이면 무조건 해체를 쓰지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아들뻘이면 이름이나 2인칭 직접 호칭을 사용하고 동생뻘이면 호칭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자가 이성이고 나이가 어릴 때는 동생뻘이나 딸뻘이라도 출가 전에 해체를 쓰고 출가 후에는 해유체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 경어법 사용 태도에는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분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는데, 화자가 노년층이고 청자의 신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모를 때에는 무조건 해유체로 대우하지만 청자가 학생이라면 해체로 대우한다. 그런데 화자가 중장년층이면 청자에 따라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청자가 동생뻘이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해유체로 대우해주지만 아들이나 딸뻘이면 해체를 써서 노년층보다는 힘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원방언의 노년층에서는 네 가지 등분의 경어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실제의 대화 상황에서는 주로 해유체와 해체만을 쓰고 있었다. 즉 중년층세대의 경어법 체계는 단순화해 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 2.3.4. 담화·화용

(1) 강현석(2009), 국어 담화 표지 ‘예’와 ‘네’의 사용에 나타나는 변이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17(2).

강현석(2009)에서는 구어 자료(토크쇼 자료와 영화 자료)와 준구어 자료(영화 대본 자료)의 ‘예’와 ‘네’의 사용 실례를 바탕으로 두 담화 표지 사용에 나타나는 변이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현실의 대화를 대변할 만한 성격의 영화와 <백분토론>의 7회 분을 통해 전사 자료를 출력한 후 참조하며 예비조사가 진행되었다. 다음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변이에 어떠한 언어적 내적, 외적 제약이 있는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비중을 점검하였다. 여기에서는 ‘예’와 ‘네’의 담화적 의미뿐 아니라 화자의 성별, 연령, 방언, 연령 관계 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영화자료에서는 화자의 성별, 담화 의미, 화자-청자의 연령 관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토크쇼 자료에서는 화자의 성별과 화자-청자의 연령 관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분석된 반면, 화자의 나이와 방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두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화자의 성별이 변인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선택되었고 그 다음은 화자-청자의 연령 관계였다.

강현석(2009)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보다 ‘네’를 뚜렷이 더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구어 자료를 점검한 결과 ‘예’는 남성 화자에게 월등히 우세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두 비율이 비슷했다. ‘예’와 ‘네’만이 아니라 ‘예’의 비형식적인 변이형으로 추정되는 ‘예’도 중요한 변이형으로 대화에서 사용된다. ‘예’와 ‘네’의 사용에는 화자의 성별과 더불어 ‘예’와 ‘네’의 담화적 의미, 화자-청자 연령 관계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예’와 ‘네’는 어휘적 사회언어학 변수이기 때문에 개인의 스타일, 취향에 따른 개인어적 변이도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과 비표준 방언 간의 ‘예’와 ‘네’의 사용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화 대본에 나타난 ‘예’와 ‘네’의 출현 양태는 영화 대본 작가들이 이들의 변이에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 갖고 있는 암묵적인 고정관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 2.3.5. 기타

(1) 김규현 외(1996), 대화조직상의 성별 차이: 평가와 이해확인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4(2)1.

김규현 외(1996)에서는 실제 일상대화에서 관찰되는 평가와 이해확인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맥락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성별의 차이에 따른 언어 행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때 평가란 어떤 대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발화행위이고, 이해확인이란 주도수정 구문의 한 형태로 화자가 대화자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발화행위이다. 문장 단위 발화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 기존의 발화행위 이론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이러한 발화행위들이 실제 대화상황에서 여러 차례로 구성되는 순차 맥락에서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중점을 맞추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규현 외(1996)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맥락에서 여성은 대화자에게 협조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유대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의적으로 조율된 평가를 주고받는 등의 패턴을 보인다. 반면 남성은 평가대상이 정보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논리적이고도 분석적인 시각에서 일반화를 시도한다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 남성의 경우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 평가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시점을 부각시키는 언어 형태를 쓰는 경향이 있음도 지적했다. 이해확인 맥락에서는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해확인을 자주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방이 한 말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는 차원보다는 정보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이해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측면이 관찰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에 자신의 목소리를 첨가하고 자신의 이해도를 부각시키는 데에 주의가 치중되어 있어 상대방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 대화의 흐름을 끊고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려는 발판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자는 성별에 따른 과도한 일반화를 지양하면서 일종의 경향성으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한다.

(2) 박소라(2004), 한국어 남녀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소라(2004)에서는 1960년대 이후 한국어의 성별 언어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면서 변화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60년대와 2000년대의 여성과 남성의 언어 사용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영화(미워도 다시 한 번)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여성 발화어의 주된 특징들(음운, 문법·담화, 어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특징이 각각 어떻게 실현되었으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하였다.

박소라(2004)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문문의 과다 사용이 과거에서처럼 여성에게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발화자 모두에게 비슷하게 나타났다. 상대높임 종결어미에 있어서도 2000년대의 부인과 남편은 거의 동등하게 ‘해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친밀한 사이의 연인 관계에서 역시 서로 ‘해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1960년대의 여성이 남성에게 존칭을 주로 사용했던 경향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감탄사의 사용도 1960년대에는 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언어 특징인데 반해, 2000년대에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조사 결과, 2000년대에는 1960년대에 비해 여성어의 전형적 특징이 많이 줄어들었고, 여성과 남성이 유사한 언어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이 드러났다.

(3) 이주행(1999), 한국 사회계층별 언어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7(1).

이주행(1999)는 한국 사회 계층별 언어 특성을 음운, 어휘, 문장, 담화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연구를

위해 이주행(1999)에서는 현장 조사 방법과 계량적인 방법 모두를 이용했다. 즉 사회 계층 분류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한국 사회 계층별 제보자를 선정하였다. 조사자는 총 14명이고 2명 1조 총 7개의 조로 편성하여 제보자를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자료를 녹음기로 가져오는 것을 담당하게 했다.

이주행(1999)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움라우트 현상을 제외하고,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거나 ‘ㄹ’ 음을 어간에 첨가하여 발음하거나 연음 법칙에 어긋나게 발음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회 계층은 하중류 계층이다. 이러한 사실로써 국어음운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 계층은 하중류 계층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표준어와 비속어는 상류 계층에서 하류 계층에 이룰수록 더욱 많이 사용하며 고유어나 한자어가 공존하는 외래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회 계층은 하중류 계층임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하중류 계층이 사회 계층 중에서 지위에 대한 상승 욕구가 가장 강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문법적인 문장을 구사하는 사람이 상류 계층에서 하류 계층으로 갈수록 많고, 하류 계층에서 상류 계층에 이룰수록 장문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상류계층에서 하류 계층으로 갈수록 관련성의 격률에 어긋나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많은 데 반면 발화의 연속 규칙에 어긋나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회 계층은 하중류 계층이다.

(4) 전해숙(2008), 《강원도 동해안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전해숙(2008)에서는 사회적인 요인이 다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언어 현상에 대하여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변화 양상과 태도, 원인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 면접을 위한 제보자 93명과 간접 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자 245명을 포함한 총 338명을 대상으로 모음 체계, 경음화, 비모음화, 구개음화, 움라우트, 경어법, 격조사, 어휘, 언어 태도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전해숙(2008)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차에 의한 언어 변화로, 어두 경음화는 젊은 층으로 올수록 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지만, 장년층과 청소년층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비모음화 현상은 노년층에서는 여전히 그 쓰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년층과 청소년층에서는 그 정도가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음의 경우 노년층은 ‘ㅜ’와 ‘ㅠ’가 단모음으로서의 음가를 발휘하고 있으며, ‘ㅐ’와 ‘ㅑ’ 역시 각각 독립된 별개의 음소로 구별되고 있다. 또한 단모음 ‘ㅡ’와 ‘ㅣ’가 별개의 음소로 구별되고 있고, 이중모음 ‘=’도 여전히 노년층의 발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장년층에서 대체로 실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음으로 변해가는 과도기 현상을 나타냈다. ‘ㄱ’ 구개음화 현상은 노년층에서 매우 생산적이고, 장년층에서는 다소 감소의 모습이 보이는 정도인 반면에 청소년층에서는 소멸 직전의 상태로 나타났다. 표준어와 다르게 쓰이는 격조사는 모든 세대에서 실현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청소년층에서는 거의 소멸 상태에 이른 것도 있다. 노년층과 장년층은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하십시오체의 4등급 체계를 나타내는 반면, 청소년층은 해체와 해요체로 단순화된 2등급 체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직업에 따른 언어 변화로, 비모음화 현상은 상업, 농업, 공무원, 어업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개음화 현상은 어업, 상업, 농업, 공무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움라우트 실현 양상은 어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표준어와 달리 쓰이는 격조사는 농업에서 가장 높고 공무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언어 변화를 보면, 경음화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모음화 현상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ㅜ’와 ‘ㅠ’가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ㅐ’와 ‘ㅑ’가 별개의 음소로 구분되어 발음되는 현상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개음화 현상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어휘 변화 실현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투리형을 조금 더 사용할 뿐이었다.

## 제3장 방언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 3.1. 추진 전략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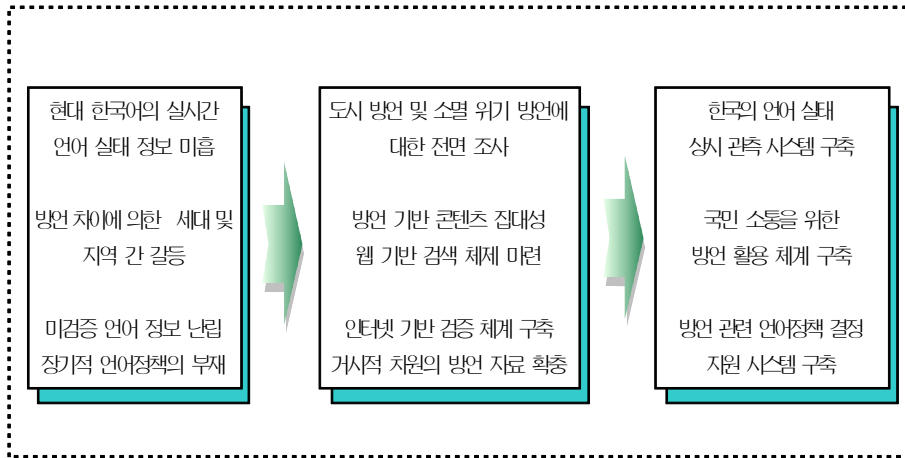
#### 3.1.1. 추진 배경

##### □ 현황 및 문제점

- 현대 한국어에 대한 언어 실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함.
  - 국민 대부분이 사는 도시 지역의 언어 실태가 어떠한지 조사한 바가 없음.
  - 이주민, 탈북자 등 사회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함.
  - 국민 소통을 위해 한국어의 현 상태를 상시 조사하고 정리, 보존하는 기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현대 한국 사회는 방언차에 의한 지역간, 세대간 갈등이 극심함.
  - 지역 방언의 차이에 따라 아직 지역간 소통의 어려움이 상존함.
  - 세대간의 방언 차이에 의해 노년층과 중장년층, 청소년층 사이에 소통의 단절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
- 미검증된 언어 정보의 난립으로 인해 장기적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
  - 한국어에 관한 언어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난무함.
  - 정보의 축적이 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언어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큰 도움을 제공하지 못함.

##### □ 개선 방안

- 한국의 언어 실태 상시 관측 시스템 구축
  - 도시 방언 및 소멸 위기 방언에 대한 전면 조사
  - 국립국어원의 역할 정립
- 국민 소통을 위한 방언 활용 체계 구축
  - 소통의 기초 자료로서 방언 기반 콘텐츠 집대성
  - 상호이해를 위한 웹 기반 검색 체계 마련
- 검증 자료에 의한 언어 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
  - 인터넷 기반 검증 체계 구축
  - 장기적 안목에서 방언 관련 자료 확충



**기초 조사**      언어 실태 관측 시스템 구축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언어문화의 변화 양상 조사·연구
- 소멸 위기의 한국어 방언 조사·연구
-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사회적 차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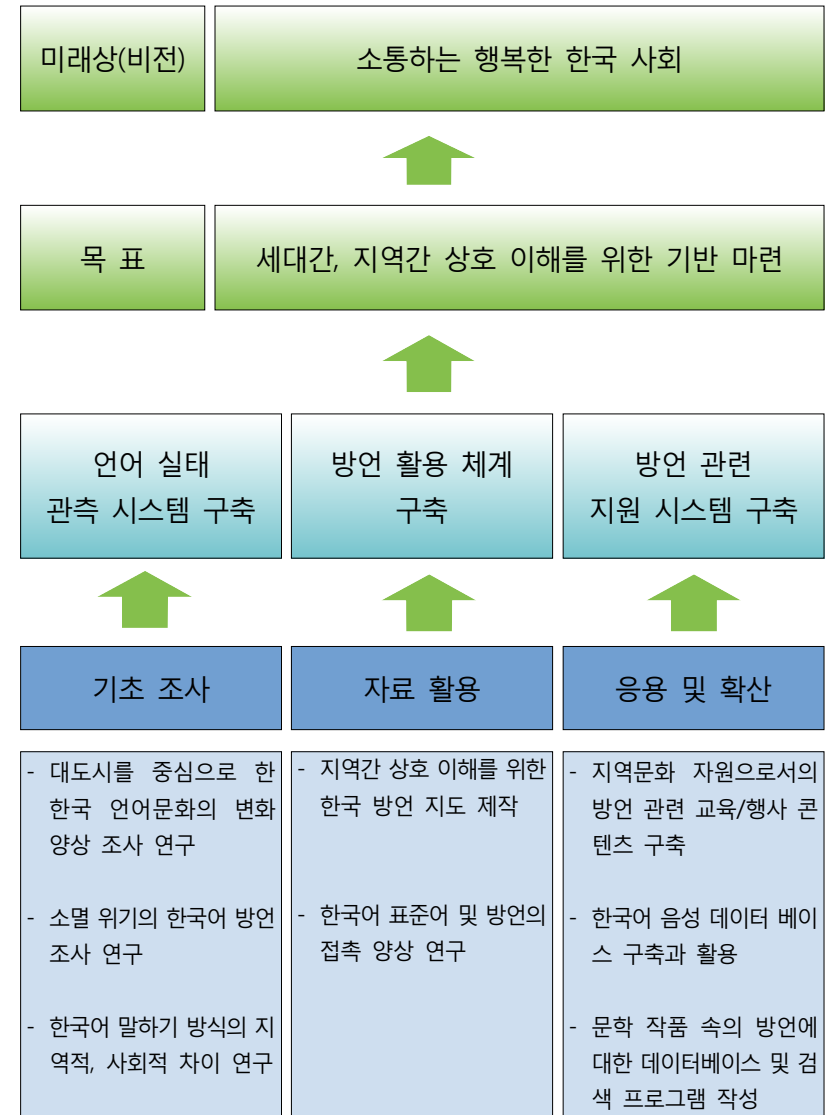
**자료 활용**      방언 활용 체계 구축

- 지역간 상호이해를 위한 한국 방언 지도 제작
-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의 접촉 양상 연구

**응용 및 확산**      방언 관련 지원 시스템 구축

-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방언 관련 교육/행사 콘텐츠 구축
- 한국어 음성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 문학 작품 속의 방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프로그램 구축

### 3.1.2. 추진 전략



<그림 1> 방언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추진 전략



### 3.1.3. 추진 절차

(단위: 백만원)

#### □ 단계별 추진 계획

사업 연도 사업 내용	1단계 (1차년도-3차년도)	2단계 (4차년도-6차년도)	3단계 (7차년도-8차년도)
<b>기초 조사(언어 실태 관측 시스템 구축)</b>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언어문화의 변화 양상 조사'연구	-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사 질문지 작성 - 대도시 조사 및 정리 7,200명(3,600×2년) 대상	- 대도시 조사 10,800명(3,600×3년) - 추적 조사 및 정리 전국 18개 지역 대상	- 대도시 조사 정리 및 활용 - 추적 조사 정리 전국 6개 지역 대상
○ 소멸 위기의 한국어 방언 조사'연구	- 사업 계획 수립 - 도서지역 조사 및 정리 6개 지점(3지점×2년)	- 도서지역 조사 정리 6개 지점(3지점×2년) - 조사 결과 정리	-
○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 연구	-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 조사(면접/설문 조사) - 발음치 구축	- 면접/설문 조사 결과 분석 - 발음치기반 담화분석	-
<b>자료 활용(방언 활용 체계 구축)</b>			
○ 지역간 상호이해를 위한 한국 방언 지도 제작	- 사업 계획 수립 - <지역어조사사업> 미조사 지점 (100개) 조사, 방언 지도 제작 - 충청북도 면 단위(100개) 조사	- 전국 면 단위 조사 1,500개 지점	- 전국 면 단위 조사 결과 정리 - 방언 지도 제작
○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의 접촉 양상 연구	- 사업 계획 수립 - 고속도로 주변 중소도시(30개) 중심으로 표준어와 방언의 접촉 조사 - 방언과 방언 사이의 접촉 양상 조사 (30개 지점)	- 방언과 방언 간의 접촉 양상 조사(60개 지점) - 조사 결과 분석	-
<b>응용 및 확산(방언 관련 지원 시스템 구축)</b>			
○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방언 관련 교육/행사 콘텐츠 구축	- 방언 교재, 참고 자료 등 집필 - 방언 관련 공모전 - 방언 행사/교육 사이트 구축	-	-
○ 한국어 음성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 분석 도구(얼라이너) 개발 - 기존 자료 분석 - 신규 자료 조사	- 결과 분석 - 데이터베이스 구축	-
○ 문학 작품 속의 방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프로그램 구축	- 3만개 항목 집필 - 검색 프로그램 구축	-	-

#### □ 단계별 소요 예산

사업 연도 사업 내용	1단계 (2016-2018)	2단계 (2019-2021)	3단계 (2022-2023)	합계
<b>기초 조사(언어 실태 관측 시스템 구축)</b>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언어문화의 변화 양상 조사·연구	1,720	1,920	1,040	4,680
○ 소멸 위기의 한국어 방언 조사'연구	490	490	-	980
○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사회적 차이 연구	790	360	-	1,150
<b>자료 활용(방언 활용 체계 구축)</b>				
○ 지역간 상호이해를 위한 한국 방언 지도 제작	750	1,350	500	2,600
○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의 접촉 양상 연구	440	440	-	880
<b>응용 및 확산(방언 관련 지원 시스템 구축)</b>				
○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방언 관련 교육/행사 콘텐츠 구축	750	-	-	750
○ 한국어 음성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440	290	-	730
○ 문학 작품 속의 방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프로그램 구축	400	-	-	400
<b>합계</b>	<b>5,780</b>	<b>4,850</b>	<b>1,540</b>	<b>12,170</b>

\* 총 사업 예산의 균형적 배분을 위해 일부 사업의 시행 단계를 조정할 수 있음.

### 3.1.4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총괄(1단계)

□ 연도별 계획(1단계)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사업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b>기초 조사(언어 실태 관측 시스템 구축)</b>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언어문화의 변화 양상 조사·연구	- 사업 계획 수립 - 조사 질문지 작성 및 시범 조사	대도시 주민 3,600명 조사 및 정리	대도시 주민 3,600명 조사 및 정리
○ 소멸 위기의 한국어 방언 조사·연구	- 사업 계획 수립 - 조사 질문지 작성 - 조사자 훈련	- 서해안 도서 지역 조사 : 3개 지점	- 남해안 도서 지역 조사 : 3개 지점
○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 연구	- 조사 연구 방법 개발	- 남한의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 조사(면접/설문 조사) - 말뭉치 구축	- 북한의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 조사(면접/설문 조사) - 말뭉치 구축
<b>자료 활용(방언 활용 체계 구축)</b>			
○ 지역간 상호이해를 위한 한국 방언 지도 제작	- 사업 계획 수립 - 조사 질문지 작성 - <지역어조사사업> 미조사 지점(50개 군) 조사	- <지역어조사사업> 미조사 지점(50개 군) 조사 - 방언 지도 제작	- 충청북도 면 단위(100개 지점) 조사
○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의 접촉 양상 연구	- 사업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방법 개발	- 고속도로 주변 중소도시(30개) 중심으로 표준어와 방언의 접촉 조사	- 방언과 방언 사이의 접촉 양상 조사(30개 지점)
<b>응용 및 확산(방언 관련 지원 시스템 구축)</b>			
○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방언 관련 교육/행사 콘텐츠 구축	- 사업 계획 수립 - 방언 관련 공모전	- 방언 교재 등 집필 - 방언 관련 공모전	- 방언 관련 공모전 - 방언 행사/교육 콘텐츠 사이트 구축
○ 한국어 음성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 분석 도구(얼라이너) 개발	- 기존 자료 분석	- 신규 자료 조사 및 분석
○ 문학 작품 속의 방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프로그램 구축	- 사업 계획 수립 - 15,000개 항목 집필	- 15,000개 항목 집필 - 검색 프로그램 구축	-

사업 연도 사업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b>기초 조사(언어 실태 관측 시스템 구축)</b>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언어문화의 변화 양상 조사·연구	500	610	610	1,720
○ 소멸 위기의 한국어 방언 조사·연구	150	170	170	490
○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사회적 차이 연구	130	330	330	790
<b>자료 활용(방언 활용 체계 구축)</b>				
○ 지역간 상호이해를 위한 한국 방언 지도 제작	250	250	250	750
○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의 접촉 양상 연구	100	170	170	440
<b>응용 및 확산(방언 관련 지원 시스템 구축)</b>				
○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방언 관련 교육/행사 콘텐츠 구축	250	250	250	750
○ 한국어 음성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140	150	150	440
○ 문학 작품 속의 방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프로그램 구축	200	200	-	400
<b>합계</b>	<b>1,720</b>	<b>2,130</b>	<b>1,930</b>	<b>5,780</b>

## 3.2. 주요 사업 계획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사업>의 결과물 활용 방안과 관련된 계획
  - 지역간 상호이해를 위한 한국 방언 지도 제작(3.2.4.)
  - 한국어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3.2.7.)
- 새로운 방언 자료의 수집 및 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언어문화의 변화 양상 조사연구(3.2.1.)
  - 소셜 위기의 한국어 방언 조사연구(3.2.2.)
  -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 연구(3.2.3.)
  -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의 접촉 양상 연구(3.2.5.)
  -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방언 관련 교육/행사 콘텐츠 구축(3.2.6.)
  - 문학 작품 속의 방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프로그램 구축(3.2.8.)

### 3.2.1.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언어문화의 변화 양상 조사 ·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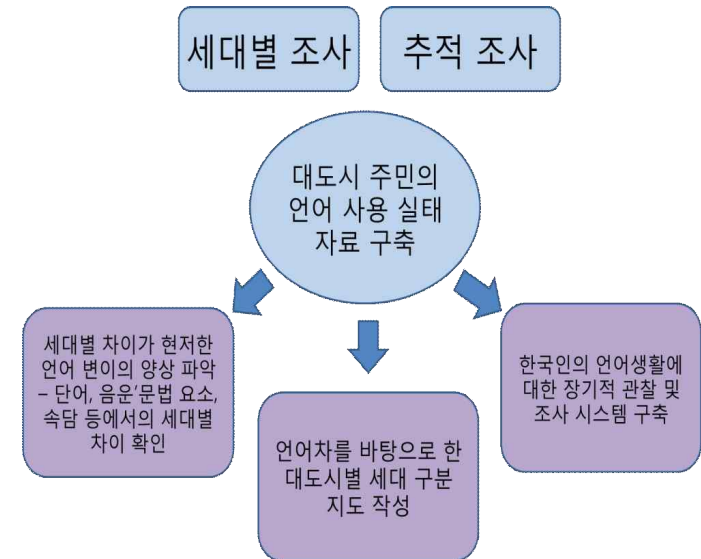
#### ☐ 연구 목적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었으며 근대의 산업화·도시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인의 언어문화는 급속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 언어문화 사회가 붕괴되고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그리고 세대와 세대 간에 소통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러 지역의 방언이 섞이고, 그로 인해 전통적 농어촌 지역보다 더 큰 언어문화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전통적인 서울말·부산말 등이 새로이 형성된 언어 변종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러한 새로운 언어 변종도, 어떤 사회변화를 겪은 세대인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였다. 결국 현대의 한국사회는 세대와 세대간 소통 방식의 차이를 현저히 드러내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소통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지의 언어문화에 대한 세대별 조사연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지금 현재의 언어 상태가 어떠한지 세대별로 관찰하고 그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하였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미래 사회의 언어 상태가 어찌될지 예측해 보는 작업도 꼭 있어야 하는 일이다. 이것이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세대별 조사와 추적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세대별 조사연구 사업이 추적 조사를 통해 축적된다면 한국의 언어변화를 유추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언어 생태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추진 목표



<그림 2> 대도시의 언어문화 조사 · 연구

#### ☐ 연구 내용

##### 1) 세대별 조사 · 연구

###### (1) 목적

현대 사회는 ‘세대, 계층, 성별, 지역’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에 따라 분화가 이루어진 사회다. 그러한 까닭에 어떠한 사회적 요소가 해당 사회의 분화에 관여하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해당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는 언어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 사회 안의 세대와 계층, 남녀 그리고 지역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여러 층위의 말투가 한데 섞여 사용된다. 그러므로 해당 사회에서 사회적 요소에 따른 언어 분화의 양상을 살피는 작업은 곧, 해당 사회의 여러 집단들 사이에 나타나는 소통과 불통의 양상을 관찰·기술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성별이나 지역에 따른 말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세대로 계층에 따른 말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대에 의한 차이는 나날이 심화되어, 오늘날엔 ‘말’이 세대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제1요소가 된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사업은, 한국 사회의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세대 간의 언어차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세대 간의 언어 간격은 농촌·어촌 등의 전통적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더 극심하므로 이 사업은 여러 집단이 한데 모여 살고 있는 대도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말하자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세대 간의 소통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이 조사연구 사업의 최종 목표다.

(2) 조사연구 방법

- ① 여러 차례의 시범 조사 사업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의의를 가지며 세대차를 뚜렷이 보일만한 언어 항목(음운, 문법, 의미, 담화 등의 언어적 표현 및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조사 질문지를 작성함.

제보자 조사표

조사자 이름

조사 장소

조사지

경기도 평택시

조사 일시

2014년 11월 일

제보자 이름

나이

세(년생)

제보자 성별

남 ( ) 여 ( )

출생지

현 거주지

아버지 고향

어머니 고향

외지 생활

기간

사유

직업

\*구체적으로 기입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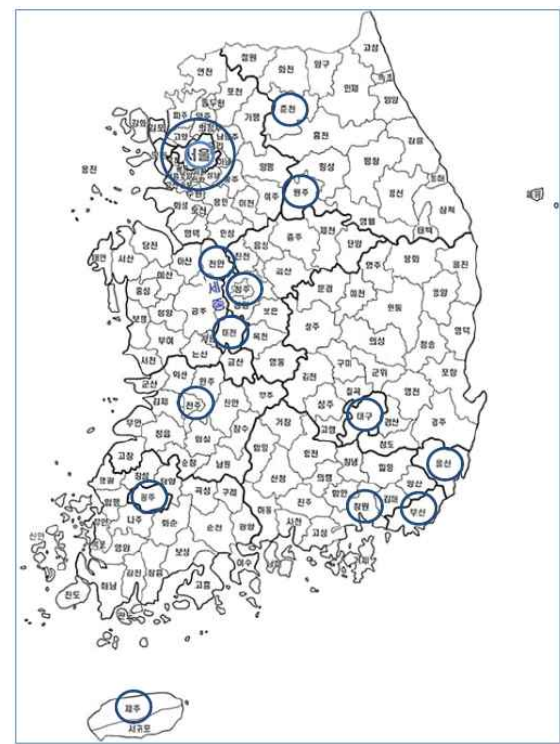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기입

Memo

<그림 3> 질문지 중 제보자 인적사항 기록란

- ② 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창원, 전주, 청주, 천안, 원주, 춘천, 제주 등)를 중심으로 방언 조사를 수행함. 이때 지역 및 연령을 고려하여 제보자(인구 대비 적어도 0.05%)를 할당 추출함.(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5,000명 조사, 인구 비례에 따르면 전국 18,000명 조사)

<참조> 서울(1000만), 부산(350만), 인천(280만), 대구(250만), 대전(152만), 광주(147만), 울산(110만), 수원(118만), 성남(97만), 고양(일산 포함, 96만), 용인(89만), 부천(87만), 안산(71만), 창원(109만), 전주(65만), 청주(83만), 천안(57만), 원주(31만), 춘천(27만), 제주(42만)



<그림 4> 조사 지점(대도시)

- ③ ‘연령/성별’ 요소를 중심으로 무작위 조사(학력·직업 등 불문, 이주민 포함)한 후 신상 정보를 활용하여 추후 종합적으로 분석함.
- ④ 전국 대도시 지역을 5-6년간에 걸쳐 할당 조사함.(연 3,000-3,600명 조사)
- ⑤ 제보자의 거주지를 인근 농촌·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면 인근 지역과의 비교 조사 연구도 가능함.(언어의 전파 과정을 해명하는 작업이 가능함.)

(3)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언어문화를 중심으로 한, 각 대도시 지역의 세대 구분 지도가 그려진다. 즉 대도시 지역별로, 급격한 언어문화의 변화를 보이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연령대가 3개(노년층, 장년층, 연소층) 또는 4-5개(노년층, 중년층, 장년층, 청년층, 연소층)의 세대로 구분되리라는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해당 대도시 지역에서 왜 그러한 세대 구분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구분을 초래한 언어 내적·외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일이 가능하다. 나아가 대도시 지역마다 구분되는 세대의 연령대가 다를 텐데 이들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그러한 상위를 초래하게 된 사회 문화 경제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대도시 지역에 대한 세대차의 양상과 원인 분석이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 지역별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 구성원간의 소통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유효한바 통일 이후, 또는 통일 이전의 준비 작업으로서 추후 ‘남북 공동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만한 조사연구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추적 조사 · 연구

###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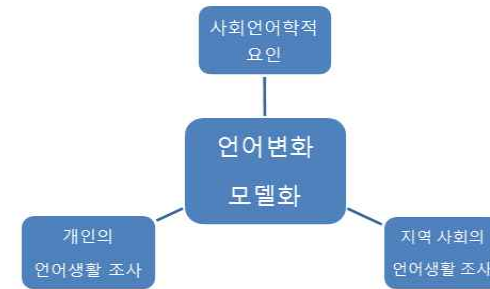
언어 형성기에 습득한 언어적 특징이 그 사람이 쓰는 말을 결정한다. 대체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10대 초반까지 한 지역에서 살며 방언적 특징을 습득한 사람은, 다른 방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나이를 거듭해도 큰 변화 없이 자신의 말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지역 사람들과 접촉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어 형성기가 지난 후에도 일정 부분, 다른 방언적 특징을 가진 말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어젯밤까지 어떤 방언을 사용했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어 형성기 이후에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다른 언어 또는 방언을 습득해 나간다.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휘와 발음 그리고 억양 등이 보조를 맞춰 같은 속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변화에는 완급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악센트의 변화가 빠르고, 또 어떤 사람은 어휘상의 변화가 빠르다. 변화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해당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일관되며 보편적 원리가 있는 것이다. 이 원리를 자세히 살피는 것, 즉 언어 자료의 특성에 따라 언어 변화의 메커니즘을 밝혀 나가는 작업은 언어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 (2) 조사연구 방법

- ①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 등 추적 조사를 시행한 바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조사연구의 계획을 수립함.
- ② 세대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적 조사할 대상을 선정함. 대체로 신도시 개발이나 행정 구역의 변경 등으로 타 방언의 영향에 노출된 지역 또는 그러한 사람을 선정함.
- ③ 언어 변화에 민감한 항목과 둔감한 항목을 구별함.
- ④ 언어 형성기 이후에 일어나는 언어습득의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추적 조사(동일 인물에 대해 동일한 조사를 반복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
- 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언어생활,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 속 언어 생활의 변화를 기록하고 쫓음으로써 언어 변화의 모델화를 시도함.



<그림 5> 언어생활에 대한 조사

### (3) 연구 내용

#### <기초 조사>

##### ① 하나의 지역 방언에 대한 특징 조사 및 기술

한 지역의 방언과 표준어를 이해하는 데 전통적인 방언에 대한 정밀한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음운, 악센트, 문법, 언어행동 등에 대해 조사하고 최신 이론을 원용하여 방언 체계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다.

##### ② 표준어와 퍼스널리티(성격) 조사

문화와 관련 지어 개인의 심리적 상태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심리 테스트 질문지에 의한 성격 테스트, 향토 자료 수집, 생활 기록의 수집을 실시한다.

##### ③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

지역 방송(라디오 포함)과 신문 등 지역 매체가 어떻게 이용되고 각 방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어떤 화제를 어떤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 ④ 학교의 표준어 지도 실태 조사

학생이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구어로서의 표준어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표준어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표준어 교육의 실상을 조사한다. 초중고를 골라 표준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의견, 교사 자신이 교실에서 사용하는 말 등에 대해 조사한다.

#### <확대 조사>

##### ① 언어생활 조사

제보자의 언어생활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제 하루’ 이야기한 것, 들은 것, 읽은 것, 쓴 것 등에 대한 상세한 질문, 그 외에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의식이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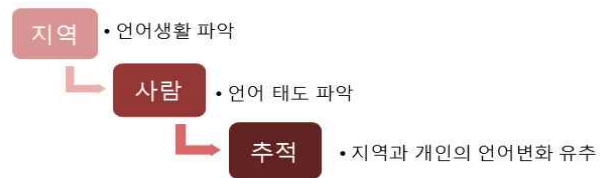
등 언어생활에 대한 다양한 질문 등을 포함한다.

## ② 24시간 언어생활 조사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언어행동에 대해 기록하고 녹음한다. 하루 동안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언어 양과 사용하는 화제, 문장 수, 절 수, 언어 행동의 종류 등을 조사분석한다.

## (4)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국립국어원은 국어 및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언어 발전의 기초를 세우고 국민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한 지역, 또는 한 개인의 언어생활을 탐구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점점 다양해져 가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 방언의 다양성은 오히려 축소되거나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속히 언어(방언)에 대한 추적 조사 사업이 필요하다.



<그림 6> 추적 조사의 기대 효과

## Ⅲ 추진 계획

### (1) 조직 및 역할

- ① 연구책임자(1명) : 총괄
- ② 공동연구원(9명) : 9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제주도) 각 1명, 조사 질문지 작성 및 조사 자료 분석
- ③ 연구원(10명)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보좌, 1인당 제보자 180명 조사(1주 6명 × 30주) 및 조사 자료 정리
- ④ 조사원(10명) : 1인당 제보자 180명 조사(1주 6명 × 30주) 및 조사 자료 정리

### (2) 일정 및 예산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소요 예산 (단위: 천 원)
1단계	1차년도	▷ 전체 사업 계획 수립 ▷ 조사 질문지 작성 및 시범 조사	500,000
	2차년도	▷ 대도시 주민 3,600명 조사 및 결과 정리	610,000
	3차년도	▷ 대도시 주민 3,600명 조사 및 결과 정리	610,000
2단계	4차년도	▷ 대도시 주민 3,600명 조사 및 결과 정리 ▷ 6개 지역 추적 조사	640,000
	5차년도	▷ 대도시 주민 3,600명 조사 및 결과 정리 ▷ 6개 지역 추적 조사	640,000
	6차년도	▷ 대도시 주민 3,600명 조사 및 결과 정리 ▷ 6개 지역 추적 조사	640,000
3단계	7차년도	▷ 대도시 조사 결과 정리 총괄 ▷ 6개 지역 추적 조사	540,000
	8차년도	▷ 확인 조사 ▷ 최종 보고서 작성	500,000
계			4,680,000

#### ① 인건비 : 36,000만

- 연구책임자(1명) 및 공동연구원(9명) : 1,500만×10명
- 연구원(10명) : 1,200만×10명
- 조사원(10명) : 900만×10명

#### ② 조사비(대도시 조사 및 추적 조사) : 18,000만

- 실비(교통비, 숙박비 등) : 10,000만(대도시)+3,000만(추적)
- 제보자 사례비 등 : 5,000만

#### ③ 기타 운영비(세금 및 간접비 제외) : 10,000만



### 3.2.2. 소멸 위기의 한국어 방언 조사 ·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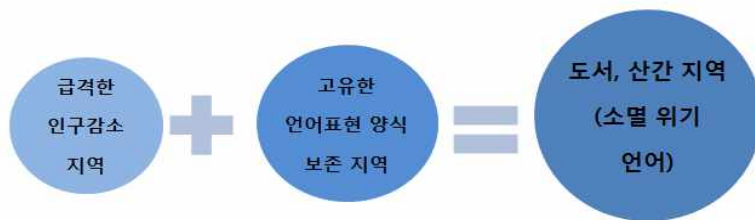
#### ☞ 연구 목적

전 사회적인 표준화와 지역 간 교류 확대에 의한 방언의 위축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도서, 산간 등 소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방언은 완전한 사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와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는 사회 구성원들 간 관계의 변화 등을 가져왔고, 이와 관련된 사회 방언의 소멸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멸 위기의 방언은 지금 기록해 놓지 않는다면 귀중한 언어문화유산이 상실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국내의 소멸 위기의 한국어 방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은 한국어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 ☞ 연구 내용

##### (1) 소멸 위기의 지역 방언 조사 연구

- 도서, 산간 등 소외 지역의 인구 급감으로 인해 완전한 사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 방언을 민족지학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 연구한다.
  - 조사 지역의 선정
    - 1차 조건: 도시 이주, 출산 감소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
    - 2차 조건: 고유한 어휘적, 표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
- 도서 지역: 추자군도, 덕적군도, 고군산 군도, 흑산군도, 거차군도, 맹골군도 등  
 산간 지역: 경북 봉화군 흥점마을, 강원 정선군 단임마을, 경남 산청군 오봉마을 등



<그림 7> 조사 지역의 선정

- 민족지학적 조사 항목
  - 지명
  - 생태 환경의 어휘적 구분 체계(자연 상태, 자연현상, 생물명 등)
  - 생활 환경의 어휘적 구분 체계(의·식·주 형태, 노동방식, 도구명 등)

##### ○ 방언 연구 방법론과의 통합 연구

- 조사 대상 지역의 방언 특성과 그것이 속한 방언권의 일반적 방언 특성의 차이 연구
- 지역적 변이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 변이도 추가적으로 조사 필요

##### ○ 민족지학적 조사를 위한 조사자 교육 및 양성 필요

- 인류학, 민족지학 연구자 중 조사 참여자 선정 및 교육
- 조사 대상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조사 참여자 선정 및 교육

##### (2) 소멸 위기의 사회 방언 조사 연구

-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부장적, 권위주의적 → 평등적, 민주적)로 인해 소멸하고 있는 사회 방언을 민족지학적 조사 방법을 통해 연구한다.

##### ○ 소멸 위기 사회 방언 조사 항목

- 친족 호칭 및 지칭
- 비친족 호칭 및 지칭
- 높임법 체계
- 말투와 상황 변이
- 화법

##### ○ 민족지학적 조사를 위한 조사자 교육 및 양성 필요

- 인류학, 민족지학 연구자 중 조사 참여자 선정 및 교육

#### ☞ 추진 계획

##### (1) 조직 및 역할

- ① 연구책임자(1명) : 총괄
- ② 공동연구원(3명) : 방언 및 문화인류학 전공자, 조사 질문지 작성 및 조사 자료 분석
- ③ 연구원(3명)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보좌, 실제 조사 및 조사 자료 정리
- ④ 조사원(3명) : 실제 조사

## (2) 일정 및 예산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소요 예산 (단위: 천 원)
1단계	1차년도	▷ 조사 지역 및 연구 대상 선정 ▷ 조사 및 연구 방법 개발 및 보완 ▷ 민족지학적 조사자 교육 및 훈련	150,000
	2차년도	▷ 서해안 도서 지역 중심 조사 ▷ 민족지학적 조사자 교육 및 훈련	170,000
	3차년도	▷ 남해안 도서 지역 중심 조사 ▷ 민족지학적 조사자 교육 및 훈련	170,000
2단계	4차년도	▷ 중부 산간 지역 중심 조사	170,000
	5차년도	▷ 남부 산간 지역 중심 조사	170,000
	6차년도	▷ 확인 조사 ▷ 최종 보고서 작성	150,000
계			980,000

① 인건비 : 12,300만

- 연구책임자(1명) 및 공동연구원(3명) : 1,500만×4명

- 연구원(3명) : 1,200만×3명

- 조사원(3명) : 900만×3명

② 조사비(민족지학적 조사) : 2,000만

- 실비(교통비, 숙박비 등) : 1,800만

- 제보자 사례비 등 : 200만

③ 기타 운영비(세금 및 간접비 제외) : 2,700만

## ▣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1) 한국어 방언 연구의 대상 및 방법 확대

- 소멸 위기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의 연구 대상 확대
- 소멸 위기 방언 연구를 위한 민족지학적 조사 방법론 도입

(2) 소멸 위기 방언의 기록 및 보존 정책 수립

- 언어문화 유산으로서의 소멸 위기 방언에 대한 체계적 기록 및 보존 정책 수립

## 3.2.3.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 연구

### ▣ 연구 목적

지금까지의 방언 연구는 지역 방언 연구인가, 사회 방언 연구인가를 막론하고 음성·음운, 어휘, 형태·통사 등의 언어 구조적인 차이를 주된 관심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는 한국어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와 변화가 언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며, 그것을 조사하고 분석하기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언 연구는 언어 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발전시켜 온 음성·음운론, 어휘론, 형태·통사론 등의 도움으로 정교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언어학을 중심으로 언어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언어의 기능과 사용에 대한 연구가 주목할 만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말하는 방식, 즉 담화 구조와 전략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향후의 방언 연구는 언어 구조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말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언어 구조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의 차이 또한 서로 다른 지역이나 사회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표준화의 영향으로 그 정도가 계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언어 구조적인 차이보다 말하는 방식의 차이가 지역 간 또는 사회집단 간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부각시키기도 한다. “특정 지역 방언 화자들은 분명하지 않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정 지역 방언 화자들은 너무 직선적으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눈치 보지 않고 다 한다.”, “여성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잘 반응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들은 일반인들도 주관적이고 막연하나마 말하는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결국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어 방언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말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지역 간, 사회집단 간의 차이를 상호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방지하고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연구 내용

(1) 연구 내용

####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차이 연구>

- 북한을 포함하는 지역적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담화의 구조와 전략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 1단계: 남한의 방언권 조사 및 비교·분석
  - 2단계: 북한의 방언권 조사 및 비교·분석
    - (북한 연구기관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조사 실시)
  - 3단계: 남·북한 방언 간 비교·분석



##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사회적 차이 연구>

○ 사회적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담화의 구조와 전략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 1단계: 연령/세대별 조사 및 비교·분석
- 2단계: 성별 조사 및 비교·분석
- 3단계: 계층(직업, 학력 포함)별 조사 및 비교·분석

\* 말하기 방식의 사회적 차이 연구는 북한의 정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남한 지역만으로 한정하여 조사

## (2) 연구 방법

## <면접 및 설문 조사와 결과 분석>

○ 면접 및 설문 조사 방식으로 파악 가능한 담화 단위에서의 변이 항목 선정

- 감사-응답, 사과-응답, 칭찬-응답, 요청-승낙/거절 등 인접쌍 담화 구조 조사에 용이

○ 면접 및 설문 조사지 작성

- 제보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조사자의 질문 구성이 관건

○ 지역적, 사회적 변인을 고려한 단계적 조사 실시

- 조사 지역과 사회 변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 실시

○ 면접 및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방언학의 질적 분석과 사회언어학의 계량적 분석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

## <말뭉치 구축과 담화 분석>

○ 담화 단위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담화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전통적 방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면접 조사와 질적 분석이나 사회언어학에서 발전해 온 설문 조사와 계량 분석 등의 조사 및 연구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담화 구조와 전략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면접 및 설문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지역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담화 상황을 포괄하는 구어 말뭉치도 대규모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국적 조사와 대규모 구어 말뭉치 구축 작업은 개별 연구자나 대학 기구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에 관련 국가 기관 차원에서 정책적 조사 및 연구 과제로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말뭉치 구축을 통해 파악 가능한 담화 단위에서의 변이 항목 선정

- 인접쌍 담화 구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담화 구조와 전략 조사에 필요
- 말차례 지키기, 말 방해, 말 중복, 침묵, 주제 전환, 율타리 표현(hedge), 맞장구 표현, 단정적 표현, 비확정적 표현, 감정 이입 표현, 과장 표현, 부가 의문 표현 등

○ 말뭉치 구축을 위한 담화 자료 확보

- 지역적, 사회적 변인을 고려한 다양한 담화 상황 선정 필요
- 자연스러운 담화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참여자 집단의 섭외가 관건
- 양질의 녹음 또는 녹화 환경 조성 필수

○ 말뭉치 구축

- 녹음 및 녹화를 통해 확보한 담화 자료 전사
- 담화 단위에서의 지역적, 사회적 변이 항목에 대한 태깅
- 지역적, 사회적 변인별 발화 횟수 또는 시간의 통제 및 균형 유지 필요

○ 담화 분석

- 담화 분석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을 참조하여 변이 항목 도출
- 도출된 변이 항목에 대한 질적 분석과 계량적 분석 병행

○ 결과 해석

- 직접적/간접적, 주도적/추종적, 일방적/협조적, 수다/과묵, 객관적/주관적, 사교적/비사교적, 사실적/비유적

## ▣ 추진 계획

### (1) 조직 및 역할

① 연구책임자(1명) : 총괄

② 공동연구원(6명) : 지역방언 및 사회방언 전공자 각 3명, 질문지 작성 및 결과 분석

③ 연구원(6명)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보좌, 실제 조사 및 조사 자료 정리

④ 조사원(6명) : 실제 조사

### (2) 일정 및 예산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소요 예산 (단위: 천 원)
1단계	1차년도	▷ 조사 변인 및 연구 대상 선정 ▷ 조사 연구 방법 개발 및 보완	130,000
	2차년도	▷ 남한 방언권 간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차이 조사 - 면접/설문 조사 및 말뭉치 구축 ▷ 말하기 방식의 사회적 차이(연령/세대 간) 조사 - 면접/설문 조사 및 말뭉치 구축	330,000
	3차년도	▷ 북한 방언권 간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차이 조사 - 면접/설문 조사 및 말뭉치 구축 ▷ 말하기 방식의 사회적 차이(남녀 간, 계층 간) 조사 - 면접/설문 조사 및 말뭉치 구축	330,000

2단계	4차년도	▷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차이 조사 결과 분석 - 면접/설문 조사 결과 분석 및 말뭉치 기반 담화 분석 - 남북 간 말하기 방식의 차이 비교 ▷ 말하기 방식의 사회적 차이 조사 결과 분석 - 면접/설문 조사 결과 분석 및 말뭉치 기반 담화 분석 - 사회적 변인 간 비교 및 교차 분석	230,000
	5차년도	▷ 최종 보고서 작성	130,000
계			1,150,000

- ① 인건비 : 23,100만  
 - 연구책임자(1명) 및 공동연구원(6명) : 1,500만×7명  
 - 연구원(6명) : 1,200만×6명  
 - 조사원(6명) : 900만×6명  
 ② 조사비 : 2,500만  
 - 실비(교통비, 숙박비 등) : 2,000만  
 - 제보자 사례비 등 : 500만  
 ③ 말뭉치 구축비 : 2,500만  
 ④ 기타 운영비(세금 및 간접비 제외) : 4,9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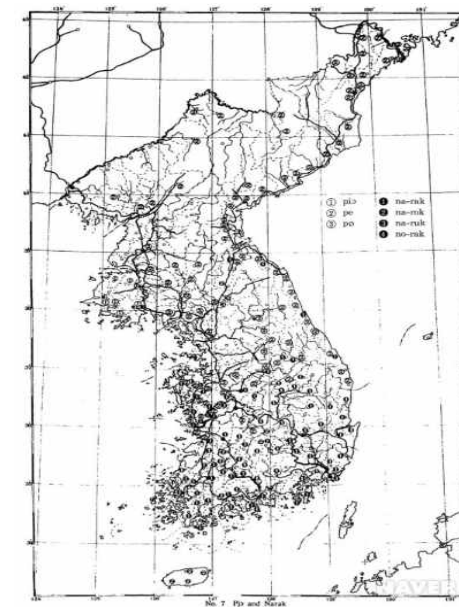
#### ▣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1) 한국어 방언 연구의 범위 확대 및 발전  
 ○ 한국어 지역 방언 연구의 담화 단위로의 범위 확대 및 발전  
 ○ 한국어 사회 방언 연구의 담화 단위로의 범위 확대 및 발전
- (2) 한국어 사용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  
 ○ 지역 간(남북 간 포함)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  
 ○ 연령/세대 간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  
 ○ 이성 간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  
 ○ 계층 간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

### 3.2.4. 지역간 상호이해를 위한 한국 방언 지도 제작

#### ▣ 연구 목적

그동안 여러 연구자에 의해 방언 조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개별 군 단위 지역에서부터 도 단위를 대상으로 나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행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방언 조사가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일본인 학자 소창진평(小倉進平)이 조사한 자료(그는 1911년에 한국에 와서 약 30여 년 동안 방언 조사를 실시하였다.), 비록 남한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1980년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주도한 조사 자료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10년간 국립국어원에서 행한 지역어 조사 사업도 제한된 지역이나마 그 의의를 둘 수 있겠다.



<그림 8>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방언 지도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지점 면에서도 다소 엉성해 보임을 알 수 있다. 정밀한 방언지도가 보야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방언 지도를 그릴 필요를 느낀다. 단순한 방언 지도가 아니라 소창진평의 자료에 의한 방언 지도, 정문연의 자료에 의한 방언 지도, 이 두 지도를 통해 방언 분포의 변화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어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는바, 특정 지역이 권역별로 묶이고 또 한편 다른 방향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언어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의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행한 지난 10년간의 사업을 보완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1980년대, 2000년대 이후 언어 변화를 파악하는 데 무엇보다 지난 10년간의 국립국어원 자료가 중요하다. 방언 분포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그려야 하는데 그러자면 1차적으로 2000년대의 방언 조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나머지 미조사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는 없다. 그 차선책으로 소창의 자료와 정문연의 자료, 국어원의 자료 중 방언 지도로서 의의가 있는 200여 개의 항목을 뽑아서 2000년대 국어원 사업의 미조사 지점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맹목적인 조사가 아니라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보는 조사라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방언 지도를 작성함에 있어 무언가 권역이 광범위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910년대와 1980년대 자료를 통한 방언 지도를 토대로 방언 분포의 대략적인 변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지역에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한바 군 단위 지역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방언 지도를 통해 일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무언가가 도출된다면 좋을 것이나 항목에 따라서 일률적인 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방언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때 경우에 따라서 지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먼 단위로 방언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정밀 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핵방언권 내에서도 방언형이 달리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핵방언권 내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과 남쪽에 있는 사람의 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선 시대의 자료, 군 단위 지역의 자료에 의한 방언 지도를 보고 일반인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이게 과연 우리 고장 말인가?’ 하는 의구심은 조사 및 연구의 불신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다. 특정 방언형에 대해 ‘우리 고장 말이 아니야’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러 보인다. 대표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서는 방언형이 급격히 달라지는 경우보다는 연속체적인 측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방언연속체를 인식한다면 맹목적 의구심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방언연속체란 개념을 상기할 때 방언형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에서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면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 단위 방언 조사 없이는 접근조차 어려운 주제이다. 먼 단위 조사를 통해 온라인 방언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최종목표가 되고 이는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방언 서비스의 정점이 될 것이다. 이 또한 맹목적인 조사가 아니라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해 보고 그 의의를 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충청북도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말이 지역별로 조금씩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범 조사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먼 단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방언 정보의 정밀화도 가능해질 수 있고 새롭게 등재될 방언형도 얻어낼 수 있다. 특정 방언을 일반인이 검색해 보고 가우뿔한다는 것은 국립국어원이 감당해야 할 부끄러움이다.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있을 사전 편찬 및 보완을 위한 준거 사업으로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방언형 ‘통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강원도 경남으로 지역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이다. 충청북도에서도 확인되고 경상북도에서도 확인되니 이러한 항목이 한둘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야갱이, 여갱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경북 방언 자료인 ‘야파이’, ‘야개이’, ‘여개이’ 등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를 제대로 보완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바로 먼 단위별 정밀 조사를 통해 여러 방언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순창에는 ‘뜰-’에 대해 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순창의 전형적인 말인가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소창진평의 자료, 정문연의 자료에서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순창 토박이에게는 그 말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또한 경북 영주에서 어떤 사람은 ‘걸는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방언을 잘 안다는 사람 간에도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갈등을 무마하는

방식이 바로 정밀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바로 먼 단위별로 조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두 개의 면에서 같은 어형이 출현한다면 그것을 잘못된 조사로 몰아세우기는 어렵다. 방언학자들이 모이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고충을 털어놓는 것이다. 해당 제보자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는 없다. 먼 단위 조사야말로 대표성에 의구심을 덜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또한 무조건 배타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다양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먼 단위를 통해서 언어의 흐름을 파악할 때 과거의 문화를 깨는 작업도 가능해질 수 있다. 경북의 영주와 충북의 단양은 험준한 산세로 인해 정상적인 통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경북의 문경과 충북의 단양은 의외로 산세가 험준하지 않다. 이는 통혼이 보다 쉬웠다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이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영주의 최북단과 단양의 최남단 말은 매우 상이하다. 반면 문경의 최북단과 단양의 최남단은 억양 면에서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 끝에서 둘째 음절에 의미를 갖는 억양은 단양, 재천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의 치유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만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자료의 경우 10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에 도 단위에 따라 그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군 단위 방언의 전면적인 조사라기보다는 소창진평의 자료, 정신문화연구원의 자료 중 공통되는 대략 200개 정도의 항목을 선별하여 기존 10개 군 나머지 지역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세부적 정밀 방언 조사와 연계하여 방언 의식을 조사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사실 방언학적 연구에는 훨씬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이익섭(1984/2006:42)에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고장 및 주변 지역의 방언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고 하면서 어디에 가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며 어느 고장 사람들의 말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수준으로 안다고 하였다(언어에 둔감한 사람들은 이 지역이나 저 지역이나 다 똑같다고 대답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잘 찾아내는 제보자를 찾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디에 가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문화적 갈등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방언의식 조사야말로 작게는 도 단위 내에서의 차이, 넓게는 도 단위를 넘어선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군 단위로 말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갈등도 생길 수 있다. 주지하듯이 넓게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말씨 차이가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방언의식과 관련된 철저한 조사야말로 갈등의 치유를 통한 상생과 관련된 정책 전환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사실 방언이 사라진다고 하면 표준어와의 사용 구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방언에 대한 열등감과 우월 의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의 감각 속에서 존재하는 각 지역의 방언 이미지와 방언에 대한 생각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방언의 실종과 소멸이 아닌 지역 방언 재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항목 수를 대폭 줄이면서 먼 단위로 조사하되 방언 의식까지도 조사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참고〉정밀 조사의 필요성과 관련된 예 - 이미 알려진 몇 개의 지점을 통해 그 대강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 경북 상주의 화북면은 인접한 괴산 청천면, 보은 산외면 지역의 말과 유사하다. 경북의 화북면에서는 경상도 방언의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성조가 확인되지 않는다.
  - 전북 무주의 무풍면은 인접한 경상도 김천의 말과 유사하다. 화북면의 경우와는 반대로 전북의 무풍면은 성조를 지니고 있다.
  - 경북의 예천은 용궁면 지역에서 문경 쪽(동쪽은 산양면)에서의 억양이 확인된다. 또한 문경의 좌측은 가은읍 인데 소백산맥을 넘어서 하천에 이르러서야 도경계에 나타난다. 물론 그 지역은 성조가 확인되지 않는다. 경상북도 영주시 지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주 부석면을 지나 900미터 정도의 미구령을 넘어도 여전히 남대리라는 경상도 지역이 확인된다. 이 지역과 영월 김삿갓 면의 말의 차이도 중요해 보인다.
  - 경북의 안동은 그 면적이 꽤 넓은 지역에 속한다. 상주 점결, 영양 및 청송 점결으로 갈수록 ‘으:어’의

대립이 다소 불안정하다. 군의 면적과 관련짓는다면 전북의 완주 또한 특별하게 간주될 필요가 있다. 논산과 경계를 이루는 전북의 최북단이지만 그 남쪽 면인 구이면은 전북의 남쪽인 임실과도 맞닿아 있을 정도로 특이하다.

- 경남의 창녕은 좌측 지역에서는 ‘ㅅ:ㅍ’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으나 우측 지역에서는 그 대립을 확인할 수 없다. 우연의 일치겠으나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경계로 그 대립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 방언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억양(성조) 측면으로 볼 때 경남의 고성·통영·거제는 전이지대적인 성격을 보인다. 고성·통영·거제와 인접해 있는 다른 지역의 면 단위에서 고성, 통영 등과 같은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또한 경남 거제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통영과 생활권을 같이한바 최근의 지리적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동부 지역은 경남 동부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남해안과 서해안 섬 지역(면 단위)은 상위 행정구역과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 경북 영주의 경우 북쪽은 드높은 산악지대이니 그 가까이에 위치한 면 단위에서는 봉화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거나 안동과 인접해 있는 면 단위, 예천과 인접해 있는 면 단위에서는 북쪽의 면 단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하이게로:-하이게네). 아울러 이들의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 Ⅲ 연구 내용

소창진평의 자료, 정문연의 자료 중 공통되는 200여 개의 방언형 추출 지도 작성은 공동연구원이 주도하여 그린다. 이후 분포의 변화를 살핀다. 다음은 온라인 정밀 방언 지도 구축을 위한 사업 개괄이다. 물론 방언 이미지 조사도 포함된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이 3단계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 (1) 1단계 사업: 미조사지점 군 단위 조사 및 시기별 방언 지도(일제강점기, 1980년대, 2000년대)를 작성한다.
- (2) 2단계 사업: 이 조사를 통한 지도 작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면 단위 조사가 필요한지 시범 조사(충청북도)를 한다.
- (3) 3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의 확장으로 전국적인 면 단위 조사를 통해 온라인 정밀 방언 지도 구축한다.

### 〈조사 지점〉

1단계에서는 국어원의 미조사 지점을 군 단위로 조사한다. 이후 면 단위 조사가 본격화되면 다음과 같은 조사 지점이 상정될 수 있다.

면 단위 조사 지점으로는 읍면 단위 1개 조사 지점을 원칙으로 하나, 접촉 내지 어촌 방언이 존재하는 곳은 지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시의 경우에는 가장 전통이 있는 동네 1-2곳을 조사한다. 시인 경우에는 구 단위로 조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2단계 조사 지점인 충청북도는 약 100개의 조사 지점이 확인된다. 충청북도는 3시(2구 포함), 12읍 8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 조사 지점은 충청북도를 포함한다면 전국적으로 1600개 정도의 조사 지점(216개의 읍, 1196개의 면, 75개의 시, 69개의 구)이 확인된다.(2014년 행안부 공지: 83개 군, 75개 시,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 1556개 조사지점 + 알파)

### 〈조사 방법 및 조사 항목〉

#### ▶ 방언 지도 구축을 위한 조사의 경우

확실한 제보자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단계 사업에서는 군 단위별 토박이 화자를 찾는다.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해당 면에서 3대 이상 거주한 80대 이상(배우자도 가급적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면 단위별 방언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어휘, 음운 대립, 조사/어미 등을 중심으로 200여 개 항목을 조사한다. 질문지를 통해 200여 개 기본 항목을 두 시간 내에 조사한다.

#### 〈예〉

어휘 - 여우, 냇이, 가위, 그네, 솔뚜껑, 콧구멍, 박쥐, 뽕과리, 딸꾹질 등

음운 - 으:어, 예:애, 외, 위, ㅅ:ㅍ

조사/어미 - 나만큼, 하세요, 하니까

#### ▶ 방언 이미지 조사의 경우

조사 지점은 정밀 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지점과 같다. 아울러 정밀 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전후에 방언 이미지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방언 이미지 조사를 통하여 지역 방언의 위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출신지 방언에 대한 호불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표준어 중심 사회 그룹과 방언 주류 사회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애착 의식, 사용 의식, 사용 구분 의식 등을 파악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성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

#### ① 가급적 세부적으로 접근(군 단위에서 면 단위)

#### 〈예〉

어디에 가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특히 어떤 점이 다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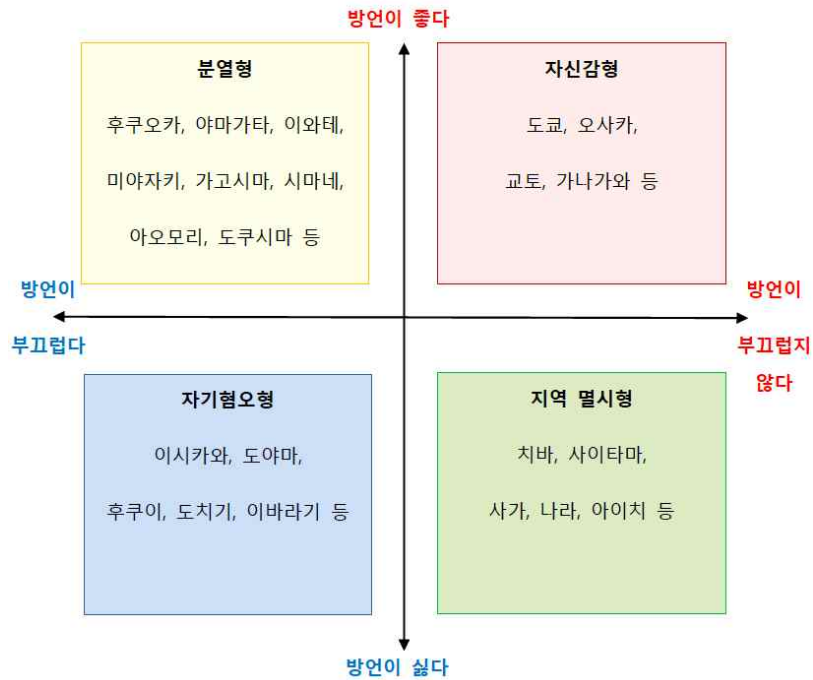
그 달라진 지역 말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제보자의 말에 대한 이미지 포함): 정중하다, 거칠다, 부드럽다, 맛깔스럽다 등

#### ② 도 단위로 접근

#### 〈예〉

경상도/전라도/충청도/경기도 방언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이미지 포함): 정중하다, 거칠다, 부드럽다, 맛깔스럽다 등

〈참조〉 일본의 방언 이미지 조사연구 결과



〈그림 9〉 일본 NHK의 방언 이미지 조사 결과

③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의식 조사

〈예〉

당신은 출신지(15세까지 가장 오래 생활한 장소)의 방언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상대방(가족, 같은 출신지 친구, 다른 지역 출신 친구 등)에게 출신지(15세까지 가장 오래 생활한 장소)의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신은 평상시 생활할 때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방언과 표준어를 장면에 따라 사용 구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표준어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 추진 계획

(1) 조직 및 역할

- ① 연구책임자(1명) : 총괄
- ② 공동연구원(5명) : 서울/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각 1명, 자료 검토 및 확정, 질문지 작성 및 조사 자료 분석
- ③ 연구원(10명)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보좌, 실제 조사 및 조사 자료 정리
- ④ 조사원(10명) : 실제 조사 및 조사 자료 정리

(2) 일정 및 예산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소요 예산 (단위: 천 원)
1단계	1차년도	▷ 전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사 질문지 작성 ▷ <지역어조사사업> 미조사지점 조사 : 50개군	250,000
	2차년도	▷ <지역어조사사업> 미조사지점 조사 : 50개군 ▷ 방언 지도 제작	250,000
	3차년도	▷ 충청북도 면 단위 조사 : 100개 지점	250,000
2단계	4차년도	▷ 전국 면 단위 조사 : 500개 지점	450,000
	5차년도	▷ 전국 면 단위 조사 : 500개 지점	450,000
	6차년도	▷ 전국 면 단위 조사 : 500개 지점	450,000
3단계	7차년도	▷ 결과 정리 및 방언 지도 제작 ▷ 확인 조사	250,000
	8차년도	▷ 방언 지도 제작 ▷ 최종 보고서 작성	250,000
계			2,600,000

- ① 인건비 : 30,000만
  - 연구책임자(1명) 및 공동연구원(5명) : 1,500만×6명
  - 연구원(10명) : 1,200만×10명
  - 조사원(10명) : 900만×10명
- ② 조사비 : 2,000만(100개 지점 기준)
  - 실비(교통비, 숙박비 등) : 1,500만
  - 제보자 사례비 등 : 500만
- ③ 방언 지도 제작비 : 1,000만
- ④ 기타 운영비(세금 및 간접비 제외) : 5,000만

## Ⓜ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먼 단위 방언구획 지도를 작성하고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특정 먼 단위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어형에 대한 방언형의 음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방언연속체라는 개념을 해당 군에 오직 하나의 방언형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토박이 화자들이 가지는 일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있을 사전 편찬 및 보완을 위한 준거 사업으로의 의의도 찾을 수 있다.
- 이 사업은 지역 문화의 성격을 파악하고 교육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방언 구획을 기반한 정치문화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통, 치유와도 관계된다.
- 이 사업은 전국적인 방언 구획, 도별 방언 구획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특정 등어선을 통해 전이지대적인 성격을 띠는 지역이든 그렇지 않은 지역이든 한국어의 방언 분화론, 비교대조 방언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연구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방언 접촉 방언 사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 선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사업은 기존 사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 3.2.5.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의 접촉 양상 연구

### Ⓜ 연구 목적

지금까지의 방언 연구는 특정 방언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고 그것을 다른 방언과 비교하는 개별적이고 회고적인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방언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변화를 가져오는 내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방언 연구의 결과는 언어문화유산의 기록과 보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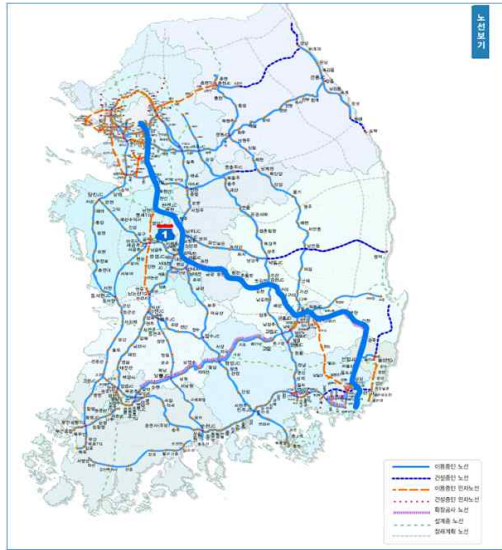
향후의 방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표준어와의 관계와 변화 방향, 그리고 서로 다른 방언들 간의 관계와 변화 방향에 대한 전망적 연구로까지 확대·발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언어의 변화는 때로는 내적 요인보다 외적 요인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하는데, 방언과 표준어가 만나거나 서로 다른 방언이 만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의 ‘접촉’은 표준어와 방언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의 하나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접촉으로 인한 표준어와 방언의 변화의 양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은 현행 표준어 및 방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방언들의 현재 모습과 관계를 조금 더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이후 남북 언어의 접촉과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 연구 내용

#### (1) 표준어(문화어)와 방언의 접촉 양상과 변화 연구

- 표준어와 방언의 상호 접촉 양상을 통해 표준어와 방언의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변화의 가능성과 방향을 예측한다.
  - 표준어와의 접촉으로 인한 남한 방언 변화
  - 남한 방언과의 접촉으로 인한 표준어 변화
  - 문화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북한 방언 변화
  - 북한 방언과의 접촉으로 인한 문화어 변화
  - 남북 언어 접촉으로 인한 표준어, 문화어 변화
- 표준어(문화어)와 방언의 접촉에 의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대상 지역 선정
  - 수도권권을 기점으로 하는 주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중소 도시 및 군을 중심으로 선정
  - 경부고속도로: 안성, 천안, 옥천, 영동, 김천, 구미, 경산, 영천, 양산 등
  - 호남고속도로: 공주, 논산, 익산, 김제, 정읍, 장성, 곡성, 순천 등
  - 중부고속도로: 이천, 진천, 신탄진, 금산, 무주, 함양, 진주, 통영 등
  - 영동고속도로: 여주, 원주, 횡성, 평창, 강릉



<그림 10> 접촉 방언 조사 지점

- 대상 지역의 표준어(문화어) 영향 평가
  - 표준어(문화어)로 대체된 해당 지역의 방언 조사
  - 표준어(문화어)와의 접촉을 발생시킨 매체의 영향력 분석
    - :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의 언론 매체
    - : 교과서, 참고서 등의 교수학습 매체
  - 분포 지역이 비교적 넓은 방언 어휘 50개를 선정하여 표준어(문화어)화 정도 평가
    - : 정구지/줄/술(표준어: 부추), 강냉이/옥시기(표준어: 옥수수), 나락(표준어: 벼) 등
- 지역 방언의 표준어(문화어)화 사례 조사
  - 지역 방언의 세력 확장 또는 수도권 진입으로 인한 표준어화 사례 조사
- 표준어 및 방언 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
  - 현행 정책의 성과와 한계 진단 및 향후 개선 방안 모색
  - 통일 한국의 남북 통합 표준어 정책의 수립 방향 모색

## (2) 방언 간 접촉 양상과 변화 연구

- 주요 방언권의 경계 지점을 선정하여 먼대면 접촉에서 발생하는 방언 간 접촉의 양상을 통해 방언 변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변화의 가능성과 방향을 예측한다.
- 방언 접촉이 두드러지는 조사 대상 지역 선정
  - 주요 방언권의 경계 지점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
  - 충북 영동군(경북 김천시 · 상주시,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과 접경 지역)
  - 충북 제천시(강원 영월군 · 원주시 등과 접경 지역)
  - 충북 단양군(강원 영월군, 경북 문경시, 영주시 등과 접경 지역)
  - 충남 논산군(대전, 전북 익산시, 전주시 등과 접경 지역)
  - 경북 울진군(강원도 삼척시, 경북 봉화군 · 영양군 등과 접경 지역)
  - 경남 하동군(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광양시 등과 접경 지역)
- 해당 지역의 방언 변이 조사
  - 음성·음운, 어휘, 형태·통사, 담화 등 단위별 방언 변이 조사
  -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의 방언 비교
- 방언 간 접촉의 양상 분석
  - 평준화(levelling), 단순화(simplification), 재분배(redistribution), 융합 방언(interdialect) 형성 등
- 방언 간 접촉에 따른 방언 변화 유형 분석
  - 불변, 변화(병존, 편입, 융합)
- 남북 방언 간 접촉 양상 연구
  - 남북 방언 간 직접적인 접촉 양상 부재
  -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한 간접 연구 방식으로 기초 연구 진행
- 방언 변화의 가능성 및 방향 예측
  - 방언 간 위상 차이, 방언 유지·보전 운동 추진 등 고려 필요

## ▣ 추진 계획

### (1) 조직 및 역할

- ① 연구책임자(1명) : 총괄
- ② 공동연구원(3명) : 지역방언 전공자, 조사 질문지 작성 및 조사 자료 분석
- ③ 연구원(3명)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보좌, 실제 조사 및 조사 자료 정리
- ④ 조사원(3명) : 실제 조사

### (2) 일정 및 예산

			(단위: 천 원)
1단계	1차년도	▷ 조사 및 연구 방법 개발 및 보완	100,000
	2차년도	▷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 접촉 양상 연구 - 남한 표준어와 남한 지역 방언 간 접촉 양상 비교 연구	170,000
	3차년도	▷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 접촉 양상 연구 - 북한 문화어와 북한 지역 방언 간 접촉 양상 비교 연구▷ ▷ 한국어 방언 간 접촉 양상 연구 - 중부방언과 기타 방언의 접촉 양상 및 방언 변화 연구	170,000
2단계	4차년도	▷ 한국어 방언 간 접촉 양상 연구 - 서남방언과 기타 방언의 접촉 양상 및 방언 변화 연구 - 동남방언과 기타 방언의 접촉 양상 및 방언 변화 연구	170,000
	5차년도	▷ 한국어 방언 간 접촉 양상 연구 - 제주방언과 기타 방언의 접촉 양상 및 방언 변화 연구 - 서북방언과 기타 방언의 접촉 양상 및 방언 변화 연구 - 동북방언과 기타 방언의 접촉 양상 및 방언 변화 연구	170,000
	6차년도	▷ 표준어와 방언의 접촉 양상 정리 ▷ 방언간 접촉 양상 정리 ▷ 최종 보고서 작성	100,000
계			880,000

- ① 인건비 : 12,300만
  - 연구책임자(1명) 및 공동연구원(3명) : 1,500만×4명
  - 연구원(3명) : 1,200만×3명
  - 조사원(3명) : 900만×3명
- ② 조사비 : 2,000만
  - 실비(교통비, 숙박비 등) : 1,800만
  - 제보자 사례비 등 : 200만
- ③ 기타 운영비(세금 및 간접비 제외) : 2,700만

## ▣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1) 표준어 및 방언 정책의 개선 방안 마련

- 현행 표준어 및 방언 정책의 성과와 한계 진단
- 표준어 및 방언 정책의 개선 방안 마련
- 남북 통합 언어 정책의 토대 마련

### (2) 한국어 방언 연구의 지평 확장

- 특정 방언에 대한 개별적 연구에서 방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관계적 연구로 확장
- 방언의 변화에 대한 회고적 연구에서 방언 변화의 미래를 예측하는 전망적 연구로 확장
- 한국어 방언들의 현재 모습과 관계에 대한 유기적 이해



### 3.2.6.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방언 관련 교육/행사 콘텐츠 구축

#### 연구 목적

국어 교육에서 ‘지역 방언’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에 발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의 일이다. 표준어 중심의 국어 교육에서 방언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로 인식되어 오랜 기간,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 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나마 ‘사회 방언’은, 이보다 좀 더 늦어 2007년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상당히 늦어진 했지만,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효율적인 사용, 나아가 정감 어린 소통을 위해 ‘방언’이 비로소 국어 교육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이 사업은, 국어 교육의 목적(국어에 대한 지식과 국어 구사 능력의 함양)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국어 교육의 테두리 속에 ‘방언’을 어느 정도, 또 어떻게 포함할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종 목표를 둔다. 그 결과, 부정적인 대상(즉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에서 긍정적인 대상(즉 ‘다양성을 갖춘 정서적인 말’)으로 방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그동안의 국어 교육에서 소외되어 온 방언 사용자와 지역 문화에 대해 사회적 치유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 연구 내용

##### (1) 목표

- ①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방언 관련 교육/행사 콘텐츠 구축
- ②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고양

##### (2) 방법

##### ① 방언 교육 자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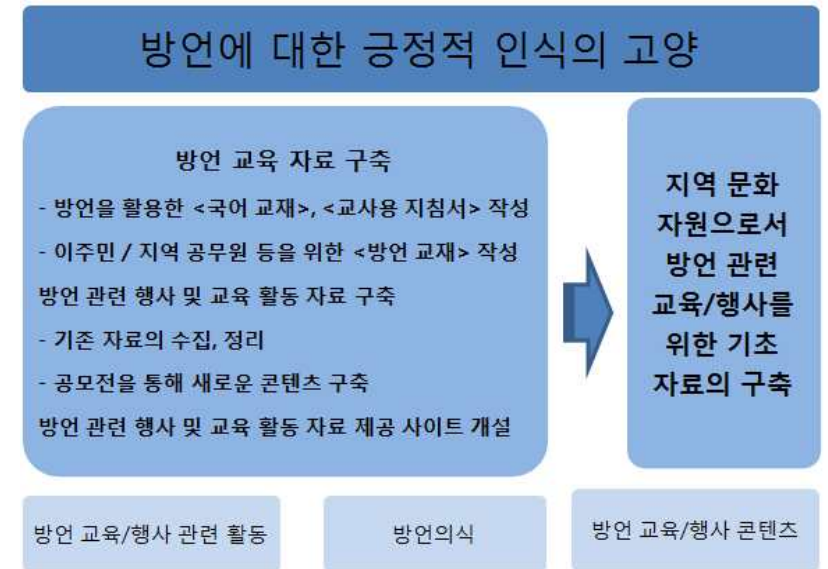
- 방언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방언 교육의 목적과 정의 및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을 구성함.
- <방언을 활용한 국어 교재> 작성 : 상황에 따른 방언사용, 지역성 강한 표현(속담 등) 등 실제 활용 가능한 내용 중심
- <교사 지침서>를 작성 : 방언에 대한 교수학습 전략
- 이주민, 지역 공무원 등 방언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방언 교재> 작성
- 방언 교육을 위한 <참고 자료> 작성
- 표준어 교육 방안 마련 : 피교육자의 모방언을 고려한 효율적인 표준어 교육 모델 마련

##### ② 방언 관련 행사 및 교육 활동 관련 자료 구축

- 기존 방언 관련 행사 및 교육 활동 등에 대한 자료 수집
- 공모전을 통해 방언 관련 행사 및 교육 활동 등에 관한 새로운 콘텐츠 마련
-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사이트 개설

##### ③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혁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방언에 대한 인식



<그림 11> 방언 교육/행사 관련 콘텐츠 구축

#### 추진 계획

##### (1) 조직 및 역할

- ① 연구책임자(1명) : 총괄
- ② 공동연구원(4명) : 방언 전문가 2명(지역방언, 사회방언 전공자)과 교육 전문가 2명(교육과정, 교육평가 전공자), 교육 내용 구성 및 교재 집필, 공모전 개최
- ③ 연구원(5명) : <교재>, <교사 지침서>, <참고 자료> 등 집필, 관련 자료의 수집
- ④ 연구보조원(5명) : 연구원 및 집필자 보좌, 관련 자료의 정리

##### (2) 일정 및 예산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소요 예산 (단위: 천 원)
1단계	1차년도	▷ 전체 사업 계획 수립 및 교육 내용 구성 ▷ 기초 자료 수집 ▷ 방언 관련 행사 및 교육을 주제로 한 공모전	250,000
	2차년도	▷ <방언을 활용한 교재>, <교사 지침서> 집필 ▷ 방언 관련 행사 및 교육을 주제로 한 공모전	250,000

	3차년도	▷ 방언 관련 <참고 자료> 등 집필 ▷ 방언 관련 행사 및 교육을 주제로 한 공모전 ▷ 방언 관련 행사 및 교육 활동 자료(도서, 멀티미디어 자료 등)를 모아 놓은 사이트 개설	250,000
계			750,000

- ① 인건비 : 16,500만
- 연구책임자(1명) 및 공동연구원(4명) : 1,500만×5명
  - 연구원(집필자 5명) : 1,200만×5명
  - 연구보조원(5명) : 600만×5명
- ② 공모전 및 사이트 운영비 : 5,000만
- ③ 기타 운영비(세금 및 간접비 포함) : 3,500만

#### ▶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그동안의 국어 교육에서 소외되어 온 방언 사용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함.
- 효과적인 표준어 교육에 활용 가능함.
- 통일 이후의 방언사용을 예측하고 남북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 3.2.7. 한국어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 ▶ 연구 목적

한국어의 정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양질의 한국어 음성 자료를 확보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한국어의 표준어와 방언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와 녹음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음성이 보조적인 저장 수단에 불과했다. 이렇게 저장된 음성 자료는 연구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녹음 자료 자체의 음질이 균질하지 않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활발하게 활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사업으로서 질적으로 우수한 음성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존의 자료와 함께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어의 특질을 밝혀줄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어의 미시적인 변화 과정을 밝히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 연구 내용

##### (1) 기존 조사 자료의 음성 데이터베이스화

- 2004년부터 10년 동안 이루어진 지역어 조사사업은 국내외를 망라하여 방대한 한국어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이를 음성학적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어 조사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료를 음성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시급하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 ○ 대상 자료 선정

- 1차 선정: 지역별로 안배해 국내 도별 2~3개 군과 해외 자료 선정
- 2차 선정: 녹음 상태 및 음질을 고려해 대상 음원 선정

##### ○ 대상 자료 재정비

- 전사 수정: 전사 오류를 바로잡고 전사 텍스트도 통일하여 자동화된 작업이 가능하도록 수정
- 음질 보정: 잡음 제거 및 음성 샘플링 통일 등의 균질화 작업

##### ○ 음성 - 텍스트 자동대응

- 한국어의 정밀한 연구를 위해 음성 자료와 전사 자료의 일대일 대응 자료가 필요
- 얼라이너(aligner, 음성과 텍스트의 일대일 대응 처리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한 어절별, 음절별, 음소별 음성과 전사 자료의 대응

- 분석
  - 음절, 음소 단위 자동 추출 후 음향음성학적 분석, 통계적 처리
  - 한국어 음소의 특징 분석, 한국어 음소의 지도
  - 지역별, 성별, 세대별 비교 분석

## (2) 신규 음성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존의 조사 사업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축적된 음성 자료는 음절이나 체계성 면에서 정밀한 음성 연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밀한 음성학적 연구를 위한 자료를 새롭게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 조사 항목 선정
  - 개별 음소의 환경별 실현 양상 파악을 위한 항목
  - 음절 단위의 실현 양상 파악을 위한 항목
  - 음조구 단위의 실현 양상 파악을 위한 항목
  - 문장 단위의 실현 양상 파악을 위한 항목

- 음성 자료 수집
  - 면 단위의 조밀한 조사 지점 선정
  - 전문화된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음성 자료 수집

- 음성 - 텍스트 자동 대응
  - 얼라이너 활용을 위한 전처리
  - 얼라이너를 활용한 음성과 텍스트의 자동 대응

- 분석
  - 음절, 음소 단위 자동 추출 후 음향음성학적 분석, 통계적 처리
  - 한국어 음소의 특징 분석, 한국어 음소의 지도
  - 지역별, 성별, 세대별 비교 분석
  - 기존 자료와의 비교 분석

## ㉠ 추진 계획

### (1) 조직 및 역할

- ① 연구책임자(1명) : 총괄
- ② 공동연구원(3명) : 방언 및 음성학 전공자, 음성 자료 수집 및 분석
- ③ 연구원(3명)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보좌, 실제 조사 및 조사 자료 정리
- ④ 조사원(3명) : 실제 조사

### (2) 일정 및 예산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소요 예산 (단위: 천 원)
1단계	1차년도	▷ 맞춤형 분석 도구(얼라이너) 개발 ▷ 기존 자료 중 대상 자료 선정 ▷ 신규 조사 지역 선정 및 조사 방법 개발	140,000
	2차년도	▷ 전처리 및 음성 자료(국내)-전사 자료 대응(얼라인) ▷ 음성 자료 수집 및 구축 1 - 국내	150,000
	3차년도	▷ 전처리 및 음성 자료(국외)-전사 자료 대응(얼라인) ▷ 음성 자료 수집 및 구축 2 - 국내	150,000
2단계	4차년도	▷ 음성 자료(국내외) 추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음성 자료 수집 및 구축 3 - 국외	150,000
	5차년도	▷ 연구 완료 및 미비점 보완 ▷ 최종 보고서 작성	140,000
계			730,000

- ① 인건비 : 12,300만
  - 연구책임자(1명) 및 공동연구원(3명) : 1,500만×4명
  - 연구원(3명) : 1,200만×3명
  - 조사원(3명) : 900만×3명
- ② 조사비 : 1,000만
  - 실비(교통비, 숙박비 등) : 900만
  - 제보자 사례비 등 : 100만
- ③ 기타 운영비(세금 및 간접비 제외) : 1,700만

## ㉡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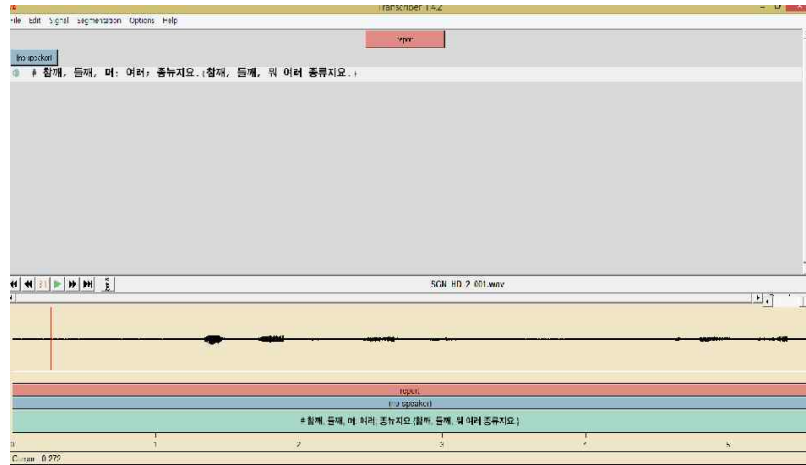
### (1) 기존 자료의 적극적 활용

- 사장 위기의 지역어 조사 자료의 공유와 활용
- 기존 자료를 활용한 정밀한 한국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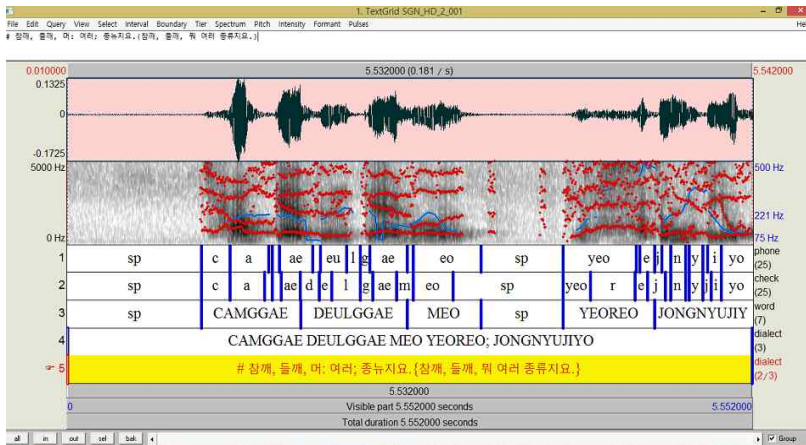
### (2) 신규 자료의 구축

- 한국어의 정밀한 연구를 위한 자료 구축
- 양질의 음성 데이터베이스의 장기적 구축 방안 마련

## [Transcriber] 예시



## [얼라이너] 예시



## 3.2.8. 문학 작품 속의 방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프로그램 구축

### 연구 목적

문학 작품 속의 방언은,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작가가 쓴 것이므로 매우 정제된 모습을 보인다. 많은 국어사전에서 표제어에 대한 용례를, 문학 작품에서 찾는 것도 작품 속의 언어가 안정된 데에서 비롯한다. 그만큼 문학 작품 속의 방언은 정제된 언어 재료로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학 작품 속의 방언 특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방언들을 모두 한데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 적이 없다. 부분적으로나마 작가별 ‘사전’의 형태로 출간된 업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제한성으로 인해 잘못 설명한 방언형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모든 문학 작품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사업은, ‘시, 소설, 희곡’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대본 등에 나타난 방언의 말뭉치 구축 및 이에 대한 검색프로그램 작성에 최종 목표를 둔다. 즉 해당 작품들에 나타나는 방언형을 모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단어를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자신의 작품 속에 방언을 적극적으로 구사한 작가들의 어휘체계를 전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한국어의 어휘를 확장하고, 표준어가 중심이 되어 온 문학 작품 속에서 방언의 쓰임을 강조함으로써 방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연구 내용

- (1) 표준어로만 쓰인 작품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문학 작품 또는 영화/드라마 대본의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입력함.
- (2) 문학 작품의 방언과 관련된 기존 ‘사전’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 사전 속의 표제어를 검토하여 집필 대상 단어를 추출함.

### <참고 자료>

강영봉·김동운·김순자(2010), 《문학 속의 제주 방언》, 글누림.  
 박원석(2002), 《염상섭 소설어 사전》, 고려대 출판부.  
 박충구·박진혁(2010), 《문학 속의 북한 방언》, 글누림.  
 민충환(1995), 《임격정 우리말 용례 사전》, 집문당.  
 민충환(1999), 《이문구 소설어 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충환(2002), 《송기숙 소설어 사전》, 보고서.  
 민충환(2003), 《박완서 소설어 사전》, 백산출판사.  
 박경래(2010), 《문학 속의 충청 방언》, 글누림.  
 이상규·신승용(2010), 《문학 속의 경상 방언》, 글누림.  
 이태영(2010), 《문학 속의 전라 방언》, 글누림.  
 임무출(1997), 《채만식 어휘 사전》, 토당.

임무출(2002), 《김유정 어휘 사전》, 박이정.  
 임무출(2006), 《홍석중의 소설 ‘황진이’ 어휘 사전》, 대훈.  
 임우기·정호웅(1997), 《토지 사전》, 숲.  
 장일구(2003), 《혼불의 언어》, 한길사.

- (3) 사전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분명한 표제어 선정 기준을 마련함. 이때의 ‘방언’은 기존 국어사전에 표준어로 올라 있지 않은 단어로 정의함.
- (4)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된 문학 작품 또는 영화/드라마 대본을 검토하면서 표제어를 선별하고 기존 ‘사전’에서 추출한 표제어와 함께 최종 집필 대상 단어를 선정함.
- (5) 집필 지침을 마련하고 집필진을 구성하여 분담 집필함.
- (6) 국립국어원의 방언검색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함.



<그림 12> 문학작품 속의 방언 검색 프로그램 구축

## Ⅲ 추진 계획

### (1) 조직 및 역할

- ① 연구책임자(1명) 및 공동연구원(8명) : 9개 도별(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전문가 각 1명, 표제어 선정 및 집필
- ② 연구보조원(9명)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보좌, 관련 자료의 정리

### (2) 일정 및 예산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소요 예산 (단위: 천 원)
3단계	1차년도	▷ 전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필 목록 작성 ▷ 15,000개 항목 집필	200,000
	2차년도	▷ 15,000개 항목 집필 및 정리 ▷ 문학 작품 속의 방언 검색 프로그램 구축	200,000
계			400,000

- ① 인건비 : 18,000만  
 - 연구책임자(1명) 및 공동연구원(8명) : 1,500만×9명  
 - 연구보조원(9명) : 500만×9명
- ② 기타 운영비(세금 및 간접비 포함) : 2,000만

### Ⅳ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여러 지역·성별·계층을 반영한 문학 작품 및 드라마 대본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간상의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에 기여함.
- 100여 년간 이루어진 문학 작품 및 드라마 대본을 대상으로 하므로, 앞선 세대의 언어문화 및 소통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상의 소통 증진에 기여함.
- 기존 문학계에서 잘못 해석해 온, 특정 작품 속의 방언을 수정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제4장 사회방언 시범 조사 및 연구 방법론 제안

### 4.1. 시범 조사 개요

#### 4.1.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남녀 100명이다. 평택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에 속하나 위치적으로는 충청남도와 인접해 있다. 방언권별로는 중부방언에 속해 있고, 대체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 방언의 색채가 덜 드러나면서도 표준어의 기반이 된 서울말과도 다른 점이 있어 적당한 조사지점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대상자 100명은 남녀의 성비도 맞추고 연령별로도 숫자를 비슷하게 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수가 다소 적고 하위 집단별로도 표본의 숫자가 적지만 시범조사임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100명으로 하였다.

#### 4.1.2. 조사 방법

조사는 질문지를 미리 작성한 후 현장에 가서 조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 묻고 답하며 기록하고 녹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총 9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분야별 정보는 다음과 같다. 공통 조사 항목은 시범조사 이후 이루어질 본조사에서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항목이며 추가조사 항목은 특정한 방언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될 항목이다. 항목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하위구분을 하여 실제의 문항 수는 총 92개가 되었다.

<b>공통 조사 항목</b>	
음운 : 31개 항목 37문항	
어휘 : 25개 항목 25문항	
문법 : 7개 항목 9문항	
담화 : 7개 항목 7문항	
언어 인식 : 4개 항목 4문항	
<b>추가 조사 항목</b>	
음운 : 6개 항목 7문항	
어휘 : 1개 항목 1문항	
문법 : 2개 항목 2문항	
<b>총 92문항</b>	

문항 전체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관식 문항은 해당 어형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결과를 직접 전사한 문항이다. 객관식 문항은 각각의 어형에 대한 계량적 조사를 위해서 선택지를 주고 그에 대한 답을 받은 문항이다.

일련번호	분류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주관식	객관식
001	음01-1	음운	음운체계	단모음 '에/애'	때	○	
002	음01-2	음운	음운체계	단모음 '에/애'	때	○	
003	음02	음운	음운체계	단모음 '외'	죄	○	
004	음03	음운	음운체계	단모음 '위'	쥐	○	
005	음04-1	음운	음운체계	이중모음 '외'	의사	○	
006	음04-2	음운	음운체계	이중모음 '외'	우리의 소원	○	
007	음05	음운	음운현상	고모음화	어디로	○	
008	음06	음운	음운현상	고모음화	더럽다	○	
009	음07	음운	음운현상	고모음화/단모음 '외'	외삼촌	○	
010	음08	음운	현상	어두경음화//고모음화	작다	○	
011	음09	음운	음운현상	한자어 경음화	효과	○	
012	음10	음운	음운현상	ㄴ 첨가	못 잊어	○	
013	음11	음운	음운현상	움라우트	지팡이	○	
014	음12	음운	음운현상	움라우트	말기다	○	
015	음13	음운	음운현상	유기음화	육학년	○	
016	음14	음운	음운현상	유기음화	밥하고	○	
017	음15	음운	음운현상	유음화와 처조비음화	원룸	○	
018	음16	음운	음운현상	모음조화	잡아라	○	
019	음17	음운	음운현상	모음조화	빨라라	○	
020	음18	음운	음운현상	자음군단순화	맑다	○	
021	음19	음운	음운현상	자음군단순화	짧다	○	
022	음20	음운	음운현상	여 > 이	퍼다	○	
023	음21	음운	음운현상	마찰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밭이	○	
024	음22	음운	음운현상	마찰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꽃이	○	
025	음23	음운	음운현상	자음군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	값이	○	
026	음24	음운	음운현상	자음군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	여덟이	○	
027	음25	음운	음운현상	자음군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	흙이	○	
028	음26	음운	음운현상	평파열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잎이	○	
029	음27	음운	음운현상	평파열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부엌	○	
030	음28-1	음운	초분절 운소	장단/성조	말(言)이 많다	○	
031	음28-2	음운	초분절 운소	장단/성조	말(馬)이 많다	○	
032	음29-1	음운	음성	장애음 'ㄱ/ㄲ/ㅋ'	가라/까라/카라	○	
033	음29-2	음운	음성	장애음 'ㄱ/ㄲ/ㅋ'	아가/아까/아카	○	
034	음30-1	음운	음성	장애음 'ㅅ/ㅆ'	사라/싸라	○	
035	음30-2	음운	음성	장애음 'ㅅ/ㅆ'	아사/아싸	○	
036	음31-1	음운	음성	장애음 'ㅈ/ㅊ/ㅌ'	자라/짜라/차라	○	
037	음31-2	음운	음성	장애음 'ㅈ/ㅊ/ㅌ'	아자/아짜/아차	○	
038	어01	어휘	고유어	소멸	동무/똥친구	○	

039	어02	어휘	고유어	소멸	쇠다(명절을)	○	○
040	어03	어휘	고유어	소멸	서리	○	○
041	어04	어휘	방언	확산	뜯금없다/느닷없다	○	○
042	어05	어휘	방언	확산	다르다/틀리다	○	○
043	어06	어휘	방언	확산	울갱이	○	○
044	어07	어휘	표준어	확산	부추	○	○
045	어08	어휘	신어	두지어	비번	○	○
046	어09	어휘	신어	순화어	휴대폰/휴대전화	○	○
047	어10	어휘	신어	순화어	왕따/집단따돌림	○	○
048	어11	어휘	외래어	순화어	트레이닝복/운동복/추리닝	○	○
049	어12	어휘	외래어	인구어계	소시지	○	○
050	어13	어휘	외래어	인구어계	텔레비전	○	○
051	어14	어휘	외래어	일본어계	단무지/다꾸앙	○	○
052	어15	어휘	호칭	부	아빠/아버지	○	○
053	어16	어휘	호칭	모	엄마/어머니	○	○
054	어17	어휘	호칭	손위 남자	형/오빠	○	○
055	어18	어휘	호칭	남편	여보	○	○
056	어19	어휘	호칭	부인	여보	○	○
057	어20	어휘	지칭	남편	아비/아범	○	○
058	어21	어휘	지칭	부인	집사람	○	○
059	어22	어휘	호칭	타인 남자	사장님	○	○
060	어23	어휘	호칭	여종업원	언니	○	
061	어24	어휘	속담	소멸과 변용	가는 날이 장날	○	○
062	어25	어휘	속담	소멸과 변용	악방에 감초	○	○
063	문01	문법	보충법	비문법적	달라고/주라고	○	
064	문02	문법	부정 표현	부정부사의 위치	안 공부하다/ 공부 안 하다	○	
065	문03	문법	부정 표현	형용사의 부정	안 같아요/같잖아요/ 달라요?	○	○
066	문04	문법	수관형사	소멸	석 장	○	
067	문05	문법	어미	과도한 높임	삼천 원이세요	○	○
068	문06-1	문법	어미	상대높임법	격식체/비격식체 1	○	○
069	문06-2	문법	어미	상대높임법	격식체/비격식체 2	○	○
070	문06-3	문법	어미	상대높임법	격식체/비격식체 3	○	○
071	문07	문법	어미	의문형 어미	어디 가니?	○	
072	담01	담화	감사 표현		감사합니다/고맙습니 다/감사해요/고마워요	○	○
073	담02	담화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감사합니다'에 대한 응답	○	
074	담03	담화	미안 표현에 대한 응답		'미안합니다'에 대한 응답	○	
075	담04	담화	감탄사		와!/아!	○	
076	담05	담화	거절표현		부탁에 대한 거절	○	
077	담06	담화	비확정적 표현		~것 같아요	○	○
078	담07	담화	칭찬에 대한 응답		마음씨에 대한 응답	○	

079	인01	인식	표준어 사용 인식		평상 시 표준어 사용 여부	○	○
080	인02	인식	방언 표준어 구별 인식		방언과 표준어를 구분 사용 여부	○	○
081	인03	인식	방언에 대한 의식		자신이 쓰는 방언에 대한 호불호	○	○
082	인04	인식	표준어에 대한 의식		표준어에 대한 호불호	○	○
083	음01	음운	음운체계	단모음 '외'	피	○	
084	음02	음운	음운체계	단모음 '위'	귀	○	
085	음03-1	음운	음운체계	자음 'ㅅ/ㅆ'	살	○	
086	음03-2	음운	음운체계	자음 'ㅅ/ㅆ'	쌀	○	
087	음04	음운	음운현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청신리	○	
088	음05	음운	음운현상	미찰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목젖	○	
089	음06	음운	초분절 운소	성조	말(카)이	○	
090	어01	어휘	신어	두지어	지못미	○	○
091	문01	문법	활용	유음 어간의 활용	길면	○	
092	문02	문법	어미	과도한 높임	들어가실게요	○	○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 103쪽으로 구성되었다. 질문 및 전사를 위한 본질문지 앞에 ‘방언 자료 활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제보자 조사표를 앞에 두어 추후 변인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보자 조사표 및 질문지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보자 조사표			
조사자 이름		조사 장소	
조사지	경기도 평택시		
조사 일시	2014년 11월 일		
제보자 이름	나이	세( 년생)	
제보자 성별	남 ( )	여 ( )	
출생지			
현 거주지			
아버지 고향			
어머니 고향			
외지 생활	기간	사유	
직업	*구체적으로 기입		
학력	*구체적으로 기입		
Memo			

## 1. 음운

001 음01-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체계 - 단모음 '에/애'				
	때				
질문	새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가면 뭐 지어 날아간다고 합니까?				
유의사항	'에/애'의 구별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전사					
Memo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 2. 어휘

038 어0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고유어 - 소멸				
	동무/벗/친구				
질문	아주 친한 사람을 일컬을 때, '동무/벗/친구' 중 어느 것을 쓰십니까?				
유의사항	- 조사 후 '동무/벗'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 여럿을 쓴다면 '사용'에서 어느 것을 많이 쓰는지, 또 의미 차는 없는지 조사.				
전사					
Memo					
			그렇다		아니다
동무/벗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질문지는 통일성을 위하여 분야에 관계없이 같은 형식으로 만들었다. 다만 음운 분야처럼 개별 항목에 대한 질문과 전사만 필요한 부분에는 '인지, 사용, 수용' 등에 대해 따로 묻지 않았다. 음운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인지, 사용, 수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각각의 항목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 4.1.3. 조사 과정

조사는 본 연구의 연구진들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평택시의 송탄, 청북 등지의 지역 커뮤니티와 먼저 접촉을 하여 조사 대상자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의 지인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조사 기간

2014.11.3.~2014.11.29

#### ○ 조사원

김수영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맹혜선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김경혜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임홍연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김동은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김고은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 4.1.4 조사 결과

조사원별로 조사된 결과는 형식을 통일하여 모두 전산입력을 한 후 코딩을 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조사 결과의 입력은 Excel을 활용해 하였는데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입식	벌레	선택지	전사	번호
음운					
음01_1_1	때	IPA 정밀전사	(1)e (2)ε (3)E (4)기타	tE	3
음01_2	때		(1)e (2)ε (3)E (4)기타	tE	3
음02	죄		(1)ö (2)we (3)e (4)기타	cwe	2
음03	쥬		(1)ü (2)wi (3)i (4)기타	cwi	2
음04_1	의사		(1)iy (2)mi (3)i (4)i (5)기타	iysa	1
음04_2	우리의 소원		(1)iy (2)mi (3)i (4)i (5)e (6)기타	urie	5
음05	어디로		(1)o (2)u (3)기타	e/diro	1
음06-1	더럽다	어	(1)a (2)i (3)기타	te/re/pt'a	1
음06-2	더럽다	음장	(1)L (2)S (3)기타		1
음07_1	외삼촌	외	(1)ö (2)we (3)e (4)기타	wesamch/on	2
음07_2	외삼촌	촌	(1)o (2)u (3)기타		1



입력된 결과는 IBM SPSS ver. 17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별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빈도와 비율을 내고 변인별 유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2. 시범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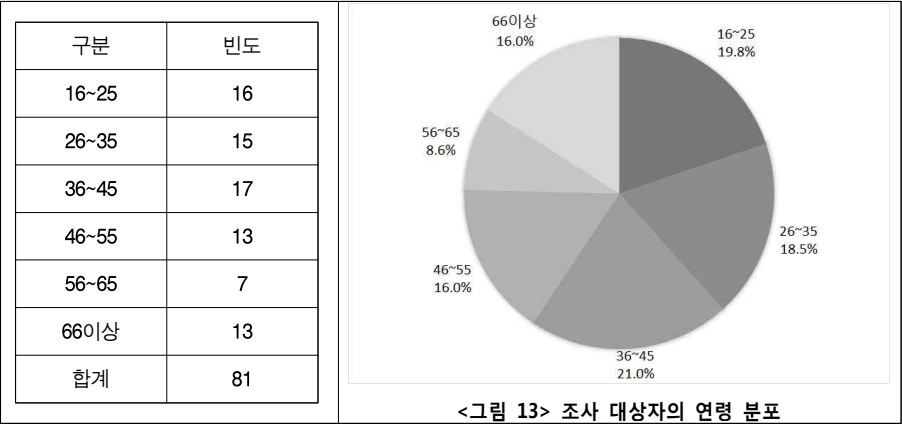
4.2.1. 기초 분석

4.2.1.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시범지역으로서 경기도 평택시를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인원은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평택지역 출신 및 거주자 100명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출생지가 평택이 아닌 제보자 19명을 제외한 81명만 분석하였다.<sup>2)</sup> 연령, 성, 출신지, 거주지, 직업, 학력 등의 세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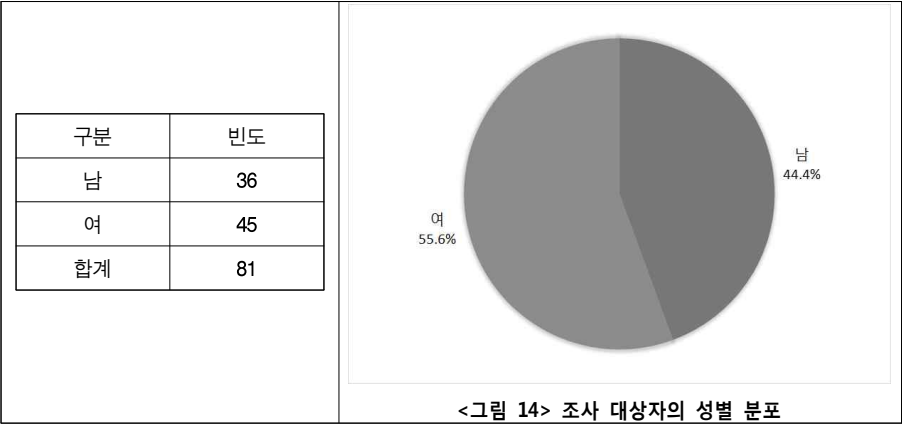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변인은 연령이기 때문에 각 연령대별로 균형을 맞추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9명을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그림 13>과 같다. 연령별 분포에서 다른 연령대는 큰 차이가 없으나 56~65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sup>3)</sup>



2) 그러나 연령 구간별 차이가 표본 다소 크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 출신 5명은 최종적으로 포함시켰다.  
3) 이러한 이유로 연령별 교차 분석에서 연령별 추이가 다소 일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추후의 조사에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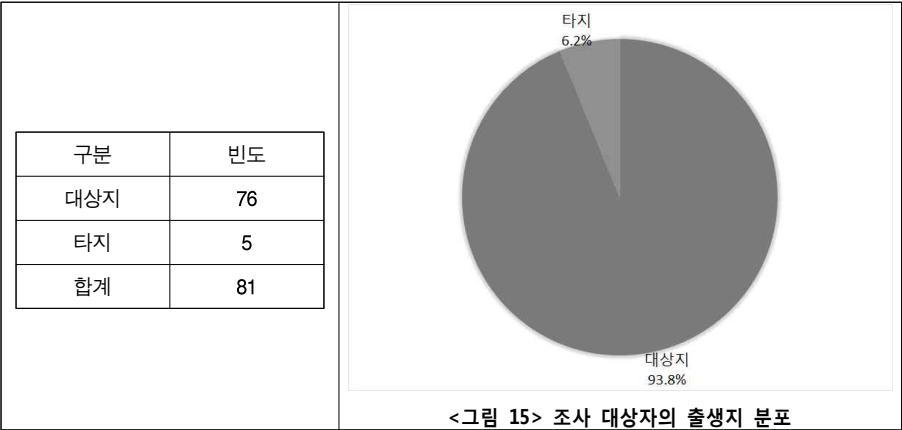
[성]

본 연구에서는 성별 표본의 수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그림 14>와 같다.



[출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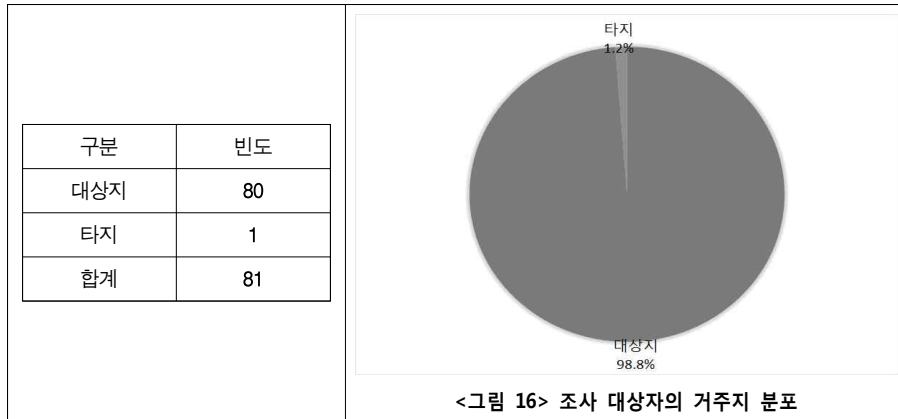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는 가능하면 평택 지역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령별, 성별 대상자를 맞추기 위해 타 지역 출신도 일부 포함시켰다. 최종 분석 대상자의 출생지 분포는 <그림 15>와 같다.<sup>4)</sup>



4) 추후의 조사에서는 출생지 조건을 반드시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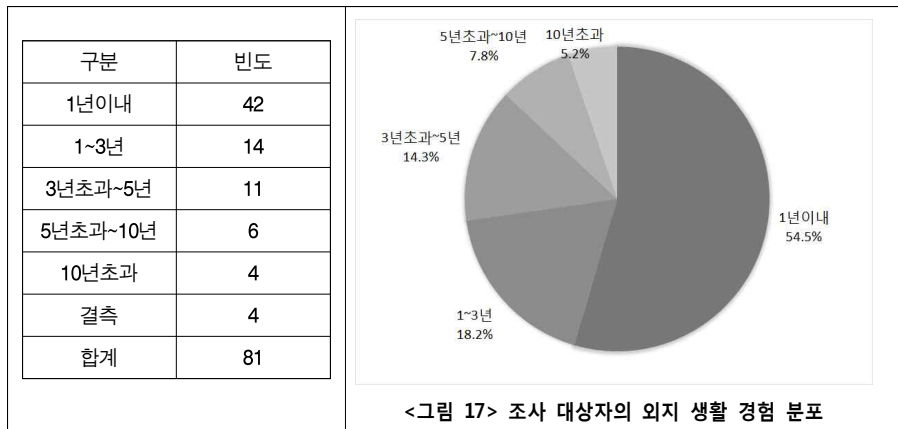
### [거주지]

본 조사에서는 가능하면 현재 평택시 일원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그림 16>에서 알 수 있듯이 타지 거주자는 1명만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 [외지 생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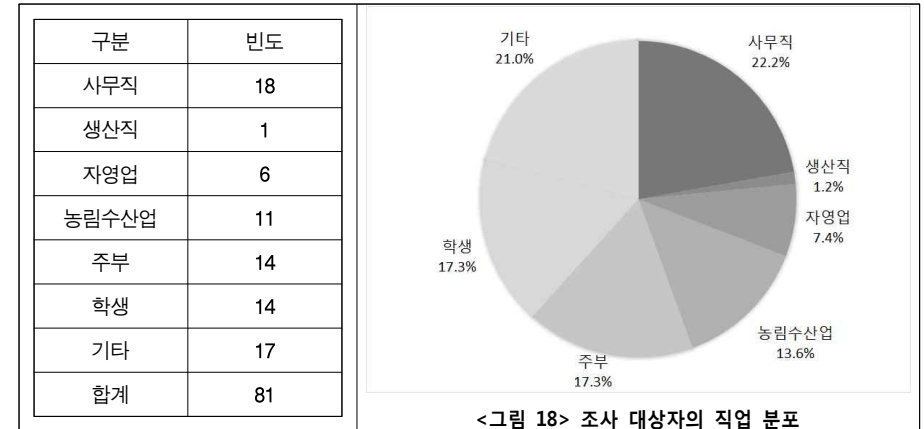
외지 생활은 언어 사용 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외지 생활 경험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도 살펴보기 위해 이를 기초 변수로 삼아 조사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 81명의 외지 생활 경험별 분포 양상은 <그림 17>과 같다.<sup>5)</sup> 반 이상이 외지 생활 경험이 1년 이내이고, 90% 가까이가 외지 생활 경험이 5년 이내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외지 생활 경험이 매우 짧은 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5)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왼쪽 표와 오른쪽 그래프의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난다. 이는 최종 분석 단계에서 ‘결측’ 및 ‘조사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비율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결측’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수이고, ‘조사 제외’는 문항의 특성상 조사가 불필요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수이다(이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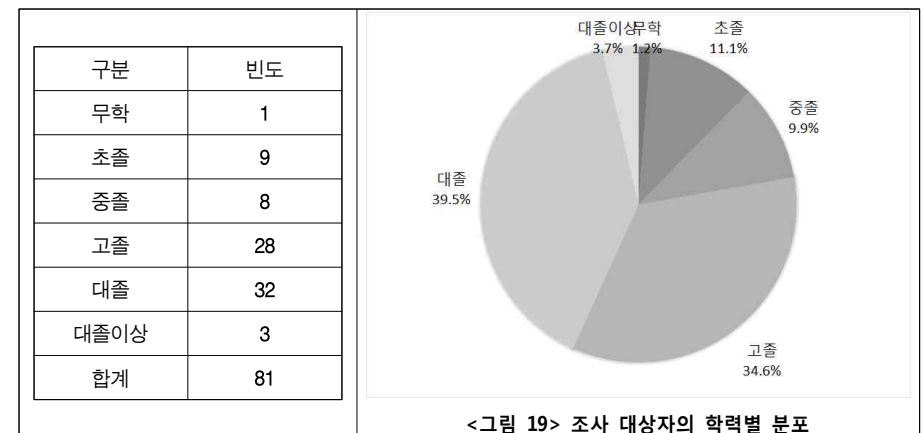
### [직업]

직업은 언어 사용 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업도 기초 변인으로 설정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는 <그림 18>과 같다. 평택시의 특성상 사무직의 비율이 높다. 주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고, 학생의 비율도 높은 것은 연령별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 [학력]

학력 또한 언어 사용 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초 변인으로 설정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학력별 분포는 <그림 19>와 같다.



#### 4.2.1.2 문항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82개의 본 조사 항목과 10개의 추가 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면적인 문항 수는 92개이지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 항목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분석은 추가 조사 항목을 제외하고 513문항에 대해 실시하였다. 분석 문항에 대한 분야별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음운]

음운과 관련해서는 28문항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문항은 음운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9개의 항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어휘, 문법, 담화 부문에서는 개별 항목에 대한 형태뿐만 아니라 ‘인지, 사용, 수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음운은 조사대상자들이 세세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음운 부문은 다른 분야보다 최종 분석 항목의 수가 적은 편이다. 최종적으로 분석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음01_1_1#때	음14_1#밥하고#유기음화
음01_2#때	음14_2#밥하고#고모음화
음02#죄	음14_3#밥하고#하_허
음03#쥐	음15#원룸
음04_1#의사	음16#잡아라
음04_2#우리의_소원	음17#벌어라
음05#어디로	음18#말다
음06_1#더럽다#어	음19#짧다
음06_2#더럽다#음장	음20_1#퍼다#ㄱ
음07_1#외삼촌#외	음20_2#퍼다#음장
음07_2#외삼촌#촌	음21#발이
음07_3#외삼촌#아재	음22#꽃이
음08_1#작다#작	음23#값이
음08_2#작다#다	음24_1#여덟이#ㄹ
음09_1#효과#효	음24_2#여덟이#ㄱ
음09_2#효과#과_ㄱ	음25_1#흙이#ㄹ
음09_3#효과#과_ㅅ	음25_2#흙이#ㅡ
음10#못_잊어	음26#있어
음11_1#지팡이#움라우트	음27_1#부엌#ㄱ
음11_2#지팡이#비모음화	음27_2#부엌#주방
음12_1#말기다#움라우트	음28_1_1#말_ㅁ이_ 많다#음장
음12_2#말기다#연구개음화	음28_1_2#말_ㅁ이_ 많다#성조
음12_3#말기다#경음화	음28_2_1#말_ㅁ이_ 많다#음장
음12_4#말기다#연구개음화_중복자음	음28_2_2#말_ㅁ이_ 많다#성조
음13#육학년	

##### [어휘]

어휘와 관련해서는 25문항을 조사하였다. 어휘에 대한 조사는 개별 항목의 형태와 ‘인지, 사용, 수용’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 가능한 응답 항목에 대해서도 별도로 ‘인지, 사용, 수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휘 부분은 최종적으로 132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어01_1#동무_벗_친구	어07_4#부추#부추_수용
어01_2#동무_벗_친구#동무_인지	어08_01#비번
어01_3#동무_벗_친구#동무_사용	어08_02#비번#비번_인지
어01_4#동무_벗_친구#동무_수용	어08_03#비번#비번_사용
어01_5#동무_벗_친구#벗_인지	어08_04#비번#비번_수용
어01_6#동무_벗_친구#벗_사용	어09_1#휴대폰_휴대전화
어01_7#동무_벗_친구#벗_수용	어09_2#휴대폰_휴대전화#휴대전화_인지
어02_2#쇠다명절을#쇠다_인지	어09_3#휴대폰_휴대전화#휴대전화_사용
어02_3#쇠다명절을#쇠다_사용	어09_4#휴대폰_휴대전화#휴대전화_수용
어02_4#쇠다명절을#쇠다_수용	어10_1#왕따_집단따돌림
어03_2#서리#서리_인지	어10_2#왕따_집단따돌림#왕따_인지
어03_3#서리#서리_사용	어10_3#왕따_집단따돌림#왕따_사용
어03_4#서리#서리_수용	어10_4#왕따_집단따돌림#왕따_수용
어03_5#서리#범위_모두_체크	어10_5#왕따_집단따돌림#집단따돌림_인지
어04_1#뜨겁없다_느닷없다	어10_6#왕따_집단따돌림#집단따돌림_사용
어04_2#뜨겁없다_느닷없다#뜨겁없다_인지	어10_7#왕따_집단따돌림#집단따돌림_수용
어04_3#뜨겁없다_느닷없다#뜨겁없다_사용	어11_1#트레이닝복_운동복_추리닝
어04_4#뜨겁없다_느닷없다#뜨겁없다_수용	어11_2#트레이닝복_운동복_추리닝#추리닝_인지
어04_5#뜨겁없다_느닷없다#느닷없다_인지	어11_3#트레이닝복_운동복_추리닝#추리닝_사용
어04_6#뜨겁없다_느닷없다#느닷없다_사용	어11_4#트레이닝복_운동복_추리닝#추리닝_수용
어04_7#뜨겁없다_느닷없다#느닷없다_수용	어12_1#소시지
어05_1#다르다_틀리다	어12_2#소시지#소시지_인지
어05_2#다르다_틀리다#다르다_인지	어12_3#소시지#소시지_사용
어05_3#다르다_틀리다#다르다_사용	어12_4#소시지#소시지_수용
어05_4#다르다_틀리다#다르다_수용	어13_1#텔레비전
어05_5#다르다_틀리다#틀리다_인지	어13_2#텔레비전#텔레비전_인지
어05_6#다르다_틀리다#틀리다_사용	어13_3#텔레비전#텔레비전_사용
어05_7#다르다_틀리다#틀리다_수용	어13_4#텔레비전#텔레비전_수용
어06_1#울갱이	어14_1#단무지_다꾸앙
어06_2#울갱이#울갱이_인지	어14_2#단무지_다꾸앙#단무지_인지
어06_3#울갱이#울갱이_사용	어14_3#단무지_다꾸앙#단무지_사용
어06_4#울갱이#울갱이_수용	어14_4#단무지_다꾸앙#단무지_수용
어06_5#울갱이#다슬기_인지	어14_5#단무지_다꾸앙#다꾸앙_인지
어06_6#울갱이#다슬기_사용	어14_6#단무지_다꾸앙#다꾸앙_사용
어06_7#울갱이#다슬기_수용	어14_7#단무지_다꾸앙#다꾸앙_수용
어07_1#부추	
어07_2#부추#부추_인지	
어07_3#부추#부추_사용	

어15\_1#아빠\_아버지  
 어15\_2#아빠\_아버지#아빠\_인지  
 어15\_3#아빠\_아버지#아빠\_사용  
 어15\_4#아빠\_아버지#아빠\_수용  
 어15\_5#아빠\_아버지#아버지\_인지  
 어15\_6#아빠\_아버지#아버지\_사용  
 어15\_7#아빠\_아버지#아버지\_수용  
 어16\_1#엄마\_어머니  
 어16\_2#엄마\_어머니#엄마\_인지  
 어16\_3#엄마\_어머니#엄마\_사용  
 어16\_4#엄마\_어머니#엄마\_수용  
 어16\_5#엄마\_어머니#어머니\_인지  
 어16\_6#엄마\_어머니#어머니\_사용  
 어16\_7#엄마\_어머니#어머니\_수용  
 어17\_1#형\_오빠  
 어17\_2#형\_오빠#형\_오빠\_인지  
 어17\_3#형\_오빠#형\_오빠\_사용  
 어17\_4#형\_오빠#형\_오빠\_수용  
 어17\_5#형\_오빠#선배\_인지  
 어17\_6#형\_오빠#선배\_사용  
 어17\_7#형\_오빠#선배\_수용  
 어18\_1#여보  
 어18\_2#여보#여보\_인지  
 어18\_3#여보#여보\_사용  
 어18\_4#여보#여보\_수용  
 어19\_1#여보  
 어19\_2#여보#여보\_인지  
 어19\_3#여보#여보\_사용  
 어19\_4#여보#여보\_수용  
 어20\_1#아비\_아범

어20\_2#아비\_아범#아비\_아범\_인지  
 어20\_3#아비\_아범#아비\_아범\_사용  
 어20\_4#아비\_아범#아비\_아범\_수용  
 어21\_1#집사람  
 어21\_2#집사람#집사람\_인지  
 어21\_3#집사람#집사람\_사용  
 어21\_4#집사람#집사람\_수용  
 어21\_5#집사람#부인\_인지  
 어21\_6#집사람#부인\_사용  
 어21\_7#집사람#부인\_수용  
 어22\_1#사장님  
 어22\_2#사장님#사장님\_인지  
 어22\_3#사장님#사장님\_사용  
 어22\_4#사장님#사장님\_수용  
 어23\_1#언니  
 어23\_2#언니#언니\_인지  
 어23\_3#언니#언니\_사용  
 어23\_4#언니#언니\_수용  
 어24\_1#가는\_날이\_장날  
 어24\_2#가는\_날이\_장날#가는날이장날\_인지  
 어24\_3#가는\_날이\_장날#가는날이장날\_사용  
 어24\_4#가는\_날이\_장날#가는날이장날\_수용  
 어24\_5#가는\_날이\_장날#마트에\_적용  
 어25\_1#약방에\_감초  
 어25\_2#약방에\_감초#약방에감초\_인지  
 어25\_3#약방에\_감초#약방에감초\_사용  
 어25\_4#약방에\_감초#약방에감초\_수용  
 어25\_5#약방에\_감초#~

#### [문법]

문법과 관련해서는 7문항을 조사하였다. 문법에 대한 조사는 개별 항목의 형태와 ‘인지, 사용, 수용’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각 문항을 매우 세분하여 분석이 가능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문법 부분은 최종적으로 73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문01\_1#달라고\_주라고#보충법\_비문법적  
 문01\_2#달라고\_주라고#달라고\_인지  
 문01\_3#달라고\_주라고#달라고\_사용  
 문01\_4#달라고\_주라고#달라고\_수용  
 문01\_5#달라고\_주라고#주라고\_인지

문01\_6#달라고\_주라고#주라고\_사용  
 문01\_7#달라고\_주라고#주라고\_수용  
 문02\_1#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부정\_위치  
 문02\_2#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안\_공부하  
 다\_인지

문02\_3#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안\_공부하  
 다\_사용  
 문02\_4#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안\_공부하  
 다\_수용  
 문02\_5#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공부\_안\_하  
 다\_인지  
 문02\_6#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공부\_안\_하  
 다\_사용  
 문02\_7#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공부\_안\_하  
 다\_수용  
 문03\_1#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부정\_위치  
 문03\_2#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안\_같아요  
 \_역양  
 문03\_3#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같잖아요\_  
 역양  
 문03\_4#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달라요\_역  
 양  
 문03\_5#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안\_같아요  
 \_인지  
 문03\_6#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안\_같아요  
 \_사용  
 문03\_7#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안\_같아요  
 \_수용  
 문03\_8#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같잖아요\_  
 인지  
 문03\_9#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같잖아요\_  
 사용  
 문03\_10#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같잖아요\_  
 수용  
 문03\_11#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달라요\_  
 인지  
 문03\_12#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달라요\_  
 사용  
 문03\_13#안\_같아요\_같잖아요\_달라요#달라요\_  
 수용  
 문04\_1#석\_장  
 문04\_2#석\_장#석\_장\_인지  
 문04\_3#석\_장#석\_장\_사용  
 문04\_4#석\_장#석\_장\_수용  
 문04\_5#석\_장#세\_장\_인지  
 문04\_6#석\_장#세\_장\_사용

문04\_7#석\_장#세\_장\_수용  
 문05\_1#삼천\_원이세요  
 문05\_2#삼천\_원이세요#이세요\_인지  
 문05\_3#삼천\_원이세요#이세요\_사용  
 문05\_4#삼천\_원이세요#이세요\_수용  
 문06\_1\_1#격식체\_비격식체\_1#해요\_합쇼  
 문06\_1\_2#격식체\_비격식체\_1#해요\_인지  
 문06\_1\_3#격식체\_비격식체\_1#해요\_사용  
 문06\_1\_4#격식체\_비격식체\_1#해요\_수용  
 문06\_1\_5#격식체\_비격식체\_1#합쇼\_인지  
 문06\_1\_6#격식체\_비격식체\_1#합쇼\_사용  
 문06\_1\_7#격식체\_비격식체\_1#합쇼\_수용  
 문06\_2\_1#격식체\_비격식체\_2#해요\_합쇼  
 문06\_2\_2#격식체\_비격식체\_2#해요\_인지  
 문06\_2\_3#격식체\_비격식체\_2#해요\_사용  
 문06\_2\_4#격식체\_비격식체\_2#해요\_수용  
 문06\_2\_5#격식체\_비격식체\_2#합쇼\_인지  
 문06\_2\_6#격식체\_비격식체\_2#합쇼\_사용  
 문06\_2\_7#격식체\_비격식체\_2#합쇼\_수용  
 문06\_3\_1#격식체\_비격식체\_3#해\_해라\_하게  
 문06\_3\_2#격식체\_비격식체\_3#해\_인지  
 문06\_3\_3#격식체\_비격식체\_3#해\_사용  
 문06\_3\_4#격식체\_비격식체\_3#해\_수용  
 문06\_3\_5#격식체\_비격식체\_3#해라\_인지  
 문06\_3\_6#격식체\_비격식체\_3#해라\_사용  
 문06\_3\_7#격식체\_비격식체\_3#해라\_수용  
 문06\_3\_8#격식체\_비격식체\_3#하게\_인지  
 문06\_3\_9#격식체\_비격식체\_3#하게\_사용  
 문06\_3\_10#격식체\_비격식체\_3#하게\_수용  
 문07\_1#어디\_가니#니\_나\_나  
 문07\_2#어디\_가니#가니\_인지  
 문07\_3#어디\_가니#가니\_사용  
 문07\_4#어디\_가니#가니\_수용  
 문07\_5#어디\_가니#가나\_인지  
 문07\_6#어디\_가니#가나\_사용  
 문07\_7#어디\_가니#가나\_수용  
 문07\_8#어디\_가니#가나\_인지  
 문07\_9#어디\_가니#가나\_사용  
 문07\_10#어디\_가니#가나\_수용  
 문07\_14#어디\_가니#고상한\_어미

#### [담화]

담화와 관련해서는 7문항을 조사하였다. 담화에 대한 조사는 개별 항목의 형태와 ‘인지, 사용, 수용’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담화 부분은 최종적으로 24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담01_1#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감사_고맙	지
담01_2#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합쇼_해요	담02_3#감사합니다에_대한_응답#천만에요_사용
담01_3#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감사_인지	담02_4#감사합니다에_대한_응답#천만에요_수용
담01_4#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감사_사용	담03_1#미안합니다에_대한_응답
담01_5#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감사_수용	담04_1#와_아
담01_6#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고맙_인지	담04_2#와_아#와_인지
담01_7#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고맙_사용	담04_3#와_아#와_사용
담01_8#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고맙_수용	담04_4#와_아#와_수용
담02_1#감사합니다에_대한_응답	담04_5#와_아#아_인지
담02_2#감사합니다에_대한_응답#천만에요_인	담04_6#와_아#아_사용
	담04_7#와_아#아_수용
	담06_2#_것_같아요#같아요_인지
	담06_3#_것_같아요#같아요_사용
	담06_4#_것_같아요#같아요_수용
	담07#마음씨에_대한_응답

#### 4.2.1.3 변인별 분석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본 조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 변인은 연령, 성별, 직업, 학력이다. 따라서 각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변인별 유의미 여부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운]

음운 문항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치로 표시된 것들은 변인별로 유의미하다고 검정된 것들( $p < 0.05$ )의  $p$ 값이다.

문항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음01_1_1#때	0.00	x	0.00	x
음01_2#때	0.00	x	0.00	x
음02#죄	0.00	x	0.00	0.00
음03#죄	0.00	x	0.01	0.01
음04_1#의사	x	x	0.03	x
음04_2#우리의_소원	x	x	x	0.00
음05#어디로	0.03	x	0.02	0.03

음06_1#더럽다#어	x	x	x	x
음06_2#더럽다#음장	0.01	x	x	x
음07_1#외삼촌#외	0.00	x	0.04	0.00
음07_2#외삼촌#촌	0.00	x	0.00	0.03
음07_3#외삼촌#아재	x	x	x	x
음08_1#작다#작	x	x	x	x
음08_2#작다#다	x	x	x	x
음09_1#효과#효	x	x	x	x
음09_2#효과#과_ㄱ	x	x	x	x
음09_3#효과#과_사	x	x	x	x
음10#뭇_잊어	0.01	x	0.02	0.00
음11_1#지팡이#올라우트	0.00	x	0.00	0.00
음11_2#지팡이#비모음화	x	x	x	x
음12_1#말기다#올라우트	0.00	x	0.00	0.02
음12_2#말기다#연구개음화	x	0.05	x	x
음12_3#말기다#경음화	x	x	x	x
음12_4#말기다#연구개음화_중복지음	x	x	x	x
음13#육학년	x	x	x	x
음14_1#밥하고#유기음화	x	x	x	x
음14_2#밥하고#고모음화	0.00	x	0.02	0.01
음14_3#밥하고#하_허	x	x	x	x
음15#원룸	x	x	x	x
음16#잡아라	0.00	x	0.00	0.00
음17#빨어라	x	x	x	x
음18#말다	0.00	x	0.01	0.00
음19#짧다	x	x	x	x
음20_1#퍼다#ㄱ	x	x	x	x
음20_2#퍼다#음장	x	x	x	x
음21#발이	x	x	x	x
음22#꽃이	0.00	0.03	0.00	0.03
음23#값이	x	x	x	x
음24_1#여덟이#ㄹ	x	x	x	x
음24_2#여덟이#ㄱ	x	x	x	x
음25_1#흙이#ㄹ	x	x	x	x
음25_2#흙이#ㅡ	x	x	x	x
음26#일이	x	x	x	x
음27_1#부엌#ㄱ	x	x	x	x
음27_2#부엌#주방	0.01	0.01	0.02	0.02
음28_1_1#말들이_많다#음장	x	x	x	x
음28_1_2#말들이_많다#성조	x	x	0.01	x
음28_2_1#말들이_많다#음장	0.01	x	x	x
음28_2_2#말들이_많다#성조	x	x	x	x

[어휘]

어휘 문항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치로 표시된 것들은 변인별로 유의미하다고 검정된 것들( $p < 0.05$ )의  $p$ 값이다.

문항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어01_1#동무_벗_친구	x	x	x	x
어01_2#동무_벗_친구#동무_인지	x	x	x	x
어01_3#동무_벗_친구#동무_사용	0.01	x	x	0.00
어01_4#동무_벗_친구#동무_수용	x	x	x	0.03
어01_5#동무_벗_친구#벗_인지	x	x	x	x
어01_6#동무_벗_친구#벗_사용	x	x	x	x
어01_7#동무_벗_친구#벗_수용	x	x	x	x
어02_2#식다명절을#식다_인지	x	x	x	x
어02_3#식다명절을#식다_사용	x	x	x	x
어02_4#식다명절을#식다_수용	x	x	x	x
어03_2#서리#서리_인지	x	x	x	x
어03_3#서리#서리_사용	x	0.04	x	x
어03_4#서리#서리_수용	0.04	x	x	x
어03_5#서리#범위_모두_체크	x	x	x	x
어04_1#뜨금없다_느닷없다	0.03	x	0.01	x
어04_2#뜨금없다_느닷없다#뜨금없다_인지	x	x	0.03	x
어04_3#뜨금없다_느닷없다#뜨금없다_사용	x	x	x	x
어04_4#뜨금없다_느닷없다#뜨금없다_수용	x	x	x	x
어04_5#뜨금없다_느닷없다#느닷없다_인지	x	x	0.01	x
어04_6#뜨금없다_느닷없다#느닷없다_사용	x	x	0.04	x
어04_7#뜨금없다_느닷없다#느닷없다_수용	x	x	0.03	x
어05_1#다르다_틀리다	0.00	x	0.04	x
어05_2#다르다_틀리다#다르다_인지	0.01	x	x	0.02
어05_3#다르다_틀리다#다르다_사용	0.03	x	x	x
어05_4#다르다_틀리다#다르다_수용	0.01	x	x	0.02
어05_5#다르다_틀리다#틀리다_인지	x	x	x	x
어05_6#다르다_틀리다#틀리다_사용	0.01	x	x	0.05
어05_7#다르다_틀리다#틀리다_수용	x	x	x	x
어06_1#울갱이	x	x	x	x
어06_2#울갱이#울갱이_인지	x	x	x	x
어06_3#울갱이#울갱이_사용	x	0.02	x	x
어06_4#울갱이#울갱이_수용	x	x	x	x
어06_5#울갱이#다슬기_인지	x	x	x	x
어06_6#울갱이#다슬기_사용	x	x	x	x
어06_7#울갱이#다슬기_수용	x	x	x	0.05
어07_1#부추	0.00	x	0.02	x

어07_2#부추#부추_인지	0.00	x	0.03	0.05
어07_3#부추#부추_사용	0.01	x	0.01	x
어07_4#부추#부추_수용	0.00	x	0.03	0.05
어08_01#비번	0.00	x	0.01	0.00
어08_02#비번#비번_인지	0.00	x	0.00	0.00
어08_03#비번#비번_사용	0.00	x	0.00	0.00
어08_04#비번#비번_수용	0.00	x	0.00	0.00
어09_1#휴대폰_휴대전화	x	x	x	0.00
어09_2#휴대폰_휴대전화#휴대전화_인지	x	x	0.04	x
어09_3#휴대폰_휴대전화#휴대전화_사용	x	x	x	x
어09_4#휴대폰_휴대전화#휴대전화_수용	x	x	x	x
어10_1#왕따_집단따돌림	x	x	x	x
어10_2#왕따_집단따돌림#왕따_인지	0.00	0.01	0.03	0.04
어10_3#왕따_집단따돌림#왕따_사용	0.00	0.02	x	x
어10_4#왕따_집단따돌림#왕따_수용	0.01	0.01	x	x
어10_5#왕따_집단따돌림#집단따돌림_인지	x	x	x	x
어10_6#왕따_집단따돌림#집단따돌림_사용	x	x	x	x
어10_7#왕따_집단따돌림#집단따돌림_수용	x	x	x	x
어11_1#트레이닝북_운동북_추리닝	x	x	x	x
어11_2#트레이닝북_운동북_추리닝#추리닝_인지	x	x	x	x
어11_3#트레이닝북_운동북_추리닝#추리닝_사용	x	x	x	x
어11_4#트레이닝북_운동북_추리닝#추리닝_수용	x	x	x	x
어12_1#소시지	x	x	x	x
어12_2#소시지#소시지_인지	x	x	x	x
어12_3#소시지#소시지_사용	x	x	x	x
어12_4#소시지#소시지_수용	x	x	x	x
어13_1#텔레비전	0.03	x	0.02	0.00
어13_2#텔레비전#텔레비전_인지	x	x	x	x
어13_3#텔레비전#텔레비전_사용	x	x	x	x
어13_4#텔레비전#텔레비전_수용	x	x	x	x
어14_1#단무지_다꾸앙	0.00	x	x	0.01
어14_2#단무지_다꾸앙#단무지_인지	0.00	x	0.02	0.01
어14_3#단무지_다꾸앙#단무지_사용	0.00	x	0.02	0.01
어14_4#단무지_다꾸앙#단무지_수용	0.00	x	0.02	0.01
어14_5#단무지_다꾸앙#다꾸앙_인지	x	x	x	x
어14_6#단무지_다꾸앙#다꾸앙_사용	0.00	x	x	0.01
어14_7#단무지_다꾸앙#다꾸앙_수용	x	0.02	x	x
어15_1#아빠_아버지	0.00	0.02	0.01	x
어15_2#아빠_아버지#아빠_인지	0.00	x	0.05	x
어15_3#아빠_아버지#아빠_사용	0.00	x	0.00	0.01
어15_4#아빠_아버지#아빠_수용	0.00	x	0.05	x

어15_5#아빠_아버지#아버지_인지	0.01	x	0.00	x
어15_6#아빠_아버지#아버지_사용	0.01	0.00	0.02	x
어15_7#아빠_아버지#아버지_수용	0.02	x	x	x
어16_1#엄마_어머니	x	x	x	0.00
어16_2#엄마_어머니#엄마_인지	0.00	x	0.04	0.02
어16_3#엄마_어머니#엄마_사용	0.00	x	0.03	0.00
어16_4#엄마_어머니#엄마_수용	0.00	x	0.04	0.02
어16_5#엄마_어머니#어머니_인지	x	x	x	x
어16_6#엄마_어머니#어머니_사용	x	0.02	x	0.04
어16_7#엄마_어머니#어머니_수용	x	x	x	x
어17_1#형_오빠	x	0.04	x	x
어17_2#형_오빠#형_오빠_인지	0.00	x	x	x
어17_3#형_오빠#형_오빠_사용	0.01	0.01	x	x
어17_4#형_오빠#형_오빠_수용	0.01	0.03	x	0.02
어17_5#형_오빠#선배_인지	x	x	x	x
어17_6#형_오빠#선배_사용	x	x	x	x
어17_7#형_오빠#선배_수용	x	x	x	x
어18_1#여보	0.04	0.03	x	x
어18_2#여보#여보_인지	x	x	x	x
어18_3#여보#여보_사용	x	x	x	x
어18_4#여보#여보_수용	x	x	x	x
어19_1#여보	x	0.02	x	x
어19_2#여보#여보_인지	x	x	x	x
어19_3#여보#여보_사용	x	0.03	x	x
어19_4#여보#여보_수용	x	0.02	x	x
어20_1#아비_아범	0.00	0.01	0.00	0.00
어20_2#아비_아범#아비_아범_인지	0.01	0.05	0.00	0.00
어20_3#아비_아범#아비_아범_사용	0.00	x	0.00	0.01
어20_4#아비_아범#아비_아범_수용	0.00	x	0.00	0.01
어21_1#집사람	x	x	0.00	0.03
어21_2#집사람#집사람_인지	x	x	x	x
어21_3#집사람#집사람_사용	0.05	x	x	x
어21_4#집사람#집사람_수용	x	x	x	x
어21_5#집사람#부인_인지	x	x	x	x
어21_6#집사람#부인_사용	x	x	x	x
어21_7#집사람#부인_수용	x	x	x	x
어22_1#사장님	x	x	0.00	x
어22_2#사장님#사장님_인지	x	x	x	x
어22_3#사장님#사장님_사용	x	x	x	x
어22_4#사장님#사장님_수용	x	x	x	x
어23_1#언니	x	0.03	x	x

어23_2#언니#언니_인지	x	0.00	0.03	x
어23_3#언니#언니_사용	x	0.00	x	x
어23_4#언니#언니_수용	x	0.01	x	x
어24_1#가는_날이_장날	x	x	x	x
어24_2#가는_날이_장날#가는날이장날_인지	x	x	x	x
어24_3#가는_날이_장날#가는날이장날_사용	x	x	x	x
어24_4#가는_날이_장날#가는날이장날_수용	x	x	x	x
어24_5#가는_날이_장날#마트에_적용	x	x	x	x
어25_1#약방에_감초	0.00	x	0.01	x
어25_2#약방에_감초#약방에감초_인지	0.00	x	0.00	x
어25_3#약방에_감초#약방에감초_사용	0.00	x	0.02	x
어25_4#약방에_감초#약방에감초_수용	x	x	x	x
어25_5#약방에_감초#-	x	x	x	x

#### 【문법】

문법 문항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치로 표시된 것들은 변인별로 유의미하다고 검정된 것들( $p < 0.05$ )의  $p$ 값이다.

문항	나이	성별	직업	학력
문01_1#달라고_주라고#보충법_비문법적	x	x	0.00	x
문01_2#달라고_주라고#달라고_인지	x	x	x	x
문01_3#달라고_주라고#달라고_사용	x	x	x	x
문01_4#달라고_주라고#달라고_수용	0.03	x	0.05	x
문01_5#달라고_주라고#주라고_인지	x	x	x	x
문01_6#달라고_주라고#주라고_사용	x	x	x	x
문01_7#달라고_주라고#주라고_수용	x	0.01	x	x
문02_1#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부정_위치	x	x	x	x
문02_2#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안_공부하다_인지	x	x	0.05	x
문02_3#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안_공부하다_사용	x	x	x	x
문02_4#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안_공부하다_수용	x	x	0.00	x
문02_5#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공부_안_하다_인지	x	x	x	x
문02_6#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공부_안_하다_사용	x	x	x	x
문02_7#안_공부하다_공부_안_하다#공부_안_하다_수용	x	x	x	x
문03_1#안_갈아요_갈잖아요_달라요#부정_위치	x	x	x	0.02
문03_2#안_갈아요_갈잖아요_달라요#안_갈아요_억양	0.02	x	x	x
문03_3#안_갈아요_갈잖아요_달라요#갈잖아요_억양	x	x	x	x
문03_4#안_갈아요_갈잖아요_달라요#달라요_억양	x	x	x	x
문03_5#안_갈아요_갈잖아요_달라요#안_갈아요_인지	x	x	x	x
문03_6#안_갈아요_갈잖아요_달라요#안_갈아요_사용	x	x	x	x
문03_7#안_갈아요_갈잖아요_달라요#안_갈아요_수용	x	x	x	x
문03_8#안_갈아요_갈잖아요_달라요#갈잖아요_인지	x	x	0.00	x

문03_9#안_갈아요_갈잡아요_달라요#갈잡아요_사용	x	x	x	x
문03_10#안_갈아요_갈잡아요_달라요#갈잡아요_수용	x	x	x	x
문03_11#안_갈아요_갈잡아요_달라요#달라요_인지	x	x	0.03	x
문03_12#안_갈아요_갈잡아요_달라요#달라요_사용	0.01	x	x	x
문03_13#안_갈아요_갈잡아요_달라요#달라요_수용	x	0.05	x	x
문04_1#석_장	0.00	x	0.00	0.00
문04_2#석_장#석_장_인지	x	x	x	0.03
문04_3#석_장#석_장_사용	0.00	x	0.00	0.00
문04_4#석_장#석_장_수용	x	x	x	0.01
문04_5#석_장#세_장_인지	0.00	x	0.01	0.00
문04_6#석_장#세_장_사용	0.00	x	0.03	0.00
문04_7#석_장#세_장_수용	0.00	x	0.01	0.00
문05_1#삼천_원이세요	x	x	x	x
문05_2#삼천_원이세요#이세요_인지	0.01	x	x	x
문05_3#삼천_원이세요#이세요_사용	x	x	x	x
문05_4#삼천_원이세요#이세요_수용	x	x	x	x
문06_1_1#격식체_비격식체_1#해요_합쇼	x	0.03	0.00	x
문06_1_2#격식체_비격식체_1#해요_인지	x	0.00	x	x
문06_1_3#격식체_비격식체_1#해요_사용	x	0.01	0.00	x
문06_1_4#격식체_비격식체_1#해요_수용	x	0.00	x	x
문06_1_5#격식체_비격식체_1#합쇼_인지	x	x	x	x
문06_1_6#격식체_비격식체_1#합쇼_사용	x	0.01	x	x
문06_1_7#격식체_비격식체_1#합쇼_수용	x	x	x	x
문06_2_1#격식체_비격식체_2#해요_합쇼	x	x	x	x
문06_2_2#격식체_비격식체_2#해요_인지	x	x	x	x
문06_2_3#격식체_비격식체_2#해요_사용	x	x	x	x
문06_2_4#격식체_비격식체_2#해요_수용	x	x	x	x
문06_2_5#격식체_비격식체_2#합쇼_인지	x	x	x	x
문06_2_6#격식체_비격식체_2#합쇼_사용	x	x	x	x
문06_2_7#격식체_비격식체_2#합쇼_수용	x	x	x	x
문06_3_1#격식체_비격식체_3#해_해라_하게	x	x	x	x
문06_3_2#격식체_비격식체_3#해_인지	x	x	x	x
문06_3_3#격식체_비격식체_3#해_사용	x	x	x	x
문06_3_4#격식체_비격식체_3#해_수용	x	x	x	x
문06_3_5#격식체_비격식체_3#해라_인지	x	x	x	x
문06_3_6#격식체_비격식체_3#해라_사용	0.02	x	x	x
문06_3_7#격식체_비격식체_3#해라_수용	x	x	0.00	x
문06_3_8#격식체_비격식체_3#하게_인지	x	x	x	x
문06_3_9#격식체_비격식체_3#하게_사용	x	x	x	x
문06_3_10#격식체_비격식체_3#하게_수용	x	x	x	x
문07_1#어디_가니#니_나_나	x	x	x	x

문07_2#어디_가니#가니_인지	0.01	0.01	0.04	0.05
문07_3#어디_가니#가니_사용	0.02	0.00	0.02	x
문07_4#어디_가니#가니_수용	0.04	0.02	x	x
문07_5#어디_가니#가니_인지	x	x	0.00	x
문07_6#어디_가니#가니_사용	0.03	0.03	0.00	x
문07_7#어디_가니#가니_수용	x	x	0.00	x
문07_8#어디_가니#가니_인지	x	x	x	x
문07_9#어디_가니#가니_사용	x	x	x	x
문07_10#어디_가니#가니_수용	x	x	x	x
문07_14#어디_가니#고상한_어미	x	x	x	x

#### [답화]

답화 문항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치로 표시된 것들은 변인별로 유의미하다고 검정된 것들( $p < 0.05$ )의 p값이다.

문항	나이	성별	직업	학력
답01_1#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감사_고맙	x	x	x	x
답01_2#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합쇼_해요	0.00	x	x	0.04
답01_3#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감사_인지	0.03	x	0.02	x
답01_4#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감사_사용	x	x	x	0.05
답01_5#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감사_수용	0.03	x	0.02	x
답01_6#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고맙_인지	x	x	x	x
답01_7#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고맙_사용	x	x	x	x
답01_8#감사합니다_고맙습니다_감사해요_고마워요#고맙_수용	x	x	x	x
답02_1#감사합니다에_대한_응답	0.01	x	x	x
답02_2#감사합니다에_대한_응답#천만에요_인지	x	x	x	x
답02_3#감사합니다에_대한_응답#천만에요_사용	x	x	x	x
답02_4#감사합니다에_대한_응답#천만에요_수용	x	x	x	x
답03_1#미안합니다에_대한_응답	x	x	x	x
답04_1#와_아	x	x	x	0.01
답04_2#와_아#와_인지	x	x	x	x
답04_3#와_아#와_사용	x	x	x	0.00
답04_4#와_아#와_수용	x	x	x	x
답04_5#와_아#아_인지	x	x	x	0.00
답04_6#와_아#아_사용	0.02	x	x	0.02
답04_7#와_아#아_수용	x	x	x	0.00
답06_2#_것_갈아요#갈아요_인지	0.04	x	0.04	x
답06_3#_것_갈아요#갈아요_사용	0.00	x	0.00	0.03
답06_4#_것_갈아요#갈아요_수용	0.00	x	0.01	x
답07#마음씨에_대한_응답	x	0.00	0.00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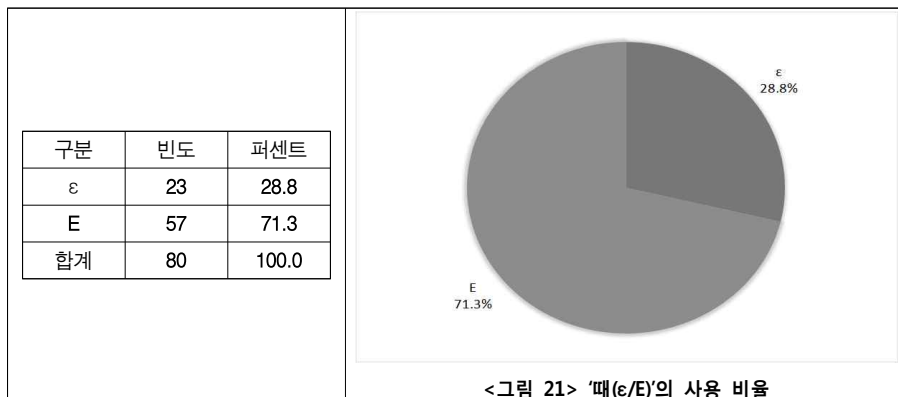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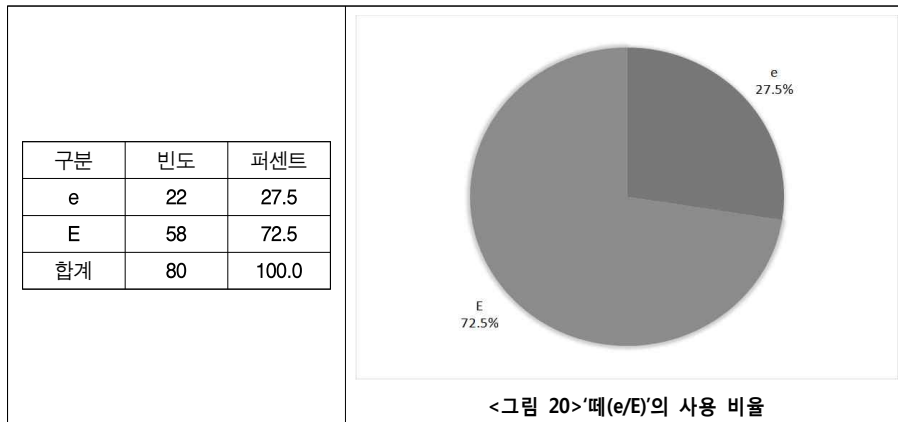
## 4.2.2 상세 분석

### 4.2.2.1 음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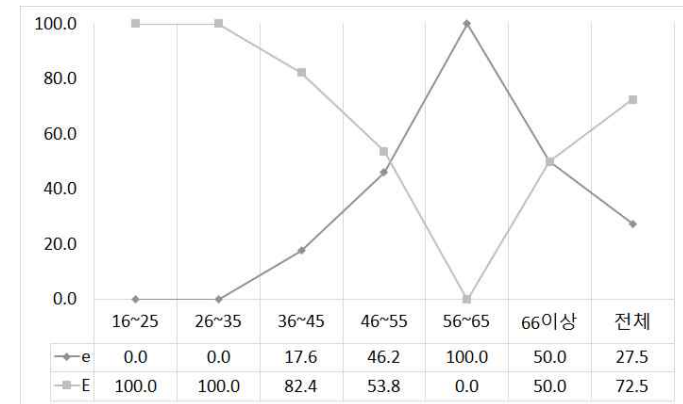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운과 관련해서는 28문항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문항은 음운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9항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주요 항목들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아래에 제시되는 1집단은 16~25세이며, 2집단은 26~35세이다.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도 연령대임을 미리 언급해 둔다.

#### [음01] - 음소대립, ‘e : 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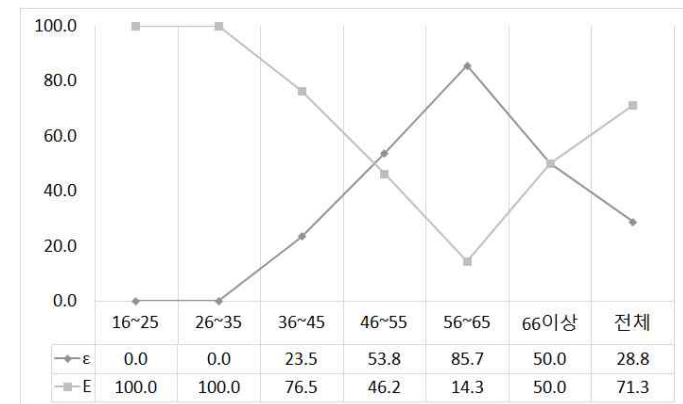
이 항목은 ‘때’와 ‘때’를 각각 ‘e’와 ‘ε’로 발음하는지 중화된 모음으로 발음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이다. 어떤 제보자를 조사하든 모음 목록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 ε, ö, ü 등이 모음목록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그 빈도를 확인해 보자. ‘때(e와 E)’와 ‘때(ε와 E)’ 발음과 관련된 빈도를 차례로 보도록 하자.



위의 <그림 20>,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7.5%만이 모음 e를, 28.8%만이 모음 ε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5집단, 6집단에서 두 모음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을 법하다. 다음 연령 변수 관련 그래프를 보도록 하자.



<그림 22> ‘때(e/E)’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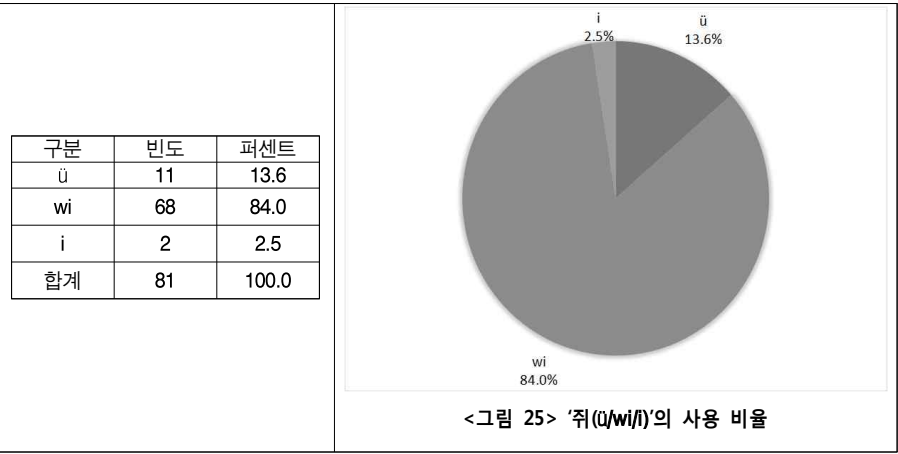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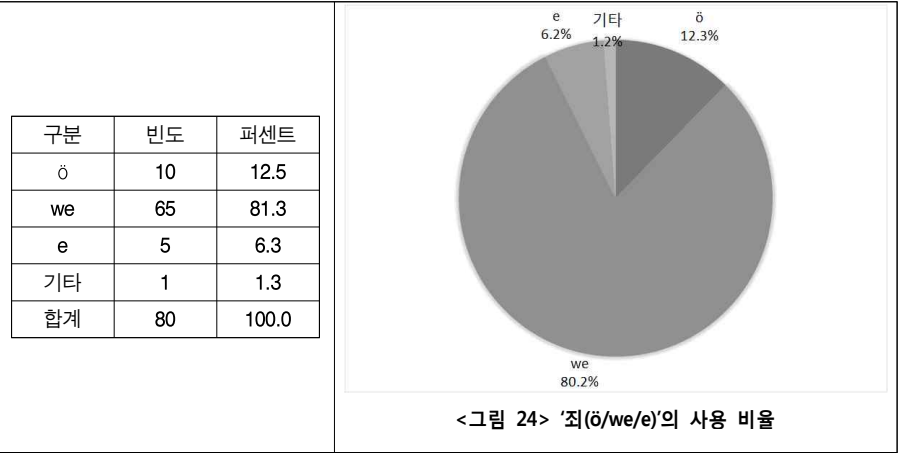


<그림 23> ‘때(ε/E)’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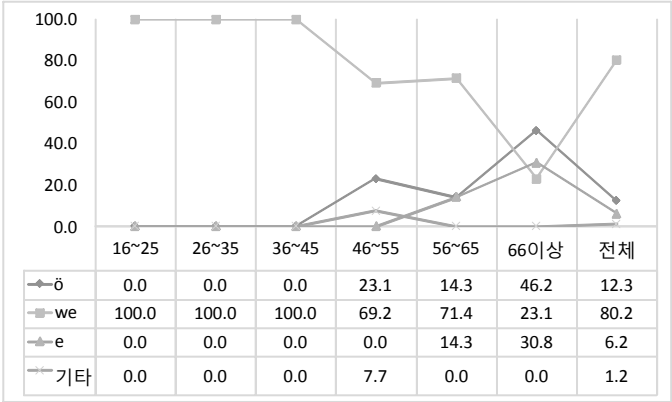
3집단에서 e와 ε의 대립을 인식하는 제보자가 20% 정도임을, 4집단 이후에는 대략 50%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5집단의 문제는 총론에 제시된 바와 같이 더 많은 제보자가 확보되어야 의미 있는 검토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한편 e와 ε가 중화된 E는 모음 e, ε와는 반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보다 많은 제보자를 확보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음02], [음03] - 음소대립, 'ö : 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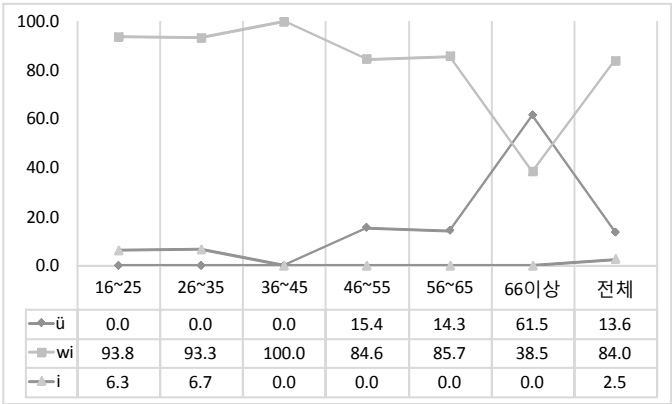
다음은 '죄'와 '취'의 단모음 발음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먼저 빈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죄'와 '취' 모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단모음으로 발화되는 빈도가 13% 내외인바 이는 5집단, 6집단에서 가능한 것이라 알려져 있다. 이제 세대별 그래프를 보도록 하자.



<그림 26> '죄(ö/we/e)'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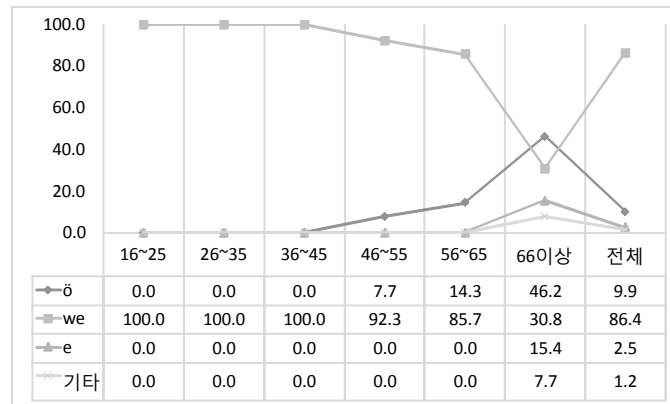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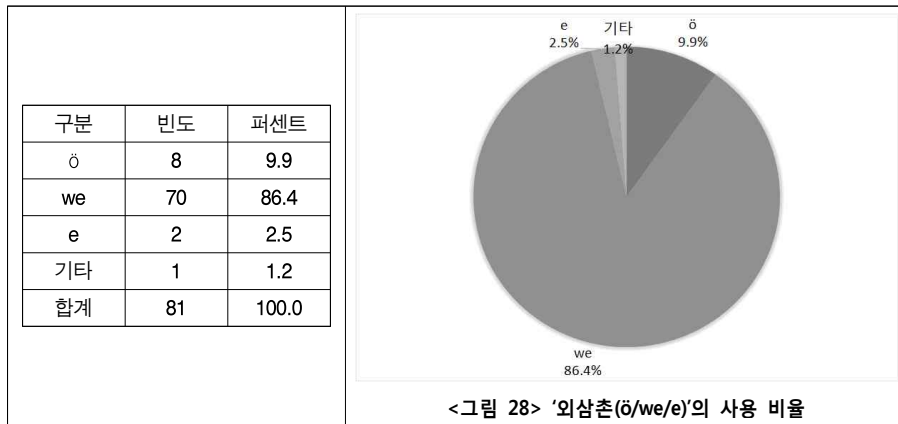


<그림 27> '취(ü/wi/i)'의 연령별 사용 비율

위의 그래프를 보면, e와 ε의 대립은 3집단에서 확인되기 시작하였었는데, 단모음 ö와 ü는 4집단에서부터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6집단에서 단모음으로의 발화가 ö는 50%가 안 되는데 ü의 경우에는 60%를 웃도는 점도 특이하다. 표본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설정성] 자음이 초성인 경우 단모음 ö, ü의 발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도 13%에 머물러 있다. [-설정성] 자음을 초성으로 하는 '피', '귀' 등을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전국적으로 또는 표본을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초성에 자음 없이 모음 ö로 시작하는 항목 ‘외삼촌’에서의 단모음 발음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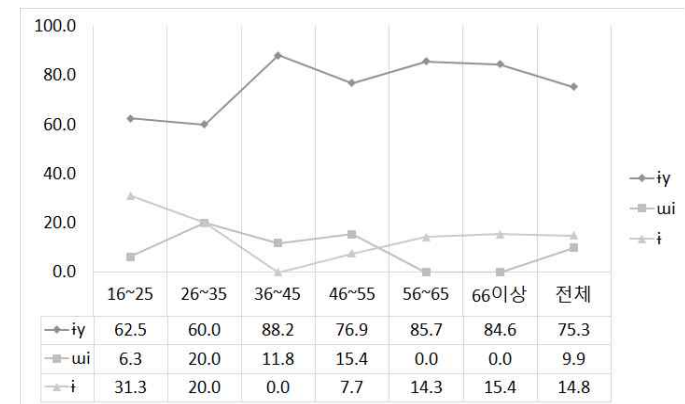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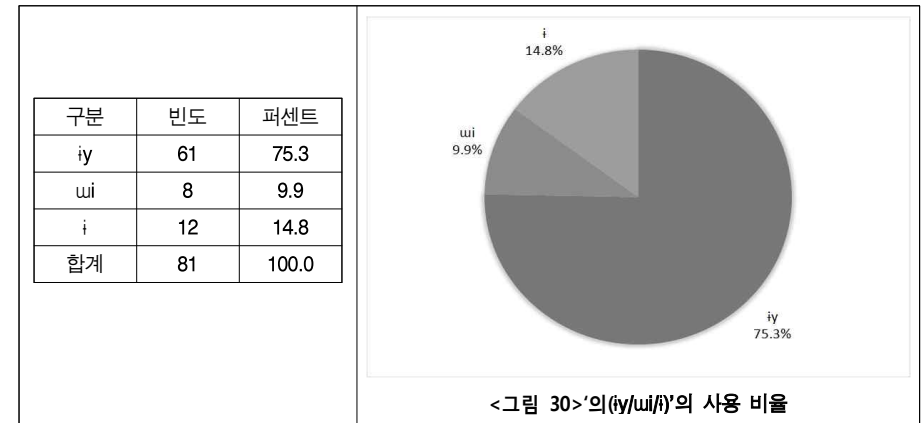


<그림 29> ‘외삼촌(ö/we/e)’의 연령별 사용 비율

앞선 ‘죄’에서와 빈도 측면에서도, 세대별 빈도 측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전체적으로 단모음 ö로의 발화가 더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삼촌’으로의 발화는 남부방언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확대된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음04] - 이중모음, ‘의’ 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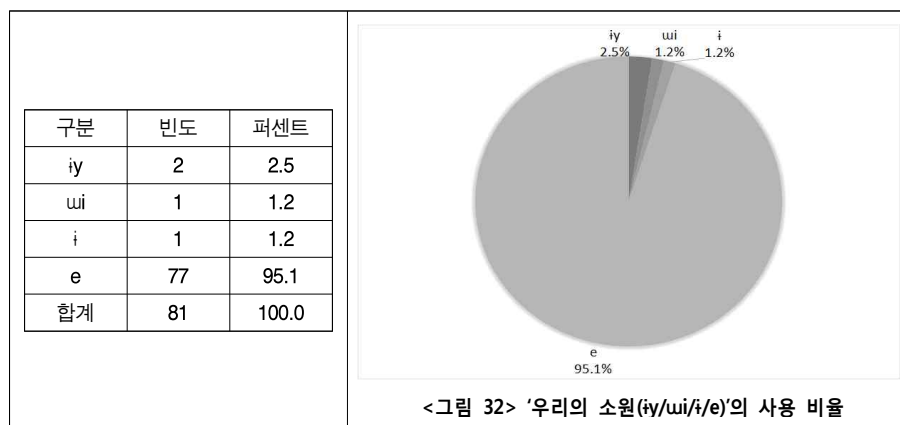
이중모음(iy=wi)으로 발화하는 비율이 85%에 이르고 있다. 반면 ‘으사’라고 발화하는 제보자도 15%에 이르고 있다. 표본을 더 확대하거나 전국적으로 조사가 확대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추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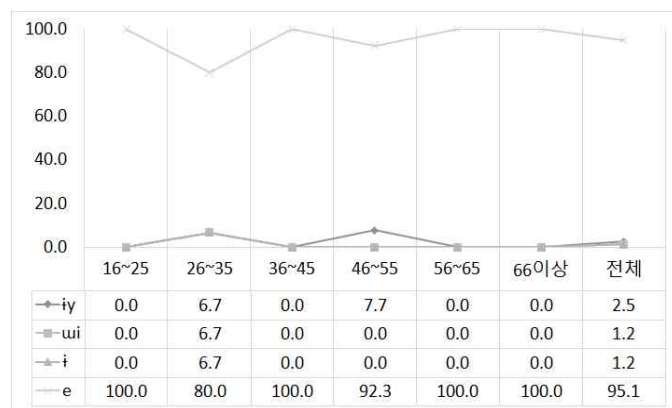
<그림 31> ‘의(iy/wi/i)’의 연령별 사용 비율

세대별로 빈도를 파악해 보자. i 빈도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1집단에서 30%, 나머지 집단에서는 20%를 밑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대체로 ‘의’는 표준발음으로 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의 소원’에서 확인되는 관형격 조사 ‘의’의 발음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우리에’로 발화하는 빈도가 95%로 압도적이다. ‘우리에’로 발화하는 것은 표준발음이기 하나 허용된 발음이다. ‘우리의’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발화하는 표준발음 빈도가 4%에 머물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더 많은 제보자를 확보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세대별 빈도 그래프를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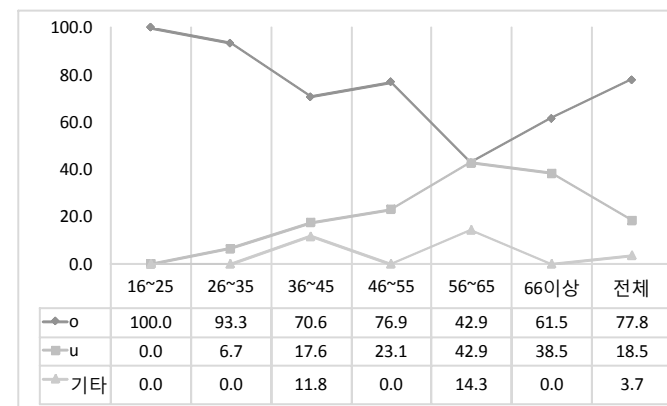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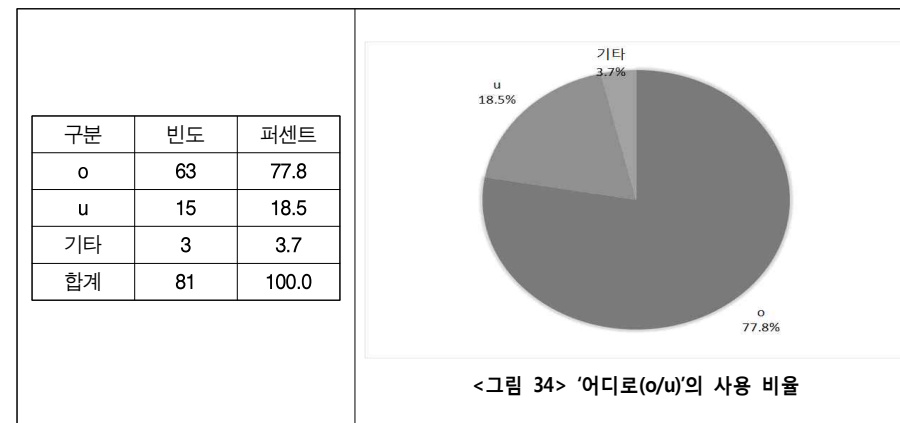


<그림 33> ‘우리의 소원(iy/wi/i/e)’의 연령별 사용 비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대에 걸쳐 ‘우리에’로 발음하는 빈도가 압도적이나 2집단에서는 ‘의’, ‘으’ 다양하게 나타난다. 1명이 ‘우리의’로 발화한 것은 서남방언 화자의 영향으로 이해될 법하다. 부모가 서남방언 화자일 가능성이 높다.

#### [음05] - 고모음화, ‘어디로>어디루’

‘어디로>어디루’와 같은 후설모음에서의 고모음화는 중부방언에서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모음화 빈도는 20% 미만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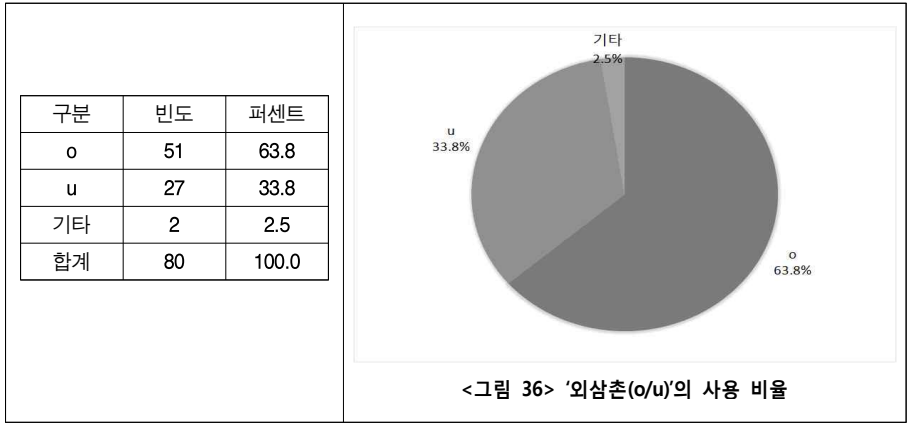


<그림 35> ‘어디로(o/u)’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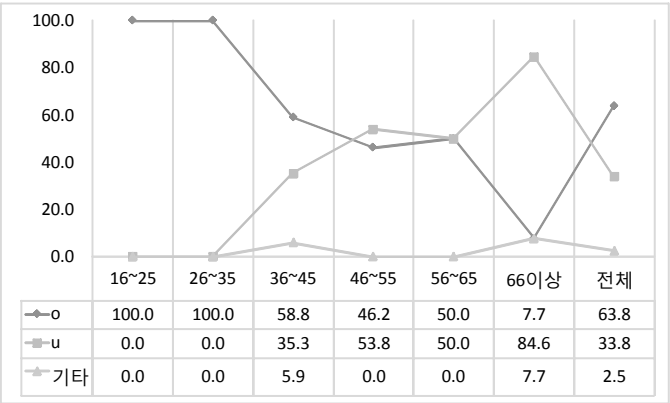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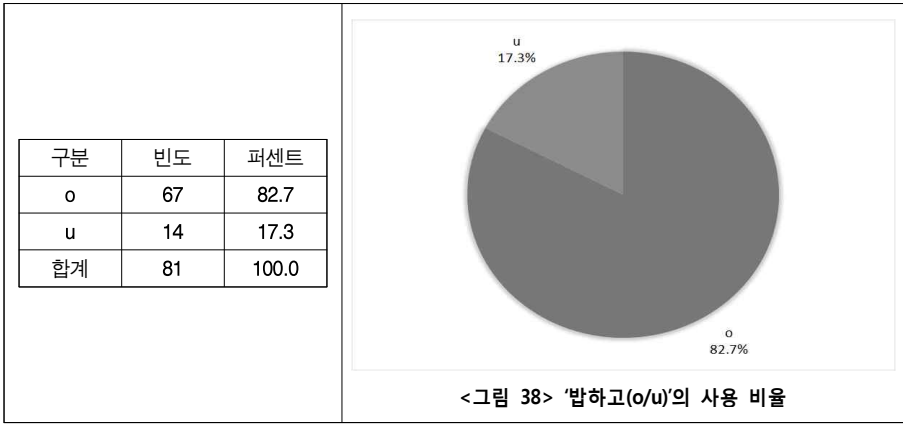
고모음화(어디로>어디루)의 발화가 2집단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3집단, 4집단에서 20% 내외를 보이며, 5집단 이후 4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외삼촌>외삼촌’에서의 고모음화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고모음화 빈도가 33%로 높아진 것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빈도가 높아진 것은 고빈도 단어 ‘삼촌’과도 관련되어 보인다. ‘삼촌’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비고모음화 형태 ‘외삼촌’은 교육의 영향과도 관련시킬 수 있겠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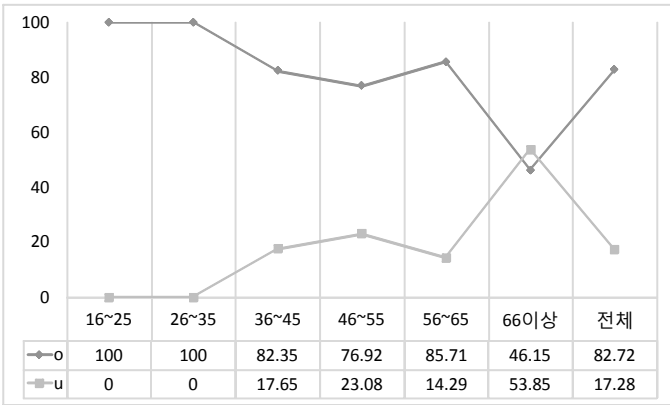


참고로 ‘밥하고>밥허구’의 경우도 제시한다. 고모음화의 발화가 17%에 그친다. 세대별 빈도 그래프를 보면 6집단에서 확연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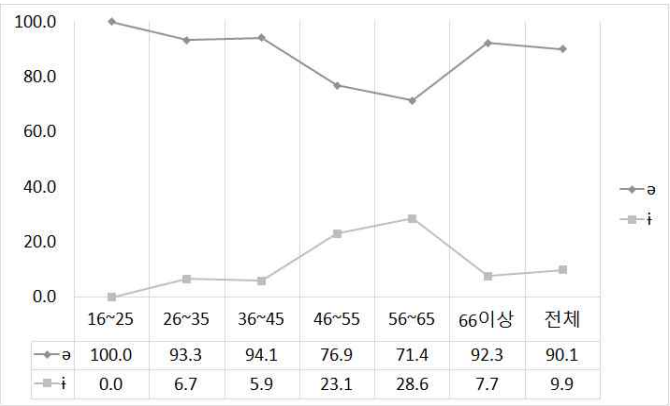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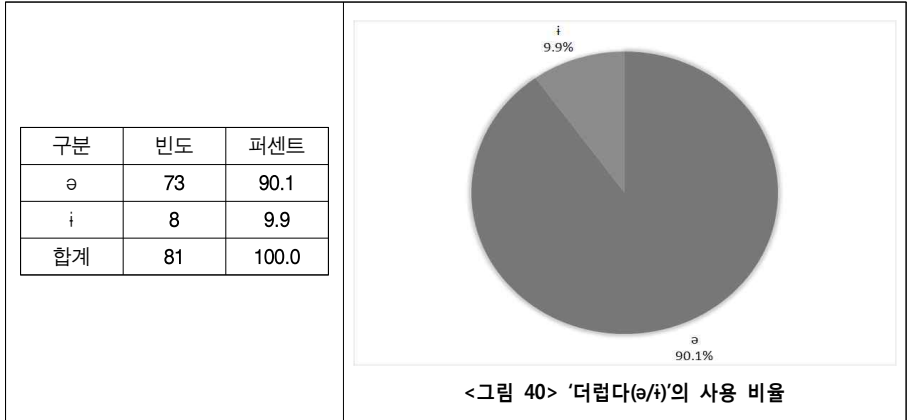
<그림 37> '외삼촌(o/u)'의 연령별 사용 비율

세대별 빈도와 관련하여 1집단, 2집단에서는 ‘외삼촌’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3집단에서 35%를 넘어서서 6그룹에서는 고모음화의 발화가 85%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점에 근거할 때 ‘하나도>하나 두’, ‘학교로>학교루’, ‘말#좁>말좁’, ‘삼촌>삼춘’, ‘사돈>사둔’, ‘골목>골목’, ‘산소>산수’ 등 다양한 항목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에 따라 고모음화가 확연히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해 보자는 의도이다.



<그림 39> '밥하고(o/u)'의 사용 비율

한편, 고모음화 ‘어>으’ 도 확인된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두가 장음인 ‘ㅑ:’ 의 경우이다. ‘더럽다>드럽다’ 에서 고모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나 ‘드럽다’ 로의 발화가 1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본격적인 사회 방언 조사에서는 표본의 수를 대폭 확대하여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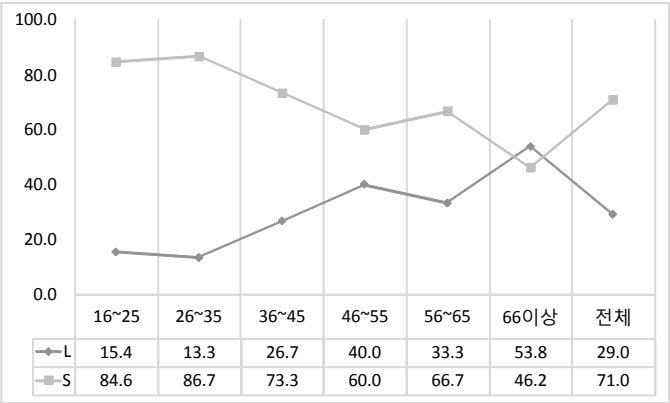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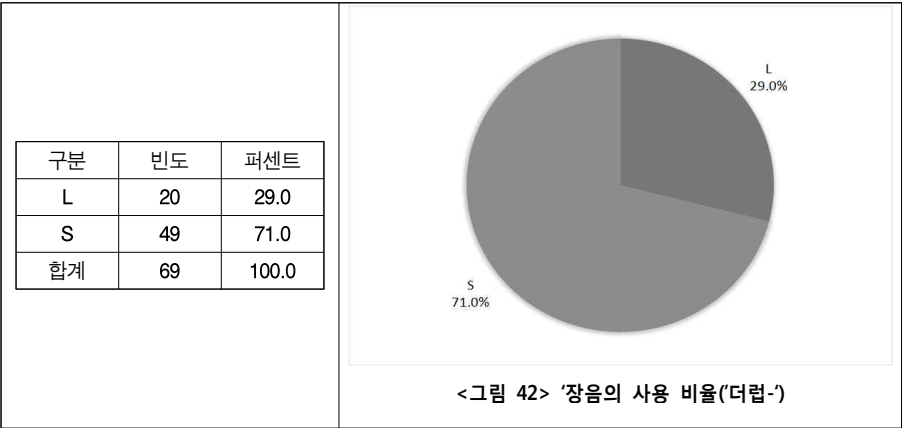


<그림 41> ‘더럽다(ə/i)’의 연령별 사용 비율

세대별 빈도수 그래프를 볼 때 4집단, 5집단에서 20%대에 걸쳐 고모음화형 ‘드럽다’ 가 확인된다. 의미를 찾기 어렵다. 표본이 더 필요하다.

[음06] - 음장, ‘더럽-’, ‘말(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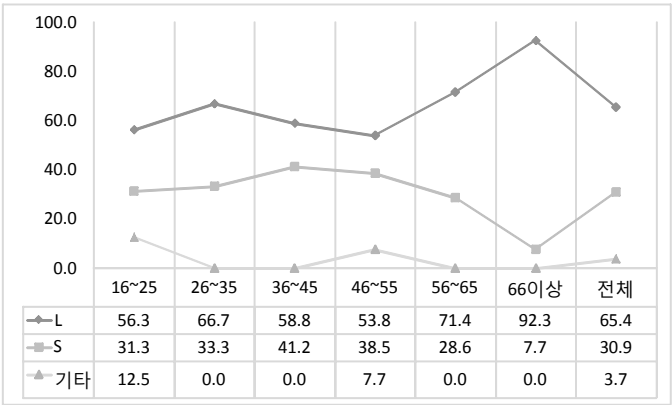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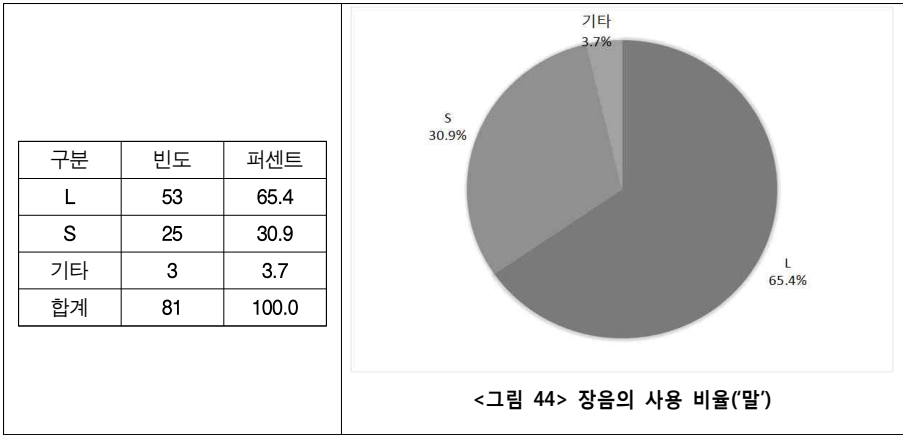
장음이 소멸해 간다고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 몇 개 있다. 우선 ‘더럽-’ 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아래 도표를 통해 볼 때 ‘더럽-’ 에서 어두 장음의 빈도는 30%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 장음의 연령별 사용 비율(더럽-)

1집단, 2집단에서 단음으로의 발화가 예상되는바 세대별 빈도 그래프를 참조하면 3집단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4집단에서 40%를 넘어섬을 알 수 있다. 마지막 6집단에서 50%를 넘어섬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말(語)’은 장음으로 발화되고 인식되는 빈도가 6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6집단에서 장음으로의 발화 및 인식은 90%를 웃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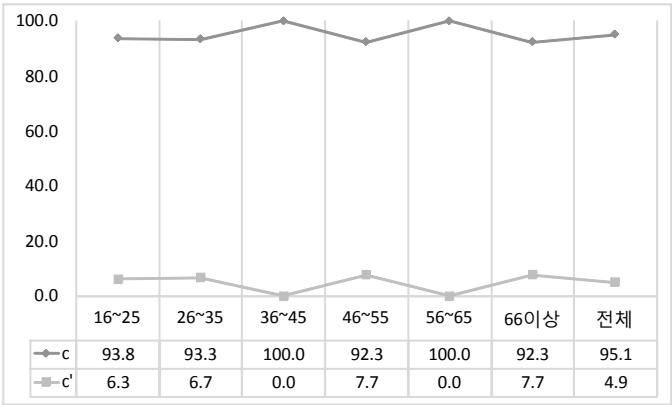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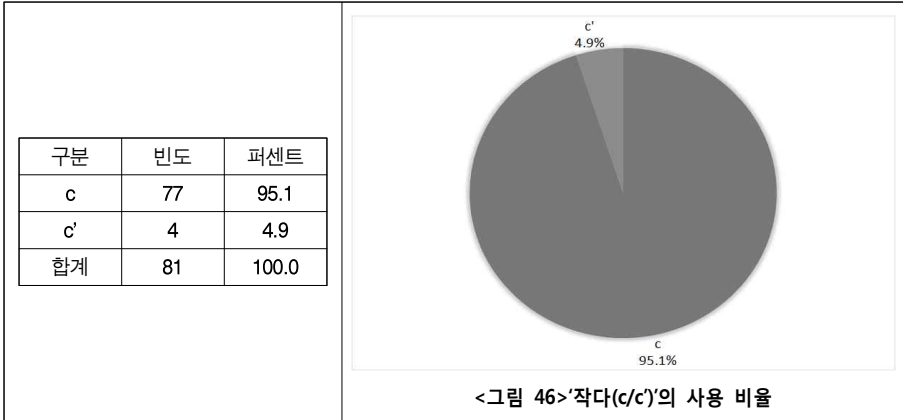


<그림 45> 장음의 연령별 사용 비율('말')

위의 표를 보면 앞선 ‘더립-’에서의 장음 실현 양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과 ‘더립-’에서 장음으로의 빈도가 확연히 다른 이유는 대립쌍 유무에 따른 조사항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말(語)’의 경우 ‘말(馬)’과의 대립쌍을 상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장음으로의 빈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대립쌍이 있으면 인식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음08] - 어두경음화, ‘작다: 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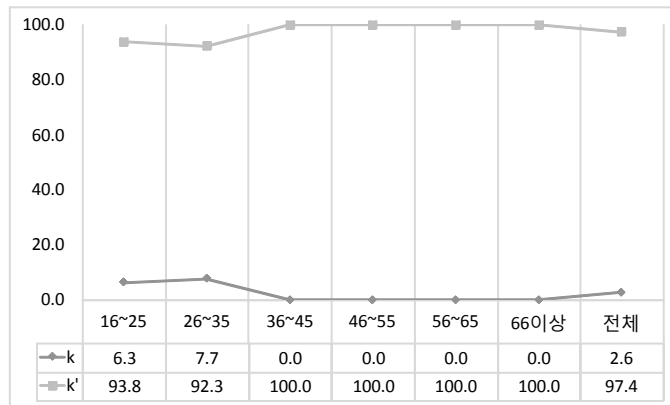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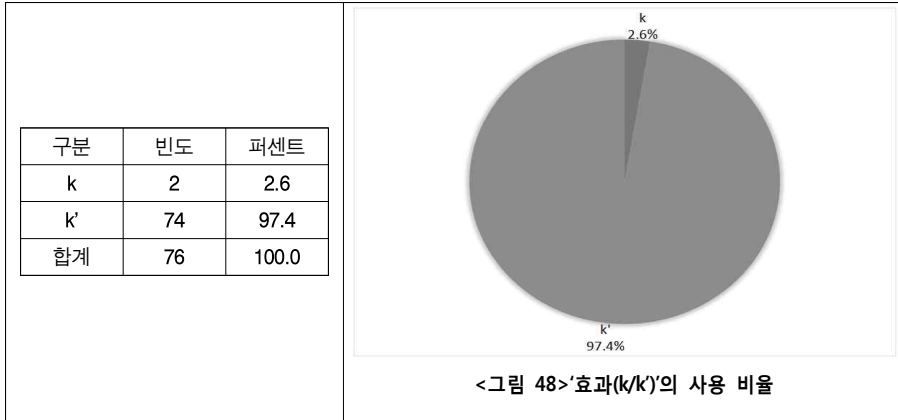
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어두경음화가 활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 항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예상과 달리 어두경음화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적인 조사에서는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별 빈도 그래프에서도 1집단, 2집단, 6집단 제보자에게서 어두경음화가 확인되기는 하나 의미 있는 통계치라 볼 수 없다. 더 많은 표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 양상을 참고로 제시해 둔다.



<그림 47> ‘작다(c/c’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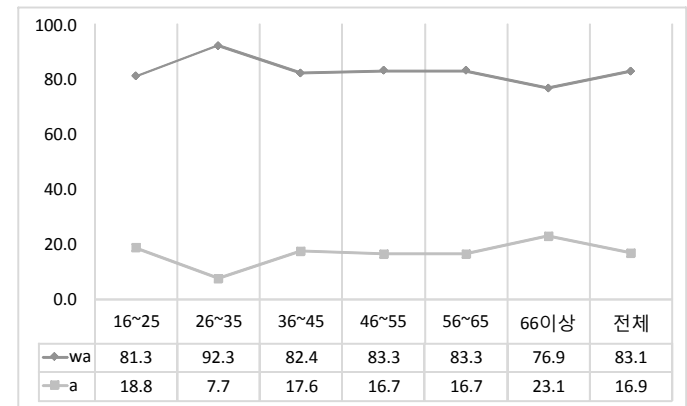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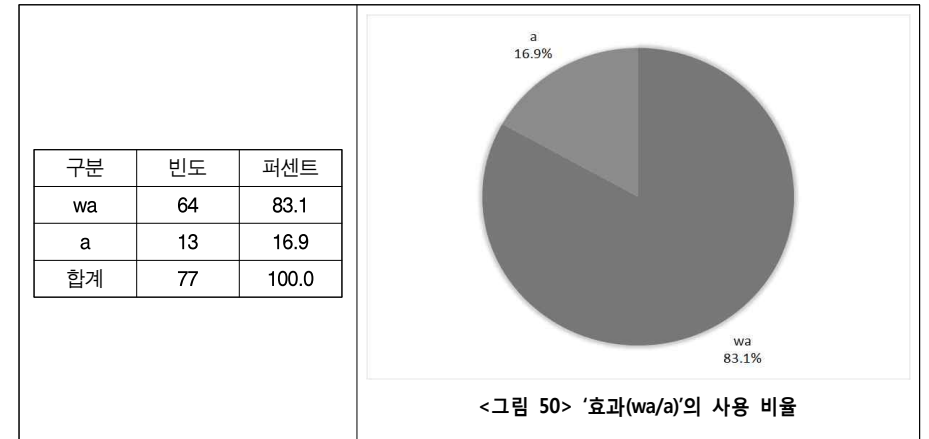
**[음09] - 경음화와 비어두 이중모음 발음, ‘효과’**

‘효과’의 비어두에서 경음으로 발화되느냐 평음으로 발화되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다. 교육의 영향으로 ‘효과’가 아닌 ‘효과’로 발음되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평음으로 발화하는 빈도는 의외로 낮았다. 세대별 빈도 그래프에서도 1집단, 2집단에서 ‘효과’로 발음하는 제보자가 있지만,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보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 양상을 아래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그림 49> ‘효과(k/k’)의 연령별 사용 비율

한편, 어두의 이중모음 yo는 전반적으로 잘 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비어두에서의 이중모음 발음 양상을 확인하기로 한다. ‘효과’로 발음하느냐 ‘효과’로 발음하느냐의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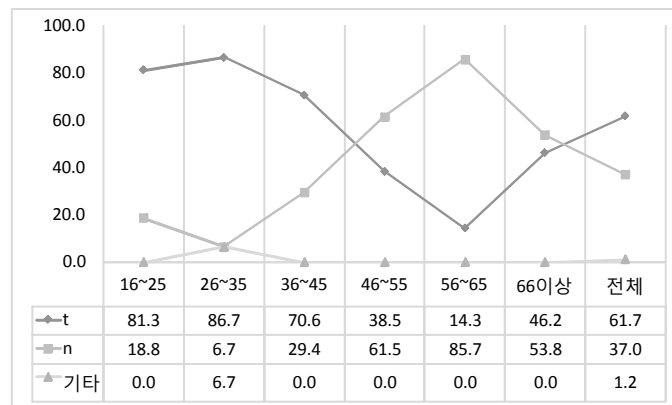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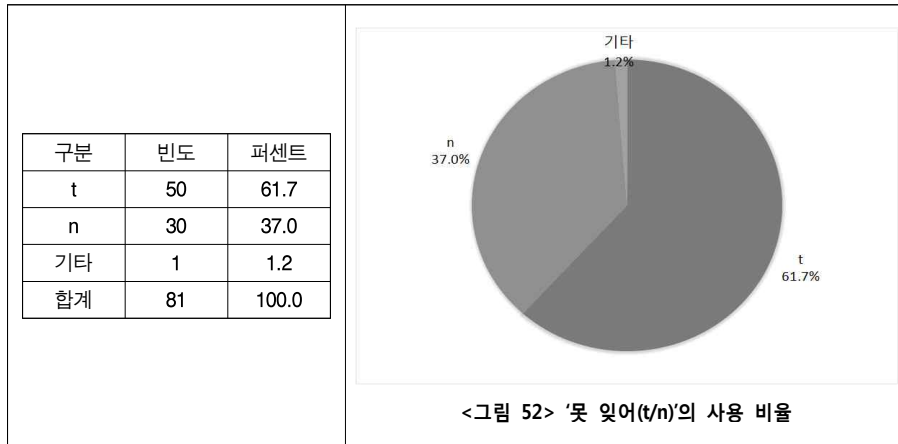
<그림 51> ‘효과(wa/a)’의 연령별 사용 비율

위 도표를 볼 때 17%가 이중모음 발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세대별로는 6집단이 가장 유효적이거나 세대별로 20% 내외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10] - ㄴ 첨가, ‘못 잊어’**

‘못 잊어’를 통해 ㄴ 첨가 현상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의외로 ㄴ 첨가형의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ㄴ 첨가형이 37%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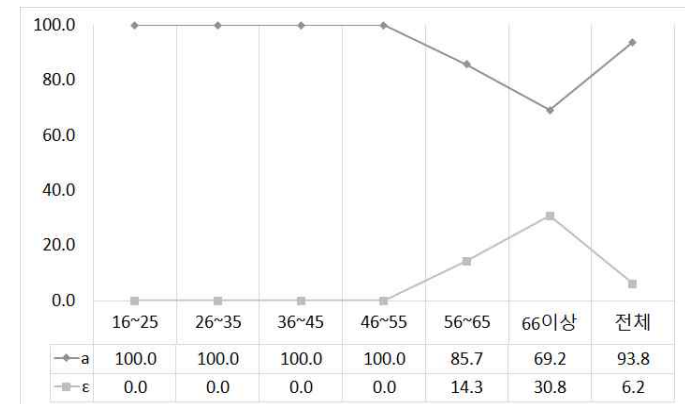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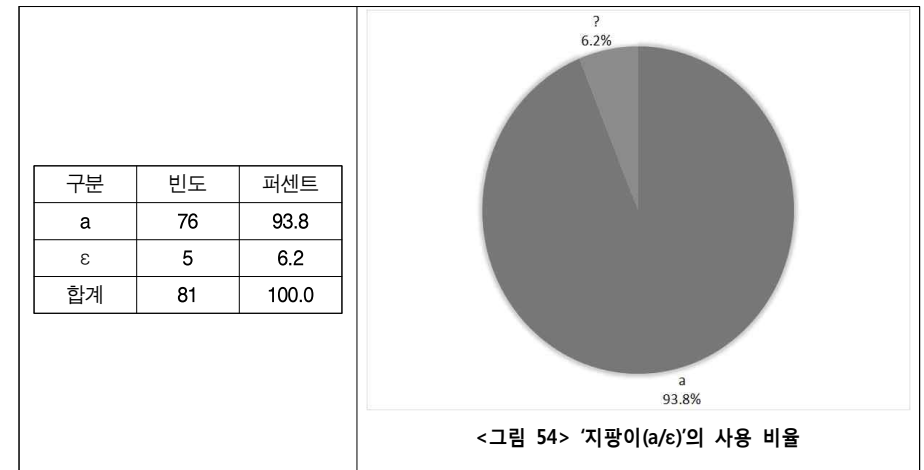


<그림 53> ‘못 잊어(t/n)’의 연령별 사용 비율

세대별 빈도 그래프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1집단에서는 ㄴ 첨가형이 20% 정도의 빈도로 나타난다면, 4집단 이상에서는 60%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마 40대를 기점으로 명확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항목일 수 있겠다. ‘웃 입고’, ‘못 일어나’와 같은 항목이 더 확보된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음11], [음12] - 올라우트, ‘지팡이’, ‘말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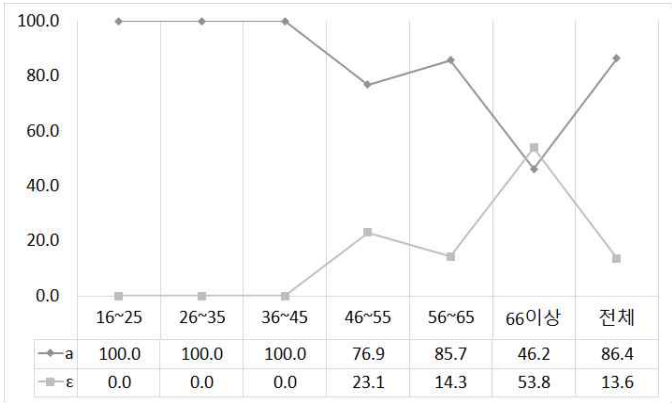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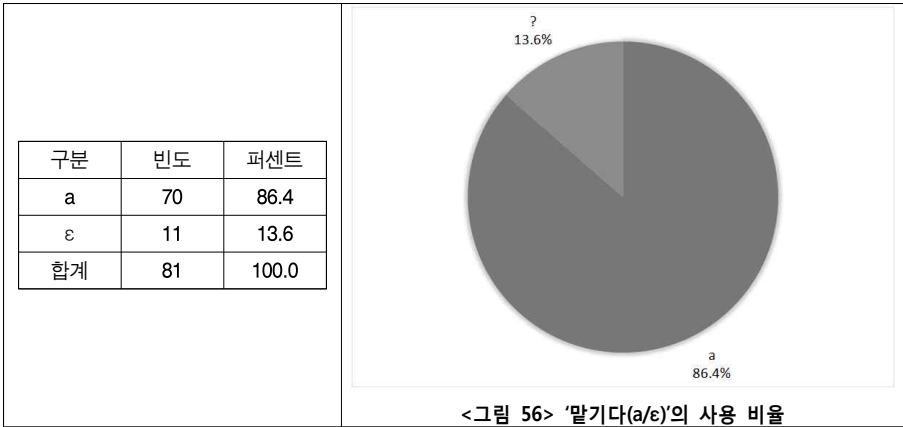
젊은층에서는 올라우트형이 많이 사라졌지만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올라우트형은 간간히 확인되기도 한다. 5집단, 6집단과 대비해 볼 수 있겠다.



<그림 55> ‘지팡이(a/ε)’의 연령별 사용 비율

위 표를 볼 때, 의외로 올라우트형 ‘지팡이’의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6%는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수치이다. 다만 5집단에서부터 유효적임을 알 수 있다. 여전히 6집단에서 올라우트형의 발화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30%).

‘말기다’ 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움라우트형 빈도가 항목 ‘지팡이’ 에 비해 14%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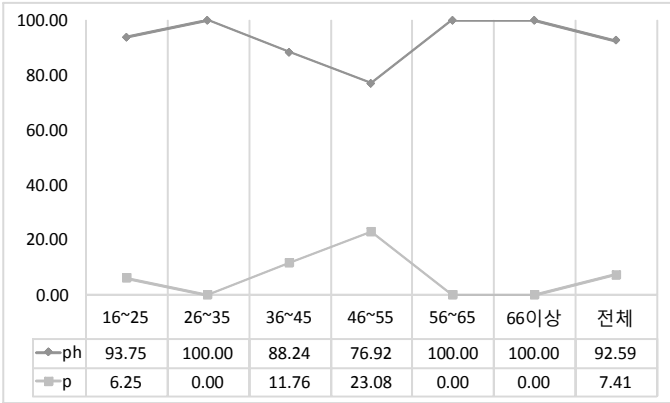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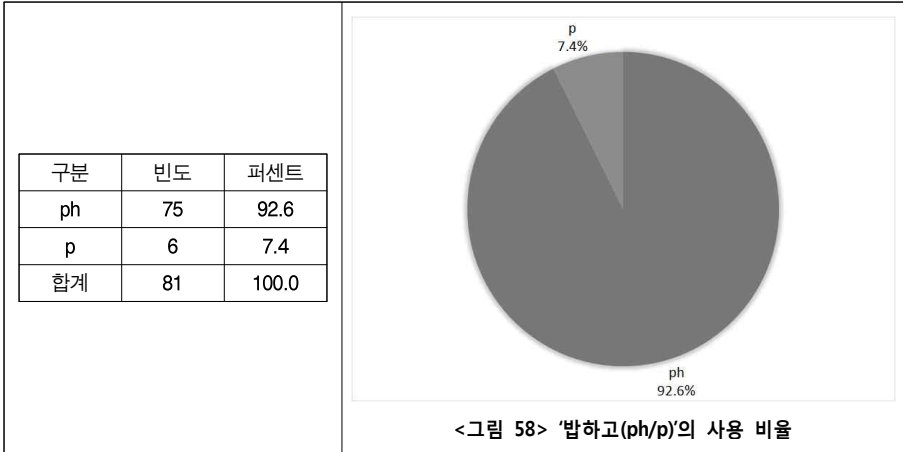


<그림 57> ‘말기다(a/ε)’의 연령별 사용 비율

세대별로 파악해 볼 때 4집단에서 20%, 6집단에서는 50%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팡이’ 에 비해서는 움라우트형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매체의 영향인지 더 많은 항목과 제보자를 통한 조사가 요청된다.

[음13], [음14] -유기음화, ‘육학년’, ‘밥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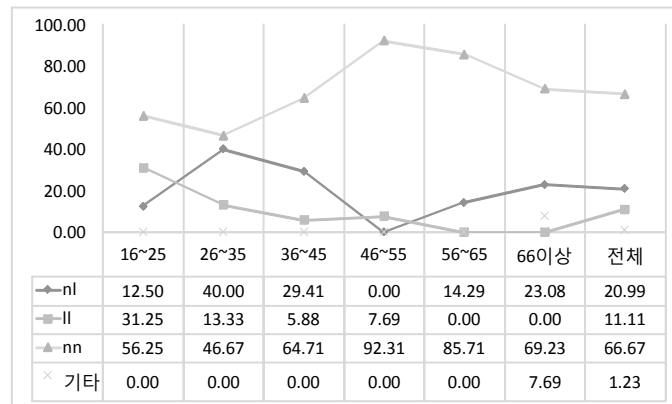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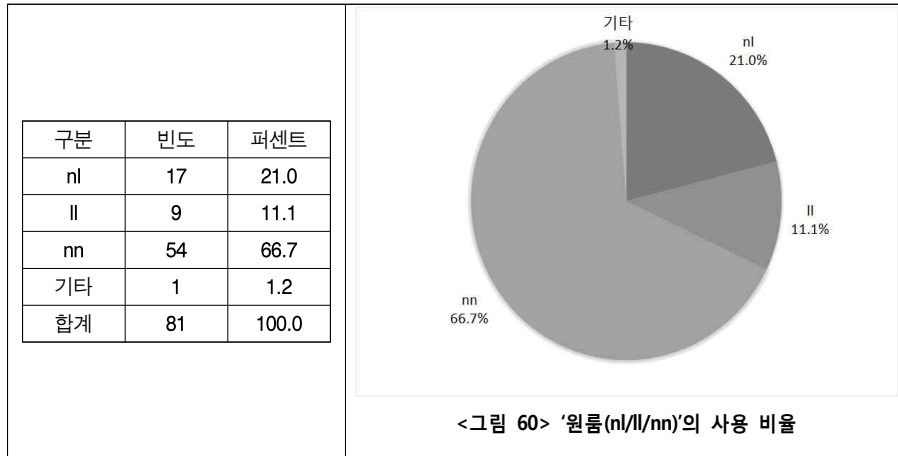
‘육학년’ 에서의 유기음화형이 100%이다. 이는 전국적인 조사에서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듯하다. 접속 조사 ‘하고’ 가 포함된 ‘밥하고’ 에서도 그 양상은 대동소이하다. 유기음화형 ‘바과고’ 로 발화되는 빈도가 90%를 넘어선다. 세대별 빈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림 59> ‘밥하고(ph/p)’의 연령별 사용 비율

[음15] - 유음화, ‘원름’

‘원름’ ‘온라인’ , ‘신라면’ 등은 유음화형과 치조비음화형이 공존한다. 여기에서는 ‘원름’ 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원름’ 은 치조비음화형 ‘원눔’ 으로 발화되는 빈도가 지배적이다(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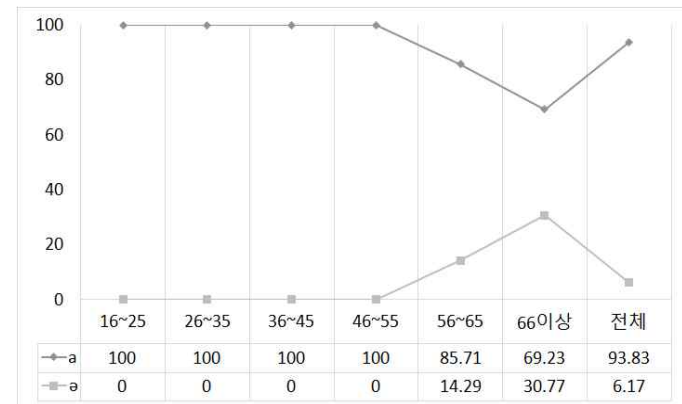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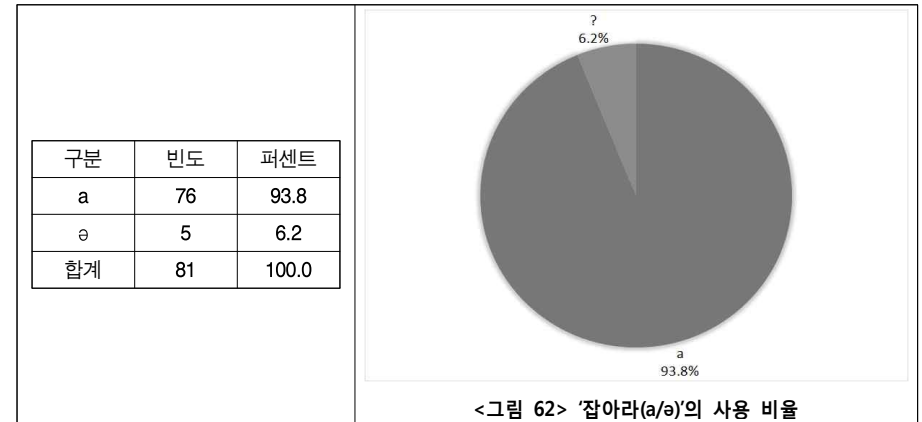


<그림 61> ‘원름(nl/ll/nn)’의 연령별 사용 비율

세대별로 파악해 볼 때 1집단에서는 유음화형 ‘원름’ 이 33%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nl 발화 빈도는 2집단에서 높아지나 6집단에서도 20%대에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재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또 범위를 넓혀서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음16], [음17] - 모음조화, ‘잡아라’, ‘뱌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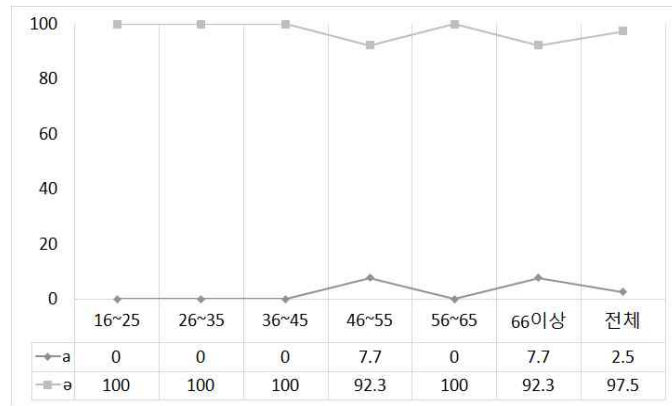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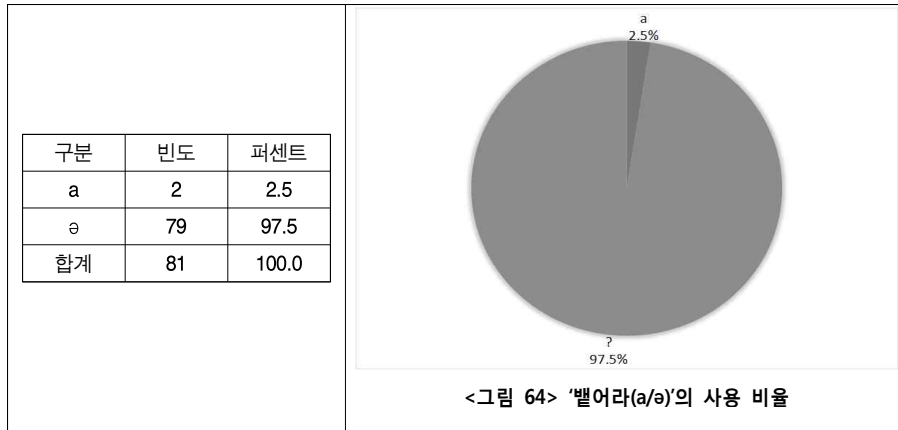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중부 방언에서 ‘-아라’ 는 ‘-어라’ 로 변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잡어라’ 형태가 6%에 그친다는 것은 예상과 달랐다.



<그림 63> ‘잡아라(a/ə)’의 연령별 사용 비율

위 세대별 빈도그래프를 볼 때 ‘잡어라’ 가 5집단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6집단에서 3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잡아라’ 라 발화하는 나머지 집단이 5집단, 6집단과 대비되는 것은 교육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겠다. 또는 의식적인 조사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보다 정밀하면서도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뱌어라’ 에 대해 검토해 보자. ‘잡어라’ 가 거의 확인되지 않으므로 ‘뱌아라’ 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사실 ‘뱌어라’ 는 ‘뱌아라’ 로도 나타남직하나 극소수의 제보자만이 선택하였다. 세대별 빈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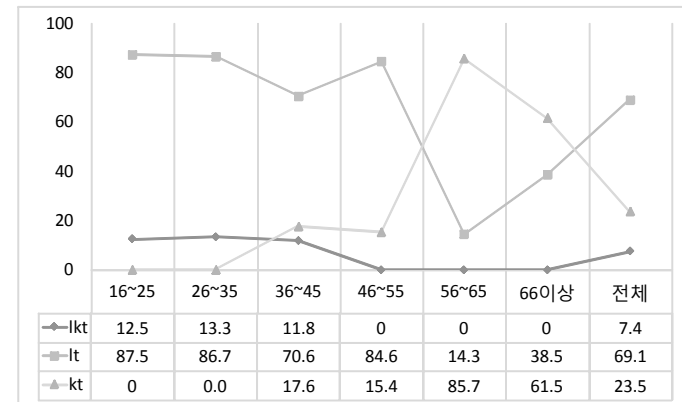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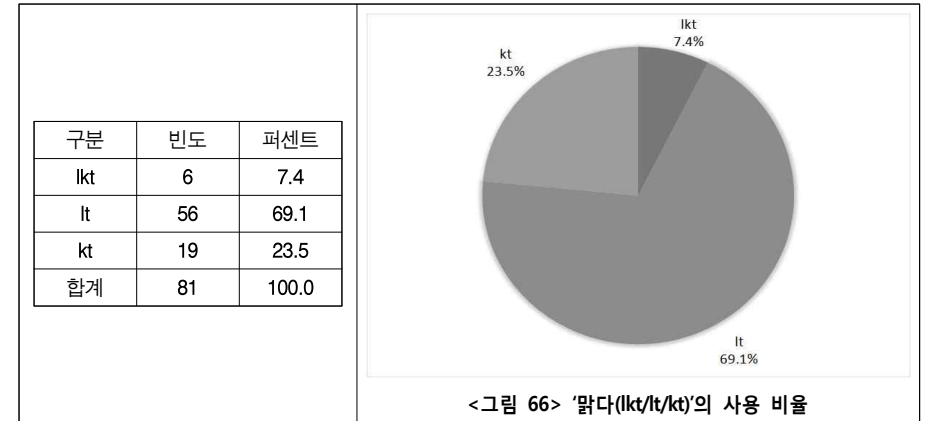
판단된다. 큰 의미는 없지만 참고로 도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그림 65> '벨어라(a/ə)'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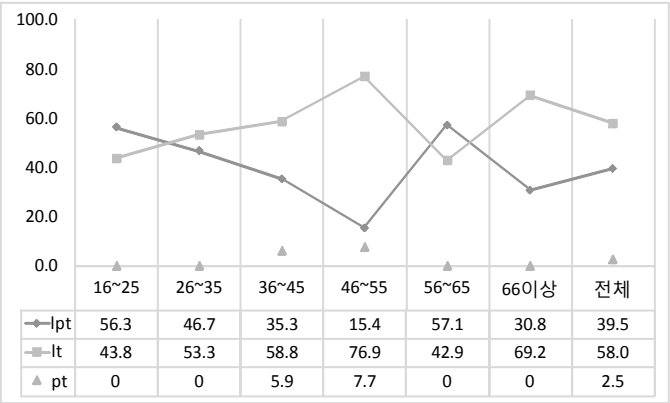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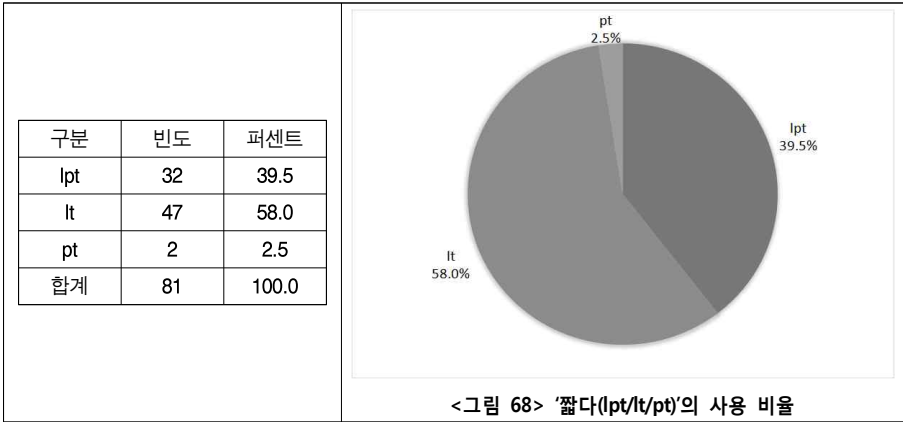
#### [음18] - 자음군단순화, '말따', '짧다'

전체적으로 비표준발음 '말따' 빈도가 70%에 이르고 있다. 표준발음과 거리가 먼 발화이다. 4집단 이전까지는 '말따'가 압도적이나 5집단 이후는 표준발음 '막따' 빈도가 60%를 넘어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7> '말따(lkt/lt/kt)'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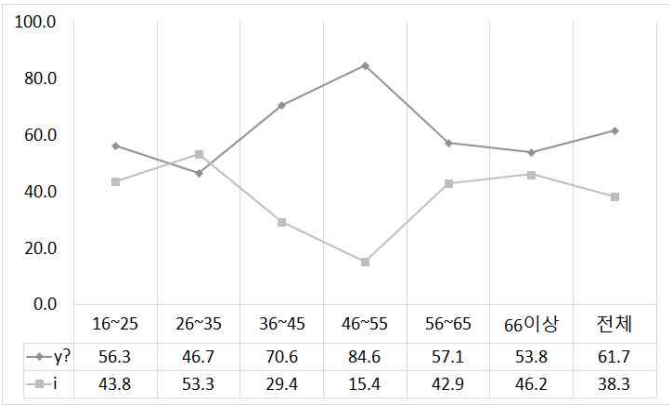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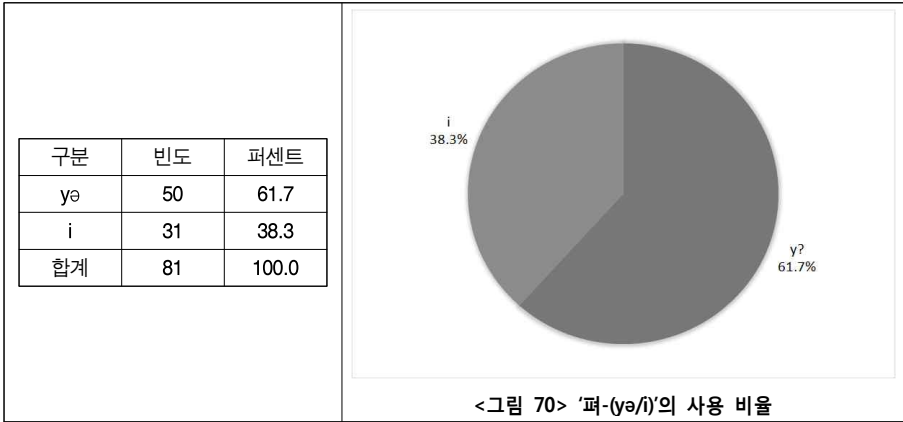
‘짧다’에서의 자음군단순화는 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노년층에서도 lpt로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 그래도 4집단 이후 표준발음 ‘짧따’가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다만 ‘짧다’형은 서남방언 화자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래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9> ‘짧다(lpt/lt/pt)’의 연령별 사용 비율

[음20] - 용언 어간의 재구조화, ‘퍼->피-’

전체적으로 ‘피-’가 60%를 웃돌고 있다. 3집단, 4집단에서 ‘퍼-’의 빈도가 지배적이나 나머지 집단에서는 ‘피-’의 빈도도 40%를 상회하고 있다. 아래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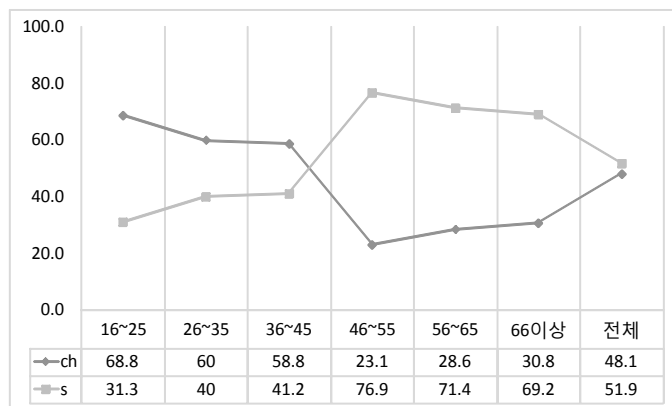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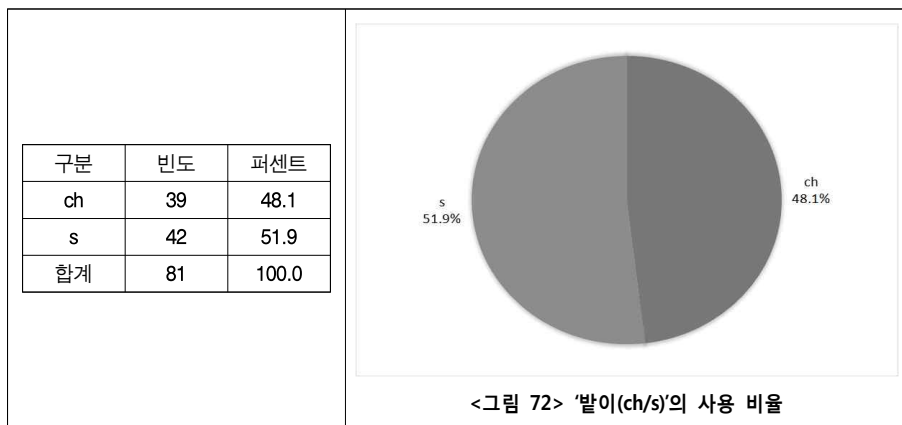


<그림 71> ‘퍼-(yə/i)’의 연령별 사용 비율

사실은 더 많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켜-’를 포함한 더 많은 항목의 조사가 필요하며 전국적인 조사(더 많은 제보자를 통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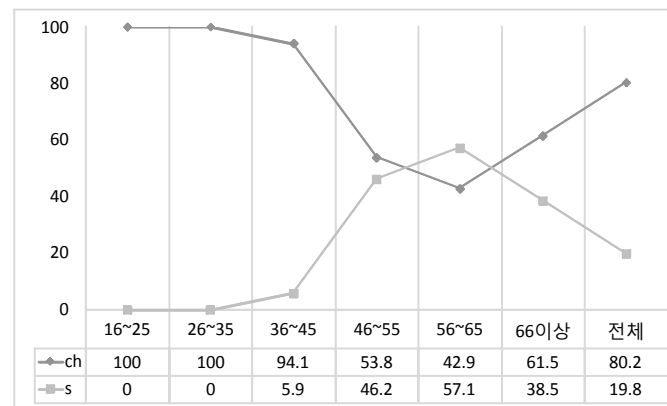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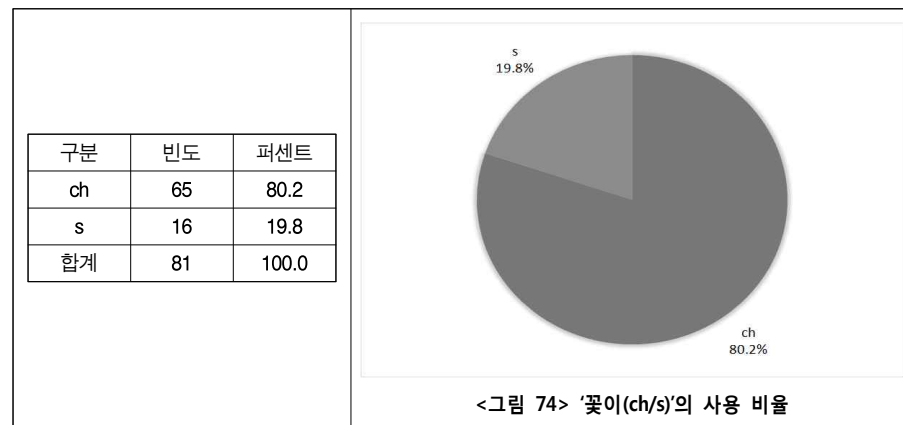
**[음21], [음22] - 마찰음화, ‘발+이’, ‘꽃+이’**

‘발+이’와 ‘꽃+이’의 발음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넓게는 재구조화와 관련된 항목이다. 먼저 ‘바치’와 ‘바시’의 빈도가 백중세를 보이고 있음을 아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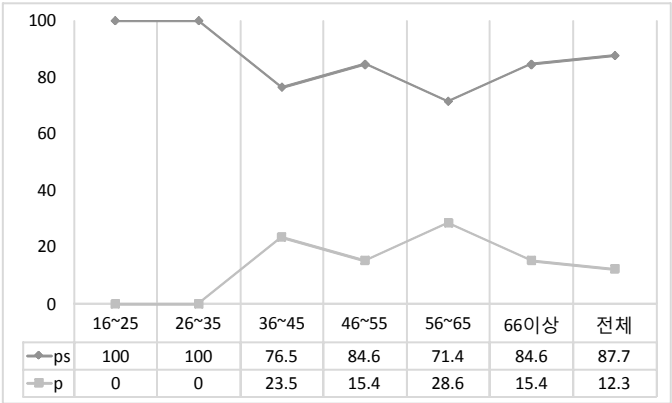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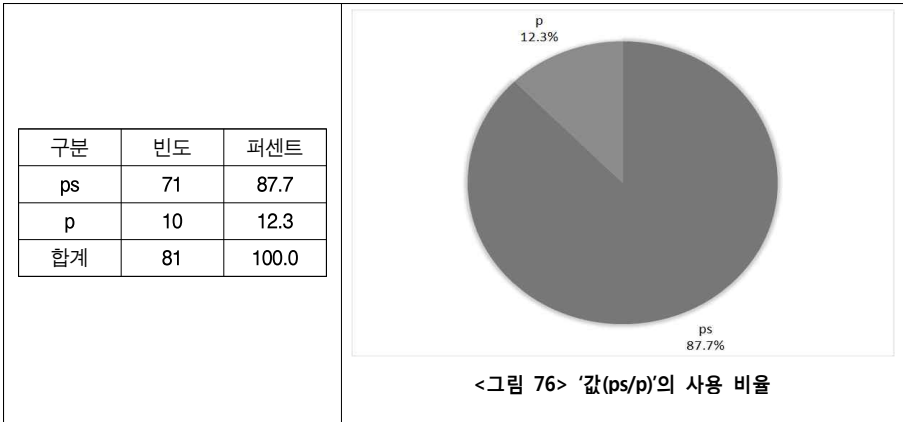
세대별 빈도 그래프에서는 3집단까지 표준발음의 영향인지 ‘바치’형의 빈도가 70%에 이르고 있으나 4집단부터 역전이 되어 ‘바시’형 빈도가 70% 내외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부지방 이외의 다른 지역은 오히려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바시’로의 발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전국적인 조사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표기 ‘꽃+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꼬시’로의 발화가 ‘발이’에 비해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달랐다. ‘꼬치’형이 80%로 압도적임을 아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꼬치’형이 3집단까지 압도적이다. 표준발음 내지는 교육의 영향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4집단부터 ‘꼬시’로의 발화가 50% 내외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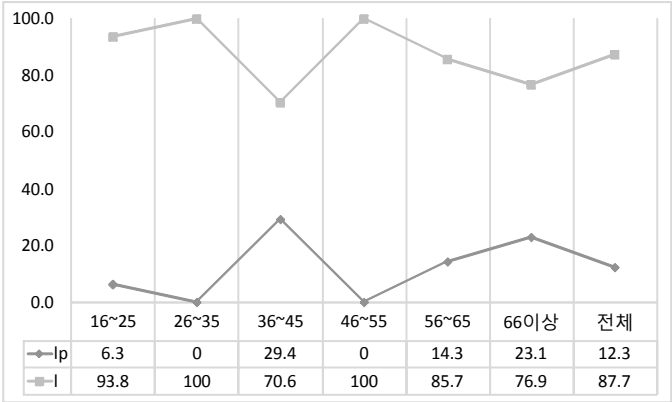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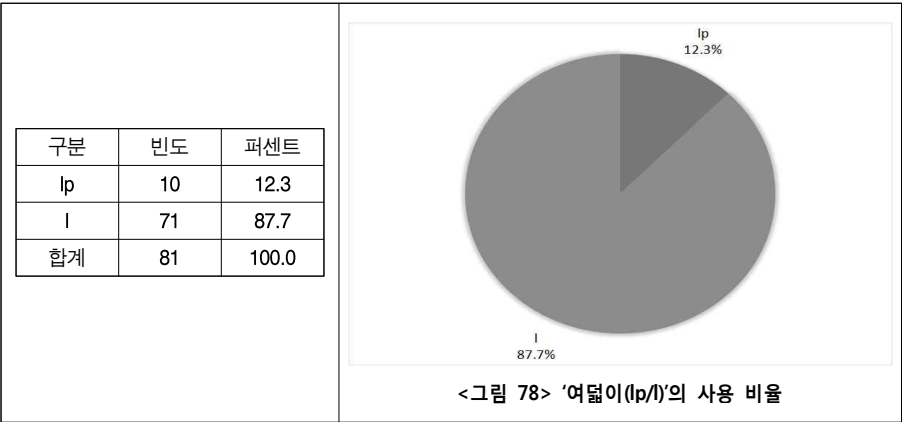
[음23], [음24], [음25] - 곡용어간의 재구조화, ‘값’, ‘여덟’, ‘흙’  
 ‘값>갑’, ‘여덟>여덜’, ‘흙>혹’ 등으로의 재구조화를 확인해 보기 위한 항목이다. 먼저 ‘값’에 대해 확인해 보자.



<그림 77> ‘값(ps/p)’의 연령별 사용 비율

표준발음 ‘갑시’의 빈도가 압도적이다. 다만 ‘가비’는 10%를 상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세대별로는 3집단부터 20% 내외로 ‘갑’ 형이 확인되고 있다. ‘술값’과 같은 비어두에서는 ‘술가비’와 같은 형태가 확인되기 쉽다. 비어두가 아닌 ‘값’에서의 ‘갑’으로의 재구조화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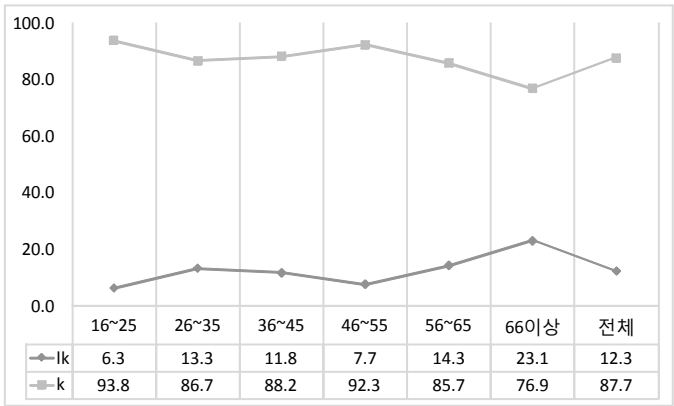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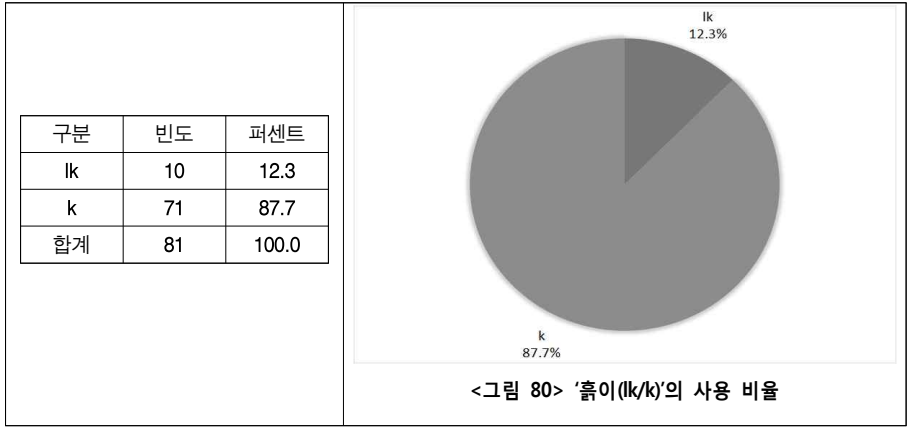
다음은 ‘여덟+이’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림 79> ‘여덟이(lp/l)’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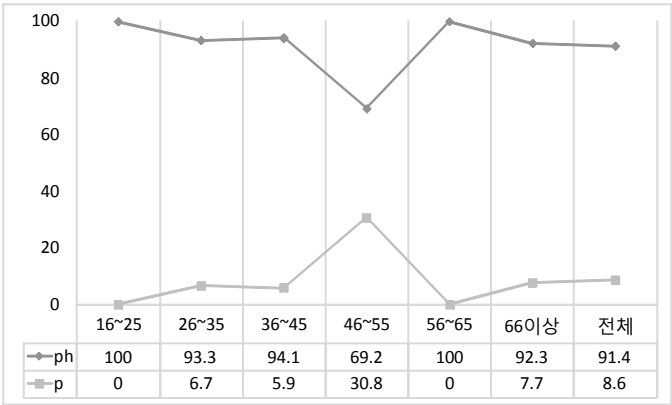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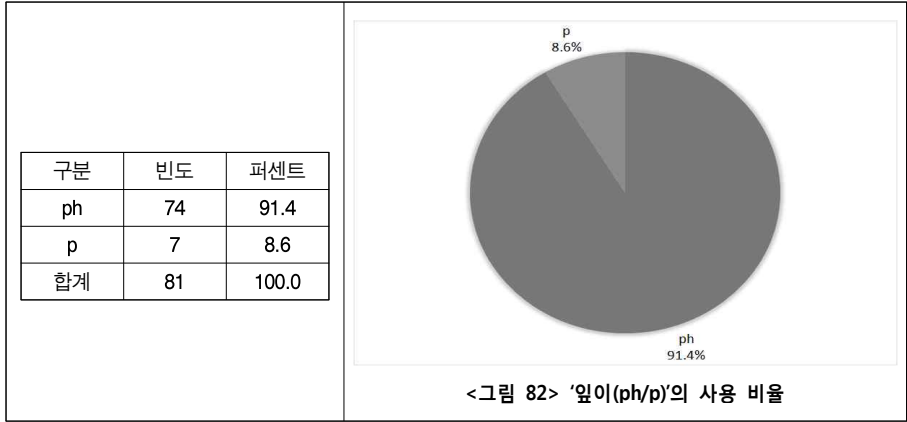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여더리’가 압도적이거나 5집단 이상에서 20% 이상 ‘여덜비’ 형태가 확인된다. 다만 문제는 3집단에서 ‘여덜비’가 30% 확인된다는 점이다. 표준 발음의 영향으로 보아야 하는지 표본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카이제곱 검정값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은 ‘흙+이’의 경우이다. 전체적으로 ‘호기’가 압도적이다. ‘흙기’형태가 12% 확인되고 있다. 세대별로도 의미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더 정밀한 조사,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카이제곱 검정값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 참고로 아래에 도표를 제시한다.



<그림 81> ‘흙이(lk/k)’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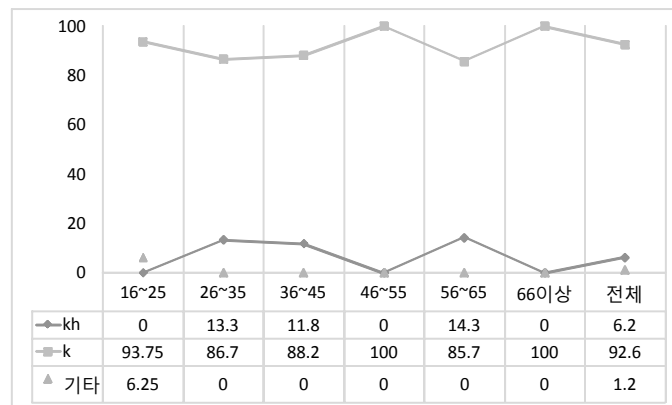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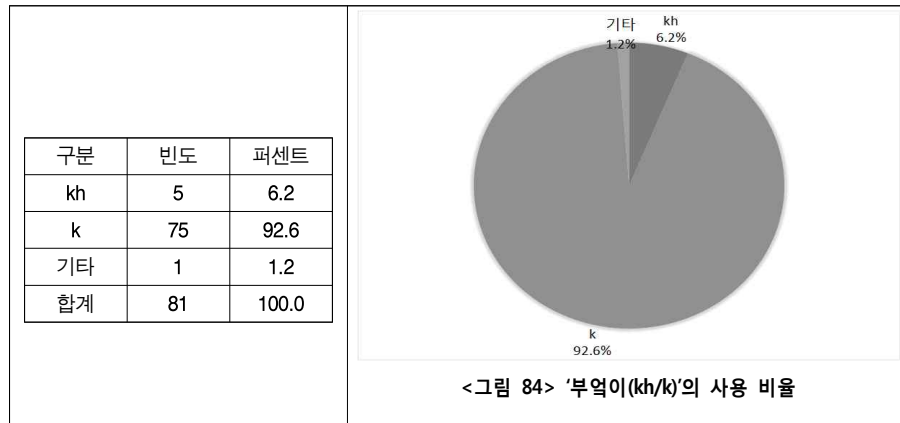
앞서 ‘술값’과 같은 비어두에서는 ‘술가비’와 같은 형태가 확인되기 쉽다고 했다. ‘폴잎’과 ‘잎’의 차이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인다. ‘폴잎’에서는 ‘폴입’으로의 재구조화가 활발하지만 ‘잎>입’의 재구조화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 4집단에서 30% 정도 ‘이비’형태가 확인된다. 그 형태가 특정 세대에 몰려 있으니 더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하겠다. ‘잎’과 ‘입’에 대한 양상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3> ‘잎이(ph/p)’의 연령별 사용 비율



다음은 ‘부엌+이’와 관련된 발화 분석이다. ‘부어키’와 ‘부어기’의 발화 또한 ‘부어기’로의 발화가 압도적이다. 다만 세대별 분포는 좀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해야만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 양상을 차례로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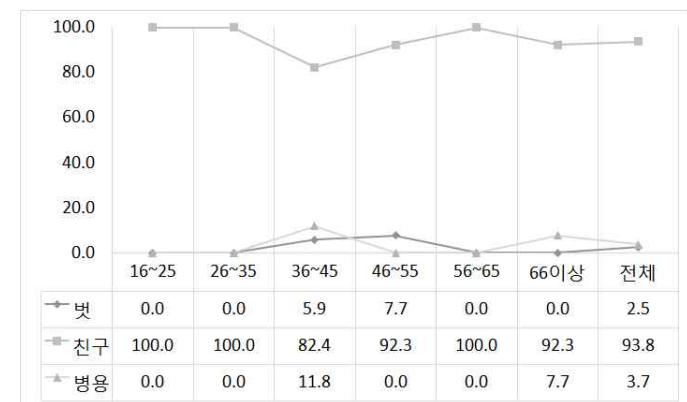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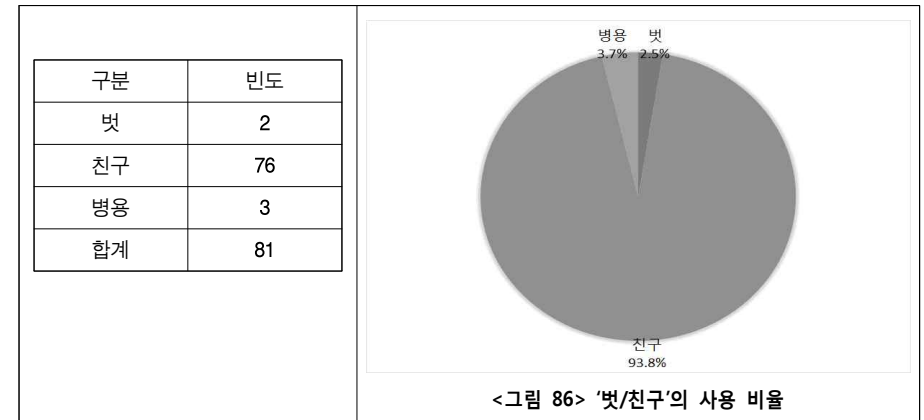


<그림 85> ‘부엌이(kh/k)’의 연령별 사용 비율

#### 4.2.2.2 어휘

어휘 부분의 각 문항에 대한 상세 분석은 다음과 같다. 개별 문항에 대해 각 항목의 비율과 연령별 교차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어휘 부분은 질문을 어떻게 했는가도 중요하므로 문항별 질문도 함께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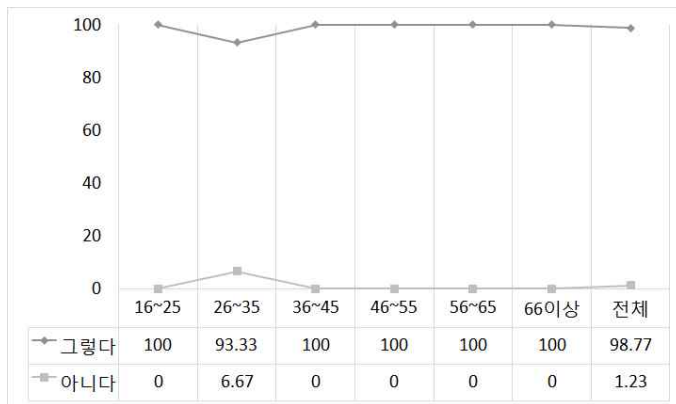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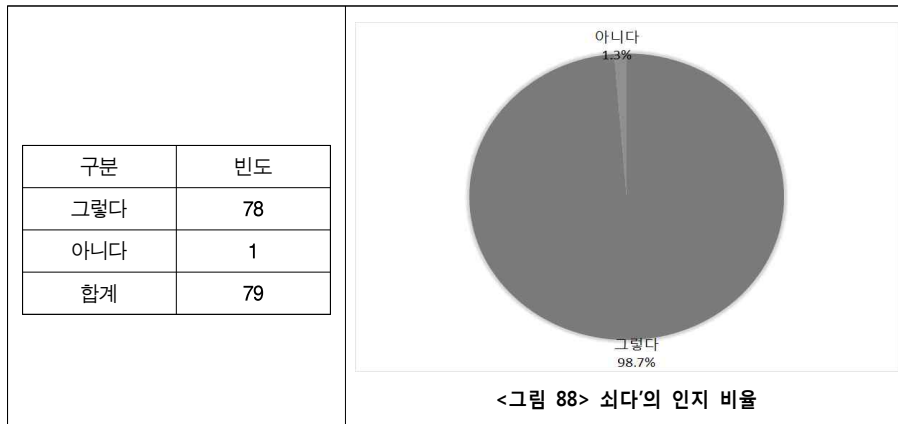
[어01] 동무/벗/친구 아주 친한 사람을 일컬을 때, ‘동무/벗/친구’ 중 어느 것을 쓰십니까?



<그림 87> ‘벗/친구’의 연령별 사용 비율

친구를 지칭하는 말 중에는 ‘벗’과 ‘동무’라는 유의어도 존재하지만, ‘동무’라는 말은 이해 어휘로 인식되고 실제 사용에서는 ‘친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만 극히 낮은 비율이지만 30대 이후 세대에서는 ‘벗’이라는 단어의 병용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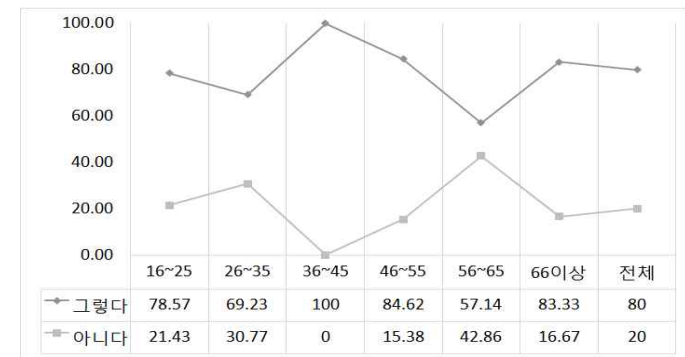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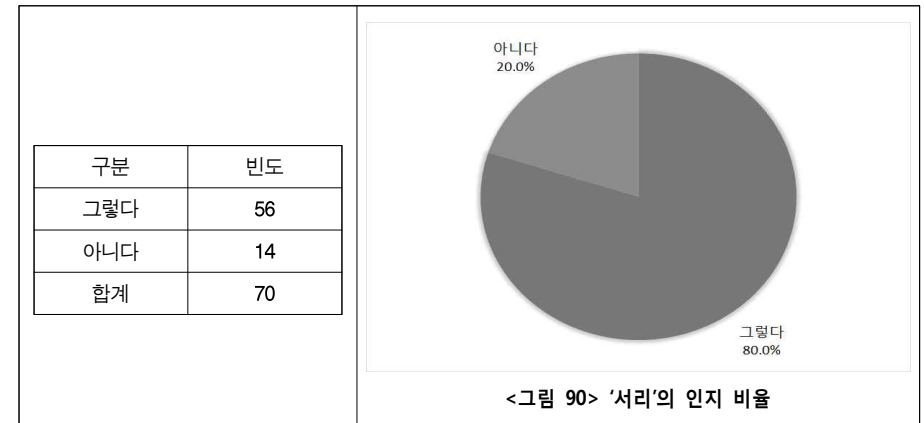
[어02] 쇠다(명절을) 설이나 추석 명절을 뭐 한다고 합니까? '쇠다'에 대한 인지도



<그림 89> '쇠다'의 연령별 인지 비율

명절을 맞이하여 지내는 것, 예를 들어 '설을 쇠다', '추석을 쇠다'에 대한 단어의 인지도는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쇠다'의 사용도 80%를 넘고 있었으며, 이 말을 써도 되겠느냐는 수용에 대한 태도를 물었을 때도 거의 모든 제보자가 '그렇다'라고 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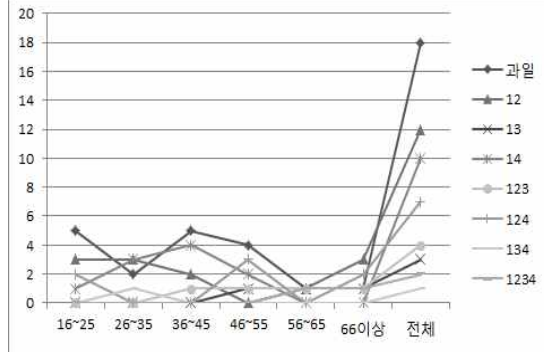
[어03] 서리 과수원이나 밭 등에서 남의 작물을 몰래 가져다 먹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 (자신이나 선배들이) 보통 어떤 것을 서리했었나요?



<그림 91> '서리'의 연령별 인지 비율

(1)과일 (2)곡물 (3)가축 (4)반찬/채소

구분	빈도
과일	18
1,2	12
1,3	3
1,4	10
1,2,3	4
124	7
134	1
1234	2
합계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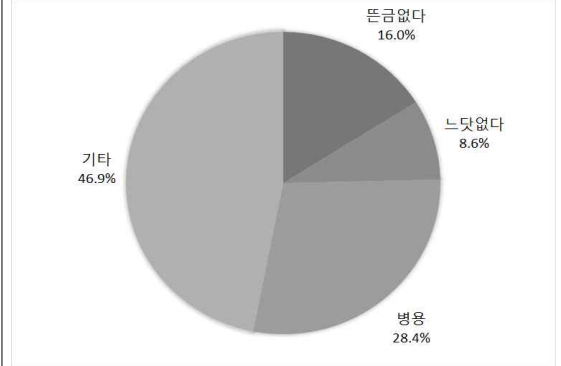
<그림 92> '서리'의 대상 선택 빈도

무리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 같은 행위를 의미하는 '서리'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세대별 차이를 보인 단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어떤 종류의 것들을 '서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일'이 주를 이루었지만 '곡물'과 '반찬/채소'에 대해 대답도 존재한다. 다만 살아 있는 '가축'을 서리한다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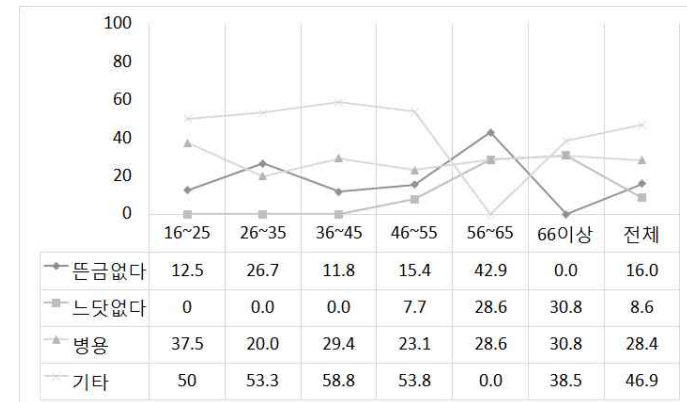
[어04] 뜯금없다/느닷없다

갑작스럽고도 엉뚱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구분	빈도
뜯금없다	13
느닷없다	7
병용	23
기타	38
합계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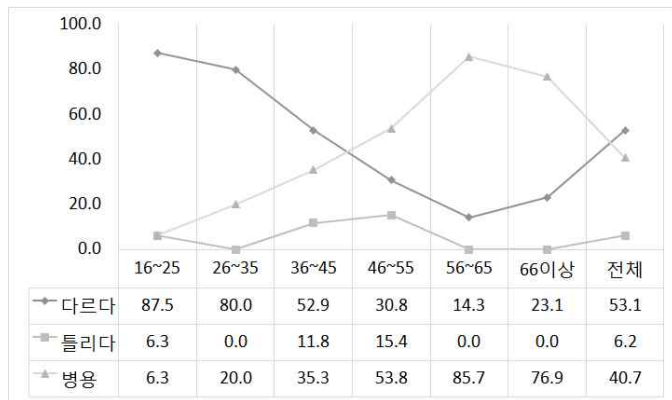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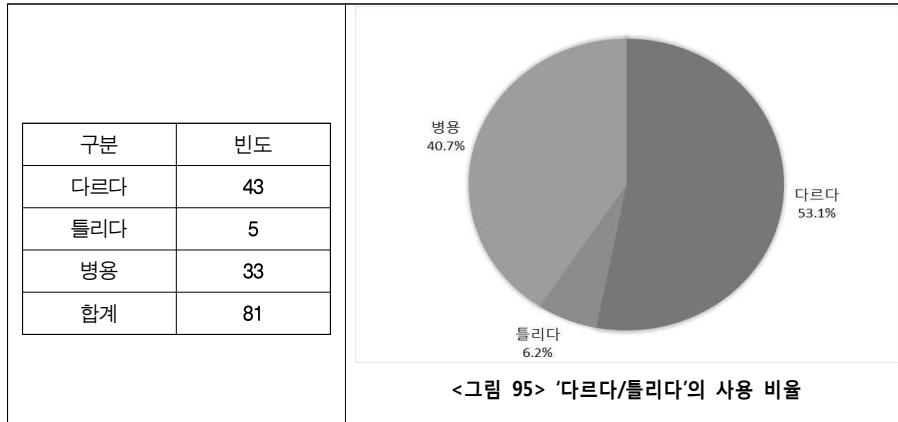
<그림 93> '뜯금없다/느닷없다'의 사용 비율



<그림 94> '뜯금없다/느닷없다'의 연령별 사용 비율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느닷없다'는 '나타나는 모양이 아주 뜻밖이고 갑작스럽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갑작스럽고 엉뚱하다는 표현'의 '뜯금없다'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단독 사용으로는 '뜯금없다'가 '느닷없다'보다는 많은 사용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두 단어의 병용을 포함하면 반수 이상의 사용을 보였으며, 그 단어의 확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뜯금없다'는 주로 젊은 층을 비롯하여 중장년층까지 고루 분포해 있지만 '느닷없다'의 경우 중장년층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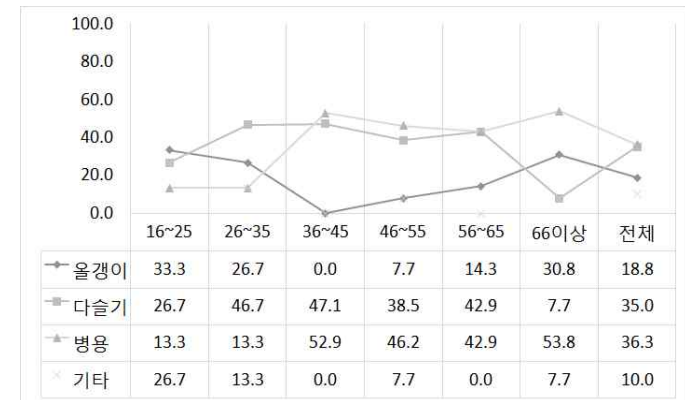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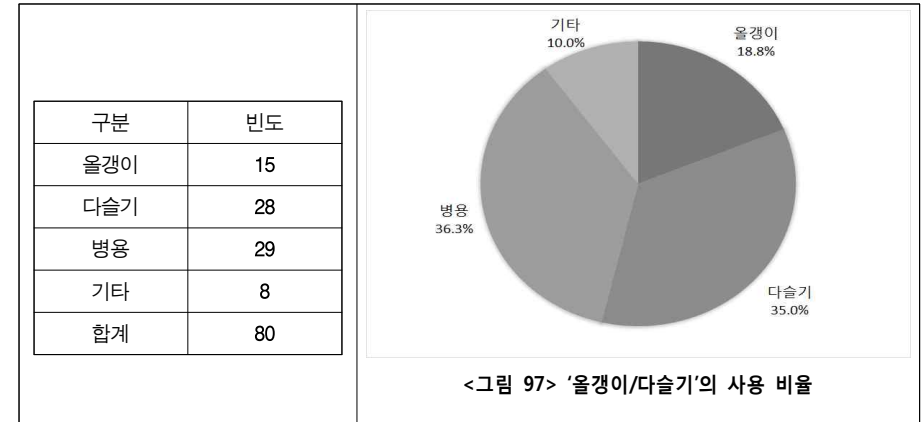
[어05] 다르다/틀리다 쌍둥이는 생김새가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끼리는 생김새가 어떻다고 합니까?



<그림 96> '다르다/틀리다'의 연령별 사용 비율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의미의 '다르다'와 썸 따위가 어긋나는 의미를 나타내는 '틀리다'의 의미 구분에 대한 질문이다. 기본적으로 표준형 '다르다'가 우세하지만 '틀리다' 역시 병용을 포함하면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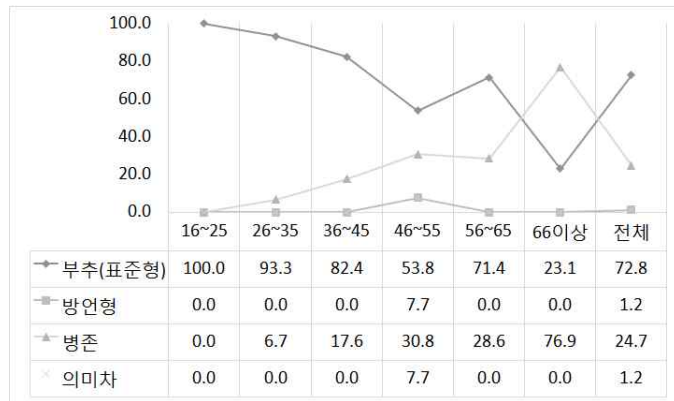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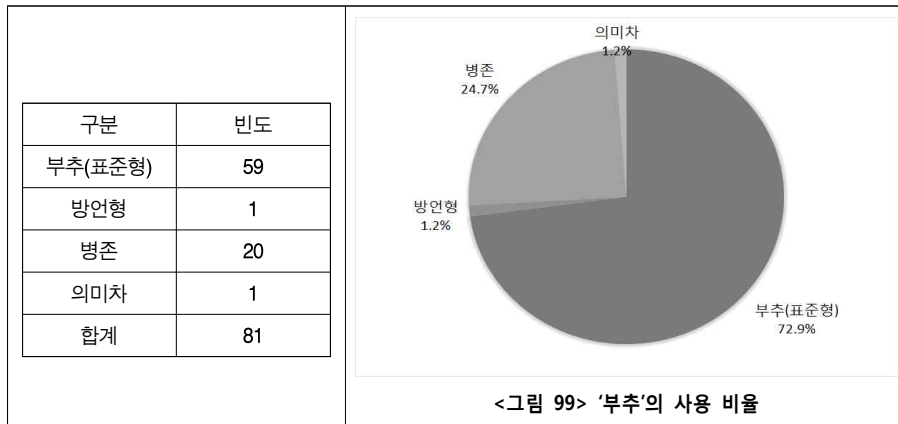
[어06] 올갱이 (사진 제시 후) 물에서 사는 이렇게 생긴 것을 뭐라 합니까?



<그림 98> '올갱이/다슬기'의 연령별 사용 비율

'다슬기'의 방언형인 '올갱이'의 사용에 대한 질문으로 '다슬기'라고 답한 비율은 35%이고 '올갱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 정도이다. 다만 병용을 포함한다면 '올갱이'는 50%가 넘는다.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많은 방언형은 확산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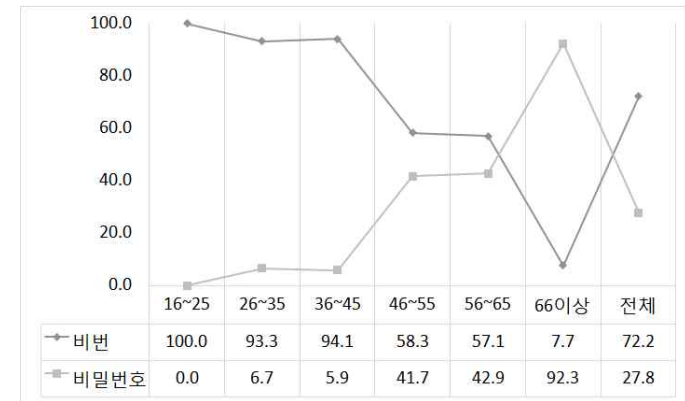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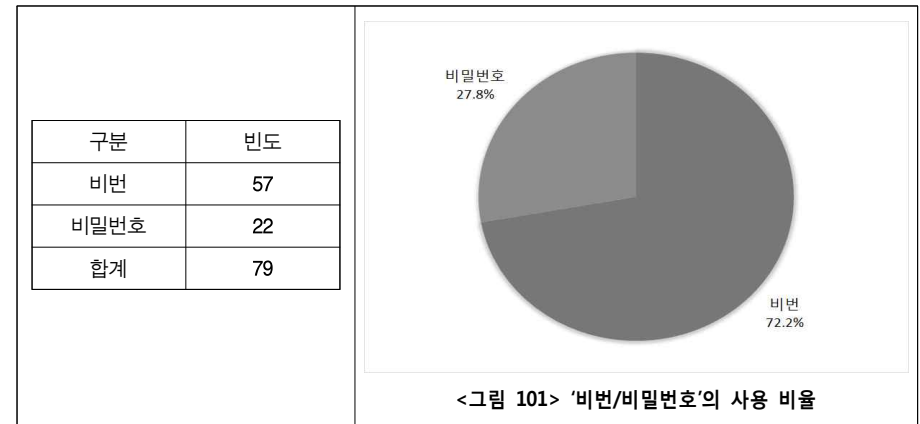
[어07] 부추 파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이 납작하고 폭이 좁은 이 야채를 뭐라고 합니까?



<그림 100> '부추'의 연령별 사용 비율

‘부추’의 방언형은 ‘줄’ ‘술’ ‘정구지’ 등 매우 다양하여 ‘한국언어지도’에도 자주 등장하는 어휘 중 하나이다. 조사 지역이 충청도 인접 지역이었지만 방언형은 많이 등장하지 않고 표준어형인 ‘부추’라고 답한 제보자가 많았다. 다만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병존 그래프를 보았을 때, 세대 차이가 나타났다. 중장년층 이상에서 방언형과의 병존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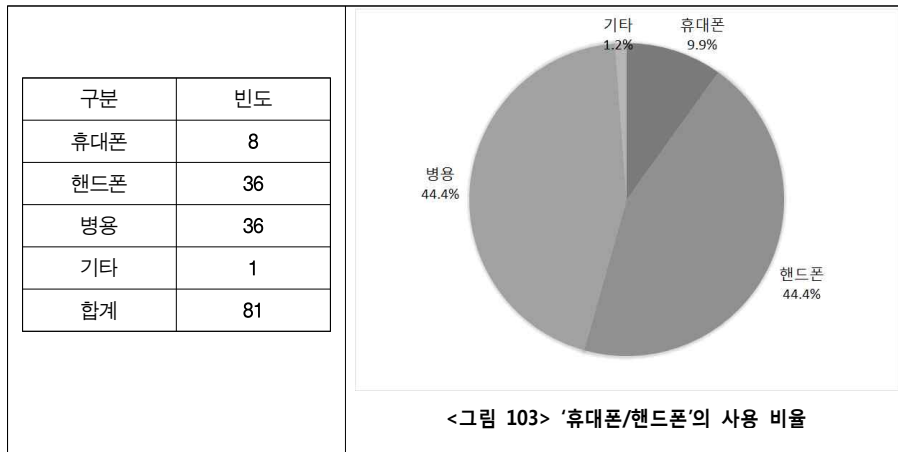
[어08] 비번 ‘비밀번호’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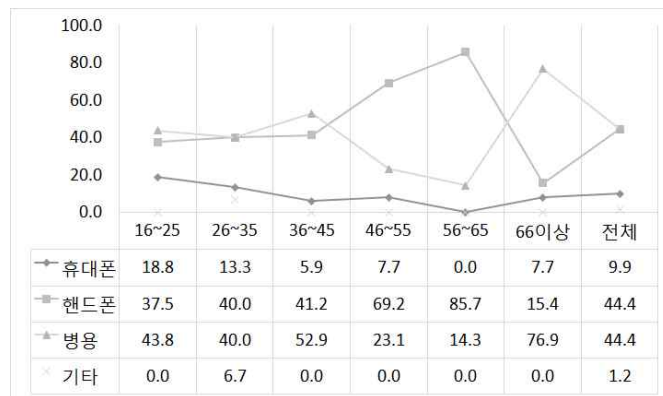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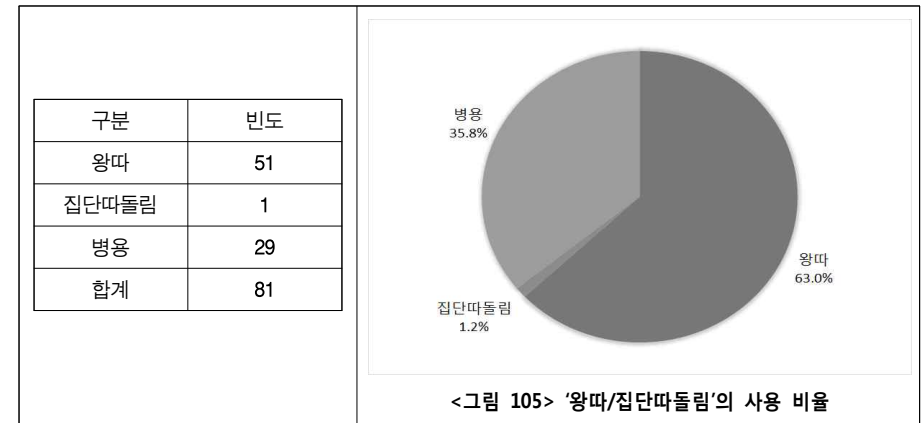
<그림 102> '비번/비밀번호'의 연령별 사용 비율

‘비밀번호’의 줄임말인 ‘비번’의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70% 이상의 제보자가 줄임말인 ‘비번’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세대로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더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한글자도 줄이지 않은 ‘비밀번호’의 경우 장년층의 경우 높은 사용을 보이지만 청년 및 중년층의 경우, 줄임말인 ‘비번’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어 및 외래어의 줄임말 사용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09] 휴대폰/휴대전화 사람들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전화를 뭐라고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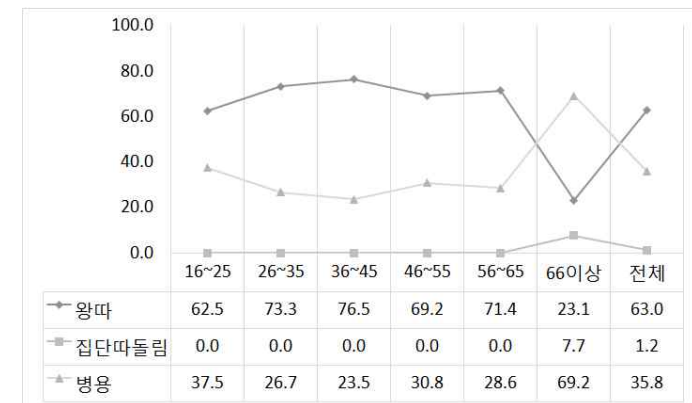


[어10] 왕따/집단따돌림 여러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림 104> '휴대폰/핸드폰'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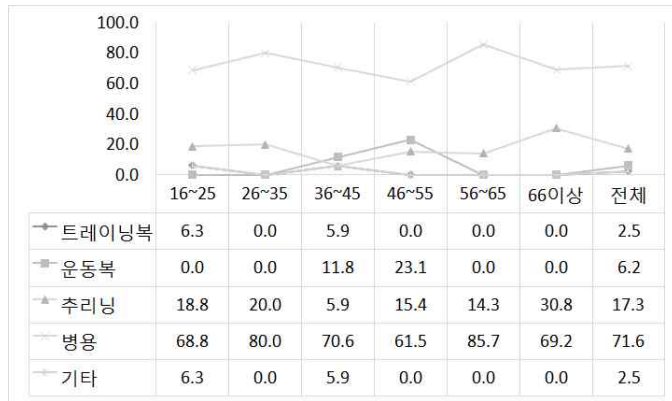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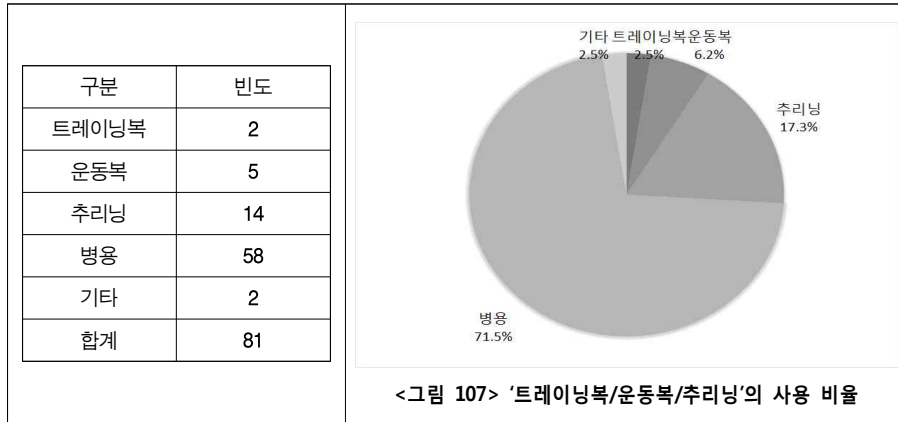
단어의 변이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휴대폰' '핸드폰'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순화어인 '휴대전화'와 '손전화'의 사용은 매우 드물고 압도적인 숫자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6> '왕따/집단따돌림'의 연령별 사용 비율

사회 현상과 관련된 어휘로 '왕따'의 순화된 의미 '집단따돌림'에 대해 살펴보겠다. 많은 제보자가 '왕따'를 주로 사용하며 순화된 단어 '집단따돌림'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장년층에서 병용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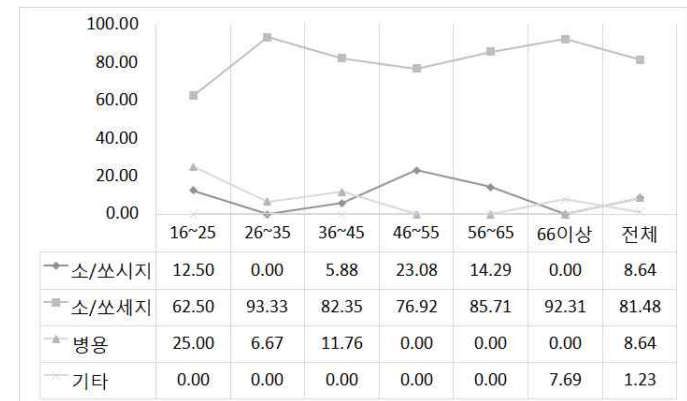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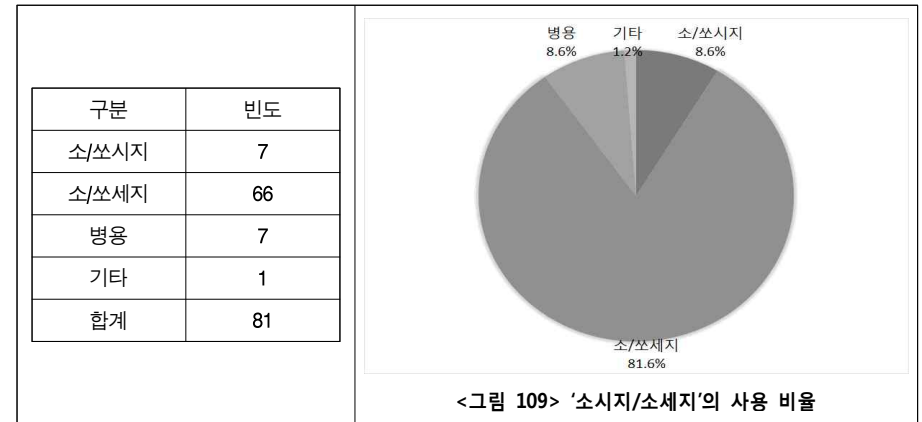
[어11] 트레이닝복/운동복/추리닝 운동할 때 입는 옷을 뭐라고 합니까?



<그림 108> '트레이닝복/운동복/추리닝'의 연령별 사용 비율

운동할 때 편하게 입는 옷을 가리켜 '트레이닝복' 또는 '추리닝' 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러한 단어들은 '운동복' 으로 순화되었지만 '운동복'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트레이닝복' '추리닝' '운동복' 의 병용이 70%를 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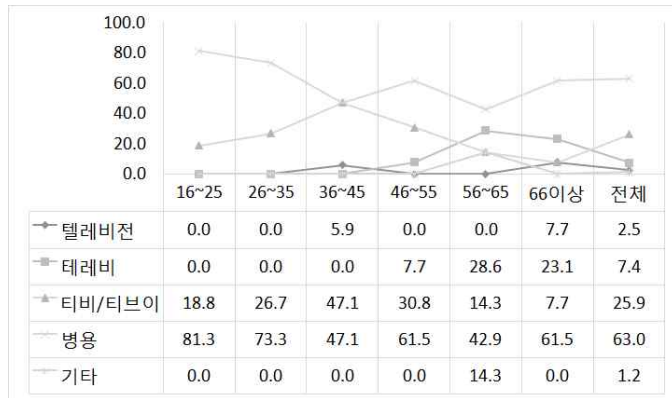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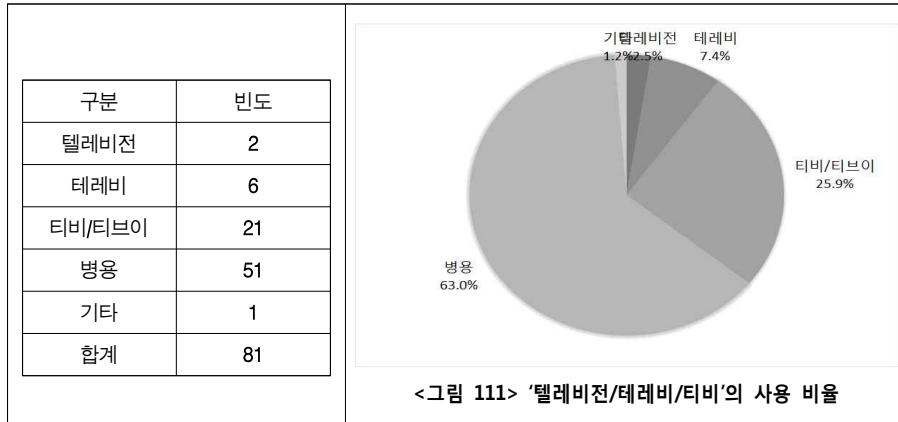
[어12] 소시지 고기를 잘게 갈아 양념을 해서 찜자 등에 채운 서양 음식을 뭐라고 합니까?(햄과 맛이 비슷한데 김밥에도 들어갑니다)



<그림 110> '소시지/소세지'의 연령별 사용 비율

표준어형 '소시지'의 잘못 사용되는 예인 '소세지'의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80%를 넘고, 압도적으로 '소세지'의 사용 비율이 높다. 특히 '소세지'의 경우 병용 없이 단용이 많으며 그 사용 비율이 매우 높다. 세대별 차이를 보더라도 연령이 높을수록 '소세지'의 사용이 많다. 따라서 '자장면'과 '짜장면'의 표준어형 중복 인정처럼 이 어휘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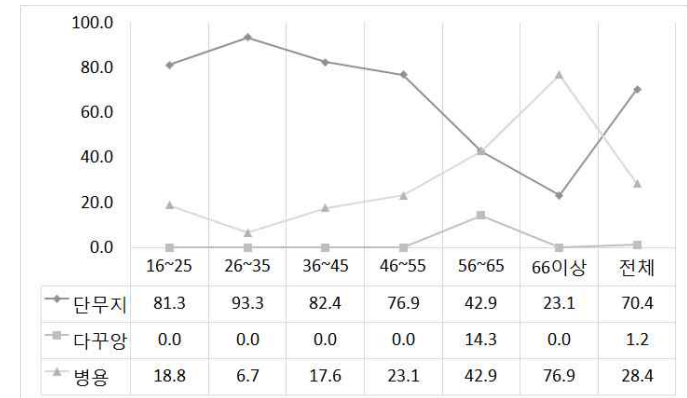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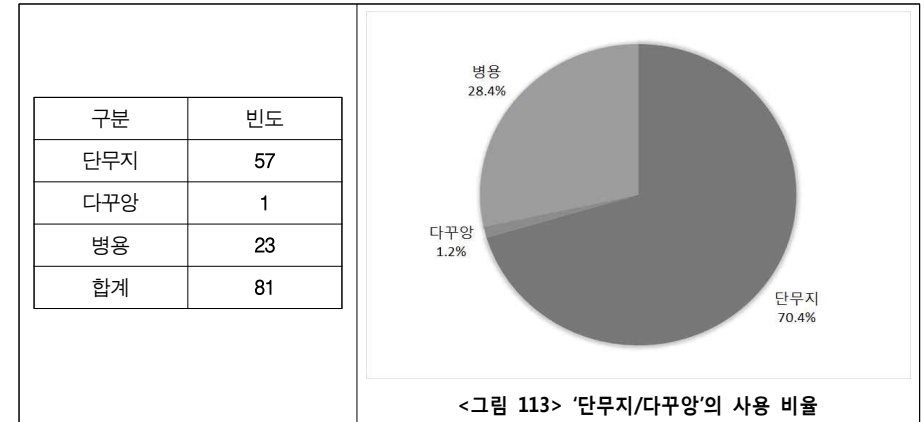
[어13] 텔레비전 라디오 말고 드라마, 노래 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그림 112> '텔레비전/테레비/티브이'의 연령별 사용 비율

‘텔레비전’에 대한 여러 변이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일본식 발음의 ‘테레비’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용이 많으며 기본적으로 여러 변이 형태가 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병용이 60%를 넘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또는 ‘티브이’,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수시로 사용한다는 것이며, 표준어형인 ‘텔레비전’의 사용은 매우 적으며 장년층에서의 사용이 눈에 띈다.

[어14] 단무지/다꾸앙 짜장면 먹을 때 함께 나오는, 무를 절여서 만든 음식을 뭐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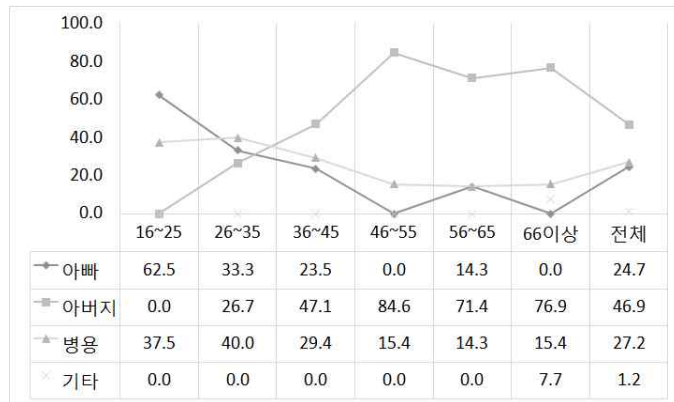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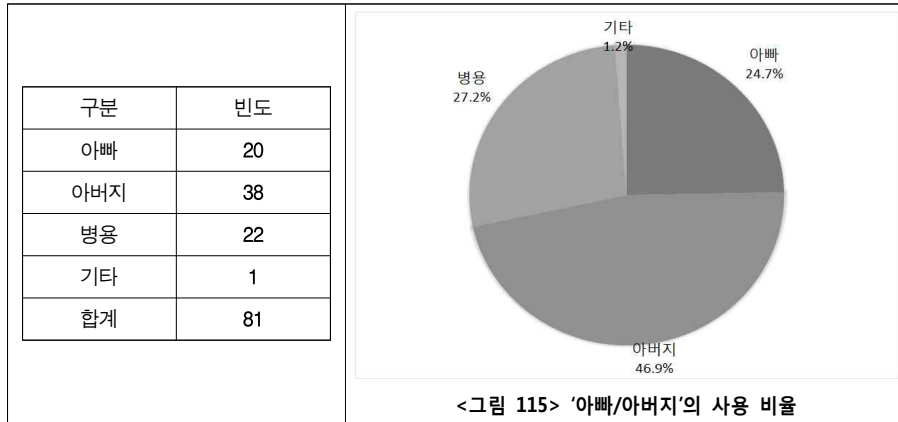


<그림 114> '단무지/다꾸앙'의 연령별 사용 비율

일본어 어원이었으며 잔존 일본어의 형태 ‘다꾸앙’은 순화 작업을 통해 많이 수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무지’를 거의 모든 세대가 사용하는 가운데 ‘다꾸앙’은 50대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다꾸앙’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 순화되어 ‘단무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년층 이상에서 병용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처럼 잔존 일본어의 경우 한국에서는 순화 대상어 1순위이기 때문에 쉽게 고유어로 정착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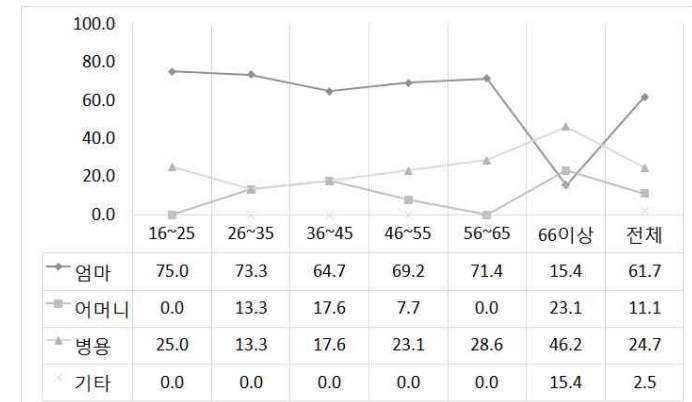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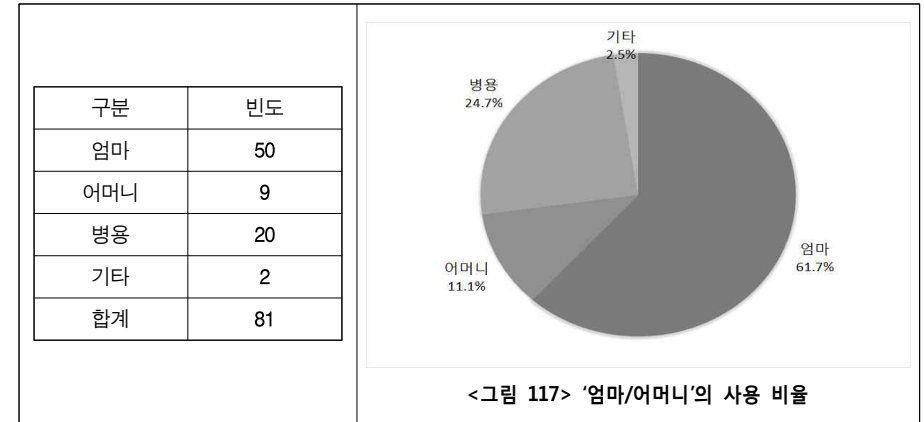
[어15] 아빠/아버지 부모님 중 남성을 뭐라고 부르니까?



<그림 116> '아빠/아버지'의 연령별 사용 비율

부모님 중 ‘父’를 부를 때는 ‘아빠’와 ‘아버지’로 나뉜다. 여기서 ‘아버지’ 단독 사용은 5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병용까지 합하면 70%를 넘는다. 다만 ‘아빠’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젊은 층일수록 단독 사용이 우세하며 반대로 ‘아버지’의 단독 사용은 중장년층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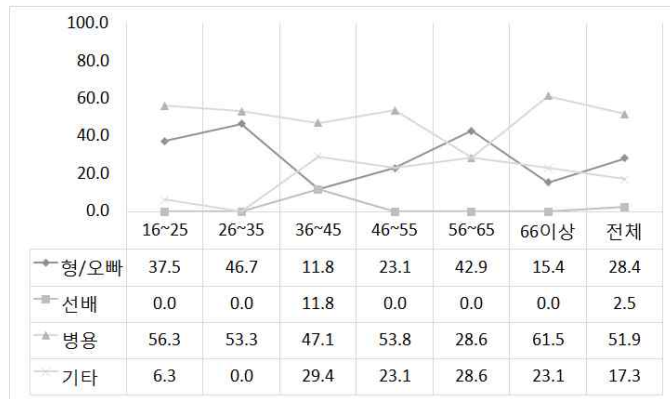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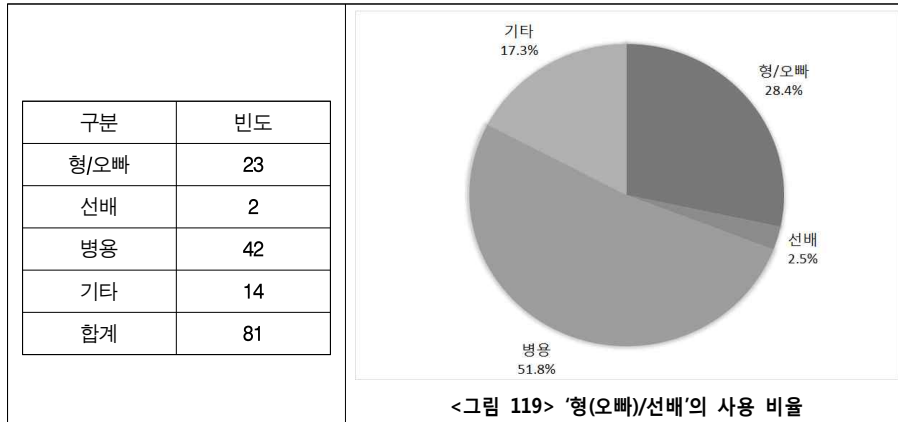
[어16] 엄마/어머니 부모님 중 여성을 뭐라고 부르니까?



<그림 118> '엄마/어머니'의 연령별 사용 비율

부모님 중 ‘母’를 부를 때는 ‘엄마’와 ‘어머니’로 나뉜다. 여기서 ‘어머니’의 단독 사용은 10% 정도로 앞선 아버지에 대한 호칭 예와 대조적이다. 한편 ‘엄마’라고 부르는 단독 사용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다. 병용까지 합하면 9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어머니에 대한 단독 사용은 매우 적으며 중장년층 이상에서도 ‘엄마’라는 호칭의 사용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과 어머니에 대한 친근감의 표출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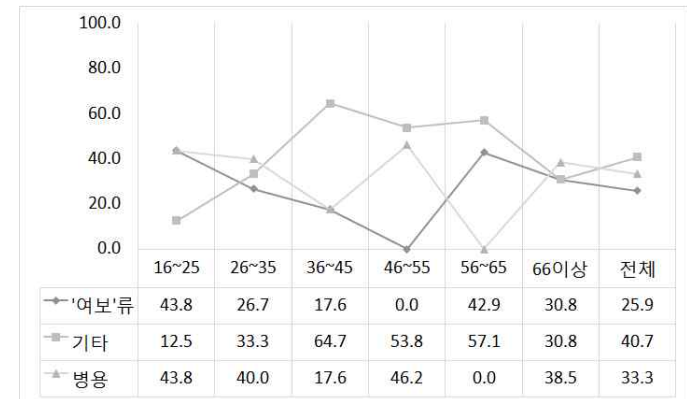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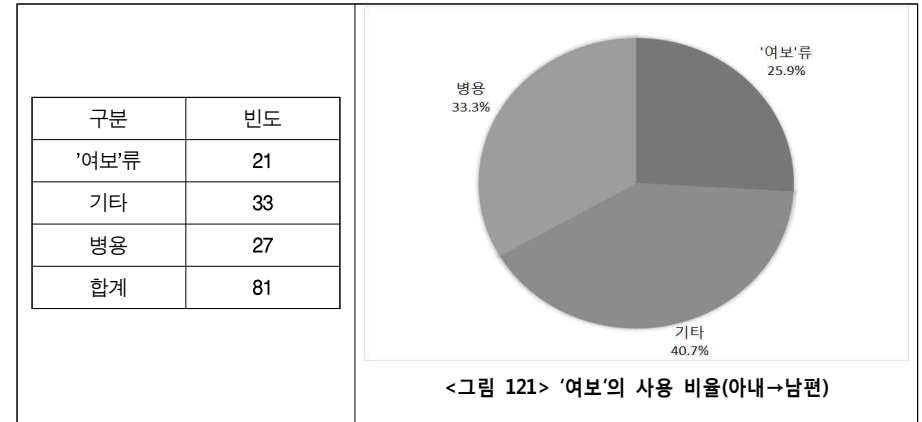
[어17] 형/오빠 친족이 아니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림 120> '형(오빠)/선배'의 연령별 사용 비율

혈연관계가 아닌 구성원 간의 호칭 중에서 순위 남자를 부를 때에 대한 조사 결과는 친족호칭인 '형'이나 '오빠'를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호칭과의 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선배'라는 호칭은 거의 자취를 감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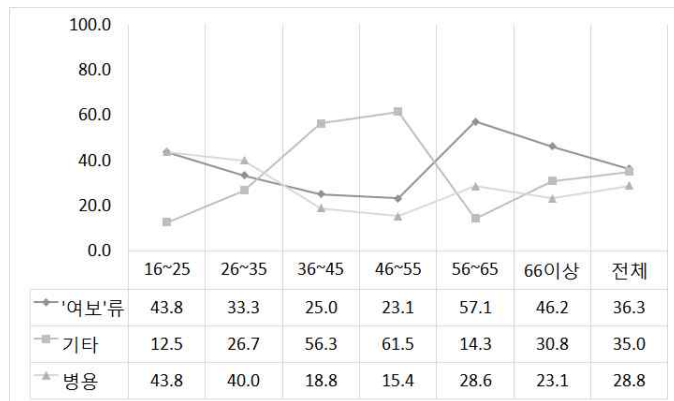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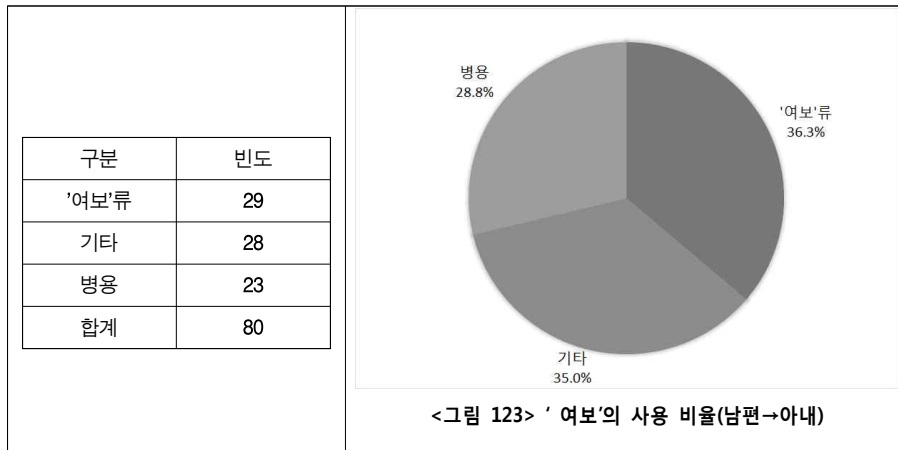
[어18] 여보 부부 간에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림 122> '여보'의 연령별 사용 비율(아내→남편)

부부 사이에서 남편을 부를 때 '여보류'는 25% 전후이며 기타와 병용 의견이 많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종자명 호칭', 또는 '이름+씨'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결과도 기타 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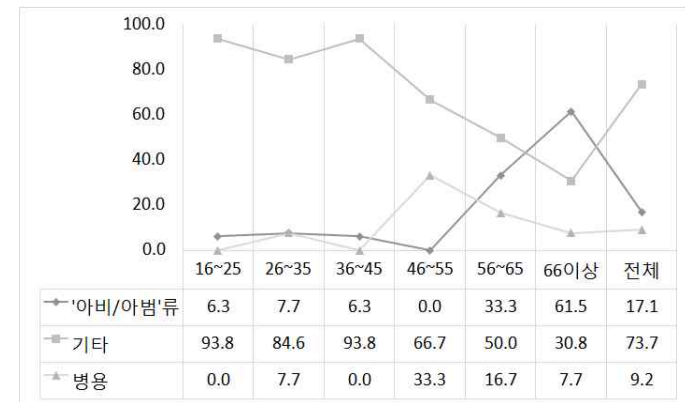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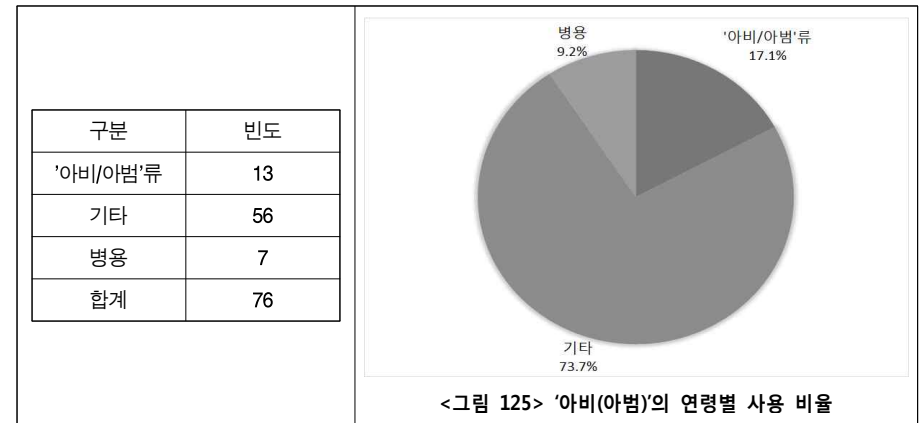
[어19] 여보 부부 간에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림 124> '여보'의 연령별 사용 비율(남편→아내)

부부 사이에서 아내를 부를 때 '여보' 류는 약 36%로, 앞서 살펴본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 호칭보다 그 비율은 높았다. 그 외에 기타 또는 병용이 많지만 '여보' 류의 사용은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부 호칭에 있어서 '부부명칭'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국과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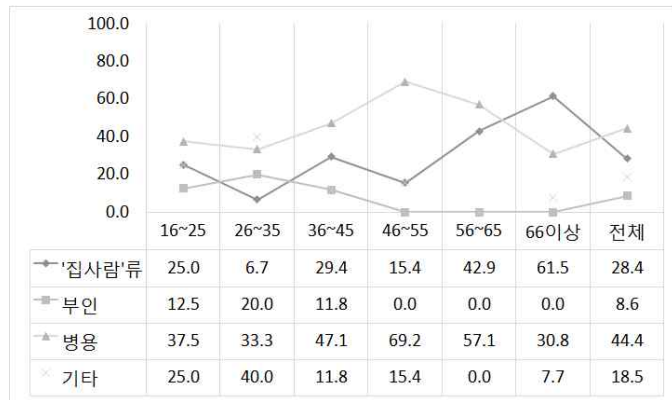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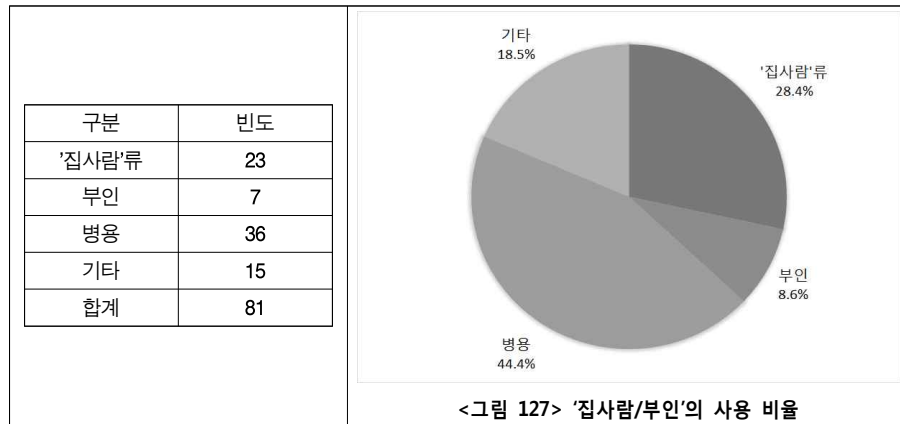
[어20] 아비/아범시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림 126> '아비(아범)'의 연령별 사용 비율

시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에는 '아비/아범류'가 전통적인 표현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가 70%를 넘어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비/아범류'의 사용은 50세 이전 세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전통 호칭 어휘의 소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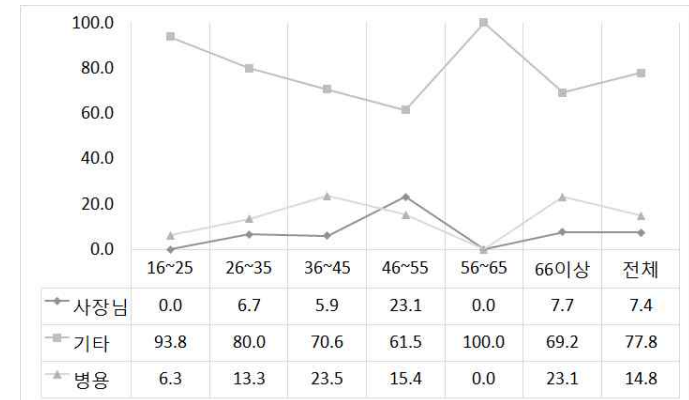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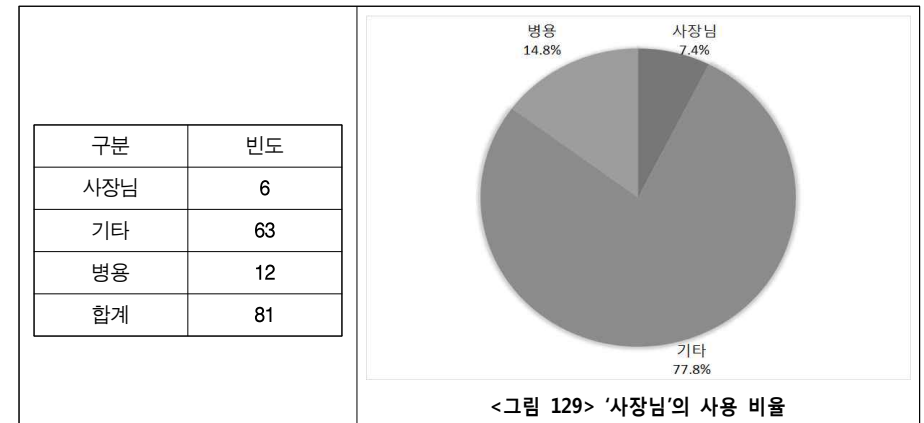
[어21] 집사람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자신의 부인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림 128> '집사람/부인'의 연령별 사용 비율

타인 앞에서 자신의 부인을 부를 때 '집사람'이라는 호칭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으나 타 호칭과의 병용이 많다. 그리고 '부인'이라는 호칭의 단독 사용은 젊은 세대에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집사람'의 지칭어 사용이 감소하게 되는 이유로 홍민표(2010)에서는 주로 집에서 살림만 하던 시대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이 결혼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속에서 점점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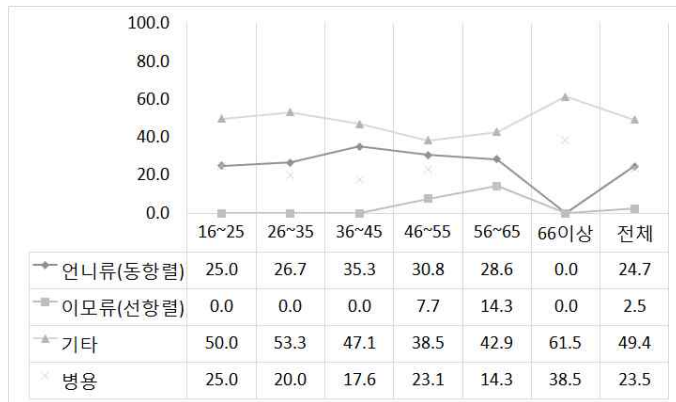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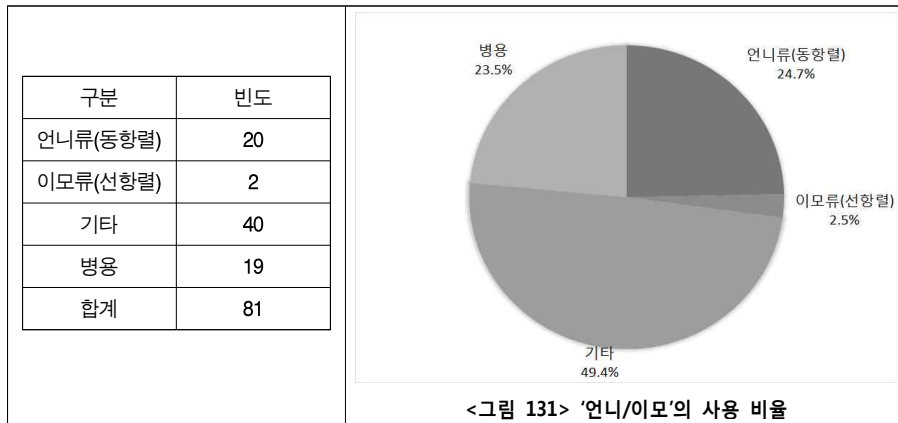
[어22] 사장님 차량 접촉 사고를 났습니다. 상대 피해자(남자)를 뭐라고 부르니까? cf. 남자는 동년배나 그 이상



<그림 130> '사장님'의 연령별 사용 비율

일상생활 속에 흔하게 사용되는 동년배 또는 손위 남자의 호칭 중 누구누구 사장님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사장님'이라는 호칭의 단독 사용은 매우 적었으며 기타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적 활약 증인 40~50대의 경우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23] 언니 음식점(또는 옷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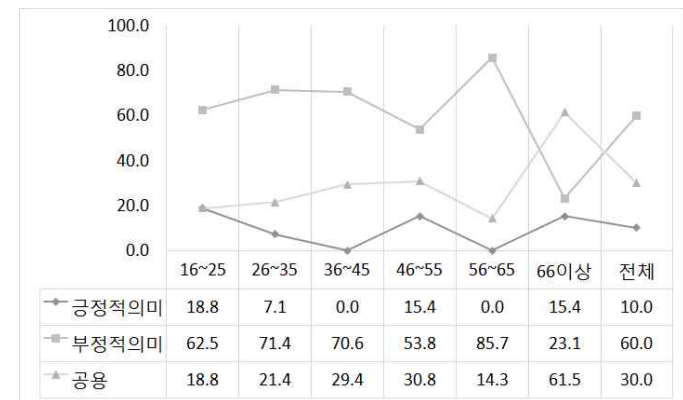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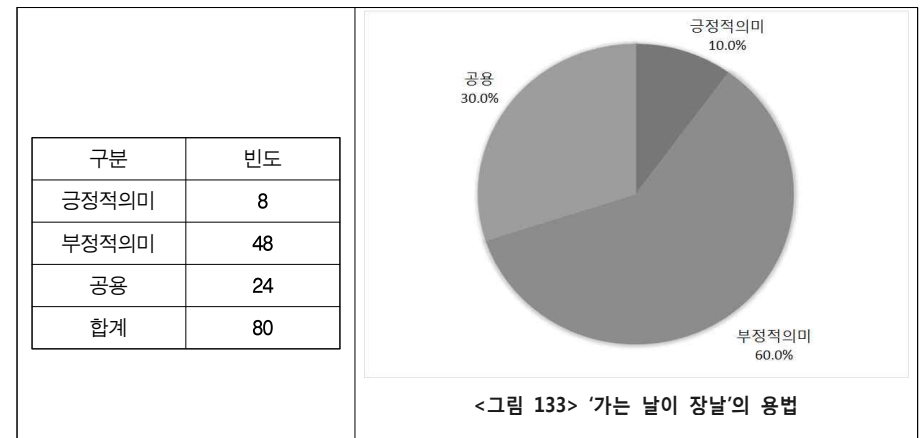


<그림 132> '언니/이모'의 연령별 사용 비율

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 중에 여자 직원을 부를 경우를 살펴보면, 단독 사용으로는 동향렬 ‘언니류’가 많으며 선행렬 ‘이모류’는 의외로 적게 나타났다. 다만 여기서도 단순히 소리를 내어 부르는 방식을 포함한 ‘기타’ 의견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24]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인가요?

- 대형마트(또는 시장)에 갔는데 마침 50%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는 날이 장날이지”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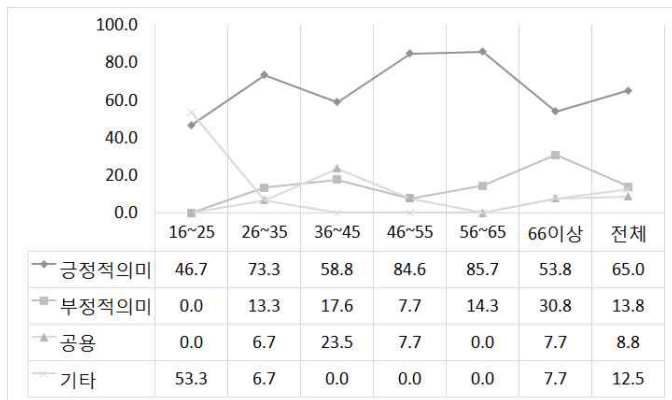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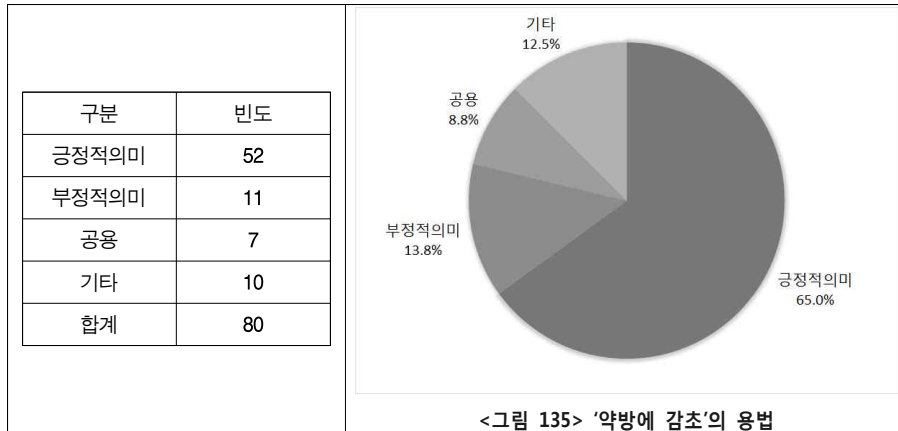


<그림 134> '가는 날이 장날'의 연령별 용법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원래 의미는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한다는 비유적 의미이다. 이에 대해 그 의미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원래의 좋지 못한 일을 겪었을 때 사용하는 부정적 의미가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 의미로의 사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장년층에서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혼용이 엿보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가능한 형태로 변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25] ‘약방에 감초’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인지요?

- 마을 이장님은 꼭 필요한 분인데 모든 일에 관여하니까, 이장님을 가리켜 “약방에 감초야”라고 말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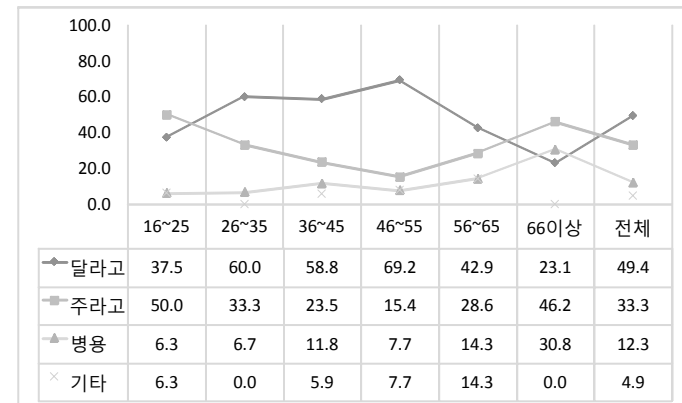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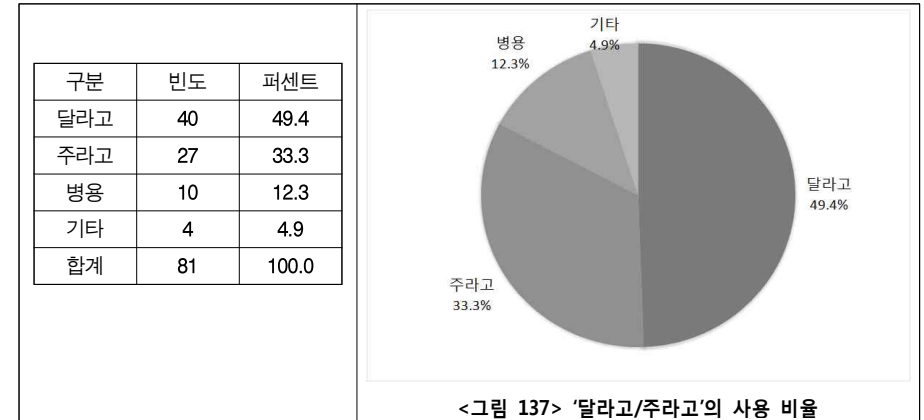
<그림 136> ‘약방에 감초’의 연령별 용법

‘약방의 감초’라는 의미는 원래 한약에 감초를 넣는 경우가 많아 한약방에 감초가 반드시 있다는 데서, 어떤 일이나 빠짐없이 참여하거나 또는 끼어드는 사람 또는 꼭 있어야 할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원래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었지만, 조사 결과 부정적 의미로의 사용이 엿보인다.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가운데 부정적 의미가 중장년 이후 세대에서 의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2.2.3 문법

[문01] - 보충법, ‘주라고’, ‘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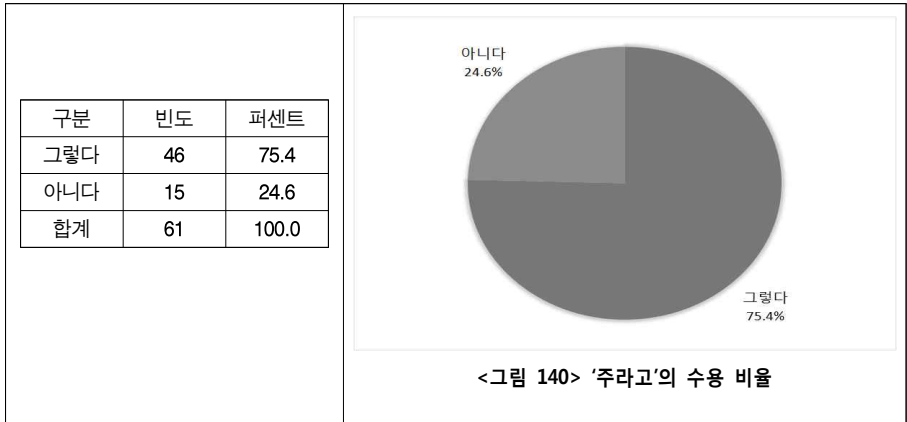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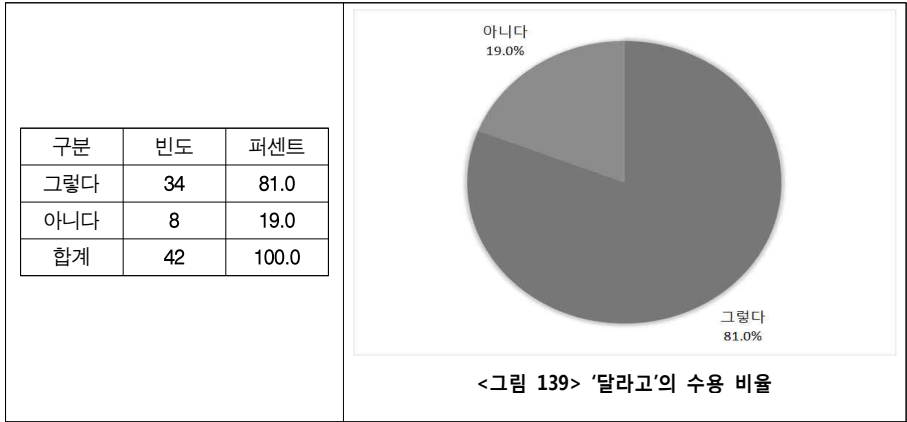
‘주-’의 보충법으로 알려져 있는 ‘달-’에 대한 조사항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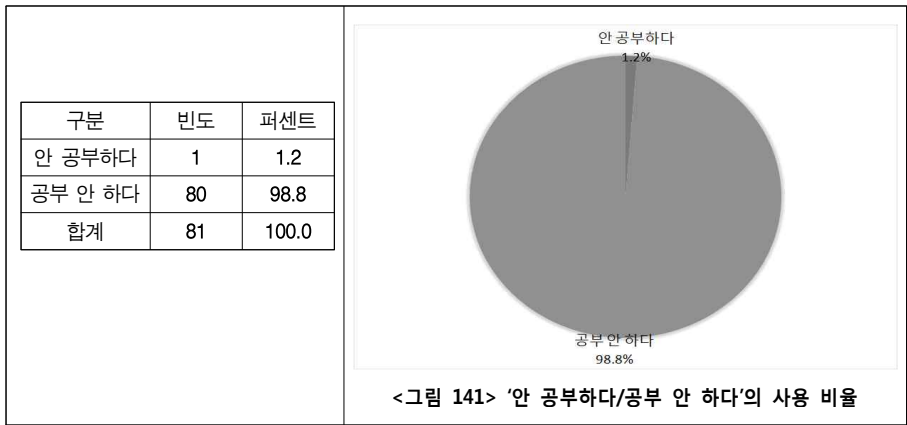
<그림 138> ‘달라고/주라고’의 연령별 사용 비율

‘달라고’라는 형태 대신 의외로 ‘주라고’라는 형태가 33%나 확인된다. ‘주라고’, ‘달라고’를 병용하는 제보자까지 포함하면 45%에 달할 정도이다. 2집단에서 5집단까지는 ‘달라고’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나 6집단에서 66%는 ‘주라고’형을 사용하는 것이 특이하다. 1집단에서도 ‘주라고’가 우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 많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조사를 해야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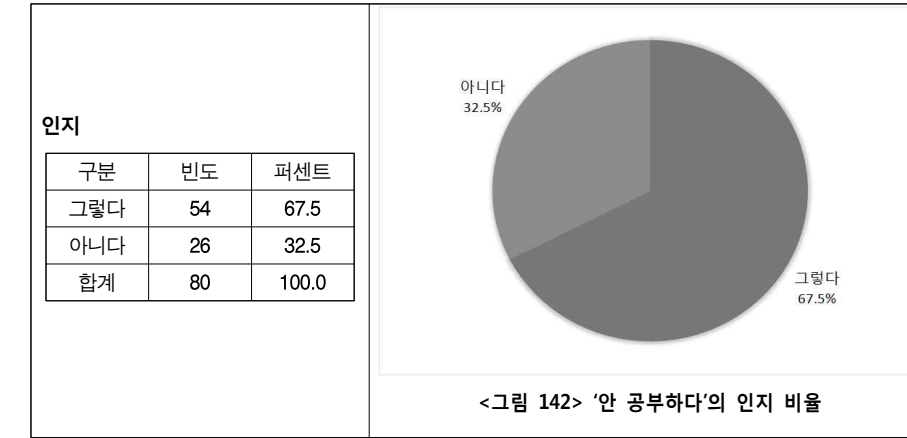
한편, ‘달라고’의 수용 조사에서 ‘달라고’를 수용할 수 있다는 대답이 81%에 그친 것도 특이하다고 하겠거니와 ‘주라고’의 수용이 75%까지 이른 것도 특이하다 하겠다. 아래 도표를 통해 각각의 수용에 대해 차례대로 확인할 수 있다.



**[문02], [문3] - 부정어의 위치, ‘안 공부하-’, ‘안 같아요?’**  
부정어의 위치에 대해 조사하는 항목이다. ‘도망가다’의 부정을 ‘안 도망가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관련하여 ‘안 공부하다’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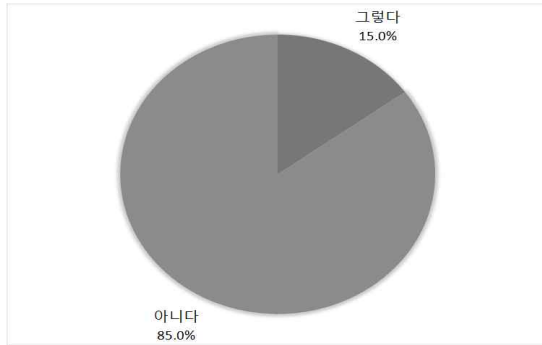


‘안 공부하-’라고 말하는 제보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67%가 ‘안 공부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다만 ‘안 공부하-’의 수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15%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아래에서 인지와 수용에 대해 차례로 확인할 수 있다.



###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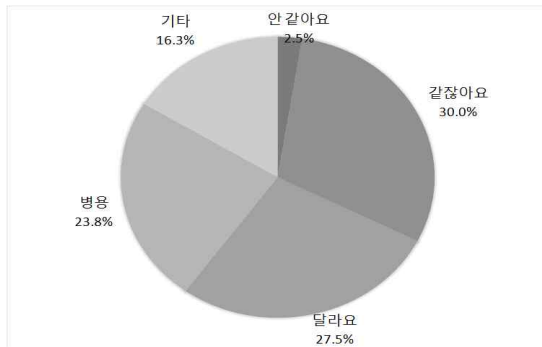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그렇다	12	15.0
아니다	68	85.0
합계	80	100.0



<그림 143> '안 공부하다'의 수용 비율

다음은 두 그림을 그려 놓고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보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안 같아요?' 라고 부정어를 형용사 앞에 결합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사 결과 '같잖아요?' 와 '달라요?'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안 같아요?' 라고 묻는 빈도는 매우 희박하였다.

구분	빈도	퍼센트
안 같아요	2	2.5
같잖아요	24	30.0
달라요	22	27.5
병용	19	23.8
기타	13	16.3
합계	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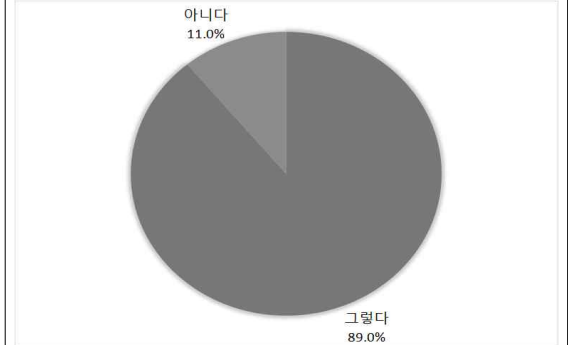


<그림 144> '안 같아요/같잖아요/달라요'의 사용 비율

다만 89%가 '안 같아요?' 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으며 90%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에서 그 각각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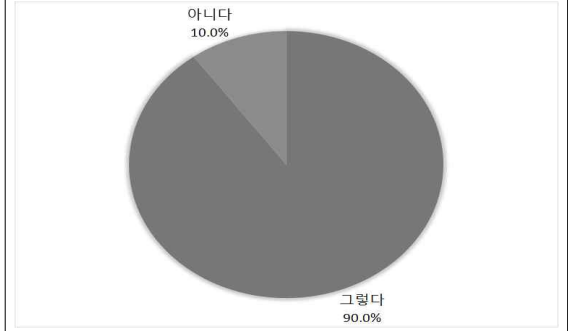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그렇다	65	89.0
아니다	8	11.0
합계	73	100.0



<그림 145> '안 같아요'의 인지 비율

### 수용

구분	빈도	퍼센트
그렇다	45	90.0
아니다	5	10.0
합계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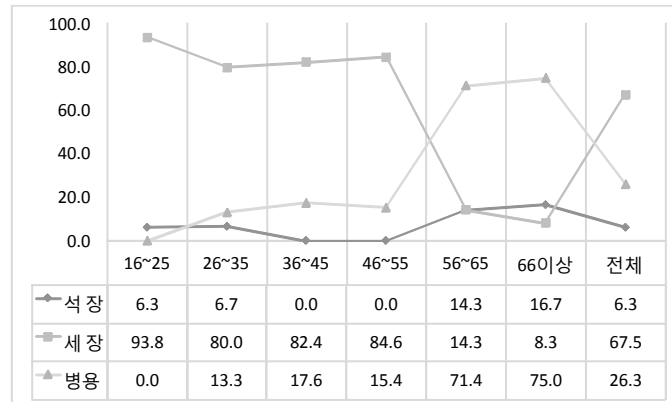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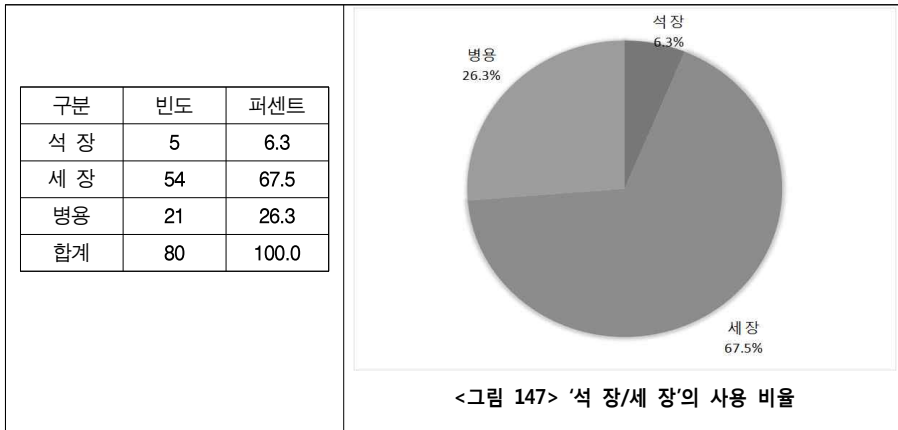


<그림 146> '안 같아요'의 수용 비율



**[문04] - 수관형사, ‘석 장’**

분류사에 따라 특정 수관형사 ‘석/넉’, ‘서/너’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종이를 헤아리는 단위 ‘장’은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이 원칙이다. 조사 결과는 ‘세 장’이라는 빈도가 67%로 나타난다. 병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하면 94%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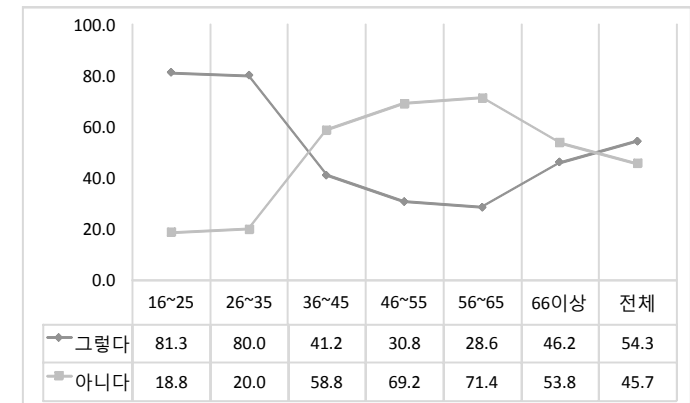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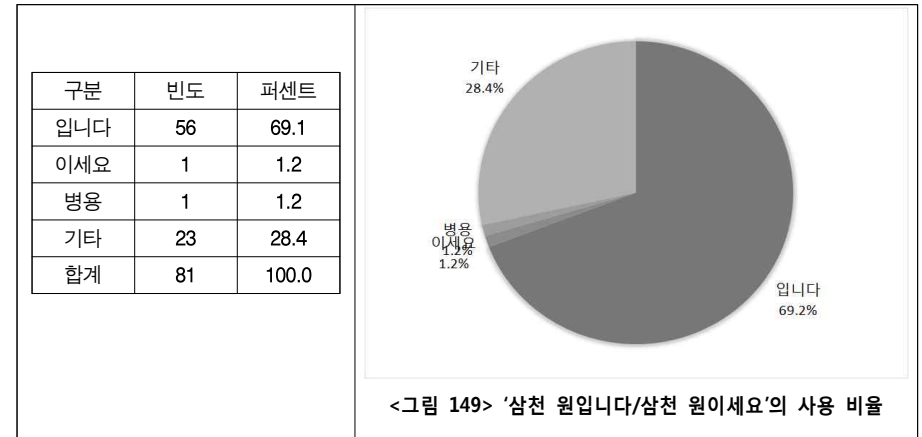


<그림 148> ‘석 장/세 장’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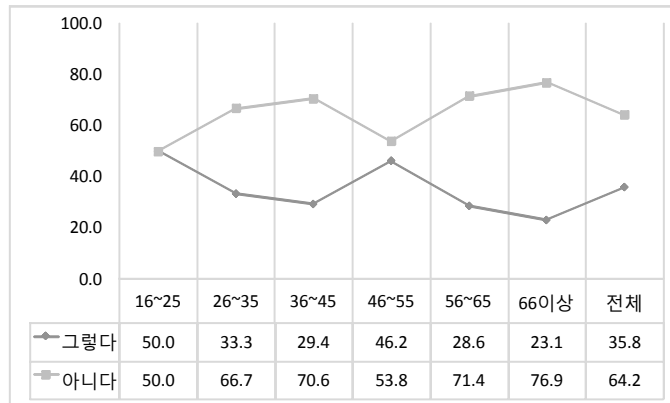
세대별 빈도 그래프를 보면 4집단까지는 ‘세 장’이 압도적이었다가 5집단 이후 두 가지를 병용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석 장’에 대한 인지가 97%에 이르고 수용 또한 87%에 이들을 참고로 밝혀 둔다.

**[문05] - 과도한 청자높임법, ‘삼천 원이세요’**

‘-시-’는 원래 주체높임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그런데 요즘은 기능이 확대되어 청자높임으로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듯하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이에 대해 일반인들도 물건 값이 ‘삼천 원이세요’라고 말하는 체보자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예상과 달리 ‘삼천 원이세요’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54%가 그 말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36%가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아래에서 그 각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0> ‘삼천 원입니다/삼천 원이세요’의 인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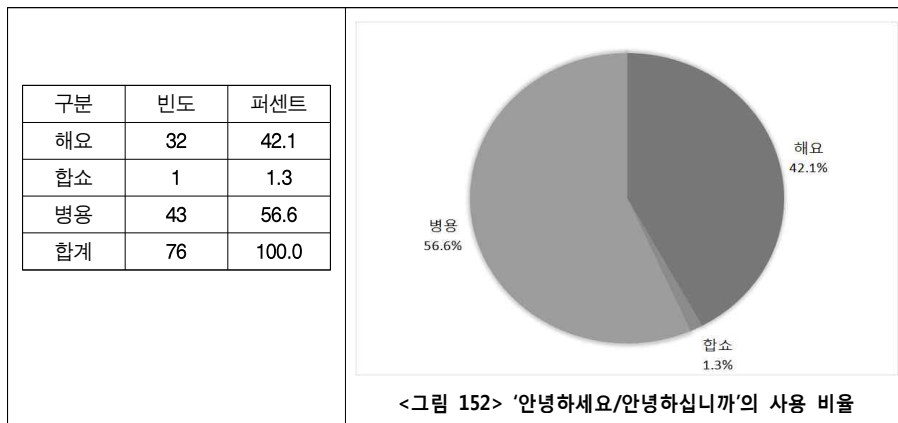


<그림 151> '삼천 원이세요'의 수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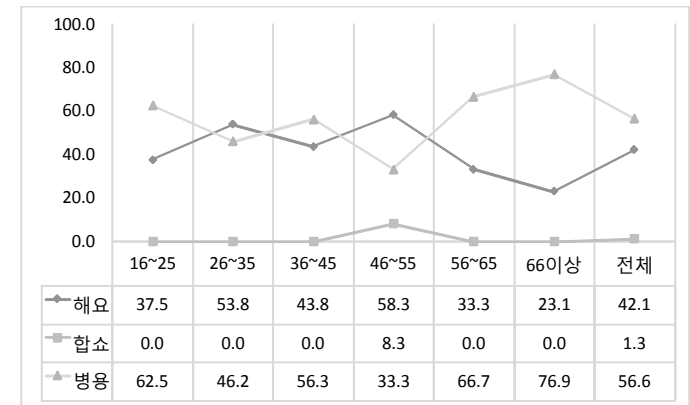
인지 측면에서는 1집단, 2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수용 측면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문06] - 해요체와 합쇼체, '안녕하세요/하십니까?', '이거 주세요/주십시오'

현대 사회는 '합쇼' 체보다는 '해요' 체의 사용이 지배적이다. 먼저 '안녕하세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자. '안녕하십니까'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를 병용해서 쓴다고 대답한 빈도가 56%에 이르고, '안녕하세요'만 쓴다고 대답한 제보자가 4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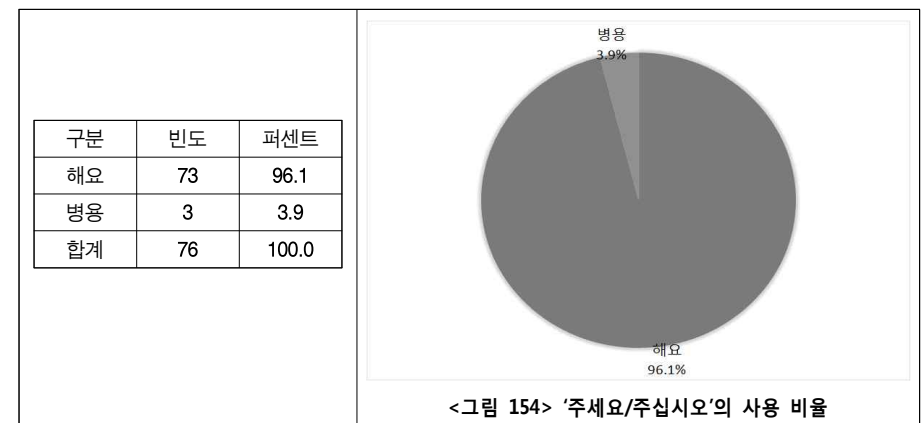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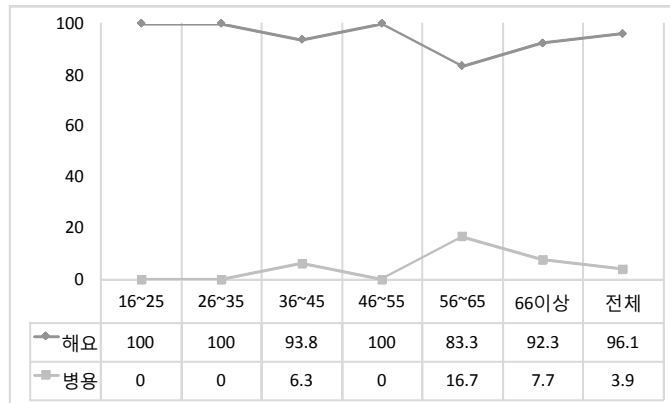
세대별 빈도는 의미를 갖기 어렵지만 참고로 제시해 둔다.



<그림 153> '안녕하세요/안녕하십니까'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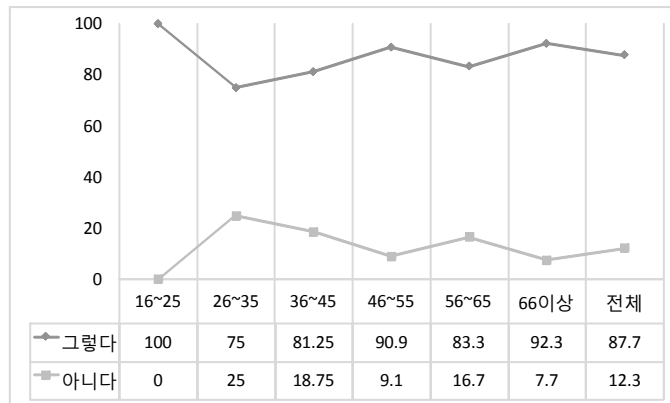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 외에 상점에서 어떤 제품을 고른 후 점원에게 말을 건넬 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십시오'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 묻는 항목이다. 인사말과 달리 '해요' 체로만 사용하는 빈도가 압도적이다. 병용 3%을 고려한다 해도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아래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 빈도 그래프는 의미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참고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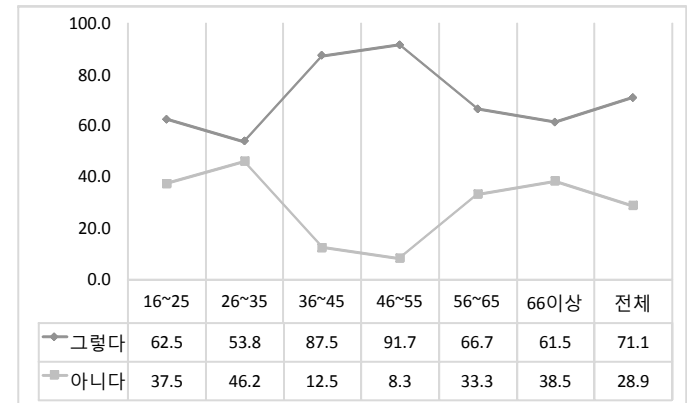


<그림 155> '주세요/주십시오'의 연령별 사용 비율

아래에는 수용 정도에 대해 세대별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참고로 '안녕하십니까?'와 '이거 주십시오'에 대한 수용 정도를 차례로 제시한다. 유효적인 1집단을 제외하면 세대별로 고르게 전자에 대한 수용 정도가 후자에 비해 10% 정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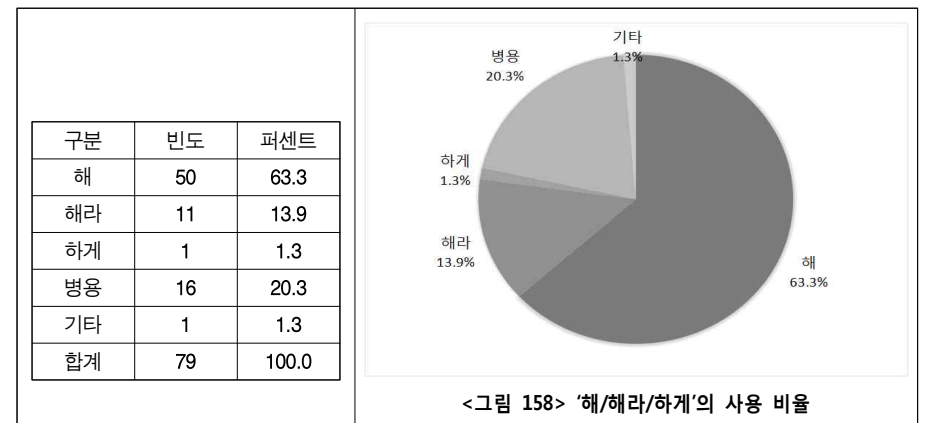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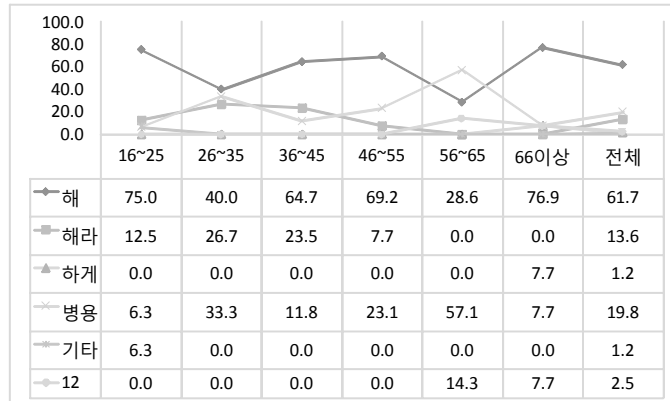
<그림 156> '안녕하십니까?'의 연령별 수용 비율



<그림 157> '주십시오'의 연령별 수용 비율

다음은 친구에게 '해'체를 쓰는지 '해라'체를 쓰는지 '하게'체를 쓰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다. 친구에게는 일반적으로 해체를 많이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3%). 병용을 제외한다면 '해라'체는 14%, '하게'체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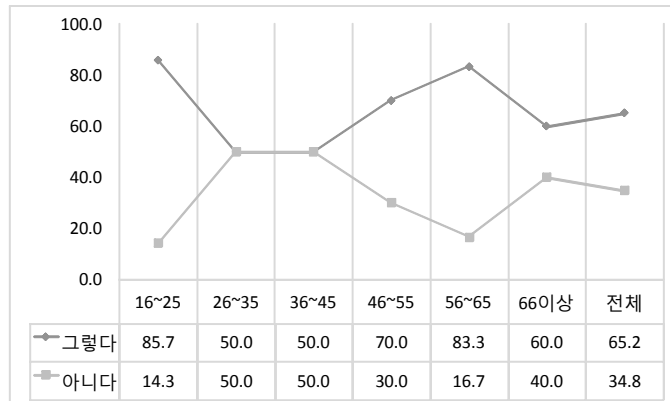




<그림 159> '해/해라/하게'의 연령별 사용 비율

세대별 빈도 그래프에서 '해라' 체는 3집단까지 30% 정도 등장한다. '하게' 체는 6집단에서 1명이 등장하는데 표본을 더 확보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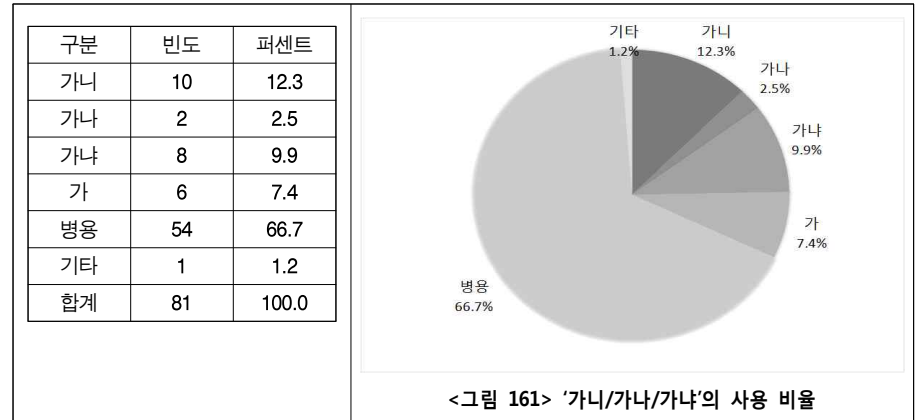
참고로 '하게' 체에 대한 인지는 96%로 확인되었으며 그 수용은 65%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하게' 체의 수용 빈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2집단과 3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수용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 특이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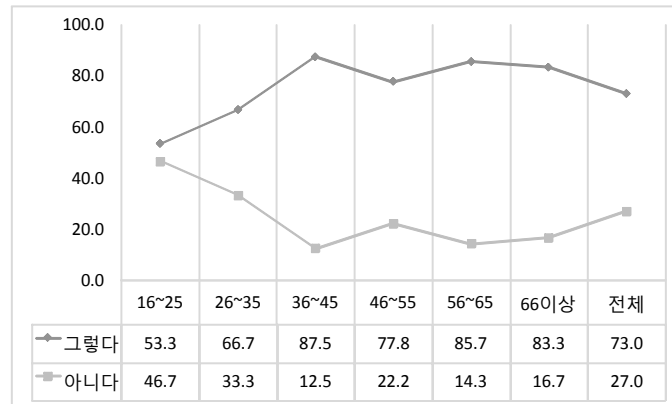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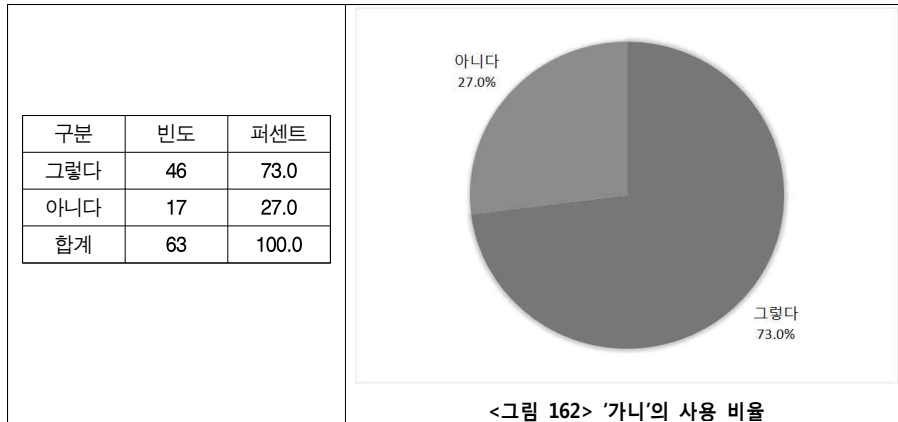
<그림 160> '하게'의 수용 비율

#### [문07] - 2인칭 의문형 '-니?' 관련, '가니', '가나', '가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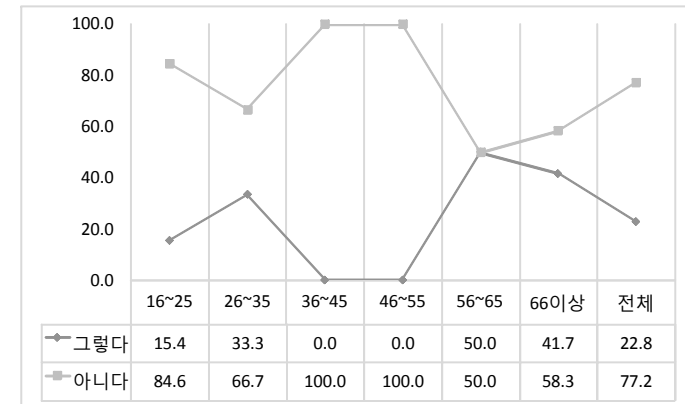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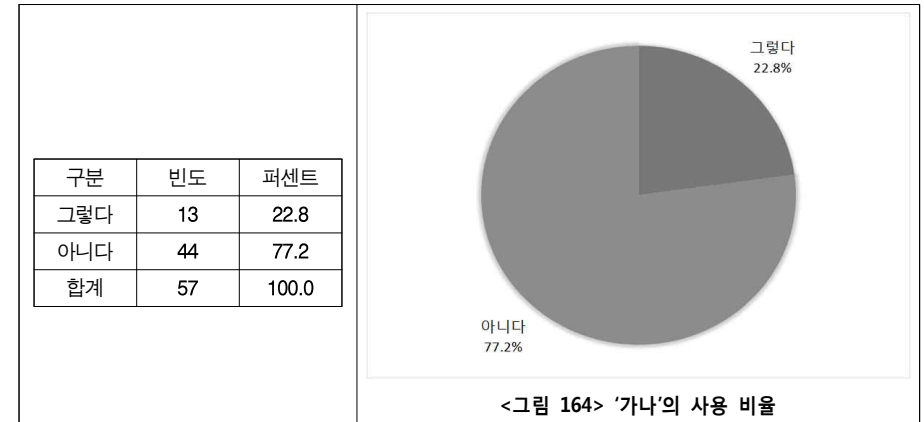
친구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볼 경우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알아 볼 항목이다. 병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어디 가니?' 형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은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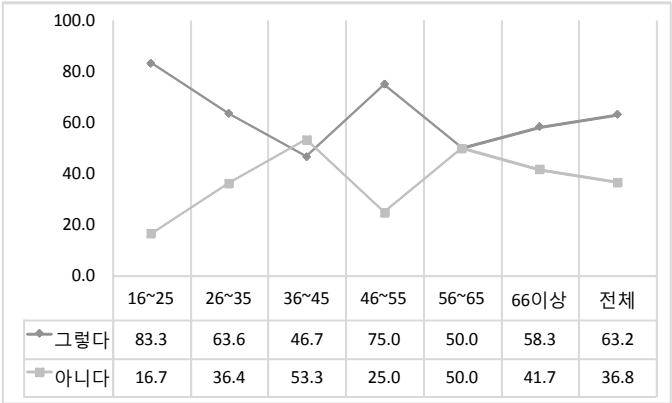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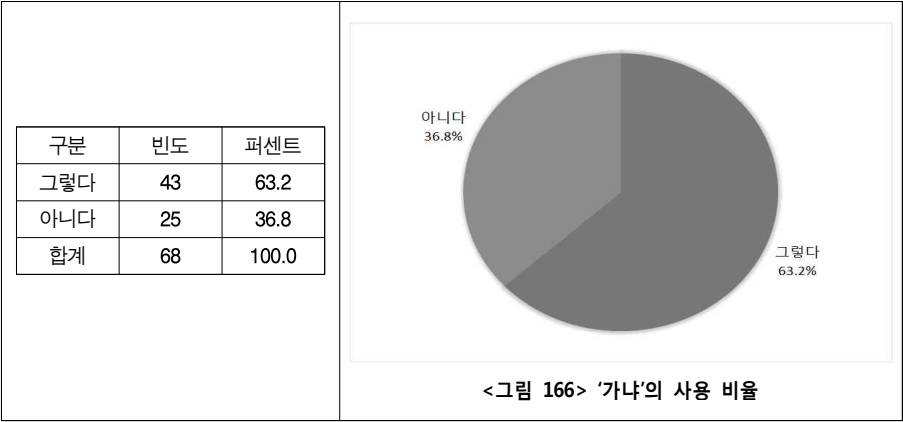
다음은 ‘가니’의 사용 여부와 관련된 분석이다. 73%가 ‘가니?’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세대별 빈도 그래프도 함께 제시한다.



다음은 ‘가나?’의 사용 여부와 관련된 분석이다. ‘가니?’, ‘가나?’와 달리 13%만이 ‘가나?’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세대별 빈도 그래프도 함께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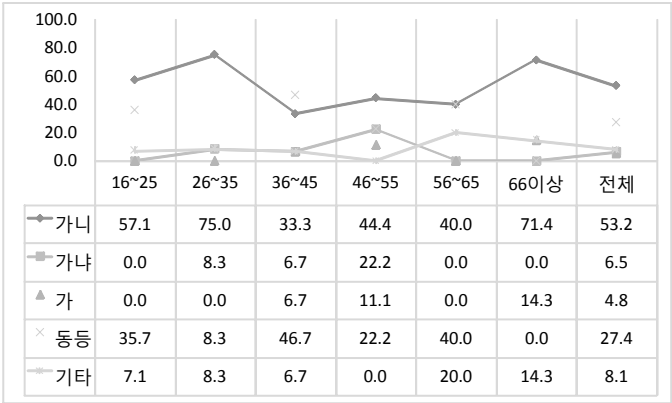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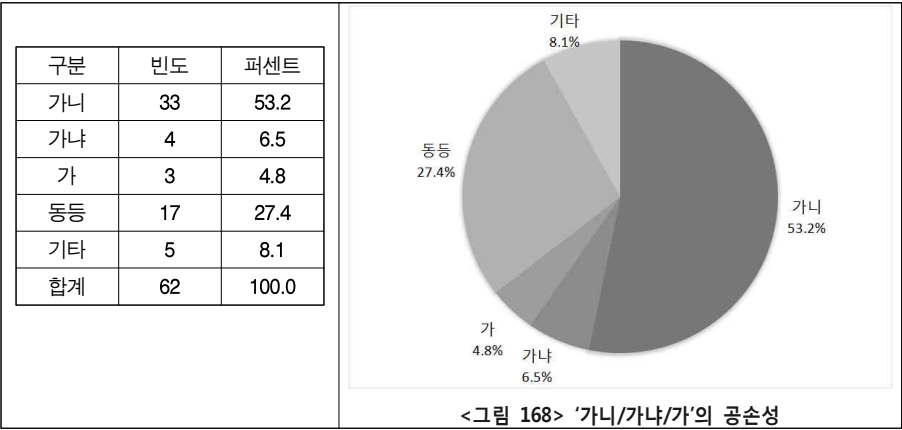


다음은 ‘가냐?’의 사용 여부와 관련된 분석이다. 63%가 ‘가냐?’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세대별 빈도 그래프도 함께 제시한다.



<그림 167> ‘가냐’의 연령별 사용 비율

다음은 ‘-니?’, ‘-냐?’, ‘-냐?’ 중 어느 것이 가장 ‘고상한[polite]’를 묻는 질문이다. ‘-니’가 가장 고상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확인되었다(53%). 세대별 빈도 그래프도 함께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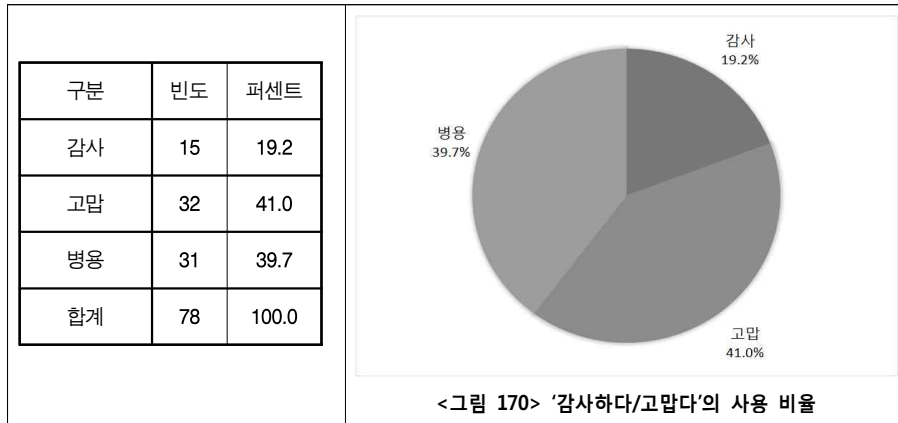
<그림 169> ‘가니/가냐/가’의 연령별 공손성

#### 4.2.2.4 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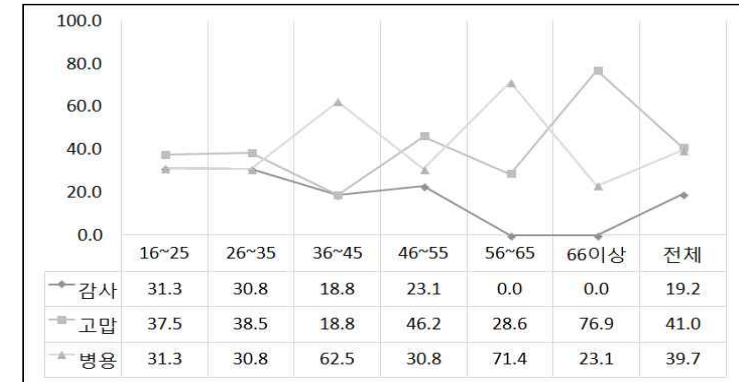
본 연구의 시범 조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7개의 담화 관련 문항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통계 처리가 가능한 6개 문항의 답변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담01]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해요/고마워요

이 문항은 자신을 도와 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경우의 ‘감사하다’와 ‘고맙다’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감사하다’와 ‘고맙다’의 사용 빈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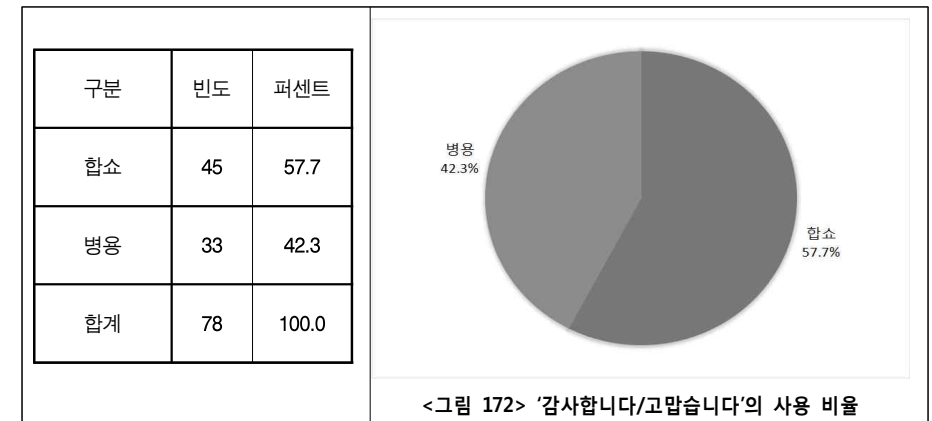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하다’만 사용하는 빈도에 비해 ‘고맙다’만을 사용하는 빈도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용언을 병용하는 빈도도 ‘고맙다’만을 사용하는 빈도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을 해 보면, 다음의 그래프와 같이 56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는 ‘감사하다’만의 사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고맙다’만의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으므로, 향후 본격적인 사회 방언 조사에서는 표본의 수를 대폭 확대하여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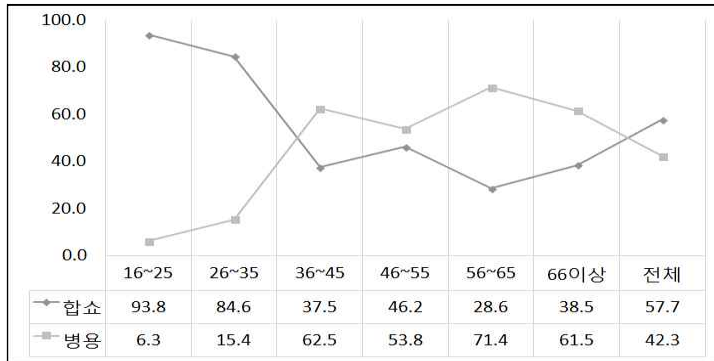


<그림 171> ‘감사하다/고맙다’의 연령별 사용 비율

또한 이 문항을 통해 ‘감사하다’와 ‘고맙다’가 ‘합쇼체’ 또는 ‘해요체’의 상대높임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양상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합쇼체만을 사용하는 빈도가 과반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합쇼체와 해요체를 둘 다 사용하는 빈도도 40%를 넘는 반면에, 해요체만을 사용하는 빈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을 해 보면, 다음의 그래프에서처럼 35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합쇼체만의 사용 빈도는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합쇼체와 해요체를 둘 다 사용하는 빈도는 최고 1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에, 36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는 합쇼체의 사용 빈도가 35세 이하 연령층에서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급감하는 대신에 합쇼체와 해요체를 병용하는 빈도가 50%를 훌쩍 넘기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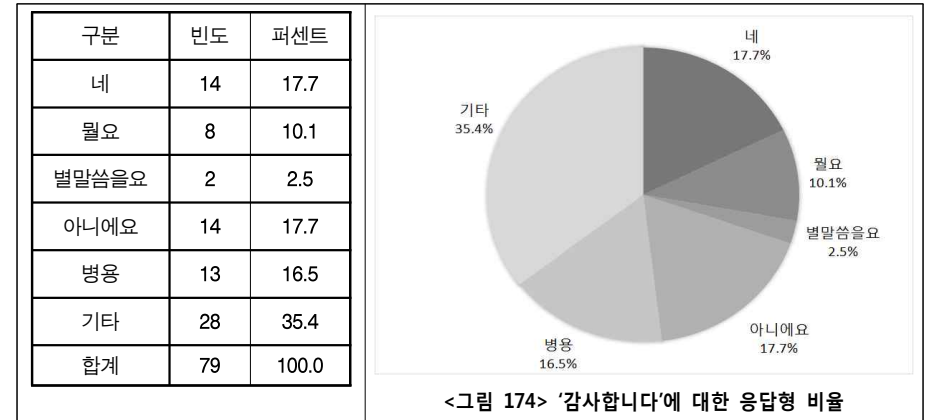


<그림 173>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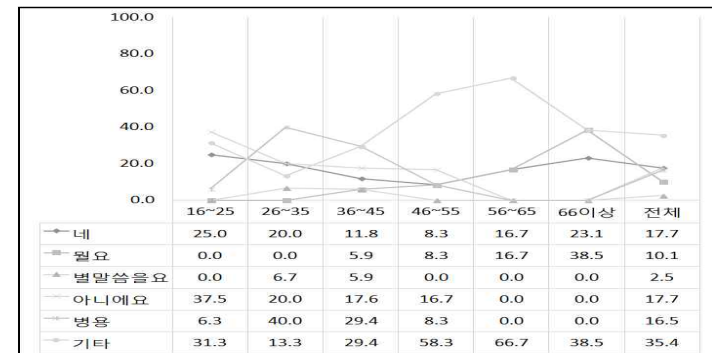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인지, 사용, 수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 대상자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수용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감사합니다” 또는 “감사해요”를 사용한다는 응답(68.5%)과 “고맙습니다”, “고마워요”를 사용한다는 응답(83.7%)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자신을 도와 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경우의 ‘감사하다’와 ‘고맙다’의 사용 양상에서 나타나는 차이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감사하다’보다 ‘고맙다’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위의 분석을 부정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게 한다.

#### [답02]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이 문항은 누군가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의 응답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다양한 응답 방식의 유형과 빈도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의 응답은 기타가 35%가 넘는 정도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네”, “아니에요”, “월요” 등도 20%를 넘지 않고 있으며, 둘 이상의 응답을 사용하는 경우도 16%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을 해 보면, 다음의 그래프에서처럼 35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과 56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 간에 상당히 뚜렷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35세 이하에서는 “월요”가 전혀 출현하지 않지만 “아니에요”의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6세 이상, 특히 66세 이상에서는 “월요”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아니에요”는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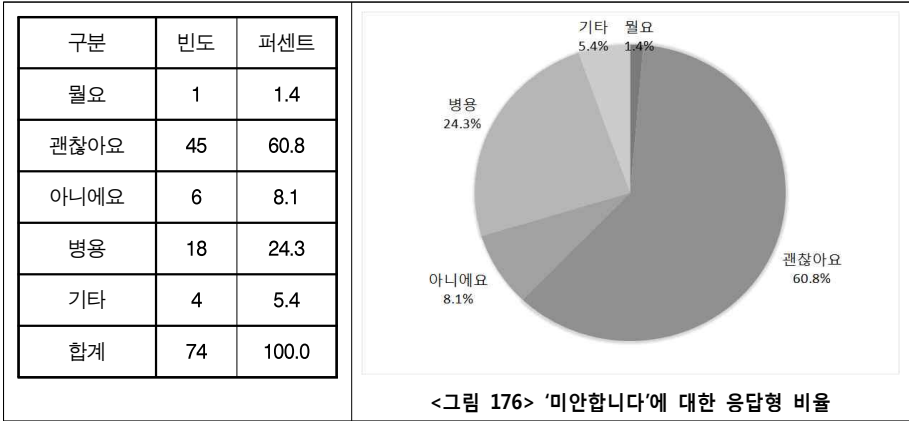
<그림 175> '감사합니다'에 대한 연령별 응답형 비율



한편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의 응답으로서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사용되는 ‘천만에요’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여부도 조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인지도는 86.5%로 매우 높은 반면에 조사 대상자의 12.2%만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표현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50%를 조금 넘는 수준(5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해 보면, 연령층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

**[답03] 미안 표현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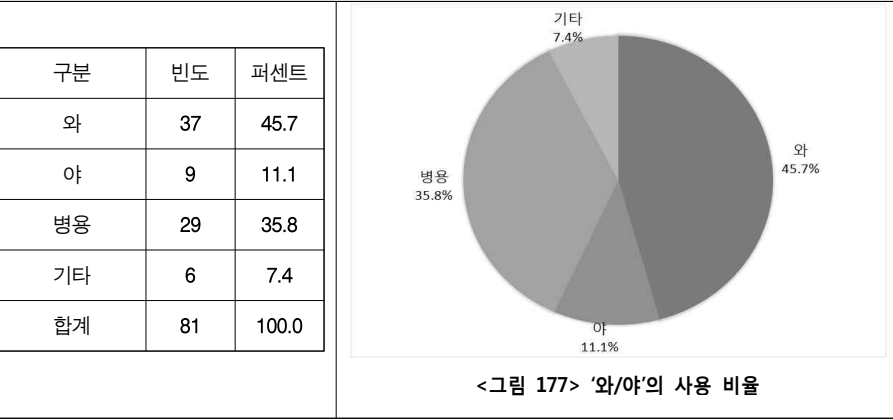
이 문항은 누군가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의 응답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다양한 응답 방식의 유형과 빈도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의 응답이 비슷한 빈도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누군가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의 응답에서는 “괜찮아요”가 60%가 넘는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괜찮아요”의 사용 빈도는 둘 이상의 응답을 사용하는 빈도가 20%를 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미만의 빈도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해 보면, 연령층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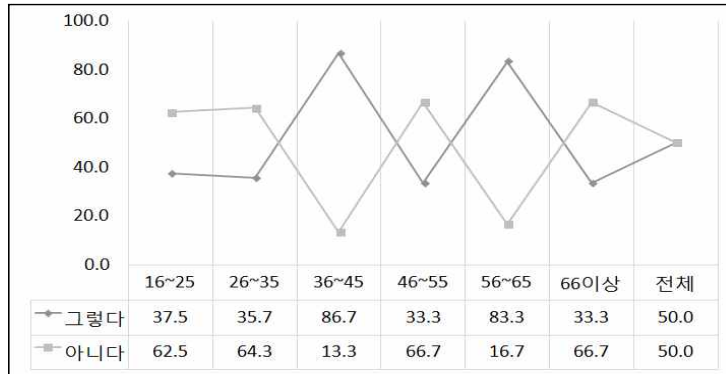
**[답04] 와/야**

이 문항은 아주 멋진 장면을 봤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 ‘와’와 ‘야’ 등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감탄사 ‘와’와 ‘야’ 등의 사용 빈도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야’만 사용하는 빈도에 비해 ‘와’만을 사용하는 빈도가 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와 ‘야’ 두 감탄사를 병용하는 빈도도 35%가 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에 ‘와’와 ‘야’ 이외의 다른 감탄사를 사용하는 빈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을 해 보면, 연령층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아주 멋진 장면을 봤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 ‘와’와 ‘야’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여부도 조사해 보았는데, 먼저 ‘와’의 인지도는 100%로 나타났고 수용 정도도 95.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와’를 실제로 사용한다는 응답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75.7%로 나타났다. 또한 ‘야’의 인지지도 100%로 나타났고 수용 정도도 94.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야’를 실제로 사용한다는 응답의 빈도는 더 낮은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연령층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 다만 감탄사 ‘야’를 실제로 사용한다는 응답의 빈도에서는 연령 변인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차이가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온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36-45세의 연령층과 56-65세의 연령층에서는 80%가 넘는 조사 대상자가 감탄사 ‘야’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다른 연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모두 5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36-45세의 연령층과 56-65세의 연령층의 이러한 특성은 그 사이에 있는 46-55세의 연령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며,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178> '와/야'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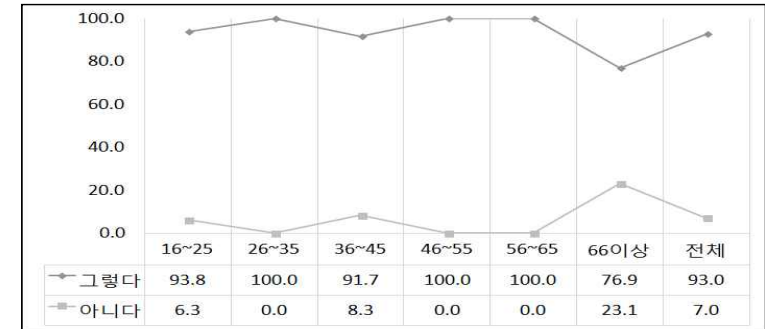
#### [답06] ~것 같아요

이 문항은 이른바 비확정적 표현이라고 불리는 “~ 것 같아요”라는 표현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질문지에서는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사람의 외모가 어때요?”라고 물어보거나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 것 같아요”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것 같아요”라는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원래의 의도를 실현하지 못했고, 통계적인 처리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 것 같아요”라는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조사의 방식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향후의 본격적인 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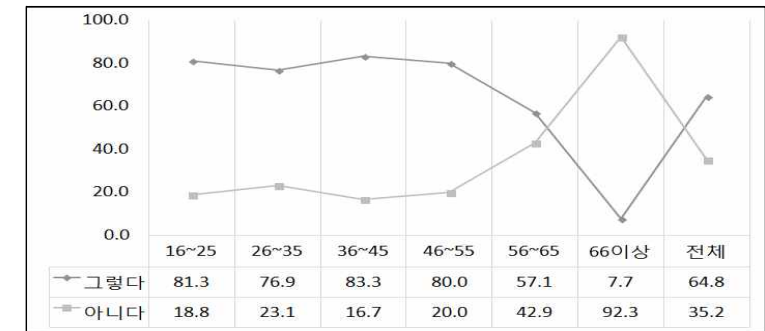
한편 비확정적 표현 “~ 것 같아요”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여부도 조사해 보았는데, 인지도(93.0%)와 수용 정도(80.3%)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그것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64.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해 보면, 66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다른 연령층과의 주목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 것 같아요” 표현의 인지 여부에 대한 연령별 교차 분석에서는 아래의 그래프에서처럼 66세 이상의 연령층에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인지도가 20% 이상 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것 같아요” 표현의 사용 여부에 대한 연령별 교차 분석에서는 훨씬 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아래의 그래프에서처럼 66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만 “~ 것 같아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사용한다는 응답보다 더 많으며 그 차이도 무려 84.6%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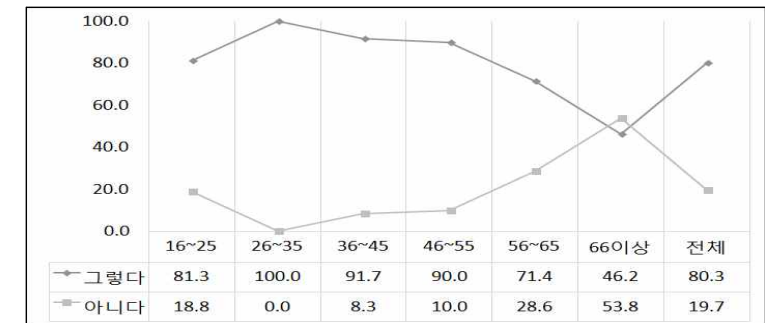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것 같아요” 표현의 수용 여부에 대한 연령별 교차 분석에서도 상당히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아래의 그래프에서처럼 66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만 “~ 것 같아요” 표현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79> '~것 같아요'의 연령별 인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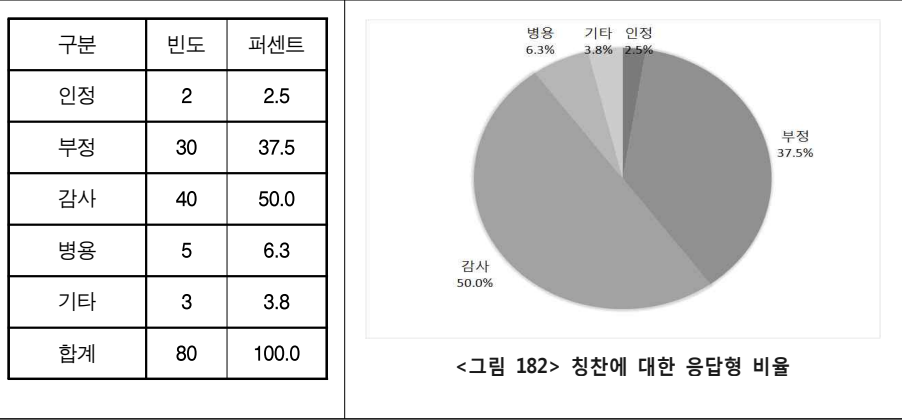
<그림 180> '~것 같아요'의 연령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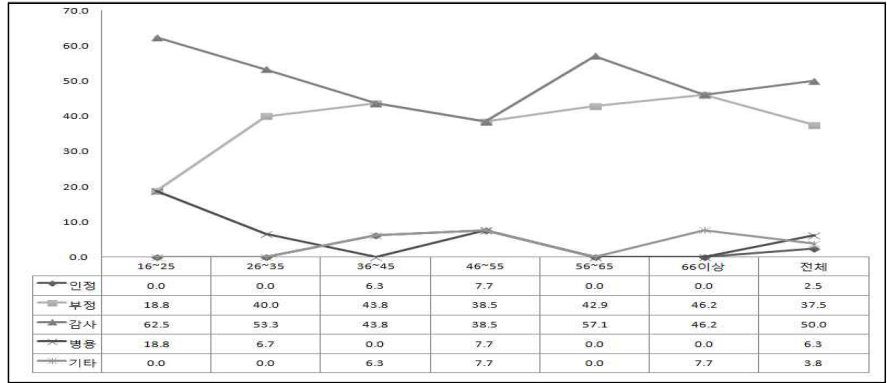
<그림 181> '~것 같아요' 연령별 수용 비율

**[답07] ‘마음씨가 참 좋습니다’에 대한 응답**

이 문항은 칭찬에 대한 응답 표현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질문지에서는 “누군가가 “마음씨가 참 좋습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에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다양하게 나오는 응답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된 응답 표현들은 ‘인정’, ‘부정’, ‘감사’, ‘병용’ 등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칭찬에 대한 응답 표현의 유형별 사용 빈도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칭찬에 대한 응답 표현의 유형으로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등의 ‘감사’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니에요”, “별말씀을요” 등의 ‘부정’이 3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에, 칭찬을 그대로 인정하는 유형인 ‘인정’은 불과 2.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을 해 보면, 아래의 그래프에서처럼 16~25세의 연령층에서 ‘감사’ 유형(62.5%)이 두드러지고 ‘부정’ 유형(18.8%)이 매우 적게 나타나는 점 등이 눈에 띄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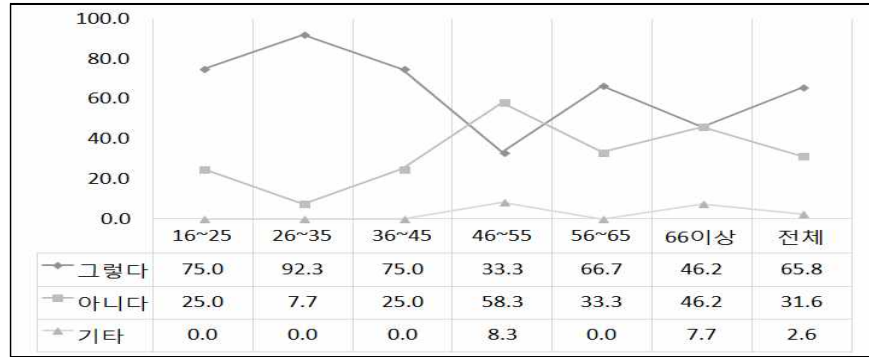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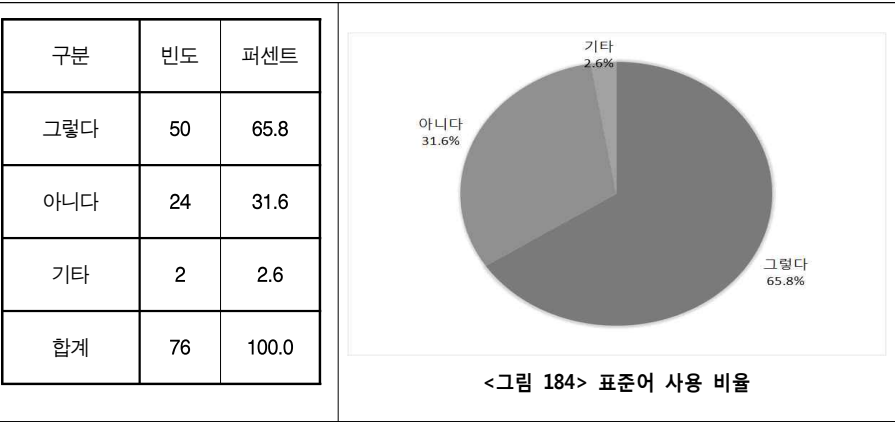
**<그림 183> 칭찬에 대한 연령별 응답형 비율**

**4.2.2.5 방언 의식**

본 연구의 시범 조사에서는 방언 의식과 관련한 문항을 4개 포함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01] 일상생활에서 표준어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표준어 사용 의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질문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표준어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가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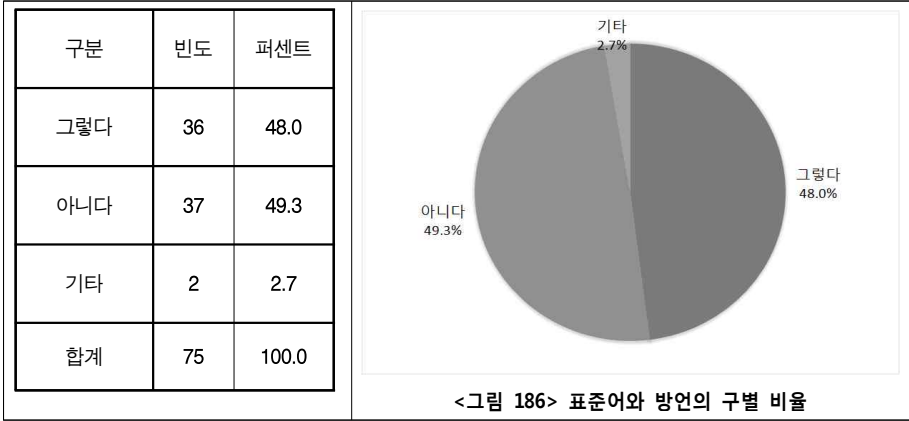


**<그림 185> 표준어 연령별 사용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2/3 가량이 일상생활에서 표준어를 쓴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조사 대상지역이 수도권에 해당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을 해 보면, 아래의 그래프에서처럼 45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므로,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02] 방언과 표준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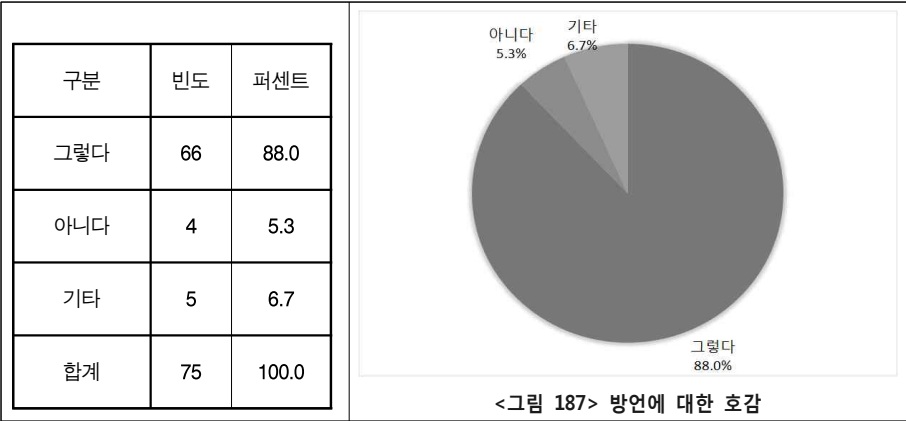
이 문항은 표준어와 방언의 구별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질문지에서는 “방언과 표준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가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가 방언과 표준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을 해 보아도 연령층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인03] 제보자(선생님)께서 쓰시는 방언을 좋아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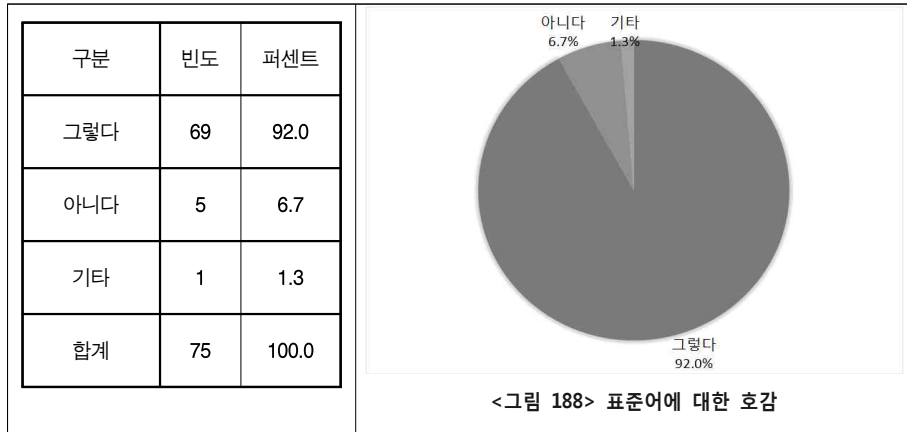
이 문항은 방언에 대한 호불호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질문지에서는 “제보자(선생님)께서 쓰시는 방언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가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88.0%)가 자신이 사용하는 방언을 좋아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을 해 보아도 연령층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문항은 자신이 방언이 아닌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질문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을 방언 화자라고 인식하는 경우와 방언 화자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조건을 세분화하고 질문 방식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인04] 표준어를 좋아하십니까?

이 문항은 표준어에 대한 호불호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질문지에서는 “표준어를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가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절대다수(92.0%)가 표준어를 좋아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변인에 따라 교차 분석을 해 보아도 연령층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 4.3. 사회방언 조사 연구 방법론 제안

#### 4.3.1. 시범 조사 결과의 종합적 분석

기술의 편의상, 제보자들을 다음과 같이 6개 집단으로 나누고 이제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세대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연령	25세 이하	26세~35세	36세~45세	46세~55세	56세~65세	66세 이상

##### (1) 연령

연령에 따른 변이가 어느 정도 분명히 드러나는 항목들(집단 간 사용 비율에서 15%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 이를 표로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Ⅰ유형 - 앞 세대와 비교하여 사용 비율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항목(괄호 속의 단위는 %)

세대	항목	개수
5집단	죄(32), 취(47), 외[ø]삼촌(32), 외삼촌(고모음화, 35), 밥하구(39), 말:(21), 더:럽다(20), 지팡이(16), 땀기다(40), 잡어라(16), 비밀번호(50), 약방에 감초(부정적 의미, 16), 감사에 대한 응답-필요(22)	13
4집단	떼(54), 때(32), 텔레비전(21), 여보(34), 아비/아범(33)	5
3집단	아버지(37)	1
2집단	의문형 어미 ‘-니’ (21)	1
1집단		0

▶ 제Ⅱ유형 - 앞 세대와 비교하여 사용 비율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항목(괄호 속의 단위는 %)

세대	항목	개수
5집단	왕따(48), 엄마(56), 언니(29), 가는날이 장날(부정적 의미, 63), -것 같아요(50)	5
4집단	말기다(23), 맑다[말따](70), 단무지(34), 감사하다(23)	4
3집단	죄[쥬](31), 말이[바치](35), 꽃이(40), 비번(38)	4
2집단	떼[tʰɛ](18), 때[tʰɛ](23), 외삼촌(비고모음화, 41), 밥하고(18), 값이(24), 올갱이(27), 삼천원이세요(39)	7
1집단	아빠(29), 의문형 어미 ‘-냐’ (20), 감사에 대한 응답-아니예요(18)	3

위 표에 정리된 대로, 제Ⅰ유형은 전통 방언형 즉 구형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항목이며 제Ⅱ유형은 신형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항목이다. 이 표에 근거할 때 구형의 축소는 5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형의 확대는 제2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이에 따라 해당 시범 조사 지역의 세대 구분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계층	젊은층(1, 2집단)	중장년층(3, 4, 5집단)	노년층(6집단)
연령	35세 이하	36세-65세	66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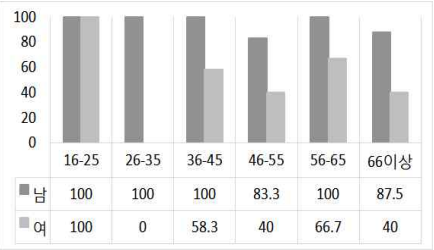
말하자면 언어 차원에서 해당 조사 지역은, 1950년생 이전과 1950년-1980년생 그리고 1980년생 이후의 세 계층으로 세대 구분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시범 조사 지역이 교육적·경제적으로 선도적인 수도권 도시인 까닭에, 젊은층의 연령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2) 연령 이외의 변수

이번 시범 조사에 나타난 언어 변이에 관여하는 연령 이외의 요소로는 성별, 학력, 직업 정도를 들 수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변이는 ‘형/오빠’ (친족이 아니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의 사용에서 발견된다. 다음 표를 보자(단위는 %).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남자	100	100	100	83.3	100	87.5
여자	100	0	58.3	40	66.7	40

위 표에서 보듯 남성은 친족이 아닌 경우에도 ‘형’ 을 자연스럽게 쓰는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제1집단에서 ‘오빠’의 사용이 자연스러워진다는 사실은 그러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만하다. 이는 다음의 두 표(단위는 %)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그림 189>‘형/오빠’의 성별 사용 비율

남성보다 여성이 사용이나 수용 비율 모두에서 낮지만, 사용 비율에 비해 수용 비율의 격차는 20% 이상 줄어들어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오빠’의 사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로, 학력에 따른 변이도 발견된다(단위는 인원수).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졸 이상
잡아라	1	5	8	27	32	3
잡어라	0	4	0	1	0	0

이는 모음조화와 관련된 ‘-아라/어라’ 선택의 문제인데, 학력이 높으면 ‘잡어라’의 출현 빈도는 ‘0’에 가까워진다(사용 인원수 1명은 무시). ‘잡어라’가 전통형임을 감안할 때 모음조화는 교육에 의해 교정되어 가는 대표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졸 이상
단무지	0	3	3	21	28	2
단무지/다꾸앙 병용	1	6	4	7	4	1

일본어에서 기원한 외래어 중 ‘다꾸앙’을 사용하는 빈도 또한 학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위 표는 ‘다꾸앙’의 사용 빈도가, 학력과 반비례함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세 번째로, 다음은 부분적이지만 직업 요소에 의해 조건된 변이라 할 만하다.

	사무직	생산직	자영업	농업	주부	학생
비번	16	0	4	2	9	13
비밀번호	2	1	2	9	4	0

직업이 농업일 경우에는 ‘비번’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고, 학생일 경우에는 그 빈도가 압도적이다. 거꾸로 ‘석 장’은 학생일 경우에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고 직업이 농업일 경우에 압도적이다. 다음 표가 이를 여실히 드러내준다. 다만 ‘비번’이나 ‘석 장’의 경우, 연령과 관련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일이다.

	사무직	생산직	자영업	농업	주부	학생
‘석 장’ 사용	5	1	3	8	4	1
‘석 장’ 비사용	13	0	3	0	8	13

### 4.3.2. 향후 사회방언 조사 연구를 위한 제안

이번 시범 조사는 92개 항목에 대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100명가량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체 항목 중 대략 반 정도 되는 45개의 항목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은 앞(4.3.1.절)에서 살핀 바다. 나머지 항목 대부분은 조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항목이라기보다, 조사 지역이 제한적이거나 조사 대상 제보자 수가 적어 일정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들이다. 훨씬 더 많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에는 좀 더 의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사회방언 조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 제보자 수의 증대

- 언어 변이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 인원(항목별로 차등) 이상의 조사
- 좀 더 넓은 연령 분포를 고려한 관찰(시범 조사에서는 66세 이상을 세분하지 않음.)
- 5년 단위의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시범 조사에서는 10년 단위)

#### ○ 질문지의 체계화

- 전국 공통 조사 항목과 지역별 조사 항목의 이원화
- 문법이나 담화 관련 항목의 개발
- ‘사용/인지/수용’의 면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항목의 개발
- 사회방언 관련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제보자 신상 기록란의 정밀화

#### ○ 자연스러운 조사 과정의 확보

- 조사원 훈련
- 관찰자의 모순 완화 방안 모색 : 조사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시범 조사에서는 제보자 1인당 90분-120분 정도) 격식적 말투의 출현 경향을 배제하기 어려움.
- 사회적 변수를 고정하지 않은 조사(시범 조사에서 학력을 고졸 이상으로 한정된 결과, 제보자 찾기가 매우 어려웠음.)

## 제5장 결론

### 5.1. 연구의 의의

국립국어원은 국어 및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언어 발전의 기초를 세우고 국민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훌륭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지만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언어 문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가 고도로 현대화하고 표준어가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보급되면서 각 지역의 전통 방언이 급속히 자취를 감추어가는 한편, 여러 지역 출신 화자들이 도시에 모여 섞여 살면서 새로운 언어 변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언어적 측면에서 지역 차는 현저히 줄어든 반면 세대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통 방언 및 그것의 새로운 변종들을 조사분석하여 한국어가 변해 가는 양상을 거시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방언 변종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여 소통을 위한 언어문화정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신흥 도시라 할 수 있는 평택 지역을 시범 조사 지역으로 택해 세대별, 성별, 계층별 언어 변종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세대별 변종 파악에 노력을 경주하였는바 해당 지역은 대체로 30대, 60대를 기점으로 하여 3단계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세대차에 의한 변종들을 인식하고 나아가 소통을 위해 여러 중장기 계획을 모색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배려와 치유를 위한 바람직한 언어문화 정립, 그를 통한 소통하는 행복한 한국 사회를 모토로 다음과 같은 중장기 사업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언어문화의 변화 양상 조사·연구
- 한국어 말하기 방식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 연구
-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의 접촉 양상 연구
- 한국 방언 지도 구축을 위한 정밀 조사·연구
- 문학 작품 속의 방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프로그램 구축
-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방언 관련 교육/행사 콘텐츠 구축
- 소멸 위기의 한국어 방언 조사연구
- 한국어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 5.2. 기대 효과

본 사업과 앞으로 있을 순차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사회 방언에 대한 조사·연구 방법론 개발을 통해 한국의 사회 방언 자료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세대 간, 계층 간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한국 사회 구성원들 사이 —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의 소통을 증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는 배려와 치유를 위한 바람직한 언어문화의 정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소통하는 행복한 한국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중장기 계획의 순차적 진행은 표준어 및 방언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며, 남북 통합 언어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 이후 방언 사용 예측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어의 다양한 변종을 수집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국어의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방언 변화의 미래를 예측하여 국가적 언어문화 정책 수립에 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국립국어원에서 이미 수집한 방언 자료를 활용하여 방언 지도 구축 등 보다 거시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언어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

- 소멸 위기에 놓인 여러 부류의 방언을 우리 언어문화 유산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정책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현석(2009), 국어 담화 표지 ‘예’와 ‘네’의 사용에 나타나는 변이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17(2).
- 강현석(2011), 해요체-합쇼체의 변이에 대한 계량사회언어학적 연구 - 성별어적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19(2).
- 강희숙 외(2009), 전남방언 여성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변이와 변화에 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44.
- 강희숙(1992), 음장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30.
- 강희숙(1993), 장흥지역어의 불규칙활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p, t, s 불규칙 활용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15.
- 강희숙(1994), 음운변이와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 전남 장흥 방언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강희숙(2001), 대학생들의 특수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9(1).
- 고동호(2008), 제주 방언 ‘·’의 세대별 변화 양상, 《한국언어문학》65.
- 곽충구(2002), 방언 연구사, 《국어국문학회 50년》(국어국문학회 엮음), 태학사.
- 권경근(2001), 현대국어에서의 모음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 젊은 세대의 말을 대상으로, 《언어학》30.
- 권순미(2008), 현대국어 ㄴ-ㄹ 연쇄의 변이 현상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기세관(1996), 여수방언의 음운론적 특성, 《선청어문》24(1).
- 김규남(1998), 전북 정읍시 정해마을 언어사회의 음운변이 연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규현 외(1996), 대화조직상의 성별 차이: 평가와 이해확인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4(21).
- 김선철 외(2004), 서울말 장단의 연령별 변이, 《말소리》50.
- 김선희 외(1992), 남성어 여성어에 관한 연구, 《어문학연구》2(1).
- 김선희(1993), 여성어에 관한 고찰, 《목원대 논문집》19.
- 김성현(1997), 언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관한 고찰, 《사회언어학》5(2).
- 김원보 외(2007),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이중모음의 음향분석과 이중모음체계, 《음성과학》14(4).
- 김원보 외(2014ㄱ), 제주방언 화자의 세대별(20대/50대/70대) 어두 파열음의 VOT, F0 및 파열강도(burst energy) 변이양상, 《탐라문화》44.
- 김원보 외(2014ㄴ), 제주방언 화자의 세대별(20대50대70대) 단모음의 음향분석과 모음체계, 《언어과학연구》39.
- 김유권(2004),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겨레어문학》32.
- 김재민(1998), 경어법 사용의 세대간 차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언어학》6(2).
- 김정호(2007), 1970년대 “합쇼체”의 남성어적 성격에 관하여 -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25.
- 남경란(2004), 동해안 어촌 지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영덕, 울진, 삼척, 강릉을 중심으로, 《한국말글학》21.
- 남궁화경(2008), 서울말 /-ㄴ/, /-ㄹ/의 음가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연구, 연세대 국문과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1995),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시아여성연구》34.
- 민현식(1997),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5(2).
- 박경래(1984), 괴산방언의 음운에 대한 세대별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경래(1989), 피산지역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국어국문학》 101.

박경래(1993), 충북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박경래(1994), 충주 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개신어문연구》 10.

박경래(1999), 청원 방언의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 청자대우법에서의 힘과 유대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16.

박경래(2000), 단양 방언의 음운에 대한 세대별 비교 고찰, 《개신어문연구》 17.

박소라(2004), 한국어 남녀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순형(2011), 실험음성학적 방법에 의한 경남 방언의 성조 변화 연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영순(1985), 한국어 복자음 발음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어문논집》 24(1).

박정자(2007), 국어 음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종덕(2000), 안동 지역어의 훌훌소리 체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말연구》 7.

박주경(1987), 현대 한국어의 장단음에 관한 연구, 《말소리》 11.

박지윤(2011), 서울 지역 세대 간 /ㄱ/와 /ㄴ/ 모음의 포먼트 측정 - 조음음성학적 특징과 스펙트로그램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8.

배혜진 외(2010), 대구 지역 어두경음화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民族文化論叢》 46.

서성원(2002), 순천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새내(2006), 현대 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윤경희(2009),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수의적 음운변동 현상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명숙(1996), 청주지역 중·고등학생의 발음에 대한 조사 연구 - 장단음, ㄱ과 ㄴ, ㄴ의 사회적 변이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15(1).

윤용옥(1993), 강화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길재(1991), 남원지역 방언의 음운변화에 대한 연령별 연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길재(2004), 곡용과 활용의 어간재구조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나주 지역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2(1).

이미재(1988), 언어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 경기도 화성 방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미재(1989), 어두 경음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 언어 변화의 측면에서, 《수원대학교 논문집》 7.

이상녀(2005), 강원도 영동 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은선(2011), 전주 지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주행(1999), 한국 사회계층별 언어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7(1).

이현복(1977), 서울말과 표준말의 음성학적 비교연구, 《언어학》 2.

임철성(1997), 연령층별 성별 어휘 사용의 계량적 고찰 - 방송극 일출의 대사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54.

장승두(2005), 울산 공단 지역어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장승혜(2011), 어두경음화 현상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장혜진(2013), 대구 방언 어두 폐쇄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단서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차이, 《언어과학연구》 65.

전지은(2014), 핵심어 분석을 통한 성별, 연령별 발화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22(1).

전혜숙(2008), 《강원도 동해안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정명숙 외(2000), 국어 한자어의 장단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어문논집》 42(1).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정영주(1987), 경상남도 창원지역 방언의 세대차에 의한 음운 현상: 창원지역의 낱말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11.

정일진(1997), 표준어 단순모음의 세대간 차이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연구, 《말소리》 33/34.

최명옥(1998),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한경호 외(2002), 여수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과학과 교육》 10.

한명숙(2011),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한준일(2014), 서울 지역 화자를 대상으로 한 단모음 음장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홍미주(2003), 체언 어간말 (え, じ)의 실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11(1).

황보나영(1993), 현대국어 초성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 서울지역 대학생 사회의 용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アザムセバフリバディ(2011), 現代日本語における家族から呼ばれるときの呼称, 『一橋大学国際教育センター紀要』 2, 一橋大学, 57-71.

あだちゆうこ(2011), 第二言語としての日本語教育のかかえる問題(情報弱者のかかえる諸問題の発見とメディア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のための基礎研究), 『社会言語学』, 社会言語学刊行会, 183-200.

あべやすし(2011), 日本語表記の再検討--情報アクセス権/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の視点から(情報弱者のかかえる諸問題の発見とメディア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のための基礎研究), 『社会言語学』, 社会言語学刊行会, 97-116.

あべやすし(2013), 金融機関の窓口における代読・代筆について: 公共性と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の視点から, 『社会言語学』 13, 社会言語学刊行会, 59-83.

カーターバーバラ・白坂千里(2014), 高知県西土佐大宮方言におけるジャ・ヤとその周辺,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2,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13.

カーターバーバラ・白坂千里・韓娥凜(2013), 高知県四万十市西土佐におけるスタイル切換え: フォリナー・トークの観点から,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1,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42-56.

すぎむらなおみ(2013), 障害をもつ身体が性暴力被害にあったとき: マイナー・マイノリティの「つたわらない」困難, 『社会言語学』 13, 社会言語学刊行会, 1-15.

なかのまき(2008), 左手書字をめぐる問題, 『社会言語学』 8, 社会言語学刊行会, 61-76.

なかのまき(2011), 左手書字をめぐる問題(情報弱者のかかえる諸問題の発見とメディア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のための基礎研究), 『社会言語学』, 社会言語学刊行会, 79-95.

ハインリッヒパトリック(2011), 琉球諸語に関する社会言語学研究<特集>琉球語を見る/琉球語から見る), 日本語の研究 7(4), 日本語学会, 112-118.

高木裕子・宋善花(2012), 対称詞の待遇性による使用制限-日本語・朝鮮語・中国語の社会言語学的対照の観点から-, 『実践女子大学人間社会学部紀要』 8, 実践女子大学, 35-48.

高木千恵(2012), 大阪方言のとりたて形式カテについて,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0,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66-77.

金昂京(2011), 第二言語の摩滅研究の潮流,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9,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

語学研究室, 96-115.

迫田久美子(2010-현재), **다문화 공생 사회의 일본어 교육연구**,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朴浩烈(2007), 在日朝鮮語の研究：言語分析・社会言語学的考察への試み, 『韓國語學年報』 3, 神田外語大学, 93-124.

吉岡泰夫(2008), 医療コミュニケーション適切化のための社会言語学的研究, 『総合政策研究』 28, 関西学院大学, 251-253.

吉岡泰夫・辛昭静(2009), 患者-医療者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適切化のための医療ポライトネス・ストラテジー<特集>日本社会の変容と言語問題, 社会言語科学 13(1), 社会言語学会, 35-47.

南部智史・朝日祥之・相澤正夫(2014), ガ行鼻音の衰退過程とその要因について：札幌と富良野の言語調査データを利用して.

大西拓一郎(2009-현재), **방언 형성과정 해명을 위한 전국방언조사**,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東弘子(2011), 「情報提供」から「情報保障」へー相互理解をめざす協働作業として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見る可能性(情報弱者のかかえる諸問題の発見とメディア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のための基礎研究, 『社会言語学』, 社会言語学刊行会, 201-214.

藤田ラウンド幸世(2012), ヨンジェの物語ー韓国出身の学齢期にある一時滞在者の子どもとその背景となる東京都新宿区における教育のバイリンガリズムに関する社会言語学的考察, 『教育研究 = Educational Studies』 54, 国際基督教大学 教育研究所, 245-248.

櫛本崇恵(2008), 言語の性差と社会言語学的知見-オーストラリアにおける日本人留学生の英語活動を事例として, 『天理大学学報』 60(1), 天理大学, 109-122.

劉静慧(2011), 別れのあいさつ行動の対照研究ー日本人大学生と台湾人大学生の使用実態の調査からの分析, 『東アジア日本語教育・日本文化研究』 14, 東アジア日本語教育・日本文化研究学会, 147-168.

梅本仁美(2008), 高齢女性の会話に見られる「グループ・アイデンティティー」について, 『国際研究論叢：大阪国際大学紀要』 21(3), 大阪国際大学, 73-85.

木部暢子(2009-현재), **소멸 위기 방언 조사와 보존을 위한 종합적 연구**,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牧野由紀子(2008), 大阪方言における命令形の使用範囲：セエ・シ・シテをめぐって,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8,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55-74.

白岩広行(2008), 福島方言のノダッケ：実は俺ゝまだ学生なんだっけ,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8,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4-29.

白岩広行(2008), 福島方言の伝聞表現トとスケ,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8,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30-45.

白岩広行(2011), 福島方言の問い返し疑問：イントネーションによる区別,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9,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4-29.

福居亜耶(2014), 京都府福知山市方言における命令表現,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2,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51-70.

北山環(2007), 日本文化：その形成と表出-西洋文化に対峙するものとして, 『語学教育部ジャーナル』 3, 近畿大学語学教育部, 59-86.

北山環(2010), 呼称に見られる「建前」と「本音」ー映画のビジネス場面における呼び名を分析して, 『語学教育部ジャーナル』 6, 近畿大学語学教育部, 3-23.

寺尾智史(2008), 弱小の少数言語・アラゴン語が問いかけるもの-生き残りの可能性とその意味をめぐって, 『社会言語学』 8, 社会言語学刊行会, 41-59.

寺沢拓敬(2009), 「ことばのちから」というイデオロギーー言語現象を「能力化」するまなざしを問う, 『社会言語学』 9, 社会言語学刊行会, 43-61.

寺沢拓敬(2011), 英語ができれば、英語が必要な仕事に就けるのか?：日本の労働市場の不平等性と英語使用, 『社会言語学』 11, 社会言語学刊行会, 27-47.

山口華奈(2013), 和歌山市方言における疑問詞疑問文の文末詞「ナ」、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1,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57-65.

三宅正隆(2010), 言語変異をめぐる視点：I-言語学から見た社会言語学(中野雅博教授退職記念論集), 『立命館国際研究』 22(3), 立命館大学, 683-708.

森勇太・平塚雄亮・中村光(2012), 若年層の命令形の使用範囲：栗東市方言・福岡市方言・湖西市方言の対照から,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0,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17.

渋谷勝己(2008), 山形市方言の文末詞ジェ：ヨ・ズ・パと対比して,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8,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13.

渋谷勝己(2011), 山形市方言における引用・伝聞形式テとド,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9,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13.

渋谷勝己(2012), 山形市方言の文末詞ヤ：ヨと対比して,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0,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78-88.

石川有香(2009), 職種名称の変化から見るジェンダー-日本語コーパスを用いた社会言語学的調査, 『New directions』 27, 名古屋工業大学共通教育・英語, 15-26.

石黒武人(2010), スピーチコミュニティ：生成される文化をとらえる媒介物<特集>文化と媒介性を考える, 多文化関係学 7, 多文化関係学会, 69-81.

小島剛一(2012), 多重言語者になり損ねる人たち, 『社会言語学』 12, 社会言語学刊行会, 95-114.

松田謙次郎(2014), 形態素解析の大規模言語調査データへの応用：岡崎敬語調査パネルデータにおける名詞・代名詞・動詞の相対頻度数に対する話者性別効果の検証, 神戸松蔭女子学院大学.

野間純平(2011), 大阪方言の文末詞デとワ,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9,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30-45.

野間純平(2012), 大阪方言における「イ」の機能：文末詞「ワイ」「カイ」の意味にもとづいて,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0,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55-65.

野間純平(2013), 高知県四万十市西土佐方言における逆接表現,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1,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5-27.

野間純平(2013), 高知県四万十市西土佐方言における準体助詞,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1,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5-14.

野瀬昌彦(2008), クレオール社会言語学的考察：特にトクピシとビスラマの状況, 麗沢大学紀要 87, 麗沢大学, 91-113.

王子田笑子(2008), 鹿児島市方言の新しいあいづち表現：「ダヨー」と「ダカラヨー」の意味分析を中心に,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8,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75-88.

熊谷康雄(2009-2012), **대규모 방언 데이터의 다각적 분석**,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原田走一郎(2014), 福岡市若年層方言における2つのゴトの形態統語的違い,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2,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 14-23.

井上文子(2010-2013), **방언담화의 지역 차와 세대 차에 관한 연구**,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井上史雄(2008), 敬語の社会学と経済学<特集>敬語研究のフロンティア, 社会言語科学 11(1), 社会言語科学会, 51-63.

井上史雄(2012-현재), 일본어 대규모 추적조사에 관한 종합적 연구,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井川暁(2011), 和歌山県上富田町方言の文末詞「ニ」,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9,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46-54.

斉藤正美(2009), 女性性は何のためにカタカナ語「ジェンダー」を守るのか-社会言語学的アプローチによる「ジェンダー」受容過程の再検討, 『社会言語学』 9, 社会言語学刊行会, 138-173.

朝日祥之(2009-2012), 접촉방언학에 의한 ‘언어변용 유형론’의 구축,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朝日祥之・松田謙次郎(2008), 敬語研究と実時間的言語変化研究との接点を求めて<特集>敬語研究のフロンティア, 社会言語科学 11(1), 社会言語科学会.

酒井雅史(2012), 兵庫県神戸市方言における命令表現,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0,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8-29.

酒井雅史(2013), 高知県四万十市西土佐大宮における行為指示表現,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1,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28-41.

酒井雅史(2014), 兵庫県神戸市方言における条件言いさし形による行為指示表現,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2,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37-50.

芝田卓哉(2008), 岐阜市方言の文末詞「テ」,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8,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46-54.

真田信治(2009-2013), 일본어 변종과 크리올 형성 과정,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札埜和男(2009), 法廷における方言のことば, 『社会言語学』 9, 社会言語学刊行会, 213-231.

塚原信行(2011), 言語能力概念と多文化共生--「福井市営住宅入居事務取扱要綱」をめぐる問題を手がかりに(情報弱者のかかえる諸問題の発見とメディア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のための基礎研究), 『社会言語学』, 社会言語学刊行会, 215-221.

打浪(古賀)文子(2009), 障害者と情報アクセシビリティに関する諸課題の整理-情報保障の概念を中心に, 『社会言語学』 9, 社会言語学刊行会, 1-16.

澤村美幸(2011), 方言研究の新たな展開 : 知られざる地域差の発掘(特集 言語研究の新たな展開-社会言語学・方言研究), 『日本語学』 30(14), 明治書院, 276-285.

坂野久(2011), EUの言語政策と「オーストリアドイツ語」, 『近畿大学教養・外国語教育センター紀要. 外国語編』 2(1), 近畿大学教養・外国語教育センター, 1-19.

坂野久(2012), オーストリアの料理名をめぐって, 『近畿大学教養・外国語教育センター紀要. 外国語編』 3(1), 近畿大学教養・外国語教育センター, 79-98.

坂井美日(2012), 現代熊本市方言の準体助詞: 「ツ」と「ト」の違いについて,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0,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30-47.

坂井美日(2013), 現代熊本市方言の主語表示,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1,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66-83.

平川公子(2008), 福岡市方言における文末詞バイとタイ,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8,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16-131.

平塚雄亮(2008), 福岡市方言におけるアスペクトマーカではないヨルの用法について,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8,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101-115.

平塚雄亮(2011), 福岡市若年層方言のツテ: 標準語の「って」と対比して,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9,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55-65.

平塚雄亮(2012), 福岡市方言の文末詞モン,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10,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48-54.

布尾勝一郎(2009), インドネシア人看護師・介護福祉士候補者受け入れに関する新聞報道-「日本語」と「イスラム教」をめぐる記述の問題点について, 『社会言語学』 9, 社会言語学刊行会, 95-112.

布尾勝一郎(2012), 言語政策的観点から見たEPA看護師・介護福祉士候補者受け入れの問題点: 国家試験に関する有識者検討会をめぐって, 『社会言語学』 12, 社会言語学刊行会, 53-71.

横山詔一(2009-현재), 문자환경 모델화와 사회언어 과학의 응용,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横山詔一・高田智和・當山日出夫・米田純子(2009), 平成明朝体のデザイン変異に関する共時的認知分析, 情報処理学会研究報告. 人文科学とコンピュータ研究会報告 2009(4), 一般社団法人情報処理学会, 33-40.

黒木邦彦(2008), 大分県日田市方言における「-てから」の用法: 「-て」「-きー」「-けんど」「-けどが」との比較をとおして, 阪大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 8,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89-100.

Bloomfield, Leonard (1933),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Bybee, J. (2003), Phonology and language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mbers, J. K. (1992), Linguistic correlates of gender and sex. English World-Wide, 13(2).

Chambers, J. K. (1995), Sociolinguistic theory: Linguistic variation and its social significance. Cambridge, MA: Blackwell.

Chambers, J. K. (2002), Patterns of variation including change. John Wiley & Sons, Inc.

Cukor-Avila, P. (2000), The stability of individual vernaculars. Ms., University of North Texas.

Di Paolo, M. (1992), Hypercorrection in response to the apparent merger of (æ) and (ɑ) in Utah english. Language & Communication, 12(3).

Eckert, P. (1989), The whole woman: Sex and gender differences in variation.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03).

Feagin, C. (1987), A closer look at the Southern drawl: Variation taken to extremes. In Variation in Language: NWAV-XV at Stanford. Proceedings of the Fifteenth Annual Conference on New Ways of Analyzing Variation. Stanford, CA: Dept. of Linguistics, Stanford University.

Firth, J. R. (1937), The Tongues of Men. London: Watts.

Graff, D., Labov, W., & Harris, W. A. (1986), Testing listeners' reactions to phonological markers of ethnic identity: A new method for sociolinguistic research, Diversity and diachrony, 53.

Hawkins, F. D. (1992), Speaker ethnic identification: The roles of speech sample, fundamental frequency, speaker and listener varia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Hockett, C. 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Hoeningwald, H. M. (1960), Language change and linguistic reconstruction. Chicago: Phoenix Book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hn WHITMAN (2012-현재), 일본열도와 주변 여러 언어의 유형론적・비교역사언어학적 연구,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Kavanagh Barry(2010), 普通体と丁寧体の使用法についての考察, 青森県立保健大学雑誌 11, 青森県立保健大学研究推進・知的財産センター研究開発科雑誌編集専門部会, 87-92.

Kinoshita Thomson Chihiro(2007), 地域社会(Communities)に広がる学習共同体-オーストラリアの大学の日本語教育の場合, 『日本語教育』 133, 日本語教育学会, 15-21.

Labov, W. (1963), The social motivation of a sound change. Word-Journal of the International Linguistic

- Association, 19(3).
- Labov, W.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abov, W. (1994), Principle of Linguistic Change, vol. 1: Internal Factors. Oxford: Blackwell.
- Long Daniel(2011), 言語交流、コロニアル・ラグ、そして南洋諸島方言の日本語, 小笠原研究 -(38), 首都大学東京小笠原研究委員会, 17-29.
- Macaulay, R. K., & Trevelyan, G. D. (1977), Language, social class, and education: a Glasgow stud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atsuoka Rieko · Okabe Keiko · Poole Gregory(2011), 看護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ジェンダー、パワーおよびフェイスの研究--日本の医療マンガにあるスピーチイベントの社会言語学的分析, 『国立看護大学校研究紀要』 10(1), 国立看護大学校, 1-10.
- Maynor, N. (1988), Written records of spoken language: how reliable are they?. Methods in dialectology.
- Montgomery, M. (1997), Making transatlantic connections between varieties of English: The case of plural verbal-s.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25(2).
- Niedzielski, N. (1999), The effect of social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 of sociolinguistic variable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8(1).
- Roberts, M. M. (1966), The pronunciation of vowels in Negro speech.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Romaine, S. (1978), Postvocalic/r/ in Scottish English. London: Edward Arnold.
- Saussure, Ferdinand de (1916),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and Toronto: McGraw-Hill.
- Schneider, E. W. (1989), American Earlier Black English: Morphological and syntactic variables.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Schneider, E. W. (2002), Investigating variation and change in written documents. Blackwell Publishing Ltd.
- Shuy, R. (1969), Sociolinguistic research at the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the correlation of language and sex. International Days of Sociolinguistics.-Rome, Instituto Luigi Sturzo.-1970.
- Syrdal, A. K., & Gopal, H. S. (1986), A perceptual model of vowel recognition based on the auditory representation of American English vowel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79(4).
- Thomas, E. R. (1995), Phonetic factors and perceptual reanalyses in sound chan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Thomas, E. R. (2000), Spectral differences in/ai/offsets conditioned by voicing of the following consonant. Journal of Phonetics, 28(1).
- Thomas, E. R. (2002), Instrumental phonetics. Blackwell Publishing Ltd.
- Trudgill, P. (1999), Dialectalisation and Norfolk dialect orthography. Writing in Nonstandard English 67. Amsterdam: Benjamins.
- Wolfram, W. A. (1969), A Sociolinguistic Description of Detroit Negro Speech. Urban Language Series, No. 5.

## 〈부록〉 사회 방언 시범 조사 질문지

### 2014 사회방언 기초조사

## 사회방언 조사 질문지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 방언 자료 활용 동의서

자료의 내용: 사회방언 조사 질문지에 대한 발화

위 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자료를 주는 이( )를 ‘갑’ 이라 하고, 자료를 받는 이(국립국어원)를 ‘을’ 이라 하여, ‘갑’ 은 ‘을’ 의 아래와 같은 요청에 동의합니다.

1. ‘을’ 은 ‘갑’ 이 제공하는 발화 자료를 방언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 ‘을’ 은 ‘갑’ 이 제공하는 발화 자료를 보존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인에 따라 한국어가 변해 가는 양상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3. ‘을’ 은 순수한 연구나 교육 및 국어 의식의 고양 등 비상업적인 공공의 목적으로 ‘갑’ 이 제공하는 발화 자료 및 사진 자료(인물사진 포함)를 복제, 변형, 발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달리 상업적인 용도로 복제, 변형,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갑’ 과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2014년 11월 일

자료 주는 이(갑)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인)

자료 받는 이(을) 국립국어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代) 조사 위원 (인)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에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각 1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회 방언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설문지는 사회적 변인 가운데 연령, 세대에 따른 사회 방언 분화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말은 연령이나 성별 및 자신과 부모님의 고향, 그리고 외지 생활 경험이나 직업/학력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응답자의 나이, 성별, 출생지와 현재 거주지, 부모님 고향, 외지 생활 경험, 직업 및 학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오니 이를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련한 질문에 평소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목적 외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정보와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국립국어원

### ※ 개인 정보 수집 · 동의

1. 개인 정보 수집·이용자 : 국립국어원
2.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출생지, 현재 거주지, 외지 생활 경험, 직업, 학력, 부모님 고향
3. 개인 정보 항목 수집 사유:
  - 성명 : 출처를 밝혀 보존하고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성별, 출생지, 현재 거주지, 외지 생활 경험, 직업 및 학력 : 방언의 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
  - 부모님 고향 : 방언 형성의 기반을 확인하기 위함.
4. 수집·이용목적 : 2014년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사업의 사회 방언 조사 연구 수행 목적

귀하는 이상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사회 방언 조사 연구의 제보자로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함 ☐

사회방언 조사 설문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본 조사에 제보자로 참여, 제보자 조사 표에 작성하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조사자: (서명)  
제보자: (서명)

조사자 이름			조사 장소		
조사지	경기도 평택시				
조사 일시	2014년 11월 일				
제보자 이름			나이	세( 년생)	
제보자 성별	남 ( ) 여 ( )				
출생지					
현 거주지					
아버지 고향					
어머니 고향					
외지 생활	기간	사유			
직업	*구체적으로 기입				
학력	*구체적으로 기입				
Memo					

001 음1-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체계 - 단모음 '에/애'				
	때				
질문	새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가면 뭐 지어 날아간다고 합니까?				
유의사항	'에/애'의 구별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02 음1-2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체계 - 단모음 '에/애'				
	때				
질문	목욕을 자주 안 하면 몸에 뭐가 많이 낀니까?				
유의사항	- '에/애'의 구별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 최소대립쌍 항목은 두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지 조사.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03 음02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체계 - 단모음 '외'				
질문	죄 뭐를 많이 지으면 벌을 받죠?				
유의사항	- '외'의 '단모음/이중모음' 발음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 혹은, 중부 방언 화자인 경우 고모음화 '외' 확인.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04 음03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체계 - 단모음 '위'				
질문	죄 집이나 들에 사는 조그만 짐승인데 고양이가 잘 잡아먹는 것은 무엇이지?				
유의사항	'위'의 '단모음/이중모음' 발음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05 음04-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체계 - 이중모음 '의'				
질문	의사 병원에서 환자를 고쳐주는 사람을 뭐라 하죠?				
유의사항	'의/으/이'의 발음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06 음04-2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체계 - 이중모음 '의'				
질문	의사의 소원 통일의 마음을 담은 노래로, '~은 통일'로 시작되는 노래가 뭐죠?				
유의사항	'의/으/에/이'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07 음05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고모음화				
질문	어디로				
	길을 떠나는 사람(또는 피난 가는 사람)에게 가는 곳을 물을 때 어떻게 묻죠?				
유의사항	- '로/루'에 유의. - '워디/어데'에도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08 음06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고모음화				
질문	더럽다				
	세수를 안 해서 지저분한 얼굴을 깨끗하다고 하나요?(세수를 안 해서 지저분한 얼굴을 어떻게 하죠?)				
유의사항	'더/드'의 실현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음장도 정확히 전사.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09 음07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고모음화/단모음 '외'				
외삼촌					
질문	-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을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하죠? - '아재'라고 대답할 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아재'라 하나요"로 추가 질문 가능.				
유의사항	- '외'의 발음 정밀전사, '촌/춘'의 발음 정밀전사. - '외삼촌/외삼촌'이 이해어인 경우에도 고모음화 여부 확인.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10 음08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어두경음화/폐쇄음 뒤 경음화				
작다					
질문	키 차이가 나는 사람이 둘 있으면 이 사람은 키가 크고 저 사람은 키가 어떻다고 하죠?				
유의사항	어두의 '작다'의 경음화와 폐쇄음 뒤 '다'의 경음화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11 음09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한자어 경음화				
	효과				
	질문	좋은 약일수록 뭐가 빨리 나타난다고 하지요?(학원에 보냈더니 성적이 오릅니다. 뭐가 나타난다고 하지요?)			
유의사항	'효과/효과/효과/효과/효과/효과/효과'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12 음10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ㄴ 첨가				
	못 잇는다				
	질문	첫사랑은(혹은 원수는) 절대로 뭐 한다 하죠?			
유의사항	- 'ㄴ'의 첨가 여부 정확히 관찰. - '모인는다(동남)'로 발화하는 사람에게도 다른 수의적 형태 이끌어내어야 함.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13 음1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움라우트				
질문	지팡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걸을 때 뭘 짚고 다니죠?				
유의사항	- '지팡이/지팡이'에 유의. - 동남방언에서는 비모음화한 어형도 확인.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14 음12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움라우트				
질문	말기다				
	다른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잠깐 뭐 한다고 합니까?				
유의사항	움라우트( 및 연구개음화) 확인.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15 음13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유기음화				
	육학년				
질문	(초등학교) 4학년 다음은 5학년이고, 5학년 다음은 무엇입니까?				
유의사항	'유강년'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16 음14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유기음화				
	밥하고				
질문	한국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이거하고 반찬은 꼭 있어야 하죠?				
유의사항	- '-하고'는 조사, 반드시 '-하고'계의 조사가 사용되도록 조사. - 고모음화에도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17 음15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원룸				
질문	방 하나로만 되어 있는 집을 뭐라 합니까?				
유의사항	'원룸/월룸/원놈'에 유의해서 조사.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18 음16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모음조화				
	잡아라				
질문	아이와 같이 갈 때 아이에게 “내 손을 꼭 뭐 해라”라고 합니까?				
유의사항	'아/어'의 실현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19 음17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모음조화				
질문	빨어라 계란 껍질이 입에 들어가면 “빨리 뭐 해라”라고 하지요? (아이가 더러운 걸 입에 넣었을 때 “빨리 뭐 해라”라고 합니까?)				
유의사항	'아/어'의 실현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20 음18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자음군단순화				
질문	맑다 어제 날씨는 흐렸는데 오늘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어떻다고 하죠?				
유의사항	- 'ㄹ/ㄴ/ㄱ'의 실현 양상 정밀전사. - 고교생들이 어설피게 'ㄹ'을 발음할 수도 있으니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21 음19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자음군단순화				
	짧다				
질문	길이가 다른 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길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 하죠?				
유의사항	- ‘ㄹ/ㄴ/ㅂ’의 실현 양상 정밀전사. - 고교생들이 어설프게 ‘ㄹ’을 발음할 수도 있음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22 음20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여 > 이’의 변화				
	퍼다				
질문	(행동을 보이며) 주먹을 쥐었다가 뭐 한다 합니까?				
유의사항	- ‘편다/핀다/펜다’에 유의. - 장음 실현 가능성(남부 지방).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23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21	음운현상 - 마찰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발이					
질문	들에는 논이 많고 산에는 뭐가 많죠?				
유의사항	'바치/바시/바티'의 실현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24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22	음운현상 - 마찰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꽃이					
질문	봄이 되면 산에 들에 뭐가 예쁘게 핀다고 합니까?				
유의사항	'꼬치/꼬시/꼬티'의 실현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25 음23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자음군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				
값이					
질문	물가가 올랐을 경우 물건의 이것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유의사항	- ‘갑씨/가비’의 실현에 유의.(‘담뱃값이’를 추가로 조사할 수도). - 단음절 곡용 어간임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26 음24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자음군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				
여덟이					
질문	숫자를 셀 때 일곱 다음에는 뭐라고 하죠?				
유의사항	- ‘여덟비/여더리/여더비’의 실현에 유의. - 비어두 ‘으/어’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27 음25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자음군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						
축이						
질문	맨손으로 흉장난을 하면 손에 뭐가 많이 묻죠?					
유의사항	- '홀기/흐기/흐리'의 실현에 유의. - 동남 방언에서는 '으/어' 발음에 유의.					
전사						
Memo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28 음26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평파열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있이						
질문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난다고 합니까?					
유의사항	- '이피/이비'의 실현에 유의. - 단음절 어간임에 유의.					
전사						
Memo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29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27	음운현상 - 평파열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질문	부억이				
	- 밥은 짓는 곳을 뭐라고 하나요? - (답변 '주방'에 대비하여) 주방을 전에는 뭐라고 했나요? cf. '주방'이라는 말은 아파트 같은 현대식 건물에만 쓰는지 조사.				
유의사항	'부여키/부여기'의 실현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30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28-1	초분절운소 - 장단/성조				
질문	말(言)이 많다				
	수다쟁이는 이게 많다고 하죠? (‘말이 많다’)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말씀해 보세요.				
유의사항	음장은 음절 뒤에 ; 고조는 음절 뒤에 ‘ , 상승조는 음절 뒤에 ~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31 음28-2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초분절운소 - 장단/성조					
<b>말(馬)이 많다</b>					
질문	동물인데, 제주도에는 이게 많다고 하죠? (말이 많다)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말씀해 보세요.				
유의사항	음장은 음절 뒤에 ; 고조는 음절 뒤에 ' , 상승조는 음절 뒤에 ~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32 음29-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성 - 장애음 계열의 실현					
<b>가라 / 까라 / 카라</b>					
질문	다음[이것]을 차례차례 끊어서 발음해 주세요.				
유의사항	각각의 어형 사이에 충분한 휴지가 있게 차례로 읽도록, 3회 반복 시행, 녹음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33 음29-2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성 - 장애음 계열의 실현					
<b>아가 / 아까 / 아카</b>					
질문	다음을 차례차례 끊어서 발음해 주세요.				
유의사항	각각의 어형 사이에 충분한 휴지가 있게 차례로 읽도록, 3회 반복 시행, 녹음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34 음30-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성 - 장애음 계열의 실현					
<b>사라 / 싸라</b>					
질문	다음을 차례차례 끊어서 발음해 주세요.				
유의사항	각각의 어형 사이에 충분한 휴지가 있게 차례로 읽도록, 3회 반복 시행, 녹음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35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30-2	음성 - 장애음 계열의 실현				
<b>아사 / 아싸</b>					
질문	다음을 차례차례 끊어서 발음해 주세요.				
유의사항	각각의 어형 사이에 충분한 휴지가 있게 차례로 읽도록, 3회 반복 시행, 녹음에 유의.				
전사					
Memo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36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31-1	음성 - 장애음 계열의 실현				
<b>자라 / 짜라 / 차라</b>					
질문	다음을 차례차례 끊어서 발음해 주세요.				
유의사항	각각의 어형 사이에 충분한 휴지가 있게 차례로 읽도록, 3회 반복 시행, 녹음에 유의.				
전사					
Memo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37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31-2	음성 - 장애음 계열의 실현				
<b>아자 / 아짜 / 아차</b>					
질문	다음을 차례차례 끊어서 발음해 주세요.				
유의사항	각각의 어형 사이에 충분한 휴지가 있게 차례로 읽도록, 3회 반복 시행, 녹음에 유의.				
전사					
Memo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38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어01	고유어 - 소멸				
<b>동무/벗/친구</b>					
질문	아주 친한 사람을 일컬을 때, '동무/벗/친구' 중 어느 것을 쓰십니까?				
유의사항	- 조사 후 '동무/벗'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 여럿을 쓴다면 '사용'에서 어느 것을 많이 쓰는지, 또 의미 차는 없는지 조사.				
전사					
Memo					
		그렇다		아니다	
동무/벗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39 어02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고유어 - 소멸 (명절을) 쇠다				
질문	설이나 추석 명절을 뭐 한다고 합니까?				
유의사항	'쇠다'를 쓰는가 다른 말을 쓰는가 조사 후 '쇠다'의 인지, 사용 조사.				
전사					
Memo					
쇠다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40 어03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고유어 - 소멸 서리				
질문	- 과수원이나 밭 등에서 남의 작물을 몰래 가져다 먹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 (자신이나 선배들이) 보통 어떤 것을 서리했었나요?				
유의사항	- '서리'의 인지, 사용 조사. - 사과, 참외 등의 '과일 서리' 이외 보리, 밀, 땅콩 등의 '곡물 서리', 닭, 오리 등의 '가축 서리', 김치, 무 등의 '반찬/채소 서리' 여부도 조사.				
전사					
Memo					
서리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41 어04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방언 - 확산 뜯금없다/느닷없다				
질문	갑작스럽고도 엉뚱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다고 말합니까?				
유의사항	'뜯금없다/느닷없다'의 사용 여부 조사 후 선택되지 않는 항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뜯금없다/느닷없다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42 어05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방언 - 확산 다르다/틀리다				
질문	쌍둥이는 생김새가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끼리는 생김새가 어떻다고 합니까?				
유의사항	'다르다/틀리다'의 사용 여부 확인 후 '다르다/틀리다'의 인지, 사용, 수용 여부 조사.				
전사					
Memo					
다르다/틀리다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43 어06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방언 - 확산				
	<b>올갱이</b>				
질문	(사진 제시 후) 물에서 사는 이렇게 생긴 것을 뭐라 합니까?				
유의사항	- 조사 후, 방언인 '올갱이'의 인지, 사용, 수용 여부 조사. - 반대로 '올갱이'로 대답한 사람에게는 '다슬기'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전사					
Memo					
올갱이(다슬기)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44 어07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표준어 - 확산				
	<b>부추</b>				
질문	- 파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이 납작하고 폭이 좁은 이 야채를 뭐라고 합니까? - '부추'라는 답변이 나오면: 혹, '(분초, 분추) '정구지', '술', '줄', '소불', '소풀', '세우리'와 같은 말은 안 쓰는지요? - 위 중 어느 것을 쓴다면: 혹시 두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차이는 없는지요?(예: '전'은 정구지, '식물'은 부추)				
유의사항	'부추' 이외의 어형을 답한 경우 '부추'의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부추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45 어08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신어 - 두자어				
	<b>비번</b>				
질문	'비밀번호'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나요?)				
유의사항	'비번/비밀번호' 선택 여부에 대한 조사 후 '비번'의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비번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46 어09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신어 - 순화어				
	<b>휴대폰/휴대전화</b>				
질문	사람들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전화를 뭐라고 합니까?				
유의사항	- '휴대폰/핸드폰/휴대전화/손전화'에 유의. - 순화어인 '휴대전화'의 인지, 사용, 수용 여부 조사.				
전사					
Memo					
휴대폰/휴대전화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47 어10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신어 - 순화어				
	<b>왕따/집단 따돌림</b>				
질문	여러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의사항	'왕따/집단 따돌림' 중 주로 쓰는 것 조사 후 선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여부 조사.				
전사					
Memo					
왕따/집단 따돌림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48 어1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외래어/순화어 - 인구어계					
<b>트레이닝 복/운동복/추리닝</b>					
질문	운동할 때 입는 옷을 뭐라고 합니까?				
유의사항	조사 후 '추리닝'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추리닝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49 어12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외래어 - 인구어계				
	<b>소시지</b>				
질문	고기를 잘게 갈아 양념을 해서 창자 등에 채운 서양 음식을 뭐라고 합니까? (햄과 맛이 비슷한데 김밥에도 들어갑니다.)				
유의사항	조사 후 '소시지'의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소시지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50 어13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외래어 - 인구어계					
<b>텔레비전</b>					
질문	라디오 말고 드라마, 노래 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유의사항	조사 후 '텔레비전'의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텔레비전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51 어14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외래어 - 일본어계 <b>단무지/다꾸앙</b>				
질문	짜장면 먹을 때 함께 나오는, 무를 절여서 만든 음식을 뭐라 합니까?				
유의사항	'단무지/다꾸앙(다깡)' 중 선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단무지/다꾸앙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52 어15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호칭 - 父 <b>아빠/아버지</b>				
질문	부모님 중 남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의사항	호칭 조사 후 '아빠/아버지'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아빠/아버지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아요?				
Memo					
유의사항					

053 어16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호칭 - 母 <b>엄마/어머니</b>				
질문	부모님 중 여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의사항	호칭 조사 후 '엄마/어머니'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엄마/어머니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아요?				
Memo					
유의사항					
054 어17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호칭 - 손위 남자 <b>형/오빠</b>				
질문	친족이 아니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유의사항	호칭 조사 후 선택되지 않은 것(형/오빠/선배)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형/오빠/선배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55 어18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호칭 - 부부 간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b>여보</b>					
<b>질문</b>	부부 간에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b>유의사항</b>	호칭 조사 후, '여보'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b>전사</b>					
	Memo				
<b>여보</b>			그렇다	아니다	
<b>인지</b>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b>사용</b>	이 말, 쓰십니까?				
	Memo				
<b>수용</b>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b>유의사항</b>					
056 어19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호칭 - 부부 간 남편이 부인을 부를 때					
<b>여보</b>					
<b>질문</b>	부부 간에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b>유의사항</b>	호칭 조사 후, '여보'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b>전사</b>					
	Memo				
<b>여보</b>			그렇다	아니다	
<b>인지</b>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b>사용</b>	이 말, 쓰십니까?				
	Memo				
<b>수용</b>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b>유의사항</b>					

057 어20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지칭 - 부인이 남편을 지칭할 때					
<b>아비/아범</b>					
<b>질문</b>	시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b>유의사항</b>	호칭 조사 후, '아비(애비)/아범'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b>전사</b>					
	Memo				
<b>아비(애비)/아범</b>			그렇다	아니다	
<b>인지</b>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b>사용</b>	이 말, 쓰십니까?				
	Memo				
<b>수용</b>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b>유의사항</b>					
058 어2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지칭 - 남편이 부인을 지칭할 때					
<b>집사람</b>					
<b>질문</b>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자신의 부인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b>유의사항</b>	호칭 조사 후, '집사람(집식구)/부인'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b>전사</b>					
	Memo				
<b>집사람(집식구)/부인</b>			그렇다	아니다	
<b>인지</b>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b>사용</b>	이 말, 쓰십니까?				
	Memo				
<b>수용</b>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b>유의사항</b>					

059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어22	호칭 - 잘 모르는 남자				
질문	사장님				
	차량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피해자(남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cf. 남자는 동년배나 그 이상				
유의사항	호칭 조사 후 '사장님'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사장님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60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어23	호칭 - 음식점의 여종업원				
질문	언니				
	음식점(또는 옷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유의사항	호칭 조사 후 '언니'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언니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6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어24	속담 - 소멸과 변용				
질문	가는 날이 장날				
	-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인가요? - 대형마트(또는 시장)에 갔는데 마침 50%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는 날이 장날이지"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유의사항	'가는 날이 장날'의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가는 날이 장날(수용: 좋은 일)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대형마트 행사와 같은 좋은 일에도 쓰는지.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대형마트 행사와 같은 좋은 일에 써도 되는지.				
유의사항					
062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어25	속담 - 소멸과 변용				
질문	약방에 감초				
	- '약방에 감초'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인지요? - 마을 이장님은 꼭 필요한 분인데 모든 일에 관여하니까, 이장님을 가리켜 "약방에 감초야"라고 말할 수 있나요?				
유의사항	'약방의/으/에/이'에 유의. 속담 조사 후 '약방에 감초'의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약방에 감초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위 이장님의 경우에도 쓰는지.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위 이장님의 경우에 써도 되는지.				
유의사항					

063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문01	보충법 - 비문법적				
	달라고/주라고				
질문	이 물건 내가 갖고 싶다고 할 때 나한테 좀 뭐 하라고 합니까?				
유의사항	'달라고'와 '주라고'의 선택 여부 조사 후 선택하지 않은 것의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달라고/주라고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64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문02	부정문 - 부정부사의 위치				
	안 공부하다/공부 안 하다				
질문	'공부 안 한다'와 '안 공부한다' 중 어느 쪽을 씁니까?				
유의사항	선택 여부 조사 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안 공부하다/공부 안 하다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65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문03	부정문 - 형용사의 부정, 확인 의문				
	안 같아요?/같잖아요?/달라요?				
질문	- 이 그림과 저 그림은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상대방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두 그림이) 같은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찌 물어보시나요? 이 그림과 저 그림이 -----? - 대답이 안 나오면: "이 그림과 저 그림이 안 같아요?/같잖아요?/달라요? 중 선택하기.				
유의사항	- 선택된 단어는 다시 말하게 함으로써 억양도 확인한다. - 선택 여부 조사 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 다른 단어(제주도는 '땀다')로 대치 여부 확인				
전사					
Memo					
안 같아요?/같잖아요?/달라요?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66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문04	수관형사 - 소멸				
	석 장/세 장				
질문	종이 한 장, 두 장, 그 다음엔 뭘니까?				
유의사항	'석'과 '세'의 선택 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여부 조사.				
전사					
Memo					
석 장/세 장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67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문05	어미 - 과도한 높임				
	<b>삼천 원이세요</b>				
질문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건 값을 물어봤을 때 값이 삼천 원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의사항	대답 확인 후 '삼천 원이세요'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삼천 원이세요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68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문06-1	어미 - 상대높임법				
	<b>격식체/비격식체 1</b>				
질문	“안녕하세요/하셔요?”라고 하나요?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나요?				
유의사항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사용 여부 확인 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안녕하세요/안녕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69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문06-2	어미 - 상대높임법				
	<b>격식체/비격식체 2</b>				
질문	상점에서 “이거 주세요/주셔요”라고 하나요?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나요?				
유의사항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사용 여부 확인 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주세요/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70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문06-3	어미 - 상대높임법				
	<b>격식체/비격식체 3</b>				
질문	- 친구(분)에게는 “이거 해”라고 하나요, “이거 해라”라고 하나요? (“이거 하게”라고 하나요?) - “이거 하게”는 어떤 사람에게 쓰는 말인가요?				
유의사항	-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사용 여부 확인 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 ‘하게’체는 어떤 사람에게 쓰는지 친족 관계, 나이 등 확인.				
전사					
Memo					
해/해라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71 문07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어미 - 의문형 어미				
	<b>어디 가니?</b>				
	질문				
	손아랫사람이 길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가는 곳이 궁금하면 뭐라고 묻습니까?				
유의사항	- 어미 ‘-니/나/냐’ 등 확인, ‘가니/가냐’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 ‘가니’가 다른 형태보다 더 고상한 말인지 조사.				
전사					
	Memo				
	가니/가나/가냐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72 담0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감사 표현				
	<b>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해요/고마워요</b>				
	질문				
	-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줬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 ‘고마워요’란 말은 몇 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윗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까?				
유의사항	- ‘감사-/고맙-’에 유의하고 합쇼체와 해요체에 유의. - 나이 차이 기록 후 ‘고마워요’의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고마워요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73 담02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b>‘감사합니다’에 대한 응답</b>				
	질문				
	누군가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유의사항	다양한 응답 기록, ‘천만에요(외국어 영향)’에 대한 인지 사용 여부 조사.				
전사					
	Memo				
	천만에요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74 담03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미안 표현에 대한 응답				
	<b>‘미안합니다’에 대한 응답</b>				
	질문				
	누군가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유의사항	다양한 응답 기록.				
전사					
	Memo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75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담04	감탄사				
	<b>와/야</b>				
질문	아주 멋진 장면을 봤을 때 어떤 감탄사를 씁니까?				
유의사항	'와/야'의 선택 여부 조사 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와/야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76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담05	거절 표현				
	<b>부탁에 대한 거절 표현</b>				
질문	"이것 좀 해 주세요"라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유의사항	다양한 응답 기록.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77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담06	비확정적 표현				
	<b>~것 같아요</b>				
질문	-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사람의 외모가 어때요?"라고 물어 본다.(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유의사항	표현 조사 후 '~것 같아요'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것 같아요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78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담07	칭찬에 대한 응답				
	<b>'마음씨가 참 좋습니다'에 대한 응답</b>				
질문	누군가가 "마음씨가 참 좋습니다"라고 말했다를 경우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유의사항	다양한 응답 기록.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79 인01	일상생활에서 표준어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의사항	
	□ 그렇다 □ 아니다	
Memo		
080 인02	방언과 표준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유의사항	cf. 어떤 상황일 때 방언을 더 많이 쓰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Memo		
081 인03	제보자(선생님)께서 쓰시는 방언을 좋아하십니까?	
	유의사항	
	□ 그렇다 □ 아니다	
Memo		
082 인04	표준어를 좋아하십니까?	
	유의사항	
	□ 그렇다 □ 아니다	
Memo		

083 음0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체계 - 단모음 '외'				
	외				
질문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은 뭐가 많다고 하죠?				
유의사항	'외'의 '단모음/이중모음' 발음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84 음02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체계 - 단모음 '위'				
	귀				
질문	'귀'를 가리키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유의사항	'귀'의 '단모음/이중모음' 발음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85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03-1	음운체계 - 'ㄱ/ㄷ'				
질문	살				
	밥을 많이 먹으면 이게 많이 찢다고 하죠?				
유의사항	- 'ㄱ/ㄷ'의 구별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 제주에서는 '술'임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86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03-2	음운체계 - 'ㄱ/ㄷ'				
질문	쌀				
	밥은 무엇으로 짓죠?				
유의사항	- 'ㄱ/ㄷ'의 구별에 유의하여 정밀전사. - 경상도 지역에서는 '살'과 구별되는지 조사. - 제주에서는 '쌀'임에 유의.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87 음04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청산리					
질문	김좌진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둔 전투가 무슨 전투죠? (시조 중에 '뽕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라고 시작하는 시조가 있지요?)				
유의사항	- '청산리'를 모를 경우 써서 읽게 할 수도 있음. - '청산리/청살리/청산니'에 유의해서 조사.				
전사					
Memo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88 음05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운현상 - 마찰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목젓이					
질문	(목젓을 가리키며) 목구멍 쪽에 '튀어나와 있는 살'을 뭐라고 하지요?				
유의사항	'목저지/목저시'의 실현에 유의.				
전사					
Memo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89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음06	초분절음소-성조				
질문	말(ㄷ)이				
	'되'보다 큰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죠?(가마니[섬]보다 작은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죠?)				
유의사항	- 고조는 음절 뒤에 ´, 상승조는 음절 뒤에 ~ 표시. - 경상도 지방과 영동 지방을 위한 확대항목이니 '말馬+이'와 구분되지만 조사.				
전사					
	Memo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90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어01	신어 - 두자어				
질문	지못미				
	새로 생긴 말로서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를 줄여서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의사항	'지못미'의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지못미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091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문01	활용 - 유음 어간의 활용				
	길면				
질문	머리카락이 뭐하면 짧게 깎으라고 하지요?				
유의사항	- '기르면'의 실현에 유의. - k 구개음화 실현/장음 실현에도 유의.				
전사					
	Memo				
길면/길으면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비선택지가 '길면'이면 '수용'은 조사하지 말 것				
092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기타 :
문02	어미 - 과도한 높임				
	들어가실게요				
질문	누군가를 어디로 안내하면서 들어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유의사항	대답 확인 후 '들어가실게요'에 대한 인지, 사용, 수용 조사.				
전사					
	Memo				
들어가실게요.		그렇다	아니다		
인지	이 말, 알고 계십니까?				
	Memo				
사용	이 말, 쓰십니까?				
	Memo				
수용	이 말, 써도 괜찮습니까?				
	Memo				
유의사항					

책임 연구원	정승철(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공동 연구원	양민호(성결대 일어일문학과)
공동 연구원	임석규(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공동 연구원	조태린(대구대 국제한국어교육과)
공동 연구원	한성우(인하대 한국어문학과)
연구 보조원	김수영(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김경혜(인하대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맹혜선(인하대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김동은(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보조원	임홍연(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김고은(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담당 연구원	홍서현 (국립국어원 연구원)

##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발행인	민 현 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14년 12월 22일
발행일	2014년 12월 22일
인 쇄	서울문화사(전화: 02-883-7171)